

# 빵의쟁취

표트르알렉세예비치크로포트킨

# 차례

머리말 . . . . .	3
서문 . . . . .	6
01. 우리가 가진 부富 . . . . .	10
02. 모두가 행복한 삶을 살 권리 . . . . .	16
03. 아나키즘적 코뮌주의 . . . . .	21
04. 사유재산 수용 . . . . .	28
05. 음식 . . . . .	35
06. 주택 . . . . .	47
07. 의복 . . . . .	52
08. 방법과 수단 . . . . .	54
09. 사치스러운 취미에 대한 욕구 . . . . .	58
10. 유쾌한 노동 . . . . .	66
11. 자유로운 협약 . . . . .	71
12. 반론들에 대해 . . . . .	79
13. 집산주의 적 임금 제도 . . . . .	88
14. 소비와 생산 . . . . .	97
15. 분업 . . . . .	101
16. 산업의 분산 . . . . .	103
17. 농업 . . . . .	109

## 머리말

표트르알렉세예비치크로포트킨은나에게책의첫머리에몇마디말을써달라고부탁하였다. 나는그의바람에응하기는하지만, 상당한거북함을느낀다. 그가이저작에서내세우는일련의주장에아무것도덧붙일수없기때문에, 나는그의말이지닌힘을약하게할까봐걱정이된다. 그러나우정이나를용서할것이다. 프랑스의“공화주의자들”에게는가장倜위있는행위가차르의발밑에엎드리는것이지만, 나는그가몽둥이로때리고성채의지하감옥에가두거나어두컴컴한뜰에서교수형에처하는자유인들과가까이지내고싶다. 이친구들때문에나는잠시배신자들의비열한짓을잊는다. 이배신자들은젊었을때목이쉬도록자유를외쳤지만, 지금은“라마르세예즈”[프랑스의국가]와“하느님, 황제 [차르]를지켜주소서”[제정러시아의국가] 두노래를결합시키려고애쓰고있다.

크로포트킨의최근저작『반역자의말 Paroles d'un révolté』은특히잔인한동시에타락한부르주아사회를격렬하게비판하면서, 국가와자본주의체제에대한혁명을호소하였다. 『반역자의말』 다음에나온이책은좀더평화로운모습을하고있다. 이책은사회변화에진심으로협력하고싶은선의를지닌사람들에게호소하면서, 그들에게임박한역사의단계들을주요특징에따라서설명하고있다.

책의제목『빵의쟁취』는아주넓은의미로받아들여야한다. 왜냐하면“인간은빵만으로살지않기때문이다.”관대한사람들과용감한사람들이그들의이상理想인사회정의를생생한현실로변화시키려고애쓴시대에는, 우리의열망이포도주나소금과함께빵을쟁취하는것으로만족되지않는다. 생활의안락에필요하거나심지어는유용한모든것도쟁취해야한다. 우리는모두에게욕구와즐거움의완전한만족을보장해줄수있어야한다. 우리가이첫번째“쟁취”를못하는한, 즉“가난한사람들이우리와함께있는”한원형경기장에갇혀있는잔인한짐승들처럼서로미워하고서로파괴하는이인간집단에게“사회”라는이름을주는것은씁쓸한농담이다.

이책의첫장장부터저자는인류가이미소유한막대한재산과공동노동으로획득한놀라운기계설비를열거한다. 매년얻는생산물은모든사람에게빵을제공하기에아주충분할것이다. 만일도시, 집, 경작가능한들, 공장, 수송도로, 학교등의엄청난자본이사유재산으로소유되지않고공동재산이된다면, 행복한삶은쉽게쟁취할수있을것이다. 그리고우리가자유롭게처분할수있는힘은쓸모없는노동이나모순된노동에쓰이지않고, 양식, 주거, 의복, 안락함, 과학연구, 예술연마를위해인간에게필요한모든것을생산하는데쓰일것이다.

그렇지만인간소유물의회수, 한마디로말해서수용은아나키즘적코뮌주의로만이루어질수있다. 정부를쓰러뜨려야하고, 정부가만든법률을비난해야하며, 정부의훈계를거부해야하고, 그대리인들을무시해야한다. 그리고자발적으로행동하면서자신의친화력, 이해관계, 이상, 착수한일의성질에따라결속해야한다. 책에서가장중요한이수용문제는또한저자가아주자세하면서도간결하게폭언없이다룬문제중의하나이기도하다. 하지만그는이문제도이제는불가피한다음혁명에대한연구가요구하는냉정함과비전의명료함을갖고다루었다. 이렇게국가를뒤엎어버리면해방된노동자집단은더이상독점자들과기생충같은존재들을위해힘들게일할필요가없기때문에, 자유롭게선택한직업에헌신하며토지경작이나산업생산을과학적으로수행할수있을것이다. 그리고이토지경작이나산업생산은연구나즐거움에주어진휴식과섞여있다. 이책에서농업노동을다루는부분은큰재미를준다. 왜냐하면그부분은실제의경험으로이미검증된사실들을말하기때문이다. 그것들은모두를위해어디에서나대규모로적용하기쉬운사실들로소수의치부致富만을위한것이아니다.

빈정거리는사람들은세련된젊은이들의악덕과결점을비웃기위해“세기말 Fin de siècle”을말한다. 그러나지금문제되는것은한세기의말과는다른것이다. 우리는한시대, 즉역사의한시기의끝에도달하였다. 우리는오래된문명전체가끝나는것을보고있다. 무력을사용할수있는정부당국의권리와전횡, 유대인의몰인정한전통, 로마인의엄격한법해석이더이상우리를압도하지못한다. 우리는새로운믿음을공언한다. 이믿음은동시에과학이기도한데, 이믿음이진리를추구하는모든이의것이되면, 그것은실현의세계에서구체화될것이다. 왜냐하면역사의법칙중첫번째것은사회가그이상에따라만들어진다는것이기때문이다. 낡아빠진질서의옹호자들은그질서를어떻게유지할수있는가? 그들은더이상믿지않는다. 더이상안내자도깃발도없기때문에, 그들은되는대로싸운다. 개혁가들에맞서서그들은법과총, 몽둥이를든경찰, 대포부대를갖고있다. 그러나이모든것은어떤하나의사상과병행할수없다. 그러므로선의와억압의구체체전체가일종의전前역사에서곧사라질운명에있다.

물론, 임박한 혁명은 - 인류의 발전에서 아무리 중요하더라도 - 갑작스런 비약을 행한다는 점에서 이전 혁명들과 거의 다르지 않을 것이다. 자연은 결코 비약하지 않는다. 그렇지만 수많은 현상에 의해서, 수많은 깊은 변화에 의해서 아나키즘 사회가 이미 오래 전부터 발전해 왔다고 말할 수 있다. 자유로운 사상이 교리의 문자에서 벗어나는 곳에서는 어디서나, 연구자의 재능이 오래된 공식을 무시하는 곳에서는 어디서나, 인간의 의지가 독립된 행위로 표출되는 곳에서는 어디서나, 강제된 모든 규율에 반항하는 진지한 인간들이 흔쾌히 결합해서 서로 가르쳐주면서 지배자 없이 함께 생활하며 욕구를 완전히 만족시키는 곳에서는 어디서나, 아나키즘 사회가 나타난다. 이모든 것이 아나키이다. 그것이 알려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말이다. 그것은 점점 더 인정받고 있다. 그것이 어떻게 승리하지 못하겠는가? 왜냐하면 그것은 이상理想이 있으며 또 그의지의 대담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에 그 반대자들 무리는 이제 믿음이 없으며, 운명에 자신을 맡기고는 “세기 말! 세기 말!”이라고 외치고 있다.

따라서 예고된 혁명이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우리의 친구 크로포트킨은 역사학자 자격으로 처신하면서 이미 혁명을 마주대하고 있다. 그는 모두의 노동에 의한 집단 재산의 소유권 회수에 대해 자신의 생각을 설명하면서, 소심한 사람들에게 호소한다. 이들은 불의가 널리 퍼져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회에 대해 공개적인 반란을 일으킬 생각은 감히 못하고 있다. 수많은 이해 관계와 전통 때문에 그들은 사회에의 존하기 때문이다. 그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법은 불공정하고 기만적이며, 행정 관들은 강자의 아첨꾼이자 역자이며 억압자이다. 올바르게 생활하고 성실하게 노동해도 언제나 빽한 조각을 확실하게 얻지 못 한다. 투기꾼의 파렴치한 짓이나 전당포의 악착스러운 냉혹함이 “빽의 쟁취”와 행복한 삶을 얻는데에는 모든 미덕 보다 더 훌륭한 무기이다. 그러나 자신들의 생각, 소원, 계획을 식견 있는 정의감에 따라 정하는 대신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솔직한 태도의 위험을 피하기 위해 어느 옆골목으로 달아난다. 신종교인 같은 이 사람들은 더 이상 아버지들의 “불합리한 믿음”을 공언하지 않는다. 그들은 명백한 교리는 없지만 꽤 독창적인 어떤 비법 전수에 몰두하며 혼란된 감정의 안개 속에서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 그들은 강신술사, 장미십자회<sup>\*1</sup>의 회원, 불교도나 마술사가 될 것이다. 소위 석가 모니의 제자들, 그러나 그들의 스승의 교리를 힘들여 연구하지 않는 우울한 신사들과 숙녀들은 해탈이라는 무화無化 속에서 평화를 찾는 체한다.

그러나 이 “아름다운 영혼들”은 끊임 없이 이상理想을 말하기 때문에, 안심한다. 우리는 물질적 존재이므로 사실식량을 생각하는 약점이 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식량이 자주 부족했기 때문이다. 식량이 지금은 차르의 백성인 수많은 노예 형제들에게 부족하며, 그밖의 많은 사람들에게는 아직도 부족하다. 그러나 빽을 넘어서, 즉 밭의 이용이 우리에게 제공할 수 있는 행복한 삶과 모든 집단 재화를 넘어서, 우리는 완전히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새로운 세계가 멀리서 우리 앞에 나타나는 것을 본다. 이 새로운 세계에서 물질 생활을 무시하고 순전히 아름다움만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이 이상에 대한 고귀한 열정을 만족시킬 수 있다! 그들은 그러한 열정을 그들의 영혼의 해소되지 않는 갈증이라고 말한다. 더 이상 부자도 가난한 사람도 없을 때, 그리고 굶주린 사람이 배불리 먹는 사람을 더 이상 부러운 눈으로 쳐다 볼 필요가 없을 때, 자연스러운 우정이 사람들 사이에서 다시 생겨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유대감 (오늘날에는 꺼져버렸지만)이라는 종교가 하늘의 수증기에 사라져 버리는 그림을 그리는 이 어렴풋한 종교를 대신 할 것이다.

혁명은 그것이 약속한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이룰 것이다. 혁명은 생명의 원천을 쇄신해서 우리를 모든 경찰력의 불순한 접촉으로부터 벗어나게 할 뿐만 아니라, 마침내는 우리의 존재를 고달프게 하는 저돈에 대한 비루한 관심으로부터도 벗어나게 한다. 그때 각자는 자신의 길을 자유롭게 갈 수 있을 것이다. 노동자는 자기에게 맞는 일을 수행할 것이다. 연구자는 딴 생각 없이 연구할 것이다. 예술가는 더 이상 밥벌이를 위해 아름다움에 대한 자신의 이상을 더럽히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모두가 친구이기 때문에, 시인들이 어렴풋이 본위대한 것들을 일치 협력해서 실현할 수 있을 것이다.

그 때는 아마도 추방이나 투옥을 당하면서도 혼신적으로 선전하며 새로운 사회를 준비한 자들의 이름을 때때로 상기할 것이다. 우리는 『빽의 쟁취』를 출판하면서 그들을 생각한다. 그들은 감옥의 창살을 통해서 또는 외국 땅에서 이 공통된 사상의 증언을 받으면 의지가 좀 더 강해지는 것을 느낄 것이다. 만일 내가 이 책을 신조 때문에고 통받는 모든 이에게, 특히 평생 동안 정의를 위해 싸운 매우 소중한 친구에게 바쳐도 저자는 나의 생각에 동의할 것이다. 나는 그의 이름을 말할 필요가 전혀 없다. 한 형제의 말을 읽으면, 그가 누구인지는 그의 심장의 고동으로 알 수 있을 것이다.

엘리제르 클뤼 Élisée Reclus<sup>\*2</sup>

<sup>1</sup> 17 세기 초독일에서 생긴 신비주의 경향의 비밀결사.

<sup>2</sup> 프랑스의 지리학자이자 아나키스트 (1830-1905).



## 서문

코뮌주의<sup>3</sup>와 사회주의에 대해 널리 통용되는 반론 중 하나는 그 이상이 너무 나오래되었는데도 한 번도 실현된 적이 없다는 것이다. 이상 국가에 대한 계획은 고대 그리스 사상가들의 머릿 속을 떠나지 않았다. 그 이후에는 초기 기독교인들이 코뮤니스트<sup>4</sup> 조직들을 결성했고, 수세기 지난 뒤 일어난 종교 개혁 운동 기간 중에는 대규모의 코뮤니스트 수도회들과 단체들이 출현했다. 그 뒤 영국과 프랑스에서 있었던 혼란의 시기에도 똑같은 이상들이 다시 되살아났다. 마침내 1848년 프랑스에서는 사회주의자들의 이상으로부터 크게 영감을 받은 혁명이 일어났다. 그런데도 우리는 이런 말을 듣고는 한다.

“그럼에도 알다시피, 당신들의 계획이 현실에서 실현된다는 것은 여전히 가능성이 너무나 낮은 이야기 같다. 인간의 본성과 욕구에 대한 당신들의 이해에 뭔가 근본적인 오류가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가?”

얼핏 보면 이런 반론은 아주 그럴듯하게 보인다. 그러나 인간의 역사를 보다 주의 깊게 고찰하는 순간이 반론은 힘을 잃는다. 역사를 통해 우리는 알고 있다. 첫째, 수천만의 사람들이 수백년 동안 자신들의 마을 공동체 안에서 잘 살아가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이런 공동체들에는 사회주의를 이루는 주된 요소 중 하나가 포함되어 있는데, 바로 주요 생산 수단인 토지의 공동 소유, 그리고 여러 가구들 간의 노동 능력에 따른 분배가 그것이다.

만일 토지의 공공 소유가 서유럽에서 파괴되고 있다면 그 이유는 내부에서 가 아니라 외부의 영향 때문이다. 즉, 정부가 귀족들과 중산층의 이익을 대변하면서 토지 독점 제도를 만들어 냈기 때문이다. 게다가 우리는 역사를 통해 다음 사실도 배우게 된다. 중세 도시들은 수세기 동안 자기들 사이에서 생산과 교역을 담당하는 특정 사회 조직들을 성공적으로 유지해왔다. 이 기간은 지적, 산업적, 예술적으로 엄청난 진보가 이루어지던 시기였다. 이러한 공동체적 조직들의 쇠퇴가 일어난 것은, 촌락과 도시, 농민과 도시민을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맡은 사람들의 무능력에서 주로 기인한 것으로, 두 힘이 서로 연대해서 자유 도시들을 파괴하는 군사 국가들의 성장을 함께 막아내야 했음에도 그렇게 하지 못 했기 때문이다.

그러니 이렇게 살펴본 인간의 역사는 코뮌주의에 반대 할 만한 논지를 제공하지 않는다. 반대로, 어떤 종류의 코뮤니스트 조직을 실현하려는 끊임 없는 노력들이 있었고, 그 노력들은 이곳 저곳에서 일정 기간 동안 부분적인 성공을 거두는 영광을 누리기도 했음이 드러난다. 그러므로 우리로서는 이런 결론에 이르는 것이 정당하다. 우리 인간은 코뮌주의적인 원리들에 입각해서 농업과 갑자기 발전한 산업, 그리고 급속하게 성장 중인 국제 교역이라는 세 요소를 연결시켜 줄 적절한 형식을 아직은 발견하지 못한 것이다. 국제 교역이라는 문제는 특히 골치 아픈 요

<sup>3</sup> Communism : 보통은 ‘공산주의’ 혹은 ‘코뮌니즘’이라고 번역 하지만 여기서는 사유재산과 불평등한 임금 체계가 없는, 서로 협동하는 자치 공동체 ‘아나코코뮌’을 주장한 크로포트킨의 사상에 따라 주로 ‘코뮌주의’로 번역하기로 한다. ‘공동체주의’라고도 한다.

<sup>4</sup> 일종의 공동체를 뜻하는 ‘코뮤니스트’이다.

인처럼 보인다. 왜냐하면 이교역은 이제 더 이상 개개인들이나 도시들이 원거리 무역과 수출로 부를 쌓는 문제가 아니고, 한 나라의 전체 국민이 산업 발전에 뒤떨어진 나라의 국민을 희생시키면서 부를 쌓는 문제가 되었기 때문이다. 18 세기 말에 나타나기 시작했던이런 상황들은, 19 세기에 들어와 나폴레옹 전쟁<sup>5</sup>이 모두 끝난 후에야 비로소 충분한 발전을 이루게 되었다. 현대 코뮌주의는 이 상황들을 염두에 두어야 만한다.

프랑스 대혁명은 그 정치적인 중요 성과는 별개로 프랑스 민중이 시도한 혁명으로 알려져 있다. 이 시도는 1793년과 1794년에 사회주의와 상당히 유사한 세 가지 특이한 행동 방침을 갖고 있었다. 첫째 시도는, 재화의 균등한 분배에 관한 것으로 소득 세와 상속 세를 부가하는 수단을 통해서 였는데 두 가지 모두 무거운 누진 세를 적용 시킨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재분배를 위한 토지의 완전 몰수, 부자들에게 만무 겁게 과세되는 전쟁 세금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재화의 균등한 분배를 이루고자 했다. 두 번째 시도는, 몇몇 일차적인 필수 품의 소비와 관련해서 일종의 자치도시 코뮌주의 (Municipal Communism)를 시도한 점이다. 즉, 자치 도시들이 일차 필수 품들을 사람들에게 판매한다는 시도였다. 세 번째 시도는, 모든 상품에 합리적인 가격을 매기는 전국적인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으로 합리적인 가격 책정을 위해서는 생산 품의 실제 생산 비용과 적절한 거래 이익을 모두 고려해야만 했다. 프랑스는 국민 공회 (the Convention)<sup>6</sup>

는 이 계획을 위해서 열심히 일했고, 반동이 우세해 질 무렵에는 거의 그 작업을 완수해내고 있었다.

아직 까지 단한 번도 적절한 연구가 이루어진 적이 없지만, 아주 목할 만한 운동들이 일어나는 시기에 현대 사회주의가 탄생하게 되었다. 리옹에서 일어난 랭제 (L'Ange)의 푸리에 주의<sup>7</sup> 와 보오나로티<sup>8</sup> 와 바뵈프<sup>9</sup>의 권위주의적 공산주의와 그 동지들의 활동이 그것이다. 프랑스 대혁명 직후에는 세 명의 현대 사회이론의 중요한 창시자들이 등장하게 되었다. 바로 푸리에<sup>10</sup>, 생시몽<sup>11</sup>, 로버트 오언<sup>12</sup>이 그들이다. 뿐만 아니라 국가 없는 사회주의를 주장한 고드윈<sup>13</sup>도 등장했다. 반면 보오나로티와 바뵈프가 주도한 단체들로부터 기원한 비밀스런 코뮤니스트 단체들은, 그 이후 50 여년 동안 투쟁하고 권위주의적인 공산주의 운동에 자신들의 흔적을 남겼다.

그러므로 정확하게 보자면 현대 사회주의는 그 역사가 아직은 100년도 채 안 된 것이라고 말해야 한다. 그리고 그 100년의 처음 절반의 기간 동안은, 산업 혁명의 선두에 있었던 영국과 프랑스라는 두 나라만이 현대 사회주의의 이론을 고심해서 만드는 일에 참여하고 있었다. 당시 이 두나라는 15년에 걸친 유혈 가득한 나폴레옹 전쟁 때문에 끔찍한 피해를 입은 상태였고, 두나라 모두 동유럽에서 밀려오고 있는 거대한 반동 세력으로 둘러싸인 상태였다.

사실 1848년 혁명이 전의 몇 년 동안 사회주의에 관한 논의가 가능했던 시기는 오직 프랑스에서 1830년 7월에 일어났던 혁명<sup>14</sup>, 1830년~1832년에 일어난 개혁 운동 이후 일 뿐이다. 그 시기에 비로소 끔찍한 반동 상태를 겪우 떨쳐 버리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기간 동안에 푸리에, 생시몽, 로버트 오언의 염원들이 그들의 지지자들에 의해 연구가 되었고, 명확한 형태를 갖추게 되었다. 그리고 오늘날까지 존재하는 다양한 사회주의 학파들이 자신 의 특성을 뚜렷이 정하게 되었다.

영국에서는 로버트 오언과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농업과 공업이 함께 하는 코뮤니스트 (공동체) 마을들에 대한 계획을 추진해 나갔다. 각자의 배당 금을 투자해서 좀 더 코뮤니스트적인 부락들을 만들기 위해 규모가 큰 협동 조합 연합체들이 출범되었다. 그리고 '노동 조합 총연합 (the Great Consolidated Trades' Union)'도 설립되었는데, 이것이 바로 우리 시대의 노동당들과 '국제 노동자 연합 (the International Working-men's Association)'<sup>15</sup>의 전신이다.

<sup>5</sup> 대혁명 이후에 프랑스가 1803~1815년 동안 여러 유럽 열강의 동맹에 대항해 벌인 전쟁으로 장군이던 나폴레옹이 주로 이끌었다. 이 전쟁으로 프랑스는 유럽 대부분 지역에서 일시적인 주도권을 확립했다.

<sup>6</sup> 1792년 프랑스 대혁명 당시 구성된 회로, 왕정을 폐지하고 공화정을 선포했다.

<sup>7</sup> 프랑스 사회주의자 푸리에가 주장한 협동 조합 형식의 공동체.

<sup>8</sup> 프랑스에서 활동한 이탈리아의 급진적 사회주의자이자 선동가 (Philippe Buonarroti, 1661-1733).

<sup>9</sup> 프랑스 혁명 당시의 급진적 혁명가이자 저널리스트 (François-Noël Babeuf, 1760-1797).

<sup>10</sup> 프랑스 의사회사이론가 (Charles Fourier, 1772-1837)로, 생산자 협동 조합인 팔랑주 Phalange라는 자급적이고 공동체적인 사회 전환을 주장했다.

<sup>11</sup> 프랑스 의사회사상가 (Claude Saint-Simon, 1760-1825). 기독교 사회주의의 바탕을 마련했으며, 형제애가 산업과 사회의 과학적 조작화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 일종의 국가 사회주의를 주장했다.

<sup>12</sup> 영국 의사회사의 사상가이자 기업가 (Robert Owen, 1771-1858). 19세기 초반에 가장 영향력 있는 사회 개혁가로, 사회 보장제도와 복지 시설이 잘 갖추어진 공장을 운영. 계획 공동체 사회를 구상함.

<sup>13</sup> 영국 의사회사 철학자이자 정치 평론가 (William Godwin, 1756-1836). 국가 대신 소규모 자급 공동체를 주장하는 아나키즘 사상과 개인의 자유를 제기하는 글들을 썼다. 영국의 낭만주의 문예 운동을 개척함.

<sup>14</sup> 1830년 7월에 프랑스에서 일어난 혁명. 당시 극단적인 반동 정치를 펼치고 있었던 프랑스 국왕 샤를 10세가 발표한 소위 '7월 칙령'에 대한 시민의 반발로 무력봉기가 일어나게 되었다. 이 혁명으로 '시민왕' 루이-필리프 1세가 왕위에 올랐다.

<sup>15</sup> 1864년 런던에서 설립된 세계 최초의 국제적 노동자 조직으로 마르크스 등이 주도했다. First International이라고도 함.

프랑스에서는 푸리에주의자들이 푸리에의 주목 할만한 선언문을 출판했다. 이 선언문에는 자본주의의 성장에 관련된 갖가지 이론적인 고찰들이 더할나위 없이 훌륭하게 설명되어 있다. 이 생각은 오늘날 ‘과학적 사회주의’(Scientific Socialism)<sup>16</sup>로 평해지고 있다. 프루동<sup>17</sup>은 국가의 간섭이 없는 아나키즘과 상호부조라는 자신의 사상을 완성했다. 루이블랑<sup>18</sup>은 『노동의 조직 Organization of Labour』이라는 책을 출판했는데, 이 책은 나중에 라살<sup>19</sup>의 실천 프로그램이 되었다. 프랑스의 비달 (Vi-dal), 그리고 보다 발전한 형태로 독일의 로렌츠 슈타인<sup>20</sup>은 각자 자기나라에서 주목 할만한 작업을 진행하면서, 1846년과 1847년에 푸리에주의의 이론적인 개념을 따로 따로 출간했다. 그리고 마침내 비달과 특히 베르크<sup>21</sup>는 집산주의 (Collectivism)<sup>22</sup> 체제를 상세하게 발전시켜나갔다. 비달은 1848년의 국민 회의 가투표를 통해 집산주의에 법적인 외형을 부여해주기를 원했다.

그러나 이 시기의 모든 사회주의자의 계획에는 한 가지 공통적인 특색이 있었는데, 이 점은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한다. 19세기가 밝아 올무렵에 글을 썼던 세 명의 중요한 사회주의 창시자는 자기들 앞에 펼쳐진 광대한 지평선에 너무나 황홀해했다. 그 바람에 그들은 자기들의 사상을 새로운 계시로 보았고, 스스로를 새로운 종교의 창시자로 여기게 되었다. 사회주의는 종교가되어야 했고, 그들은 새로운 교회의 우두머리로서 그 발전 과정을 질서정연하게 조정해야 했다. 게다가 그들은 프랑스 대혁명에 뒤따른 반동의 시기 동안에 책을 썼던 사람들이었다. 그래서 그들은 혁명이 성취해낸 것들보다는 실패를 더 많이 보게 되면서 대중을 믿지 않게 되었다. 그리하여 자기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한 변화들을 이루기 위해 대중에게 호소하는 방식을 취하지 않았다.

그와는 반대로 그들은 그럴듯해 보이는 위대한 통치자, 웬지 사회주의자처럼 보이는 나폴레옹이라는 존재에게 자신들의 신념을 피력했다. 나폴레옹이라면 이 새로운 계시를 이해할 수도 있지 않겠는가. 그러면 사회주의적 공동 생활체 (팔랑스테르)<sup>23</sup>들이나 조합들의 성공적인 실험을 보며 그것이 얼마나 바람직한 것인지를 믿어주지 않겠는가. 그러면 자신이 가진 권위로 인류에게 좋은 삶과 행복을 가져다 줄 혁명을 평화롭게 이루어내지 않겠는가 말이다. 천재적인 군대 통솔가인 나폴레옹은 당시 막 유럽을 지배하고 있었다. 왜 안 된단 말인가? 사회 조직의 천재성이 발현되어, 전유럽을 이끌면서 이 새로운 복음을 삶 속에 구현시키지 말란 법이 없지 않은가? 이런 신념은 너무나 깊은 뿌리를 갖고 있어서, 오랫동안 사회주의의 길 위에 자리를 잡고 있었다. 그자취들은 심지어 오늘 날까지 이어져 내려와서, 우리 사이에서도 찾을 수 있다.

혁명으로 다가갈 수 있는 길들이 도처에서 느껴졌던 시기는 오직 1840년에서 1848년 사이의 기간뿐이었다. 이 시기에 노동자 계급은 사회주의 깃발을 바리케이드 위에 다꽂기 시작했고, 민중에 대한 믿음이 사회 개혁가들의 마음 속에 다시 한 번 비집고 들어가기 시작했다. 이 믿음은 한편으로는 공화주의적인 민주주의를 이루리라는 믿음이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자유로운 연합, 즉 노동자 스스로가 원하는 사회를 조직할 힘이 있다는 믿음이었다.

그러나 곧이어 1848년 2월 혁명<sup>24</sup>이다가 왔고 중산층이 주도하는 공화제가 등장하면서 서희망은 산산이 부서졌다. 공화제 선언이 있은지 겨우 4개월 후에는 노동자 계급의 6월 봉기가 일어났지만 유혈 사태를 빚으며 잔인하게 진압되었다. 노동자들에 대한 일제 사격이 가해졌고, 수많은 사람이 뉴기니로 유형을 당했으며, 마침내 나폴레옹의 쿠데타가 뒤따르게 되었다. 사회주의자들은 광포하게 기소되었는데 그들을 제거하는 작업이 얼마나 끔찍하고 철저했던지, 그 다음 12년 혹은 15년 동안에는 사회주의의 자취들을 거의 찾아볼 수 없게 되었다. 사회주의 관련 저작물들이 완전히 말소되는 바람에 1848년이 전에는 그토록 친숙했던 이름들조차 완전히 잊힐지 경이 되었다. 당시 유행했던 1848년이 전 사회주의자들의 주요한 사상들이 이처럼 철저하게 지워버렸다가, 나중에 우리 세대가 이 사상들을 새로 발견해서 받아들이게 되었다.

그러나 1866년 무렵에 코뮌주의와 집산주의가 다시 한번 등장하면서 새로운 부흥이 일어나게 되었다. 이후 흥은 이상을 실현할 실제 방법에 대한 생각이 깊은 변화를 겪은 채로 이루어졌다. 정치적 민주주의에 대한 넓은 신념은 사라졌고, 맨처음의 원칙들만이 살아남았다. 이것은 1862년과 1864년에 런던에서 파리의 노동자들이

<sup>16</sup> 푸리에, 생시몽, 오언 등이 주장한 초창기 사회주의는 나중에 마르크스가 주장한 ‘과학적 사회주의’와는 다르다는 뜻으로 현대에 들어와서 ‘공상적 사회주의’라는 평가가 붙여졌다.

<sup>17</sup> 프랑스의 사회사상가 (1809-1865). 상호부조와 국가의 개입이 없는 아나키즘 사상을 주장했다.

<sup>18</sup> 프랑스 사회주의자 (Louis Blanc, 1811-1882). 노동자들이 운영하는 ‘사회작업장’이론으로 유명함.

<sup>19</sup> 독일의 사회주의자 (Ferdinand Lassalle, 1825-1864). 마르크스의 제자로 초기 노동 운동을 지도함.

<sup>20</sup> 독일의 사회학자이자 법학자 (Lorenz von Stein, 1815-1890). 국가에 의한 사회 정책 실시를 주장.

<sup>21</sup> 프랑스의 사회주의자 작가, 저널리스트 (Constantin Pecqueur, 1801-1887).

<sup>22</sup> 개인을 사회적 집합체에 종속되는 존재로 보는 사회 제제. 개인주의와 반대의 개념을 갖는다. 생산수단과 생산 물의 분배를 사회가 공동 관리하려는 시도로, 국가의 개입, 소득의 재분배, 공공 수유제 등에서는 사회 민주주의와 비슷한 뜻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sup>23</sup> 푸리에가 주장한 사회주의적인 작은 공동 생활체. 프랑스 어로는 팔랑주.

<sup>24</sup> 프랑스의 왕정 반대 세력들이 민중을 동원하여 자유주의적인 개혁 운동을 전개하려다가 경찰과 충돌했고, 이로 인해 루이 필립 왕이 퇴위. 파리 시청에 수립된 임시 정부는 공화국을 선포하고 성인 남자의 보통 선거권 등 여러 조치들을 시행했으나, 결국 1852년 나폴레옹의 쿠데타로 왕정이 복귀되었다.

영국의 노동조합주의자들과 로버트 오언 지지자들과 만나 서합의했던 내용으로 ‘노동자의 해방은 노동자 스스로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또한 노동조합 자체가 생산수단을 소유해야 하며, 생산과정도 자체적으로 조직해야 한다는 원칙에도 합의를 보았다. 그리하여 푸리에 주의자들과 상호부조론자들의 ‘연합’이라는 프랑스의 이상이 로버트 오언의 ‘대강화 무역 동맹’이라는 사상과 손을 맞잡은 것이다. 이동맹은 오늘날까지 이어져서 ‘국제 노동자 연합’이 되었다.

이 새로운 사회주의의 부흥은 고작 몇 년 정도밖에 지속되지 못했다. 곧이어 1870-1871년 전쟁<sup>25</sup>이 일어났으며, 이제 파리 코뮌이 일어나고 사회주의의 자유로운 발전이 프랑스에서 다시 일어나는 게 불가능하게 되었다. 그러나 독일은 자기네 교사인 마르크스와 엥겔스의 손을 거쳐서 프랑스 ‘1848년 세대’의 사회주의를 받아들였다. 말하자면 독일은 푸리에 주의와 루이 브륄랑의 사회주의, 그리고 베르됭의 집산주의를 수용했다는 뜻이다. 프랑스는 그만큼 한발 앞서 있었던 셈이다.

1871년 3월, 프랑스의 발전을 방해하는 요소들을 더 이상 바라보고 만 있지 않겠노라고 선언했다. 다시 말해 파리 코뮌 안에서 자체적으로 사회 발전을 시작하겠다는 의도를 선언한 것이다. 이 운동은 너무나도 빨리 무너졌기에 어떤 긍정적인 결과를 이루어내지 못했다. 단지 공동체주의만이 남았으며 완전한 자치권에 관한 코뮌의 권리에 대한 주장 정도가 남았을 뿐이다. 하지만 예전의 ‘국제 노동자 연합’(인터내셔널)에 참여했던 노동자 계층들은 이 운동의 역사적인 중요성을 즉시 알아보았다. 그들은 ‘자유 코뮌’이 이제부터는 현대 사회주의 사상을 실현 가능하게 해주는 매개체가 될 것이라란 점을 이해했다. 1848년 이전에 영국과 프랑스에서 그토록 무수하게 이야기되었던 ‘자유로운 농업·공업 연합 코뮌’들이, 꼭 2천 명으로 한정된 푸리에식의 팔랑스 테르 같은 소규모 공동체 일 필요는 없었다. 이 코뮌들은 파리 시처럼 거대한 덩어리 집단이어야 하고, 더 나아가 자치령 정도의 규모에서 이루어 진다면 더 좋을 것이다. 어떤 경우에 이 코뮌들은 서로 동맹하여 국가를 형성할 수도 있다. 심지어 혼존하는 국가 간의 영토 경계를 고려할 필요도 없다(5개 항구 동맹<sup>26</sup>이나 한자 동맹<sup>27</sup>처럼). 이와 동시에 철도, 항구 같은 국제 간의 공공 서비스 분야에서 대규모 노동 조합들이 생겨날 것이다.

이러한 생각들이 1871년 이후의 식 있는 노동자들 사이에서, 특히 라틴어권 국가들<sup>28</sup>에서 막연하게나마 형성되기 시작했다. 자기네 생활의 세부 사항들이 정해지게 될 이런 방식의 몇몇 조직들에서, 노동자 단체들은 다음 사실을 알게 되었다. 국가가 산업과 관련된 소유권을 모두 쥐고 있거나 농업과 산업을 조직할 경우보다, 사회주의적 삶의 형태라는 수단을 통했을 때 그들의 생활이 훨씬 쉽게 이루어 진다는 사실을 말이다. 이러한 사상들로부터 내가 이 책에서 조금이라도 명확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던 것들이다.

이 책을 처음 썼던 때<sup>29</sup>로부터 몇 해가 흐른 지금에 와서 그 당시를 되돌아보면, 나는 이 책의 주요 사상들이 틀림 없이 정확했다고 분명히 말할 수 있다. 국가가 주도하는 사회주의는 분명 상당히 큰 진보를 이루고 있다. 국영 철도, 국영 은행, 국가 주도 무역이 여기 저기서 활기차게 도입되고 있는 중이다. 그러나 이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면 매 단계마다 노동자들은 스스로의 해방을 위한 투쟁에 국가 사회주의가 새로운 방해가 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비록 한정된 필수 품들을 더 쉽게 구입할 수 있는 결과가 나타났을지라도 말이다. 그리하여 우리는 노동자들 가운데서, 특히 서유럽에서 하나의 사상이 성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 사상은 심지어 철도망처럼 거대한 전국적 자산을 운영하는 일조차, 국가 조직보다는 철도 노동자들의 동맹 조합이 훨씬 잘 운영할 수 있다는 사상을 말한다.

다른 한편으로는, 유럽과 미국 전역에서 셀 수 없이 많은 시도가 행해졌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이 시도들의 주된 사상은, 한편으로는 생산의 여러 부분들을 노동자들 스스로가 운영하자는 것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주민들을 위해 직무들을 수행하는 단체들을 도시 안에서 계속 확대해 가자는 사상이다. 이 사상에 따르면, ‘노동 조합 제도(Trade-unionism)’가 생산 운영권을 맡고서, 국제적으로 이루어지는 다양한 무역들을 조직하고, 노동자의 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수단 뿐만 아니라 필요 한 순간에 조직을 구성할 수 있는 권한도 더 많이 갖도록 하자는 것이다. 생산과 분배 모두를 위한 협동 조합, 산업 분야와 농업 분야 모두를 위한 협동 조합, 그리고 실험적인 자치 공동체들에서는 이 두 가지 사상을 결합하는 시도들을 해볼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마침내 ‘자치 사회주의’라고 부를 수 있는 온갖다채로운 영역이나 타날 수 있을 것이다. 이 세 가지 방향의 시도들은 나중에 엄청난 양의 창조적인 힘으로 발전해나갈 것이다.

<sup>25</sup> 프로이센-프랑스 전쟁. 프로이센군의 압도적 우세로 당시 서비스 마르크가 실권을 잡고 있던 프로이센이 승리했고, 나폴레옹은 포로가 되었다.

<sup>26</sup> 영불 해협의 동쪽 끝에 위치한 5개 항구들이 군사적, 상업적 목적으로 연합한 것.

<sup>27</sup> 중세 독일에서 시작되어 북유럽으로 퍼져나간 상인 조합.

<sup>28</sup>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등 라틴 계언어를 쓰는 나라들을 말한다.

<sup>29</sup> 이 책의 초판은 1892년에 프랑스에서 처음 출간되었다.

물론이 것들 중 어떤 것도, 어떤 정도라도, 코뮌주의의 대체물, 심지어 사회주의의 대체물로 여겨질 수는 없다. 코뮌주의와 사회주의는 생산수단의 공동소유라는 의미를 당연히 갖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는 실험적인 이런 시도들 모두를 틀림 없이 살펴봐야만 한다. 가령, 오언, 푸리에, 생시몽이 자기들의 자치 공동체에서 시도하려고 했던 실험들은, 코뮤니스트 사회가 출현한다면 이러할 것이라는 구체적인 모습들을 사람들이 상상해 볼 수 있게 해준 것들이었다. 언젠가 어느 문명 국가의 어떤 사람은, 자신의 건설적인 재능으로 이러한 부분적인 모든 실험들을 종합해보는 일을 해야만 할 것이다. 그리고 앞으로 그런 위대한 종합을 해낸 건물이 건설되어야 할 것이다. 그렇지만 그 건물을 이루게 될 벽돌들의 견본들, 심지어 그 건물의 몇몇 방들의 견본들조차도 건설적인 재능을 가진 사람의 엄청난 노력으로 지금 준비되고 있는 중이다.

## 01. 우리가 가진 부富

### I

인류는 머나먼 길을 여행해왔다. 먼 옛날 사람들이 투박한 부싯돌 도구를 만들고, 사냥으로 얻은 불안정한 노획 물들로 살아가고, 자기 아이들에게 바위 아래의 은신처와 몇 가지 보잘 것 없는 도구들을 남겨주던 때로부터 머나먼 길을 여행해온 것이다. 게다가 광대하고, 잘 알지 못하는 무시무시한 자연이 있었기에 인류는 자신들의 비참한 생존을 유지하기 위해 자연과 싸워나가야했다.

그럼에도 그거나 긴 격동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인류는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부富를 축적했다. 땅을 개간하고, 습지의 물을 빼고, 숲을 벌채하고, 도로를 건설하고, 산에 터널을 뚫었다. 건물을 짓고, 발명을 하고, 관찰하고, 추론해왔다. 또한 복잡한 도구들을 만들고, 자연으로부터 힘들게 그 비밀을 캐내었으며, 마침내 증기와 전기를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그 결과 문명화된 인간의 아이는 이전에 살았던 사람들이 축적해놓은 막대한 자본을 이용할 준비가 된 채태어나는 셈이다. 그리고 이러한 자본 덕분에 사람들은 자신의 노동을 타인의 노동과 결합하는 것만으로도 많은 부를 얻을 수 있게 되었다.

넓은 지역까지 말끔하게 개간된 땅은 최고 품질의 씨앗들을 심기에 안성맞춤인 상태이다. 거기에 기술과 노동력이 보태지면 우리에게 풍요로운 보답을 해줄 것이다. 이 보답은 인류의 모든 필요를 채우고 도남을 만큼 충분하다. 합리적인 경작 방법들도 알려지게 되었다.

미국의 드넓은 초원에서는 기계의 도움을 받아 일하는 100 명의 사람들이 1년 동안 1만 명의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밀을 몇 달 만에 생산할 수 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생산물을 몇 배로 증가시키고 싶다면, 땅을 잘 만들고 각각의 작물을 적절하게 보살핌으로 써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

과거의 사냥꾼은 가족들이 먹을 음식을 구하려고 오륙십 마일을 돌아다녀야 했지만, 현재의 문명인은 그것의 천분의 1 밖에 안 되는 면적에서 훨씬 적은 수고로 보다 안정적으로 가족의 생계를 꾸려나갈 수 있다. 기후는 더 이상 장애물이 아니다. 태양의 열기가 약해지면 인공적으로 난방을 하여 대신 할 수 있다. 앞으로는 식물 생장을 자극하는 일에도 인공적인 빛을 이용하게 될 것이다. 그러는 동안 인간은 유리온실과 온수파이프를 이용해 정해진 공간을 자연적인 상태일 때보다 10~15 배는 더 생산적으로 만들었다.

산업 분야에서 이룩한 성취는 더욱 더 감탄할 만하다. 대부분 그 이름도 잘 알려져 있지 않은 발명가들의 결실인 현대적 기계들을 이용해서 현재 100 명의 사람들이 1만 명이 2년 동안 일을 수 있는 의복 관련 물품들을 생산하고 있다. 잘 운영되는 석탄광산에서는 100 명의 광부들이 1만 가구가 추운 날씨에 난방을 하는데 필요한 연료를 매년 충분히 공급한다. 최근에는 미국 박람회를 위한 놀랍도록 화려한 도시들이 불과 몇 달 만에 우뚝 솟아 오르는 장관을 볼 수 있다. 이런 일들은 개최 국가들의 일상을 조금도 방해하지 않고서 이루어진다.

그리고 농업에서처럼 제조업에서, 그리고 전체 사회 시스템을 통해서 선조들의 노동, 발견, 발명이 소수에게 주로 이득을 주고 있기는 하다. 그럼에도 다음과 같은 사실도 분명하다. 즉, 인류 전체가 이미 소유하고 있는 강철과 철제 발명품들의 도움을 받는다면 모든 사람이 이미 부유하고 안락한 생활을 할 수도 있었을 것이라는 사실이다.

참으로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부유하다. 이미 소유하고 있는 것들로 부유하고, 현재의 기계 장비로 생산할 수 있는 가능성들이 많다는 점에서 더욱 부유하다. 그리고 우리의 땅, 제조업들, 과학, 기술적 지식들로부터 얻을 수 있는 모든 것이 모두에게 행복한 삶을 가져다주기 위해 쓰인다면 우리는 더 할 나위 없이 부유해 질 것이다.

## II

문명화된 사회 속에서 우리는 부유하다. 그런데도 왜 이렇게 많은 사람이 가난한가? 어째서 대다수 사람들은 그 토록 단조롭고 고통스러운 일을 해야 하는가? 심지어 임금을 가장 많이 받는 노동자 조차 왜 불확실한 내일을 걱정해야 하는가? 과거로부터 물려받은 유산들에 둘러싸여 있고, 하루에 몇 시간 만일 하면 모두에게 안락함을 보장해 줄 수 있는 강력한 생산 수단을 가졌는데도 말이다.

사회주의자들은 바로 이 이야기를 하고 있으며, 지치지 않고 계속 되풀이해서 말해왔다. 매일 그들은 온갖 학문에서 가져온 논거로 이 사실을 보여주면서 반복해서 말하고 있다. 그 이유는 오랜 역사과정 속에서 소수의 사람 이 땅, 광산, 도로, 기계, 식량, 주택, 교육, 지식처럼 생산에 필요한 모든 것을 강제로 빼앗아 갔기 때문이다. 이 강탈의 역사과정은 강제 이주와 전쟁들이 일어난 과정이고, 무지와 억압의 역사과정이었다. 이것은 인류가 자연의 힘을 제압하는 법을 배우기 전부터 인류의 생활이었다.

그 이유는 또 한이 소수의 사람이 과거에 자기들이 획득했다고 주장하는 권리들을 이용해서, 오늘 날 노동 생산물의 3분의 2를 횡령하고는 가장 어리석고 부끄러운 방식으로 탕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이 소수의 사람들 이 수많은 사람을 한 달, 심지어 한 주도 살아갈 수 없을 만큼 몰락시켜 놓고 대부분의 땅을 자기들이 가져간다는 조건에서 만다수에게 일을 하도록 허락하기 때문이다. 이 소수의 사람은 나머지 사람들에게 자기에게 필요한 것들을 생산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기 때문이다. 모두의 삶에 필요 한 생필품이 아니라 독점가들에게 가장 큰 이익을 가져다주는 것을 생산하도록 강제하기 때문이다. 바로 이 사실에 모든 사회주의의 본질이 있다.

문명화된 나라를 실제로 살펴보라. 예전에 온통 숲이었던 삼림지들은 개간되었고, 습지는 배수되었으며, 기후도 좋아지고 있다. 사람들이 살기에 적당한 곳으로 바뀌어 온 것이다. 예전에는 거친 식물들만 자랐던 땅이 오늘 날에는 풍성한 수확물로 뒤덮여 있다. 계곡에 있던 바위들은 계단식 밭을 만드는데 쓰여서 포도나무들이 그 위를 덮고 있다. 독하고 씁쓸한 야생 열매나 먹을 수 없는 뿌리말고는 사람이 먹을 만한 것을 생산하지 못했던 야생 식물이 수세대에 걸친 재배를 통해 즐이 많은 채소와 맛있는 과일이 열리는 나무로 바뀌었다.

수많은 도로와 철도가 땅을 가르며 뻗어 있고 터널이 뚫린 산들을 가로질러간다. 알프스, 코카서스, 히말라야 산맥의 황량한 협곡에서도 날카로운 엔진 소리가 들린다. 강들은 배가 다닐 수 있게 되었고 해안들은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되었다. 힘들게 건설된 인공 항만들이 광포한 바다로부터 우리를 보호해주고 있고, 배들에게 피난처를 제공하고 있다. 바위를 뚫고 깊은 수직 간도들이 건설되고 미궁 같은 지하 광산의 통로들이 건설되어서 석탄이나 광물들을 캐낼 수 있게 되었다.

도로들이 서로 교차하는 곳에서는 거대한 도시들이 생겨났으며, 그 안에서 산업, 과학, 예술의 모든 보물이 축적되고 있다. 모든 세대의 사람들, 비참하게 살다가 죽어갔고 지배자들에게 억압당하고 학대당했으며 고된 노동으로 기진맥진했던 모든 세대의 사람이 이막대한 유산을 우리 세기에 물려준 것이다.

수천년 동안 수많은 사람이 숲을 개간하고, 습지의 물을 빼고, 도로를 건설하고, 뱃길을 내는 일을 해왔다. 유럽에서 경작되는 모든 땅은 여러 민족의 땀으로 일궈졌다. 각각의 땅마다 강요된 노동의 이야기, 참을 수 없이고 된 노동의 이야기, 수많은 사람이 겪어온 고통의 이야기를 품고 있다. 모든 철도와 터널에도 사람들이 흘린 핏자국이 깊이 스며들어 있다.

광산의 수직 간도의 바위 벽에는 그 간도를 파기 위해 고군분투한 광부들의 팽이 자국이 여전히 남아 있다. 지하 간도를 지탱하는 기둥들 사이의 어느 공간에는 어떤 광부의 무덤이라는 표시가 새겨져 있을 수도 있다. 아무 덤들 각각이 어떤 대가를 치렀는지 누가 말해줄 수 있겠는가? 그들의 눈물, 그들의 궁핍과 비참함에 대해 누가 말할 수 있겠는가? 탄갱안의 가스 폭발이나 바위가 무너지는 사고, 또는 홍수로 인해 한창 나이의 광부들이 목숨을 잃었을 때, 그들의 빈약한 급료에 의존해서 살던 가족들의 말할 수 없는 비참함을 누가 말할 수 있겠는가?

철로와 수로로 둘러싸인 도시들은 수세기에 걸쳐서 유지되어 온 유기적인 조직체이다. 이 도시 아래를 파헤쳐 보라. 그러면 거리들, 집들, 극장들, 공공 건물들의 토대들이 하나 위에 또 하나가 쌓인 식으로 총총이 건설된 모습을 발견할 것이다. 도시의 역사를 조사해보면 그 도시가 문명화된 과정, 산업과 도시 고유의 특성들이 어떤 식으로 천천히 성장하고 성숙해왔는지 알 수 있다. 그 도시들은 몇 세대에 걸친 주민의 협력을 통해서 오늘날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 심지어 오늘날에도 그 도시의 모든 주택, 공장, 큰 상점들 각각이 지난 가치는 지금은 죽어서 묻힌 수백만 명의 노동자가 쌓아 올린 노동으로 만들어진 것이며, 수많은 사람의 노동으로 유지되고 있다.

이렇듯 우리가 ‘국가의 부富’라고 부르는 것을 구성하는 개개인의 가치는 그것들이 거대한 전체의 일부라는 사실 때문에 생겨난다. 국제적인 상업이 이루어지는 거대한 중심 도시에 위치하고 있지 않다면, 런던의 조선소나 파리의 대형 상점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바다와 육로를 통해서 매일 엄청난 양의 상품들이 수송되지 않는다면, 우리의 광산들, 공장들, 작업장들, 철도들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수많은 사람이 오늘날 우리가 사랑스러워하는 이 문명을 건설하기 위해서 땀 흘려 노동해왔다. 지구상 곳곳에 흘어져 있는 다른 수많은 이는 지금도 이 문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애쓰고 있다. 만약 이런 사람들이 없다면 이 문명은 50년 안에 폐허 밖에 남지 않게 된다.

그 어떤 사상이나 발명 조차도 과거와 현재로부터 유래하는 공동의 재산이 아닌 것은 없다. 알려졌거나 알려지지 않은 발명가들, 빈곤 속에서 죽어간 수천 명의 발명가들이 인간의 재능을 구현하고 있는 이 기계들 각각을 발명하는 일에 협력해왔기 때문이다.

수천 명의 작가, 시인, 학자들이 지식을 늘리고 오류를 바로잡고 과학적 사고의 틀을 만들기 위해서 애쓰고 있다. 이런 틀이 만들어지지 않았더라면 우리 세기의 경이로운 것들은 결코 나타나지 못했을 것이다. 그리고 이 수많은 철학자들, 시인들, 학자들, 발명가들을 뒷받침하고 있는 것은 과거 수많은 세기 동안 이루어진 ‘노동들’이다.

가령 생귄<sup>30</sup>, 마이어<sup>31</sup>, 그로브<sup>32</sup>의 천재성은 산업을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가게 하는 일에서 전 세계의 모든 자본가보다 분명 더 많이 기여했다. 하지만 천재적인 사람들은 스스로가 과학의 아이들인 것과 마찬가지로 산업의 아이들이기도 하다. 수천 개의 증기기관이 수년 동안 모든 사람의 눈 앞에서 작동되고, 증기기관의 열기가 부단히 동력으로 변환되고, 그 동력이 소리, 빛, 전기로 변환되었을 때에야 비로소 이 천재들의 통찰은 그것의 기계적인 원인과 물리적인 힘들의 결합에 대해 공표할 수 있었다.

그리고 19세기의 아이들이 우리 가마침내 이 개념을 파악하게 되었다면,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응용하는지를 알게 되었다면, 그 이유는 다시 말하지만 매일의 경험 속에서 우리에게 그럴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이다. 18세기의 과학자들도 이 개념을 알았고 발표하기도 했지만, 그것은 더 이상 발전되지 않은 채 남아 있었다. 왜냐하면 18세기에는 19세기처럼 증기기관과 나란히 성장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현대 산업에 혁명을 가져온 이 원리를 알지 못한 채 지나가 버렸을지도 모르는 수십 년의 세월을 상상해보라. 즉, 와트<sup>33</sup>가 자신의 아이디어를 금속으로 구체화시키고, 그가 구상한 엔진의 모든 부분을 완벽하게 만들어줄 수

<sup>30</sup> 프랑스의 엔지니어 (Marc Séguin, 1786-1875)로, 연관 보일러를 발명했다.

<sup>31</sup> 독일의 의사이자 물리학자 (Julius Robert von Mayer, 1814-1878)로 열역학 제 1 법칙의 확립에 기여했다.

<sup>32</sup> 영국의 실험 물리학자 (William Robert Grove, 1811-1896)로 화학 전지를 발명했다.

<sup>33</sup> 스코틀랜드의 엔지니어이자 발명가 (James Watt, 1736-1819). 증기기관의 완성자로 유명하다.

있는노동자들을소호<sup>34</sup>에서찾아내지못했더라면, 그리하여완전한기계장치속에갇히게된이증기, 말(馬)보다온순하고물보다다루기쉽게된이증기가마침내현대산업을일으킨핵심이되지못했더라면어떻게되었을지상상해보라.

모든기계가이와비슷한역사를갖고있다. 그역사는오랜기간의잠못이루는밤들과가난, 환멸과기쁨들, 그리고몇세대에걸친이름없는노동자들이발견해낸부분적인개선점들에대한기나긴기록이다. 이노동자들은원래의발명에다가사소한것들을덧붙였는데, 실제로이들이그렇게하지않았더라면가장창조적인아이디어들도쓸모없는상태로남아있었을것이다. 아니, 그이상이라고할수있다. 모든새로운발명은하나의종합이고, 그이전에역학(力學)과산업의광대한분야에서이미이루어진해아릴수없는발명들의결과물이다.

과학과산업, 지식과그응용, 발견과그것의구체적인현실화, 그덕분에이어진새로운발견들, 두뇌와손의정교한솜씨, 정신노동과육체노동은모두협력해서일한다. 각각의발견, 각각의정보, 인간부의총합을증가시킨각각의성장은과거와현재사람들의육체적이고정신적인노고덕분에이루어진것이다.

그렇다면어느누가도대체무슨권리로이거대한전체의가장작은부분이나마자기것이라고할수있단말인가? 무슨권리를가지고서“이것은당신들것이아니라내것이다!”라고말할수있단말인가?

### III

그러나인류가가로질러온무수한세월이흘러가는과정에서이런일이일어났다. 사람이생산을하도록해주고, 자신의생산력을늘릴수있게해주는모든것이소수사람의손에쥐어진것이다. 언젠가, 아마도우리는어떻게이런일이일어나게되었는지말할수있을것이다. 지금은그런사실이있다는것을언급하고, 그결과를분석하는것으로충분하다.

계속증가하는인구의필요들을충족시킬수있는것은실제로땅이가진가치덕분이다. 그런데오늘날이땅은소수의사람에게속해있다. 그리고이소수는다른이들이그땅을마음대로경작하는것을가로막거나, 현대적방식에따라서땅을경작하는것을허락하지않고있다.

광산들역시수세대에걸친노동의결과물이고, 그것의고유한가치는오직한나라의산업적인요구와인구밀도에서나온다. 그럼에도광산들역시소수가소유하고있다. 이소수의사람은자기들의자본증식에유리한투자라고여겨지면, 석탄생산량을제한하거나생산을완전히금지하기도한다.

기계역시소수의배타적인소유물이되었다. 심지어어떤기계가잘작동되는이유는처음의허술한발명에다가서너세대의노동자들이보다향상된기술을덧붙였기때문이라는것이논쟁의여지가없는사실인데도, 소수만이이기계를소유하고있다. 가령, 한세기전에레이스만드는기계를처음만들어낸발명가의자손들이오늘날스위스바젤이나영국노팅엄의레이스공장에서일하는노동자들이라고가정해보자. 이들이그곳에서자신의권리를주장한다면, 이런말을들을것이다.

“손대지마! 이기계는당신들것이아니야.”

철도는유럽의넘쳐나는인구, 산업, 상업, 시장이없다면낡고쓸모없는고철덩어리에불과하다. 이런철도들역시몇몇주주가소유하고있는데, 아마도그들은중세시대왕들보다더많은수입을가져다주는철도노선들이어디에위치하고있는지조차잘모를것이다. 이철로들을파내고, 깎아내고, 터널을뚫느라하루에도수천명이죽었다. 그런데만약그렇게죽어간이들의자손이누더기를입고굶주린채로모여들어서철도주주들에게빵을달라고요구한다면, 총검과포탄이이들을뿔뿔이흩어놓을것이고‘기득권의이익’은안전하게지켜질것이다.

이처럼터무니없고악랄한체제때문에노동자의자식은자신이생산할커다란몫을주인에게넘겨주는것에동의하지않으면경작할수있는땅이없다. 관리할수있는기계도없고, 파낼수있는광산도없이인생을시작하게된다. 그는인색하고불안정한임금을얻기위해자신의노동력을팔아야한다. 그의할아버지와아버지가고되게일해서이농토에배수설비를했고기계를완전하게만들었다. 온힘을다바쳐서그일들을했는데도그들의자손은가장비천한노예보다도더가난한상태로세상에태어난다.

<sup>34</sup> 와트가동업자매튜볼턴과함께증기기관을만들기위해설립한공장은영국버밍엄의소호에있었다.

그들이 땅을 경작하도록 허락을 받는 경우는 생산물의 4 분의 1 을 땅주인에게 넘겨준다는 조건일 때만 가능하다. 또 다른 4 분의 1 은 정부와 중간상인에게 넘겨주어야 한다. 그리고 국가, 자본가, 땅주인, 중간상인이 징수해가는 이런 세금은 언제나 계속해서 높아만 간다. 이 때문에 그에게는 자신의 경작 방법을 개선 시킬 수 있는 여력도 거의 남아 있지 않다. 만약 이자 손이 산업 분야에서 일을 한다면, 그는 국가가 기계의 주인이라고 인정한 사람들에게 생산물의 3 분의 2 를 넘기겠다는 조건에서 만일을 하도록 허락 받는다. 심지어 이런 일 조차도 항상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봉건 시대의 영주들을 소리 높여 비난한다. 이 영주들은 소작농이 생산한 수확물의 4 분의 1 을 넘겨 주지 않으면 흙덩이 하나도 만지지 못하게 했던 자들이다. 우리는 그 시절을 애만적인 시대라고 부른다. 하지만 형식만 바뀌었을 뿐 지금도 그런 관계는 똑같이 남아 있다. 때문에, 노동자들은 자유 계약이라는 명목으로 봉건적인 의무를 강제로 받아들여야 한다. 왜냐하면 어디를 가더라도 더 나은 조건을 찾을 수 없기 때문이다. 모든 것이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그는 이 조건을 받아들이거나 굶어 죽을 수밖에 없다.

일이 이런 상황으로 되어 버린 탓에 우리의 모든 생산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기업은 공동체의 필요를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 기업의 유일한 목표는 투기꾼들의 이익을 늘리는 것뿐이다. 이로 인해 일어나는 무역 시장의 끊임 없는 변동과 주기적으로 일어나는 산업 위기 때문에 수많은 노동자가 거리로 내몰리게 된다.

노동하는 사람들은 자기 임금으로 자신들이 생산한 부를 구매할 수 없다. 그리고 산업은 다른 나라의 부유한 계급들에게 상품을 팔 수 있는 해외 시장을 찾고 있다. 따라서 유럽인들은 동양이나 라틴 아메리카, 아프리카, 이집트, 통킹<sup>35</sup>, 콩고 등지에서 반드시 농노제도의 성장을 조장해야만 한다. 그리고 그들은 그렇게 하고 있다. 그러나 유럽인들은 곧 어디에나 자신과 비슷한 경쟁자가 있음을 알게 된다. 모든 국가가 비슷한 노선을 따르며 발전해 나가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끊임 없는 전쟁이 일어난다. 시장에서 우선권을 차지하기 위한 전쟁, 동양을 소유하기 위한 전쟁, 바다를 지배하기 위한 전쟁, 수입 품에 관세를 부과하고 이웃 나라들에게 규약을 강요하기 위한 전쟁이 일어난다. 반란을 일으키는 저 '흑인들'을 쳐부수기 위한 전쟁이 일어나는 것이다! 온 세상에서 대포 소리가 그칠 날이 없고, 민족 전체가 대량 학살되는 일도 일어난다. 유럽 나라들은 국가 예산의 3 분의 1 을 군비로 지출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런 세금이 노동자들에게 얼마나 무겁게 부과되는지를 알고 있다.

교육도 여전히 소수 사람의 특권으로 남아 있을 뿐이다. 왜냐하면 노동자의 자녀들이 열세 살 나이에 어쩔 수 없이 광산으로 일하러 가거나, 아버지를 돋느라 농장에서 일해야 하는 상황에서 교육에 대해 말하는 것은 무의미한 일인 기 때문이다. 야만적인 작업 환경에서 과도하게 일하느라 녹초가 된 채 집에 돌아오는 노동자에게 공부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 역시 쓸데 없는 일이다.

사회는 이런식으로 두 개의 적대적인 집단으로 나뉜 채 유지되고 있으며, 이런 상황에서 자유란 한갓 공허한 말에 불과하다. 급진적인 사상을 가진 어떤 사람은 아마 정치적인 권리 를 크게 확대하라고 요구하기 시작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는 곧 이해방의 속삭임이 프롤레타리아 계급의 향상과 성장으로 이어짐을 알고 서는 뒤 돌아서서 자신의 의견을 바꿔버릴지도 모른다. 그리고는 억압적인 법률과 무력으로 지배하는 정부를 지지하는 쪽으로 복귀할 것이다.

이러한 특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법정에 쭉 늘어서 있는 엄청난 수의 사람들, 판사들, 사형 집행자들, 경찰들, 교도관들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들은 첨보 행위, 거짓증언, 스파이 행위, 협박, 부패를 번갈아 저지르면서 이 체제를 유지한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체제는 사회적인 감정이 성장하는 것을 차례로 가로막는다. 우리 모두는 알고 있다. 올바름이 없으면, 자존감이 없으면, 연민과 상호 부조가 없으면 인류가 절멸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말이다. 서로를 약탈하며 살아갔던 일부 종들이 사라졌듯이 말이다. 하지만 이런 사상들은 지배 계급의 입맛에 맞지 않는다. 그래서 지배 계급은 우리와 반대의 생각을 가르치기 위해서 온갖 사이비 과학 체계를 정교하게 만들어내고 있다.

훌륭한 설교들은 가진 자들이 못 가진 이들에게 기꺼이 자기 것을 나누어 주어야 한다는 내용을 말한다. 그러나 이 원리를 실행해 보려는 사람은 이 아름다운 감정들이 사적으로는 아주 훌륭하지만 현실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곧 알게 되고 실제로 실천하지는 않는다.

"거짓말하는 것은 자신의 품위를 떨어뜨리고 명예를 더럽히는 행위이다"라고 우리는 말한다. 그럼에도 문명화된 삶 전체는 하나의 거대한 거짓말이되어 가고 있다. 우리 자신과 아이들은 위선에 익숙해지고 있으며, 겉과 속이다른 도덕을 실천하는데 익숙해지고 있다. 그리고 우리 의 두뇌는 거짓말들 사이에서 기분이 언짢아지기 때문에 궤변으로 스스로를 속인다. 위선과 궤변은 문명인의 두 번째 천성이 되었다. 그러나 사회는 이런식으로는 존속 할 수 없다. 사회는 다시 진실 쪽으로 방향을 바꾸거나, 그렇지 않다면 존재하기를 그만두어야 한다.

<sup>35</sup> 프랑스식 민지 시대에 베트남 북부 홍강 유역을 가리키던 명칭.

이런식으로최초의독점행위에서생겨난결과들이사회적삶의전영역으로퍼져나갔다. 죽음과같은고통을겪으면서라도인간사회는최초의원칙들로되돌아가야한다. 즉, 생산수단들은인류의집단적인노동이만들어낸결과이기때문에생산역시인류공동의재산이되어야한다는원칙으로돌아가야한다. 그것을개개인이마음대로사용하는일은전혀공정하지않고, 아무런도움도되지않는다.

모든것은모두의것이다. 모든것은모든사람을위한것이다. 왜냐하면모든사람이그것을필요로하고, 모든사람이그것을생산하기위해서힘닿는데까지일했기때문이다. 그리고세상의모든부를생산하는데각사람들이기여한몫을측정하는일은가능하지않기때문이다.

모든것은모두를위한것이다. 여기, 막대한양의도구와가구가있다. 여기, 우리가기계라고부르는철로된노예들이있다. 이기계들은우리를위해톱질과대패질을대신하고, 실을잣고천을짜고, 부수고다시만들고, 원자재를가공해서우리시대의경이로운물건들을만들어낸다. 하지만어느누구도이기계들중단하나라도자기것으로하면서이렇게말할권리는없다.

“이기계는내것이다. 당신이이걸사용하고싶다면당신이생산한모든것에부과된세금을내야만한다.”

또중세시대의봉건영주가소작농들에게“이언덕과이들판은모두나의것이다. 너희는이곳에서수확하는옥수수한다발마다, 쌓아올리는벽돌한장마다매긴세금을나에게바쳐야한다”라고말할권리도더이상없다.

모든것이모두의것이다! 남자와여자가일을공평하게분담해서한다면, 그들은함께생산한것을공정하게나눌권리를가지고있다. 그리고이렇게나눈것들은그들에게행복한삶을보장해주기에충분하다. 더이상‘일할권리’혹은‘각자는자신이일한결과물들을모두가져간다’와같은애매한문구들은필요하지않다. 우리가선언하는것은‘행복한삶을살권리’이다. ‘모두가행복한삶을살권리’이다!

## 02. 모두가 행복한 삶을 살 권리

### I

모두를 위한 행복한 삶은 꿈이 아니다. 우리 선조들이 생산력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노력했던 모든 것 덕분에 그 런 삶은 가능하고 실현할 수 있다. 우리는 알고 있다. 문명화된 나라의 주민 중 생산하는 사람들은 3 분의 1 도 채 되지 않지만, 이들은 지금이라도 모든 가정에 어느 정도의 안락함을 가져다 줄 수 있을 정도로 많은 물품을 생산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이다.

우리는 그 이상도 알고 있다. 오늘 날 다른 사람들이 힘들게 일한 결과 물을 헛되이 향진하는 모든 사람에게 유용 한 일을 하게 한다면, 우리의 부는 생산자들의 수에 비례해 증가할 것이고 어쩌면 그 이상으로 증가할 것이라는 사실을 말이다. 그러면 마침내 우리는 알게 될 것이다. 부르주아 경제학의 예언자인 맬서스<sup>36</sup>가 발표한 이론과는 반대로, 인류의 생산력은 번식력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증가할 것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땅에 더 옥 밀집해서 살게 될 수록 그들이 부를 창조하는 힘역시 더욱 빠르게 성장할 것이다.

이런 까닭으로 영국의 인구는 1844년부터 1890년 까지 단 62 퍼센트 증가했을 뿐인데도, 생산은 가장 낮 게 잡아도 2 배 정도인 130 퍼센트 성장했다. 프랑스에서는 인구가 더 천천히 늘어나고 있는데도 생산은 매우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빈번히 찾아오는 농업 위기, 국가의 방해, 혈세(징병제도), 투기적인 상업과 금융에도 불구하고, 프랑스의 밀 생산량은 4 배나 증가했으며 산업 생산량도 지난 80년 동안 10 배 이상 증가했다. 미국에서는 이런 식의 진보가 더욱 인상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이민자들의 유입에도 불구하고, 혹은 유럽의 과잉 노동력의 유입이라는 이유 덕분인지 미국에서는 10 배나 많은 부가 증가하고 있다.

그렇지만 이런 자료들을 가지고 서는 더 나은 조건 아래서 우리의 부가 어찌 할지 아주 희미하게 만어 립 잡을 수 있을 뿐이다. 우리의 부와 생산력이 빠르게 발전하는 것과 나란히, 일하지 않는 게 으름뱅이와 중간 상인의 수도 압도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자본이 점점 소수의 손에 집중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공동체가 해야 하는 유일한 일은 소수 백만 장자의 재산을 수용해서 합법적으로 모두의 유산이 되도록 만드는 일이다. 그런데 사회주의자들의 이런 예측이 사실로 입증되기는 커녕, 정확히 반대되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 기생충 무리들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프랑스의 경우 주민 30 명당 실제로 생산에 참여하는 사람은 10 명이 채 되지 않는다. 우리나라의 전체 농업 생산량은 700 만명도 안 되는 사람들이 일한 결과이다. 그리고 광산업과 섬유업이라는 두 거대한 산업 부분에서도 노동자의 수가 250 만명이 채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이 노동자들을 착취하는 사람의 수는 얼마나 될까? 영국에서는 남자, 여자, 그리고 아이들을 포함해 100 만명이 조금 넘는 노동자가 전체 섬유 산업에 종사하고 있다. 광산에서는 90 만명이 못 되는 사람이 일하고 있고, 200 만명이 조금 넘는 사람이 농업에 종사하고 있다. 최근의 산업 인구 조사에 따르면 겨우 400 만명이 조금 넘는 남자, 여자, 아이들이 전체 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문주註: 현재 국가 군수 품 공장을 포함한 산업의 서로 다른 53 개의 부분에는 4,013,711 명의 사람이 고용되어 있다. 그리고 241,530 명의 노동자가 '철도 건설 및 관리국 (construction and Maintenance of Railways)'에서 일하고 있다. 그들의 총 생산량은 1,041,037,000 파운드에 이르며 순이익은 406,799,000 파운드다.)

그러므로 통계학자들은 4 천 500 만명의 영국 주민 중 최대 800 만명이 생산자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모든 숫자를 부풀려야 한다. 엄밀히 말해 영국에서 전 세계 구석구석으로 수출되는 상품을 만드는 노동자의 수는 겨우

<sup>36</sup> 영국의 목사이자 경제학자 (Thomas Malthus, 1766-1834). 인구가 식량 생산보다 빠르게 증가하기 때문에 빈곤과 전쟁, 악덕이 생겨난다고 주장하였다.

600 만에서 700 만명정도밖에되지않는다. 그렇다면이곳저곳에서노동의가장좋은열매를가져가고, 생산자와소비자사이에끼어들어서일하지않고도부당한이익을쌓아올리는주주와중간상인의수는얼마나될까?

이것이전부가아니다. 자본소유자들은생산을제한함으로써끊임없이생산량을떨어트린다. 지금까지부자들만먹었던맛있는진미들을일반사람들이먹지못하게막으려고다량의굴이바다에던져졌다는사실은말할필요조차없다. 직물과음식등이포함된수많은사치품역시굴과똑같은방식으로처분된것도말할필요가없다. 가장필요한것들의생산이어떤식으로제한되고있는지를떠올려보는것으로충분하다.

수많은광부는매일기꺼이석탄을캐내어추위에떠는사람들에게보낼준비가되어있다. 그러나너무나자주, 광부중 3 분의 1 심지어 2 분의 1 의사람들이일주일에 3 일이상을일하지못하게금지당하고있다. 그이유는물론석탄가격을계속오르게해야하기때문이다! 또한수많은직공이직조기에서일하는것을금지당하고있다. 그들의아내와아이들이누더기를입고있으며, 유럽인구의 4 분의 3 이팬찮은옷을갖고있지못한데도그런생산제한이가해진다.

수백개의용광로와수천개의공장이주기적으로가동을멈추고아무일도하지않으며, 다른공장들은겨우반나절만가동되기도한다. 모든문명화된나라에서는언제나 200 만명정도되는주민이오직일만하게해달라고요청하고있는데도거부당하는실정이다.

이수많은사람이황무지들을개척하게한다면얼마나좋을까! 이들이경작하기에나쁜땅을비옥한논밭으로바꾸어서풍요로운수확을얻게한다면얼마나기쁜일일까! 잘관리하면서일한다면, 지금‘영구목초지’란이름으로쓸모없이방치되고있는수백만에이커<sup>37</sup>의땅에서 5 배의생산을충분히해낼수있다. 또한지금은에이커당약 8 부셸<sup>38</sup>의밀밖에생산하지못하는프랑스남부의건조지역들역시그만큼의생산을해낼수있다. 그런데도수많은분야에서부를생산하는일이라면기꺼이대답한개척자가되는일을기뻐할사람들이쓸모없이놀고있어야한다. 왜냐하면땅주인, 광산소유자, 공장소유주들이애초에공동체로부터빼앗을자기들의자본을터키나이집트의채권혹은남미파타고니아의금광에투자하는편을더좋아하기때문이다. 그결과로이집트의빈농들, 이탈리아의이민자들, 중국하류총노동자들이어쩔수없이노예임금을받고일하게된것이다.

이것은생산을직접적이고용의주도하게제한하는행위이다. 하지만간접적이고고의가아닌제한도있다. 이제한은인간의노동을완전히쓸모없는일에낭비하게만들거나오직부자들의아둔한허영심을만족시킬목적으로만생산을제한하는일을말한다.

어느정도의부가간접적으로제한되고있는지, 얼마만큼의에너지가낭비되고있는지를숫자로계산하는일은불가능하다. 물론그런계산을할수있었다면생산에도움이될수있었을지도모르고, 무엇보다생산에필요한기계를갖추는데유용했을지도른다. 유럽에서엄청난금액이군비로낭비되고있다는점을지적하는것으로충분하다. 이군비의유일한목적은시장의통제권을손에넣어서인근국가에게유럽상품들을강제로팔고, 자국에서는보다쉽게착취를행하려는것이다.

수백만명의사람이온갖종류의관직으로매년보수를받고있는데, 이들의직무는소수부자의‘권리’를지키고국가의경제활동들을좌지우지하는일이다. 수백만명의사람이재판, 감옥, 경찰관련일을하고있지만, 소위정의라고하는이모든번거로운장치는사실상아무효과도없이낭비되고있다. 우리가잘알고있듯이대도시의빈곤을아주조금이라도경감시키면언제나범죄율이상당히줄어들기때문이다. 마지막으로수백만명의사람이언론이라는수단을통해서아주해로운정치적신조를선전하는일을하고있다. 그들은이당파나저당파, 이쪽정치인이나저쪽투기꾼무리의이해관계를대변하면서‘날조된’뉴스를만들고있다.

그러나이에대해서우리는전적으로낭비되는모든노동역시고려해봐야한다. 여기에는, 부자들이필요할때마음대로동원할수있는전문가집단, 경찰집단, 수행원집단을유지하는노동이있다. 또저기에는, 사교계의변덕을부채질하고유행을쫓는무리의취향을타락시키기위해낭비되는노동이있다. 또다른곳에서는, 필요하지도않은것을소비자가사게만들거나, 과대광고로조잡한물건을강매하느라낭비되는노동이있다.

다른한편으로는, 소비자에게는완전히유해하지만제조업자한테는이익이되는상품을생산하는노동도있다. 이런식으로낭비되는노동의양은유용한것들을충분히두배로생산할정도이다. 혹은작업장들과공장들에기계를배치해서지금인구의 3 분의 2 의사람들에게부족한온갖물품들로상점들을가득채울수있는노동이낭비되고있다. 현체제에서는각나라생산자의 4 분의 1 정도가 1 년에서너달동안이나강제로아무일도못하고놀고있어야한다. 그리고절반까지는아니더라도나머지 4 분의 1 의노동자는부자들을즐겁게하거나민중을착취하는결과밖에내지못하는노동을할수밖에없다.

<sup>37</sup> 미국과유럽에서사용되는면적의단위. 1 에이커는약 4,047 m<sup>2</sup>이다.

<sup>38</sup> 주로농산물의무게를나타내는데쓰는단위로나라마다다르다. 본문에서는영국부셸을사용하고있다. 1 영국부셸은 62 파운드, 즉약 28.133 kg이다.

따라서 문명 국가들이 한편으로는 자기들의 생산력을 빠르게 증가시키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현존하는 조건을 이용해서 직접적, 간접적으로 생산을 제한하고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다면 우리는 이런 결론에 다다를 수밖에 없다. 즉, 조금이라도 합리적으로 운영되는 경제 체제는 몇 년 안에 유용한 생산 물들을 산더미처럼 쌓아 올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이다. 그러면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다.

“충분하다! 우리에게는 충분한 석탄과 빵과 옷이 있다! 이제 휴식을 취하면서 어떻게 해야 우리의 능력을 가장 잘 쓸 수 있을지, 어떻게 해야 우리의 여가를 가장 잘 활용할 수 있을지를 고민해보자.”

그렇다, 모든 이가 풍요를 누리게 되는 것은 꿈이 아니다. 물론 사람들이 아무리 애써도 1 에이커의 땅에서 고작 몇 부셸의 수확 밖에 얻지 못하던 시절, 농업과 산업에 필요 한 온갖 도구를 손으로 직접 만들어 써야 했던 시절에는 꿈이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지금은 그것이 더 이상 꿈이 아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동력 모터를 발명했기 때문이다. 모터는 약간의 철과 석탄 몇 자루만으로 말(馬)처럼 힘세고 다루기 쉬운 숙련된 기술을 제공해주고, 가장 복잡한 기계 장치도 작동 시킬 수 있게 한다. 그러나 모두가 풍요를 누린다는 생각이 실현되려면 집들, 목초지들, 경작지들, 공장들, 도로들, 교육 같은 이막대한 자본이 독점 가들이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는 사유재산으로 여겨 지도록 내버려두면 안 된다.

이 풍요로운 유산, 우리 선조들에 의해서 고통스럽게 얻어지고, 건설되고, 만들어지고, 발명된 이 유산은 반드시 공동의 재산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인류 공동의 관심사가 이 유산으로부터 모두를 위한 최고의 행복을 얻어 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사적 소유를 금지하는 재산 수용이 행해져야 한다. 모두가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이 목적이라면, 재산 수용은 그 수단이다.

## II

‘재산의 수용’, 이 문제는 20 세기 사람들 앞에 역사가 제기한 문제이다. 즉, 모두의 좋은 삶에 공헌하는 코뮌주의로 전부 되돌아가는 것을 뜻한다. 그러나 이 문제는 법률이라는 수단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 어느 누구도 그런 상상을 하지 않는다. 부자들과 마찬가지로 가난한 사람들도 다음과 같은 사실은 이해하고 있다. 즉, 기준의 어떤 정부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가능 한 어떤 정치적 변화들로도 마찬가지라는 사실을 말이다. 그들은 사회 혁명의 필요성을 느낀다. 그리고 부자나 가난한 사람 모두가 혁명이 곧 닥쳐 올 일이고, 몇 년 안에 터질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다.

19 세기 후반의 50 여년 동안 인간 의사 고에서 아주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하지만 이 변화는 유산 계급에 의해 사실상 억압받고 있고, 자연스런 발전이 부정당해 왔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새로운 정신은 이제 격렬하게 속박을 부수고 혁명 안에서 실현되도록 해야 한다. 혁명은 어디에서 오게 될 것인가? 혁명은 자신의 도래를 어떤 식으로 알릴 것인가? 이 질문들에는 어느 누구도 대답할 수 없다. 미래는 감춰져 있다. 하지만 그것을 지켜보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혁명의 신호를 잘못 해석하지 않는다. 노동자들과 착취자들, 혁명가들과 보수주의자들, 사상가들과 활동가들 모두가 혁명이 바로 가까이에 와 있음을 느끼고 있다. 그렇다면 혁명이라는 천둥 번개가 떨어질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우리 모두는 혁명의 극적인 면을 연구하는 일에는 많은 주의를 기울이고 있지만, 혁명의 실제적인 작업을 연구하는 일에는 너무 적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래서 우리는 무대 효과, 밀하자면 이 위대한 운동들의 무대 효과만을 보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 이를테면 혁명 최초의 날들의 투쟁과 바리케이드 같은 것들 말이다. 그러나 이 투쟁, 처음에 일어나는 충돌은 곧 끝나 버릴 것이고 혁명의 진정한 작업은 오로지 낡은 체제가 무너진 뒤에야 시작된다고 말 할 수 있다.

사방에서 공격을 당해 힘을 잃고 무력해진 구체제의 지배자들은 반란의 입김으로 곧 쓸려갈 것이다. 1848년 2 월 혁명 당시의 프랑스 상황을 살펴 보면 며칠이 안되어 중산층 계급이 옹호한 군주제는 사라져 버렸고, 루이 필리프 1 세<sup>39</sup> 가 승합 마차로 도망치는 동안 파리는 벌써 자신의 ‘시민왕’<sup>40</sup> 을 잊어버렸다. 1871년 3 월 18일에는

<sup>39</sup> 프랑스의 마지막 국왕 (Louis-Philippe, 1773-1859). 1830년 7월 혁명으로 왕위에 올랐으나 그가 이끄는 7월 왕정은 점점 보수적이고 친부르주아적인 정책을 펼쳤으며, 결국 1848년 2월 혁명으로 폐위당했다.

<sup>40</sup> 루이 필리프 1 세의 별명이다. 이전 국왕들에 비해서 처음에는 검소하게 국가를 다스렸기 때문에 이런 별명이 붙여졌다.

티에르 (Thiers)<sup>41</sup> 정부가 몇 시간만에 파리를 스스로의 운명에 맡긴 채 사라져버렸다. 하지만 1848년과 1871년에는 오로지 반란만이 일어났을 뿐이었다. 민중 혁명이 일어나기도 전에 '구체제' 의지 배자들은 놀라울 만큼 재빠르게 사라져버린다. 구체제 지지자들은 나라 밖으로도 망칠 것이고, 어딘가 안전한 곳에서 음모를 꾸미면서 다시 복귀할 방책들을 궁리할 것이다.

이전의 정부가 사라지고 나면 군대는 여론의 물결 앞에서 머뭇거리면서 더 이상 지휘관들의 명령을 따르지 않을 것이다. 군대 지휘관들 역시 신중하게, 그리고 몰래도 망칠 것이다. 군대는 끼어들지 않고 중립을 지키거나 반란에 참여할 것이다. 하릴없이 대기하고 있는 경찰은 군중을 진압해야 하는지, 아니면 '코뮌만세!'를 외쳐야 할지 몰라서 당황할 것이다.

한편 어떤 이들은 자기 속소에 조용히 틀어박혀서 새로운 정부의 향을 기다릴 것이다. 부유한 시민은 짐을 싸서 안전한 곳으로 황급히 떠날 것이다. 민중은 남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혁명이 자신 의도착을 알리는 방식이다. 몇몇 큰 마을에서는 자치 정부인 코뮌이 선포될 것이다. 거리에는 수많은 사람이 돌아다니다가 밤이 되면 즉석에서 모임을 만들어서 이렇게 물을 것이다.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그리고 공적인 일들에 관해서 격렬하게 토론을 벌일 것이다. 모두가 그 일들에 관심을 보일 것이다. 지난 날 그런 일들에 가장 냉담했던 사람이 어쩌면 가장 열의를 보일 수도 있다. 모든 곳에서 선한 의도와 승리를 확실히 하고 싶은 강한 열망이 넘쳐흐를 것이다. 이 시기는 숭고하고 협신적인 행동들이 일어나는 시기이다. 민중 집단은 앞으로 나아가려는 열망으로 가득 차 있을 것이다. 이 모든 일은 장엄하고 숭고하다. 하지만 여전히 혁명은 아니다. 오히려, 혁명가의 일이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다.

사회주의 정치가들, 급진주의자들, 재능이 있으나 무시당했던 언론인들, 정치연설가들은 중산층이든 노동 계급이든 상관없이 모두 빈자리를 차지하려고 시청이나 읍사무소, 관공서들로서둘러 달려갈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금박은 박레이스로 마음껏 치장하고 서해정관청의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에 감탄할 것이다. 그리고는 자신의 새로운 운지 위에 걸맞게 거드름을 부리면서 명령을 내릴 궁리를 할 것이다. 그들이 어떻게붉은 장식띠, 수놓은 모자, 권위적인 몸짓도 없이 사무실이나 작업장의 동지들에게 깊은 인상을 줄 수 있겠는가!

나머지 사람들은 공문서에 파묻힌 채 최대한의 의지를 발휘해서 그것들을 이해하려고 애를 쓸 것이다. 그들은 법률을 지어내고 허풍스런 단어들이 가득한 법령을 공표하겠지만, 아무도 그 법을 실행하려고 애쓰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혁명'이 일어났기 때문이다.

자기들이 갖지 못한 권위를 스스로에게 부여하려고 그들은 옛 정부에서 쓰인 상별조항을 찾으려고 할 것이다. 그들은 '임시 정부' '공공안전위원회' '시장' '시의원장' '치안위원' 등의 이름을 갖게 될 것이다. 선거로 뽑혔거나 지명이 된 그들은 위원회나 공동체 평의회를 소집할 것이고, 그곳에서는 서로 다른 유파를 대표하는 10~20명 정도의 사람�이 함께 모여서 자기들의 입장을 대변할 것이다. 이들이 대표하는 것은 흔히 말하는 수많은 '개인예배당'이 아니라, 혁명의 전망, 의미, 목표에 관한 서로 다른 많은 생각들이다. 현실적 개혁주의자들, 집산주의자들, 급진주의자들, 자코뱅파<sup>42</sup>들, 블랑키주의자<sup>43</sup>들이 서로를 밀치며 말싸움으로 시간을 허비할 것이다. 정직한 사람들이 야심가들과 뒤죽박죽 섞인 채 몰려들 것이다.

그런데 야심가들의 유일한 꿈은 권력이 기때문에 그들은 자기와 같은 출신의 대중을 경멸하며 걷어찰 것이다. 온갖 사람들이 완전히 정반대되는 견해를 갖고 서 함께 모일 것이고, 고작 하루 정도나지 속될 다수파를 구성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덫 없는 하루살이 연합을 맺게 될 것이다. 그들은 말다툼을 하고 서로를 반동분자, 권리 주의자, 불량배라고 부르면서 어떤 중대한 사안에 대해서도 서로 합의를 이뤄내지 못할 것이다. 그들은 결국 하찮은 것들이나 질질끌면서 토론하게 될 것이고 과장된 성명서 이상의 것을 만들지 못할 것이다. 운동의 진정한 힘이 거리에서 펼쳐지고 있는 동안에도, 그들 모두는 스스로에게 대단한 중요성을 부여하고 있을 것이다. 이 모든 일은 연극 무대를 좋아하는 사람들을 기쁘게 해줄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것이 혁명은 아니다. 아직은 아무 것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는 동안에 민중은 고통 받는다. 공장들은 하릴없이 멈춰서 있고 작업장 도문을 닫았다. 상업은 정지 상태에 있다. 노동자들은 이전에 받았던 빈약한 임금 조차도 받지 못한다. 음식 가격은 나날이 비싸진다. 언제나 그랬듯, 엄청난 위기 속에서도 민중은 끈기 있게 기다릴 것이다. 1848년에 프랑스 민중은, "우리는 궁핍한 이석 달을 공화국에 봉사하는 기간으로 내놓는다"라고 말했다. 반면 그들의 대표자들과 새로운 정부의 신사들은 가장 하잘 것 없는 하급 관리들까지도 꼬박꼬박 봉급을 받아갔다.

<sup>41</sup> 프랑스의 정치가이자 역사가 (Adolphe Thiers, 1797-1877)로, 1871년에서 1873년까지 제3공화정의 초대 대통령을 지냈다.

<sup>42</sup> 프랑스 대혁명 당시의 가장 유명한 과격파 정치단체로 극단적인 평등주의와 폭력정치로 알려졌다. 1793년 중반부터 1794년 중반 까지 혁명 정부를 이끌었고 로베스피에르 등이 주도했다.

<sup>43</sup> 프랑스 급진주의의 전설적인 순교자로 명성이 높은 블랑크 (Blan-que : 혁명이론가이며, 민중봉기의 실천가)를 지지하는 사람들.

민중은 고통받는다. 어린 아이 같은 믿음과 평민의 선한 기질을 가지고 그들은 자신의 지도자를 믿는다. 그들은 ‘저쪽에’ 있는 의회에서, 시청이나 읍사무소에서, 공공 안전 위원회에서 자기들의 복지 문제를 의논하고 있으리라고 믿는다. 하지만 ‘저쪽에’ 있는 그들은 민중의 복지를 제외한 하늘 아래 모든 문제를 논의하고 있다.

1793년에 기근이 프랑스를 휩쓸어서 프랑스 대혁명을 망치는 동안, 민중은 비참하게 죽어나갈 수밖에 없었다. 그럼에도 파리의 샹젤리제 거리에는 화려한 보석으로 치장한 여성들을 태운 호화로운 마차가 줄지어 늘어서 있었고, 로베스피에르<sup>44</sup>는 영국 헌법에 관한 자기의 논문을 논의하라고 자코뱅파 사람들을 몰아세우고 있었다. 1848년 상업의 전반적인 중단 때문에 노동자들이 고통받고 있는 동안, 프랑스의 임시 정부와 국민의회는 민중이 이끔찍한 위기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걱정하기는커녕 군인 연금과 형무소 노역에 대해서 논쟁을 벌였다.

그리고 1871년 파리 코뮌에 대해서도 비판할 수 있을 것이다. 프로이센의 대포 아래에서 태어나고 작 70일밖에 존속하지 못했던 파리 코뮌도 이와 똑같은 실수를 했다고 말이다. 이 실수는 혁명 편에서 싸우는 사람들을 제대로 먹이지 못하는 한, 혁명은 승리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한 것에서 비롯되었다. 즉, 하루에 고작 15펜스를 받는 사람은 방위군으로 싸우면서 동시에 가족을 부양할 수는 없다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한 실수이다. 민중은 고통받으면서 이렇게 말할 것이다.

“이어려움으로부터 벗어날 길을,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

### III

이 질문에는 오직 한 가지 대답밖에 없는 것처럼 보인다. 우리는 다음 사실을 인정하고 큰 소리로 선언한다. 다음 행동으로 옮겨야 한다. 즉, 모든 사람은 옛 사회에서 어떤 계층에 속했든지 상관없이, 강하건 약하건 간에, 유능하건 무능하건 간에, 무엇보다 먼저 ‘살아갈 권리 (생존권)’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사회는 어떤 예외도 없이 모든 사람에게 자기 뜻대로 이용할 수 있는 생존 수단을 나누어 주어야 한다는 사실이다. 우리는 이 사실을 인정하고, 큰 소리로 선언하고, 행동으로 옮겨야 한다.

혁명의 첫 날부터 노동자들이 새로운 운시대가 자기들 앞에 열리고 있다는 사실을 바로 알 수 있는 방식으로 일이 진행되어야 한다. 대저택들이 바로 옆에 있으므로 이제부터는 어느 누구도 다리 밑에서 웅크리고 있을 필요가 없고, 풍요로움 속에서 누구도 굶주릴 필요가 없으며, 모피 옷이 가득한 가게가 까이 있으므로 누구도 추위에 떨며 기진맥진 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야 한다. ‘모든’ 것은 ‘모두’를 위한 것이다. 이론적으로 그런 것처럼 실제로 도그라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야 한다. 그리하여 마침내, 역사상 처음으로 민중에게 ‘의무들 (DUTIES)’을 가르치기에 앞서, 먼저 민중의 ‘필요 (NEEDS)’를 고려하는 혁명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어야 한다.

이런 일은 의회의 법령들을 통해서는 이루어질 수 없다. 오로지 모두에게 행복한 삶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즉각적이고 효과적으로 손에 넣는 일을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 이것만이 일이 잘 돌아가게 할 수 있는 진정으로 과학적인 방법이고, 수많은 민중이 이해하고 소망할 수 있는 유일한 방식이다.

우리는 민중의 이름으로 곡물 창고, 옷으로 가득 찬 상점, 주택을 손에 넣어야 한다. 어떤 것도 낭비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굶주린 사람들을 먹이고, 모든 결핍을 채우고, 모든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방법을 지체 없이 조직해야 한다. 이 사람 저 사람의 특별한 이익을 위한 생산이 아니라 사회 전체의 삶과 더 많은 발전을 보장하는 생산을 조직해야 한다.

‘일 할 권리’ 같은 애매 모호한 말들은 이제 충분하다. 그런 말들 때문에 1848년 파리의 민중은 잘못된 길로 나아갔으며, 지금도 여전히 민중을 혼혹시킬 것이라는 기대로그런 말들이 쓰이고 있다. 모두를 위한 행복한 삶이 앞으로 가능하고 실현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용기를 갖도록 하자.

1848년에 노동자들이 일 할 권리를 주장했을 때, 국영 작업장과 지방자치 작업장들이 조직되었고, 그곳으로 보내진 노동자들은 하루에 1 실링 8 펜스를 받으며 아주 단조롭고 고되게 일했다. 그들이 ‘노동 조합’을 요구하자, 이런 대답이 돌아왔다.

“참으시오, 친구들, 정부가 잘 알아볼 것이오. 그동안 여기 당신들 임금 1 실링 8 펜스가 있소. 지금은 쉬시오. 용감한 노동자여, 먹고 살기 위해 평생 동안 고되게 일한다음이니까 말이오!”

<sup>44</sup> 프랑스 대혁명 당시의 유력한 정치인 (Maximilien Robespierre, 1758-1794) 으로 자코뱅파를 주도했다. 루소의 영향을 강하게 받아 아독립적인 소생산자들이 주도하는 공화제를 주장했다. 단두대와 공포 정치 시대를 열었으며 자신도 나중에 단두대에서 처형당했다.

그러는동안대포들이다시수리되고, 예비군이소집되었다. 노동자들의조직자체도중산층에게잘알려진 수많은방식으로파괴되었다. 그리하여예전정부를폐지하고 4 개월이지났을때인 1848 년 6 월어느화창한 날, 노동자들은아프리카유형을선고받거나총살당했다.

만일노동자들이‘행복한삶을살권리 (the Right To Well-Being)’를요구한다면, 전혀다른결과가나타 날것이다! 이권리를주장한다는것은공동체의부富를손에넣을권리를요구한다는뜻이다. 이것은각가정의필 요에따라살만한집을가질권리를요구한다는뜻이다. 식료품상점들을사회의공동소유로할권리, 깊주림을너 무나잘알고난뒤에이제는풍요로움의의미를알아갈권리를말한다. 그들은과거와현재세대들이노동으로이 뤄낸결실인모든사회적인부에대해서자기들의권리를선언할것이다. 그리고이모든부를가지고보다고상한 예술과과학의기쁨도누릴수있다. 이런기쁨들은너무나오랫동안부자들이독점해온것이다.

안락하게살권리를주장하는한편으로, 그들은스스로결정할권리가훨씬중요하다는점을확실히할것이 다. 무엇이안락함인지, 이것을보장하기위해서는무엇을생산해야하는지, 더이상가치가없어서버려야할것 은무엇인지를결정할권리를주장할것이다.

‘행복한삶을살권리’는인간다운삶을살수있는가능성을의미하고, 지금보다더나은사회에서아이들을키 울수있는가능성을의미한다. 반면‘일할권리’는언제나임금노예가되고, 고달프고단조롭게일하며, 미래의중 산층에게지배당하고, 착취당할권리를의미할뿐이다. 행복한삶을살권리는‘사회혁명’을의미하는반면, 일할 권리는상업주의와관련된단조롭고고된노동을의미할따름이다. 지금이야말로노동자들이공동의유산에대 한권리를강하게주장하고, 그것을공동으로손에넣기에가장알맞은때이다.

### 03. 아나키즘적코뮌주의

I

사유재산이 폐지되었을 경우, 우리는 모든 사회 조직을 공동체주의적인 (communistic) 노선으로 조직하고 유지할 것이다. 아나키사회는 공동체주의로 나아가고, 공동체주의는 아나키사회로 나아갈 것이다. 이들은 현대 사회의 지배적 경향인 평등의 추구를 똑같이 표현하고 있다는 점에서 서로 동일하다.

농민 가족이 직접 심고 거둔 옥수수나 자기네 오두막에서 짠 양털옷을 자기 땅에서 나온 수확물로 여길 수 있던 시대가 있었다. 그러나 이런식의 사고방식도 아주 정확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당시에도 공동의 힘을 모아 만든 도로와 다리가 있었고, 공동의 노력으로 물을 뺏습지들이 있었고, 모두의 힘으로 보수유지가 되고 있는 울타리들로 둘러싸인 공유목초지가 있었다. 만약 천을 짜는 베틀이나 직물을 물들이는 염료들이 누군가에 의해 개선된다면, 모두가 그 덕을 볼 수 있었다. 심지어 당시의 농민 가족은 혼자 힘만으로는 살 수 없었으며, 수많은 방식으로 마을이나 공동체에 의지하며 살아갔다.

하지만 오늘날의 산업적 상황에서는 모든 것이 상호의존적이고, 생산의 각분야들은 나머지 모든 부분과 서로 맞물려 있다. 그러므로 생산물을 개인의 것으로 여길 근거가 있다는 주장은 절대로 지지 받을 수 없다. 문명화된 나라들의 직물산업이나 광산업에서 성취해낸 놀라운 성과는 크고 작은 수많은 다른 산업이 동시에 발전했기 때문에 가능했다.

수에즈 운하를 만들면서 콜레라로 죽어갔거나, 생고타르터널<sup>45</sup>을 만들면서 관절강직으로 죽어간 이탈리아인들, 노예제 폐지를 위해 싸우다가 총알과 포탄에 맞아 쓰러진 미국인은 모두 프랑스와 영국의 면직물 산업의 발전에 기여한 사람들이다. 마찬가지로 영국 맨체스터와 프랑스 루앙의 공장들에서 시들어가고 있는 여공들, (몇몇 노동자의 제안에 따라) 직조 기계의 성능을 향상시킨 발명가도 이 산업의 발전을 돋는 사람들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모든 사람'이 기여해서 쌓은 부에서 각자의 땅을 계산할 수 있단 말인가?

이렇게 일반적이고 종합적인 관점에서 생산을 살펴보면 우리는 집산주의자들에게 동의할 수 없다. 집산주의자들은 각자의 노동 시간에 비례해서 임금을 주는 것을 이상적인 계획이라고 여기거나 올바른 방향으로 가는 단계라고 생각한다.

현 사회에서 상품의 교환 가치가 그것을 생산하는데 들어간 노동량에 따라 실제로 측정되는지를 여기서 논하지는 않겠다. 이런 측정은 아담스미스<sup>46</sup>와 리카도<sup>47</sup>의 가르침, 그리고 그들의 발자취를 따라갔던 마르크스의 가르침에 따른 것이다. 아주 제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루도록 하자. 여기서는 집산주의자들의 생각이, 노동수단을 공동의 유산으로 생각하는 사회에서 지지 받기 어렵다는 점을 언급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노동수단이 공동의 유산이라는 원리로부터 출발한 사회는, 맨처음부터 모든 형태의 임금 제를 폐지 할 수밖에 없음을 깨닫게 될 것이다.

집산주의 체제로 건너간 개인주의는 토지와 생산수단을 공동 소유로 사회화하는 부분적인 공산주의와는 나란히 유지될 수 없을 것이다. 새로운 소유 형태는 새로운 형태의 보상 체계를 필요로 한다. 새로운 생산수단은 낡은 소비 형태와 나란히 공존할 수 없으며, 낡은 형태의 정치 체제에도 더 이상 적응할 수 없다.

토지와 노동수단을 개인적으로 소유하기 때문에 임금제도가 생겨나는 것이다. 임금제도는 자본주의적 생산 방식이 발달하는데 필요한 조건이었다. 비록 '이익 분배'로 위장한 채 시도될지라도, 이 임금제도는 자본주의적 생산 방식과 함께 무너질 것이다. 노동수단의 공동 소유는 반드시 공동 노동의 결실을 공동으로 즐기도록 해야 하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우리는 코뮌주의 가바람직한 것일 뿐만 아니라, 개인주의에 근거를 둔 자금 사회는 반드시 코뮌주의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주장을 지지한다. 지난 3 세기 동안 개인주의의 발달은 개인이 자본과 국가의 횡포로부터 스스로를 지키려는 노력이었다고 설명할 수 있다.

어떤 시기에 개인은 이런 상상을 했고, 이런 생각을 표현했던 사람들은 개인이 국가와 사회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 있다고 선언했다. 이 개인은 "나는 돈을 가지고 내가 필요 한 모든 것을 살 수 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 개인은 잘못된 길을 가고 있었기 때문에, 현대 역사는 그가 다음과 같은 사실을 깨닫도록 가르치고 있다. 설령 그의 금고가 금으로 가득 차 있을지라도, 모두의 도움이 없으면 아무 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말이다.

<sup>45</sup> 스위스 알프스 산맥의 철도 터널로 약 15 km 길이다. 1871~1881년까지 건설되었으며, 건설 과정에서 약 200 명의 노동자가 사망했다.

<sup>46</sup> 스코틀랜드의 사회 철학자, 정치 경제학자로 고전주의 경제학의 창시자 (Adam Smith, 1723-1790). 그의 저서 『국부론』은 자유 방임주의를 표방한 최초의 경제학 저서로 알려져 있다. 경제 사회에서 각 개인의 이익 추구 행동이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조정되는 국가의 부와 생산력 향상을 가져온다고 본다.

<sup>47</sup> 영국의 고전 경제학자 (David Ricardo, 1772-1823). 경제 이론에 체계적이고 고전적인 형식을 부여해 19세기 경제학을 체계화시키고 발전시켰다. 자유 방임자본주의를 옹호함.

실제로 지금 유행하는 개인주의를 따라가 보면 우리는 모든 현대 역사에서 어떤 경향을 발견할 수 있다. 한편으로는 옛 시대의 부분적인 코뮌주의의 흔적들이 지속되는 경향이 있다는 점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현대적 삶의 수많은 발전 속에서도 코뮌주의적인 원리가 자리 잡는 경향이 있다는 점이다.

10 세기, 11 세기, 그리고 12 세기의 코뮌들이 군주들, 성직자 혹은 평신도라는 구분으로부터 해방되는데 성공하자마자, 그들의 공동 노동과 공동 소비는 그 범위가 빠르게 확대되면서 발전해갔다. 개인이 아니라 한 마을 주민이 자기들의 생산물을 수출하기 위해 배에 화물을 실고 탐험대를 꾸렸다. 그리고 외국 무역에서 얻은 이익은 개인에게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코뮌의 모든 사람한테 나누어졌다. 그 마을의 행정부 역시 처음부터 모든 주민이 먹을 식료품을 구매했다. 이런 제도가 남긴 흔적은 19 세기까지 사라지지 않고 이어지고 있었으며, 사람들은 자신의 전설 속에 그 기억을 경건히 간직하고 있었다.

이 모든 것이 사라져 가고 있다. 하지만 어느 시골 지역에서는 마지막으로 남은 코뮌주의의 흔적을 보존하기 위해 여전히 애쓰고 있으며, 국가가 무력으로 그 균형을 깨트리는 경우만 아니라면 성공하고 있다. 그러는 동안 ‘모두에게 필요에 따라 나눈다’는 이 똑같은 원리에 기초를 둔 새로운 조직이다 다양한 형태로 무수히 생겨나고 있다. 왜냐하면 코뮌주의의 영향을 일정 정도 받아들이지 않으면 존속할 수 없기 때문이다. 상업주의 시스템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이 편협하고 이기적으로 되어가고 있음에도 코뮌주의로 향하려는 경향은 끊임 없이 나타나고 있으며, 우리의 활동에 다양 한 방식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

과거에는 통행료가 부과되었던 다리들이 이제 공공 자산이 되어서 모두가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주요 도로들 역시 무료가 되었는데 동양은 예외이다. 동양에서는 여행객들이 이동할 때마다 통행료를 받는다. 또 박물관, 무료 도서관, 무료 학교, 아이들을 위한 무료 급식도 있다. 공원과 정원도 모두에게 개방되어 있다. 거리는 포장되어 있고, 가로등이 세워져 있으며, 모두가 자유롭게 다닐 수 있다. 물은 제한이나 할당 없이 모든 가정에 공급된다. 이 모든 조정은 바로 ‘필요한 것을 가져간다’는 원리에 기초를 두고 있다.

시가전 철과 철도들은 타는 횟수에 제한을 두지 않는 월정 기권과 1 년 정기권 제도를 도입했다. 형가리와 러시아 두나라는 철도 요금에 ‘동일 요금 구획 제도’를 도입해서, 승차권을 가진 사람은 500 마일이나 800 마일이나 상관없이 같은 요금으로 여행할 수 있게 했다.

이 모든 혁신, 그리고 다른 수많은 분야의 일반적인 추세는 개인적으로 얼마나 소비하는지를 평가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어떤 사람은 기차로 800 마일을 여행하고 싶어하고, 다른 사람은 500 마일을 여행하고 싶어 한다. 이것들은 개인적인 필요다. 어떤 사람의 필요가 두 배 더 크다고 해서 요금도 두 배로 지불해야 할 이유는 딱히 없다. 이런 것들은 지금의 개인주의적인 사회에서나 볼 수 있는 징후들일 뿐이다.

제다가 아직은 미약하지만, 어떤 사람이 과거에 공동체에 기여했던 정도나 앞으로 기여할 가능성과 관계 없이 개인의 필요를 고려하려는 경향도 있다. 우리는 전체로서의 사회를 생각하기 시작했고, 사회의 각 부분들은 서로 밀접하게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한 부분에 제공된 서비스는 모든 부분에 제공된 서비스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고 있다.

어느 공공 도서관에 들어가게 된 경우를 생각해보라. 꼭파리의 국립 도서관이 아니어도 대영 박물관이나 베를린 시립 도서관을 떠올려보라. 그곳에서는 당신이 요청한 책을 대출해주기 전에 사회에 어떤 기여를 했는지를 묻지 않을 것이다. 심지어 책 목록을 어떻게 이용하는지 모른다면 사서가 도와줄 것이다. 대개는 연구에 공헌한 사람을 선호하겠지만, 그럼에도 학회는 박물관, 공원, 도서관, 실험실을 개방하고 있다. 학회의 모든 회원은 다원<sup>48</sup> 같은 전문학자든 아마추어 연구자든 상관 없이 연례 좌담회에 참석할 수 있다.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당신이 정성들여서 어떤 발명을 하고 있다면, 특별한 실험실에 갈 수도 있다. 그곳에서 자리를 제공받고 서오직 나만이 사용법을 알고 있는 목수용 작업대, 회전 선반 (旋盤) 같은 온갖 필요한 도구와 과학 기구를 제공받을 수 있다. 그리고 원하는 만큼 그곳에서 작업할 수 있다. 그곳에는 도구들이 있고, 당신의 아이디어에 흥미를 느끼는 다른 사람들도 있다. 다양한 기술이 있는 동료 노동자와 협력할 수도 있고 혼자 일하는 것이 더 좋으면 그렇게 해도 된다. 하늘을 나는 기계를 발명하거나 아무 것도 발명하지 않아도 괜찮다. 그것은 스스로 알아서 할 일이다. 당신은 어떤 아이디어를 탐구하고 있는 중이고, 그것으로 충분하다.

이와 마찬가지로 구조선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침몰하고 있는 배의 승객에게 신분증을 요구하지 않는다. 그들은 구조선을 바다에 띠우고는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성난 파도를 헤치며 나아간다. 때로 목숨을 잃기도 하지만 그들은 자기가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서 애를 쓴다. 그리고 무엇 때문에 이들이 조난자들을 개인적으로 알아야 할 필요가 있겠는가?

“그들은 인간들이고,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한다. 그것만으로 그들에게 충분히 권리가 있다. 구조 받을 권리 말이다!”

<sup>48</sup> 영국의 자연 과학자로 진화론의 제창자 (1809-1882).

이렇게 우리는 두드러지게 코뮌주의적인 이런 경향이 사방팔방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이론상으로는 개인주의적인 사회들의 가장 깊숙한 중심부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의심할 수 있겠는가? 생산수단들이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식으로 배치되고, 사업이 코뮌주의 원리들에 따라 운영되며, 노동이 사회에서 명예로운 자리를 다시 되찾고, 모두에게 필요한 것 이상으로 생산하게 된다면, 이미 상당히 강력한 이코뮌주의적인 경향이 점점 영향력을 넓혀서 마침내 사회적 삶의 주된 원리가 될 것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의심할 수 있겠는가?

이러한 정후들을 따라가고 다음 장에서 이야기 할 사유재산 수용의 실제적인 측면을 좀 더 검토해본다면, 우리는 확신 할 수 있다. 혁명이 현체제를 지탱하고 있는 권력을 무너뜨리게 될 때,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임무는 지체 없이 코뮌주의를 실현하는 일이라는 것을 말이다.

그러나 우리의 코뮌주의는 푸리에나 팔랑스테르주의자의 공산주의도 아니고, 독일의 국가 사회주의자들의 공산주의도 아니다. 이것은 '아나키즘적 코뮌주의' (Anarchist Communism)로, '정부가 없는 코뮌주의', '자유 코뮌주의'를 말한다. 이것은 수천년 동안 인류가 추구해온 두 가지 이상인 경제적인 해방과 정치적인 해방이라는 이상을 종합한 것이다.

## II

정치적인 조직과 관련한 우리의 이상으로 '아나키사회' (Anar-chy)를 받아들일 경우, 우리는 인간 진보에서 나타난 또 다른 두드러진 경향성을 표현하기만 하면 된다.

유럽 사회들이 특정한 지점을 향해 발달해 갈 때마다 그 사회는 권위의 명예를 떨쳐버리고, 다소간 개인적인 해방의 원리에 기초한 체제를 대신 세우곤 했다. 그리고 이 부분적이거나 보편적인 혁명의 시기는 바로 낡은 정부가 전복되는 때였음을 역사는 보여준다. 뿐만 아니라 이 시기는 경제적인 영역과 지적인 영역 모두에서 갑작스런 진보가 이루어진 때였다.

그래서 코뮌들이 자유를 얻은 다음의 이 시기는, 길드 조합들이 자유로운 노동으로 역사적으로 중요한 위업을 이룬 시기이며, 아직까지 어떤 사회도 그 위업을 능가하지 못했다. 종교 개혁이 일어나서 교황의 권력이 위태로워진 것도 위대한 농민 반란이 일어난 다음이었다. 그리고 구세계 유럽에서 추방된 불온 분자들이 대서양 저편에 새로운 나라를 만든 것도 짧게나마 다시 자유를 누린 이런 사회에서였다.

또한 문명 국가들에서 현재 일어나는 발전을 관찰해 보면, 정부의 활동을 점점 더 제한하고 개인에게는 더 많은 자유를 허가하는 경향을 분명히 볼 수 있다. 이런 점진적인 진보는 우리 눈앞에서 계속되고 있다. 비록 케케묵은 제도와 미신이 몰락하면서 남긴 쓰레기 더미 때문에 방해를 받을지도 말이다. 모든 진보와 마찬가지로 이것 역시 길을 가로막고 있는 오래된 장애물들을 치워 버릴 혁명을 기다리고 있다. 혁명이 일어나면 이 진보는 새로이 혁신된 사회에서 자유로운 영역을 찾을 수 있다.

다음과 같은식의 정부 구성이라는 해결 불가능한 문제, 즉 '스스로 사회의 하인이 되는 일을 그만두지 않으면서, 개인에게 복종을 강요하는 정부'를 구성하려는 문제로 오랫동안 헛되이 노력한 끝에야 사람들은 마침내 모든 형태의 정부로부터 스스로를 해방시키려는 시도를 할 것이다. 그들은 공동의 목적을 추구하는 개인과 단체 간의 자유로운 협약으로 조직을 구성해서 자기들의 필요를 충족시키려고 시도 할 것이다. 작은 지역 단위들은 각자의 독립성이 긴급하게 필요하게 될 것이다. 공공의 목적을 고려하는 가운데 개인적인 이해 관계를 조절하기 위해서 상호간의 합의가 법을 대신하게 될 것이다. 이들은 대체로 지금 국가의 국경을 크게 염두에 두지 않을 것이다.

이전에는 정부의 역할처럼 보였던 모든 일이 오늘날에는 의문의 대상이 되고 있다. 국가가 개입하지 않아야 하는 일들이 더 쉽고 만족스럽게 처리된다. 그리고 이런 방향으로 이루어진 진보를 연구하다 보면, 인류가 나아가는 추세는 정부의 간섭을 완전히 없애가는 것이라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사실 상 불의, 억압, 독재의 화신이라고 할 국가를 폐지하는 쪽으로 나아가게 될 것이다.

우리는 그런 세상을 이미 살짝 엿볼 수 있다. 개인이 더 이상 법률로 묶여져 있지 않고 사회적인 관습들에 의해서 묶인 세상을 말이다. 다시 말해, 우리 각자가 필요하다고 느끼는 것을 이웃의 지원, 서로간의 협력과 연민에 의해 서언을 수 있는 세상 말이다.

국가 없는 사회라는 생각은 사유재산이 없는 사회의 정치 경제 만큼이나 많은 반대를 불러일으킬 것이다. 우리 모두는 어린 시절부터 국가를 일종의 섭리로 여기는 분위기에서 자라났다. 우리가 받은 모든 교육, 가령 학교에서

배우는로마역사, 나중에로마법이란이름으로공부하는비잔틴법전<sup>49</sup>, 그리고대학에서가르쳐지는각종학문들때문에우리는정부를믿는일에익숙해졌고, 국가의덕목이하늘의뜻이라고믿게되었다. 이미신을유지하기위해서모든철학체계가정교하게만들어지고가르쳐졌다. 모든정치도이원리에기초해있고, 당파가어떻든간에모든정치인은앞으로나서서이렇게말한다.

“우리정당에게권력을달라. 우리는너무나무겁게억압했던비참함으로부터당신들을해방시킬수있고, 그령게할것이다.”

요람에서무덤까지우리가행하는모든행동이이원리에따라이루어진다. 사회학이나법학에관한책을어떤것이라도좋으니한번들춰보라. 그러면거기에는정부, 정부의제도, 법률등으로온통가득차있어서, 정부와정치가들의세상말고는아무것도없는것이라고믿게된다.

언론역시온갖방법을다동원해서똑같은것을믿도록가르친다. 모든기사는의회에서벌어지는논쟁과정치적인계략으로가득차있다. 반면에광범위한일상적삶은단지경제기사를보도하는지면이나경찰보고서와법률사건을다루는지면에서나볼수있다. 그래서신문을읽게되면헤아릴수없이많은존재들, 말하자면인류에대해서는거의생각조차해보기힘들다. 태어나서자라고죽고, 슬픔을알고있고, 일하고소비하는수많은사람을거의생각하지않는것이다. 또한사람들은걸리적거리는몇몇인물들을외부에만들어놓는데이들은너무나과장되어있다. 때문에, 전체인류는우리의무지로인해확대되고과장된이인물들의그늘에가려지게된다.

그러므로이런인쇄물에서빠져나와삶자체를주목하게되자마자, 그리고사회에시선을던지자마자, 당신은정부가수행하는역할이얼마나적은지알고는충격받을것이다. 발자크<sup>50</sup>는수많은농민이어떻게국가에대해아무것도알지못한채로일생을살아가는지, 강제로부과된무거운세금에서어떻게벗어나는지를이미알아챘던사람이다. 매일무수히많은거래가정부의개입없이이루어지고있다. 그리고상업이나교환이이루어지는거래의대다수는정부에게분쟁해결을호소하지않고이루어진다. 설령, 계약당사자중한쪽이약속을이행하지않을작정이더라도말이다. 상업을잘하는어떤사람에게말을걸어보라. 그러면그사람은상인들이거래하는일상적인업무들은상호신뢰에기반을두지않고서는완전히불가능하다고말해줄것이다. 또약속을지키려는상인들의습관과신용을잃지않으려는소망만으로이상대적인정직함을유지하는데충분하다고부연설명을해줄것이다.

허풍스런문구로포장된약으로고객들을해롭게하면서조금도양심의가책을느끼지않는사람일지라도, 자기계약을지키기로한명예로운의무는생각할것이다. 그런데부유함만이유일한동기이자목적인지금의상황속에서조차이런상대적인윤리의식이발달해왔다면, 다른사람의노동의결실을횡령하는것이더이상사회의기본원리가아니게되었을때는이런윤리의식이신속히발달하리라는사실을우리가의심할수있을까?

게다가우리세대를특징짓는또다른놀라운사실이우리생각들을더욱더지지해주고있다. 이것은개인적이고진취적인정신덕분에기업의영역이끊임없이확장되고있고, 온갖종류의자유로운조직이엄청나게발전하고있다는사실이다. 아주제에대해서는〈자유로운협약〉에서보다상세하게논의하자. 여기서는이런실례들이워낙많고관례적으로이루어지고있기때문에, 이것들이19세기중반과후반기동안의핵심이라는사실을언급하는것으로충분하다. 비록정치가나사회주의저술가들은언제나정부의기능에대해서만이야기하길좋아해서이사실을무시하고있지만말이다.

자유롭고무한히다양한이조직은우리문명의너무나자연스러운결과이다. 이조직들은아주빠르게성장하면서아주쉽게서로동맹을맺는다. 이조직들은문명화된인간의욕구가계속증가하면서나타난매우필연적인결과이다.

마지막으로이조직들은정부의간섭을대신할만한장점들을많이갖고있기때문에, 우리는이조직들안에사회생활에서점점중요성이커지고있는요인이있다는사실을인정해야한다. 이조직들이아직도삶의전영역에서분명히드러나지않았거나널리퍼지지않았다면그이유는노동자의가난, 현사회의분열, 자본의사적인횡령, 그리고국가라는극복하기어려운장애물에부딪쳤기때문이다. 이런장애물을완전히없애보라. 그러면문명인이활동하는아주다양한영역이이런조직들로가득차게되는모습을보게될것이다.

지난50년의역사는대의제정부의무능함에대한살아있는증거를제공해주고있다. 즉, 의회정치라는대의제정부는우리가부여한모든직무를수행하는일에서아주무능했다는사실말이다. 앞으로다가올어느시대에는, 19세기를인용할때의회정치(parliamentarism)<sup>51</sup>의실패를목격한시기로말할것이다.

<sup>49</sup> 4세기~15세기까지존속했던비잔티움제국(동로마제국)의법전. 6세기유스티아누스대제재위당시에편찬.

<sup>50</sup> 프랑스의소설가로근대사실주의문학의대표적인작가(1799-1850). 대표작은『고리오영감』, 『골짜기의백합』. 농민이착취당하는현실을그린『농민들Les Paysans』등이있다.

<sup>51</sup> 국가의중요한정치적결정이나법률제정을의회에서다수결의원칙으로정하는정치방식. 의회주의라고도한다.

이무능은모두에게아주자명한것으로되어가고있다. 의회정치의결함들과대의제원리의타고난사악함은  
워낙자명하기때문에, 그것들을비판적으로연구했던몇몇사상가들(J. S. 밀<sup>52</sup>, 러버데이스<sup>53</sup>) 조차대중의  
불만을문학적인형식으로표현했을뿐이다. 몇몇사람을의원으로지명하고는그들에게이렇게말하는게얼마  
나부조리한일인지는실제로금방알수있다.

“우리의모든활동영역을통제할수있는법률을만들도록하시오. 비록당신들중누구도그영역들에관해아  
는사람이없을지라도말이오!”

우리는깨닫기시작했다. 다수파가지배하는정부는기회주의자들에게나라의온갖일을넘겨주는것을의미  
한다는사실을말이다. 이기회주의자들은의회나선거위원회에서다수파를만들어내는사람들로서, 간단히말  
해자기의고유한의견이없는사람들이다. 인류는새로운돌파구를찾고있고이미그것을발견하고있다. 국제우  
편노동조합, 철도노동조합, 그리고학문연구단체들은법을대신해서자유로운협약에기초한해결책의모범을  
보여주고있다.

오늘날여기저기에널리흩어져있는단체들이어떤목적을위해자체적으로조직을하려고한다면, 그들은뭐  
든할수있다는‘국제의회’를더이상선출하지않는다. 그들은다른방향으로나아갈것이다. 직접만나는것이가  
능하지않거나편지왕래로합의가잘안될경우에는문제가되는점들을충분히잘알고있는대표자를파견할것이  
다. 그리고이대표자들에게이렇게당부할것이다.

“이러저러한문제에대해서합의를이끌어내기위해노력하시오. 그리고돌아올때는호주머니에법률이아  
니라합의안을넣어서돌아오시오. 우리가수용하거나그렇지않거나간에말이오.”

이런방법이바로대규모기업, 학문연구단체, 온갖종류의수많은조합이쓰고있는방법이고, 이미유럽과미  
국에널리퍼진방법이다. 그리고이방법은자유로운미래사회방법이될것이다. 농노제도에기반을둔사회는  
전제군주제를유지하는사회이다. 임금제도와자본가들에의한대중의착취에토대를둔사회는, 정치적인표현  
수단으로의회정치를이용한다.

그러나자유로운사회와공동의자산을되찾게된사회는, 자유로운단체들의자유로운연합체를추구해야하  
고, 역사의새로운경제적단계와조화를이루는새로운조직을추구해야한다. 각각의경제적단계는그에상응하  
는정치적단계를가지고있다. 그리고새로운형태의정치적삶이동시에발견되지않는다면, 사유재산을건드리  
는일은불가능하다.

---

<sup>52</sup> 자유주의사상을가진영국의철학자, 경제학자(John Stuart Mill, 1806-1873). 『자유론』의저자.

<sup>53</sup> 프랑스의정치경제학자(Emile Leveldays, 1835-1890). 많은정치팜플렛을썼으며파리코뮌에서활동함.



## 04. 사유재산수용

### I

로스차일드<sup>54</sup>는 1848년 혁명때문에 자신의 재산이 위협을 받게 되자, 다음과 같은 책략을 구상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나는 내 재산이다른 사람들의 희생으로 쌓였다는 것을 기꺼이 인정한다. 하지만 내일 당장 내 재산을 수많은 유럽인에게 분배한다면, 한 사람�이 받을 수 있는 뜻은 고작 4 실링밖에 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좋다. 누군가 내게 자기 뜻을 달라고 요구한다면 한 사람당 4 실링씩을 나눠줄 것을 약속하겠다.”

자기의 약속을 적당히 공표하고 난이 백만 장자께서는 여느 때처럼 독일 프랑크푸르트의 거리를 조용히 산책했다. 지나가던 행인 서너 명이 그에게 4 실링을 요구하자 그는 냉소적인 미소를 지으며 돈을 건네줬다. 그의 책략은 성공했고, 백만 장자인 그의 가족은 여전히 그 재산을 그대로 소유하고 있다. 중산층의 약삭빠른 사람들도 이와 비슷한 논리를 내세우면서 이렇게 말한다.

“오, 사유재산의 수용! 나는 그게 무얼 뜻하는지 잘 알고 있다. 사람들에게서 외투를 모두 가져가서는 산더미처럼 쌓아놓는 것이다. 그러면 모든 사람이 자유롭게 원하는 걸 가져갈 수 있고, 제일 좋은 외투를 차지하려고 자유롭게 서로 싸울 수 있다는 뜻이다.”

그러나 이런 실없는 조롱은 경박하고 얼토당토 않은 말이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외투들을 다시 분배하는 것이다. 추위에 떠는 사람들은 이런식의 재분배에서 이득을 볼 수 있을지라도 말이다. 또한 우리가 원하는 것이로 스차일드가문의 엄청난 재산을 각자 나눠 갖자는 것도 아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이 필요한 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상황을 조정하자는 것이다. 가령, 쓸모 있는 기술을 배울 수 있는 기회, 그 기술에 숙달될 수 있는 기회 같은 것들 말이다. 그 다음으로는 우두머리나 주인에게 허락을 구하지 않고 자유롭게 일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 그리고 자신이 생산한 것 중 제일 큰 뜻을 주인이나 자본가에게 넘겨주는 일이 없어야 한다. 로스차일드가문이나 반더빌트<sup>55</sup> 가문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은 우리의 자치적인 공동 생산 체제를 만드는 일에 쓰이게 될 것이다.

농부가 자신이 생산한 것의 절반을 세금으로 빼앗기지 않으면서 땅을 경작하는 날, 풍성한 수확을 위해 땅을 준비하는데 필요 한 기계들을 자유롭게 쓸 수 있는 날, 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독점자 본가가 아닌 공동체를 위해 생산하는 날, 그 날은 노동하는 사람들이 충분히 먹고 잘 입는 모습을 보게 되는 날일 것이고, 로스차일드가문이나 다른 착취자들이 사라지는 날일 것이다. 그때가 되면 어느 누구도 자신이 생산한 것들의 극히 일부에 불과한 임금을 받으려고 자기 노동력을 팔 필요가 없다. 비평가들은 이렇게 말한다.

“지금까지는 좋다. 하지만 외부에서 로스차일드 같은 사람들이 들어올 것이다. 어떤 사람이 중국에서 엄청난 재산을 축적한다음 당신들 사이에 자리 잡는 일을 어떻게 막을 것인가? 그 사람이 자기 주위에 하인들과 임금 노예들을 거느리고서, 그들을 착취하고 그들의 희생을 이용하면서 부유하게 사는 일을 어떻게 막을 것인가?”

“당신들은 세계 전역에서 동시에 혁명을 일으킬 수는 없다. 그렇다면 국경에 세관원을 설치해서 당신 나라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을 조사하고, 그들이 갖고 들어오는 돈을 몰수 할 생각인가? 아나키스트 경찰이 여행자들에게 총을 쏘아대는 모습은 정말 불만한 광경일 것이다!”

그러나 이런 주장의 밑바탕에는 아주 심각한 오류가 있다. 이런식의 문제 제기를 하는 사람들은 부자들의 재산이 언제, 그리고 어떻게 생겨난 것인지를 한번도 물어본 적이 없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조금만 생각해보면, 이 재산들은 애초에 가난한 사람들의 빈곤으로부터 생겨났다는 사실을 충분히 보여줄 수 있다. 그러므로 더 이상 그런 빈곤한 사람들이 없게 되면, 그들을 착취하는 부자들도 더 이상 없다.

<sup>54</sup> 유대계 은행가 집안으로 아주 유명한 국제 금융자본가 그룹을 대대로 운영하는 사람들.

<sup>55</sup> 미국의 네덜란드 계대부호 가문. 19세기 후반 미국의 호황기 때 철도 등으로 많은 재산을 축적했다.

막대한 부가 생겨나기 시작하던 중세 시대를 잠시 살펴보도록 하자. 어떤 봉건 영주가 비옥한 골짜기를 소유한 다. 하지만 이 비옥한 골짜기에 사람들이 없는 한 영주는 부자가 아니다. 그의 땅은 그에게 아무 것도 가져다 주지 않기 때문이다. 차라리 달에 있는 땅을 소유하는 편이 낫다. 이 영주가 자신을 부유하게 만들려고 무엇을 할까? 그는 농민들, 가난한 농민들을 구할 것이다!

만일 모든 농민이 한 땅의 땅을 갖고 있고 지대나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면, 거기에다가 농사일에 필요한 도구들과 가축이 있다면, 어느 누가 영주의 땅을 경작하려고 하겠는가? 모든 사람이 자기 땅을 돌볼텐데 말이다. 그러나 전쟁, 기근, 전염병 때문에 비참한 처지에 빠지게 된 수많은 사람이 있다. 그들한테는 말(馬)도 없고, 쟁기 도 없다. (중세 시대에는 철제 물품들이 아주 비쌌고 수레를 끄는 말 역시 아주 비쌌다.)

이비참한 목숨 모두는 자기들의 처지를 보다 낫게 만들려고 애쓰고 있는 중이다. 그러던 어느 날 그들은 영주가 소유한 사유지의 경계 지역에서 공고문 하나를 보게 된다. 이 공고문에는 농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특별한 방식으로 이런 말이 적혀 있다. 즉, 영주의 땅에 정착할 마음이 있는 노동자는 자기 오두막을 짓고 영주의 논밭에서 농사짓는데 필요한 연장과 재료를 받을 것이고, 한정된 몇 년의 기간 동안에는 그 땅을 무료로 빌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이다. 몇 년이라는 그 숫자는 수많은 집자기호로 표시되어 있을 것이고, 농민들은 그 집자기호의 의미를 이해할 것이다.

그리하여 가련하고 불쌍한 이 사람들은 영주의 땅에 자리를 잡게 된다. 그들은 도로를 만들고, 습지의 물을 빼고, 마을들을 건설한다. 9~10년 정도 지나면 영주는 그들에게 서세금을 거두기 시작한다. 5년이 지난 다음에는 땅 임대료를 올린다. 그런 뒤에 임대료를 다시 두 배로 올리는데, 농민들은 다른 곳에서 더 나은 땅을 구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새로운 조건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봉건 영주들이 만들어낸 법률에 의해서 소작 농민들의 가난은 점차 땅 주인인 영주가 소유하는 부의 원천이 되어 간다. 게다가 농민의 등을 쳐먹는 사람은 영주만이 아니다. 수많은 고리 대금업자, 갑자기 마을을 덮쳐서는 소작 농들을 더욱 비참하게 만든다. 이것이 바로 중세 시대에 부가 증가하게 된 방식이다. 그런데 오늘날에도 여전히 이와 똑같은 방식이지 않은가? 농부에게 무료로 경작할 수 있는 땅이 있다면, 생색을 내며 벌려주는 부스러기 땅 때문에 농부가 자작나리에게 50파운드를 지불하려고 할까? 농부가 자기 생산물의 절반을 땅 주인에게 내놓아야 하는 소작 제도에 동의할까?

하지만 농부는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그는 목숨을 계속 부지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어떤 조건이든지 받아들일 것이고, 결국 땅을 경작해서 땅 주인을 부유하게 만들 것이다. 그러므로 19세기 역사 중세 시대와 마찬 가지로 농민의 빈곤이 땅을 선점한 자들을 부유하게 만드는 근본 원인인 것이다.

## II

지주의 재산은 농민들의 빈곤 때문에 축적된 것이고, 자본가의 부富 역시 같은 원천에서 나왔다. 중산층 시민 한 사람을 예로 들어보자. 그에게는 2만 파운드의 재산이 있다. 물론 그는 1년에 2천 파운드 정도를 쓸 수 있는데, 그 정도 씀씀이는 오늘날의 터무니없고 물상식한 사치에 비하면 사소한 소비이다. 그러나 10년을 그렇게 보내고 나면 그한테는 아무 것도 남아 있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실리적인 사람'인 그는 자기 재산은 순대지 않은 채 그대로 남겨놓고, 매년 생활에 불편함이 없을 정도의 수입을 얻으려고 한다.

우리 사회에서 이 일은 아주 쉽다. 왜냐하면 도시와 시골 마을에는 한 달이나 심지어 보름 동안 살아갈 돈 조차 없는 노동자들이 우글거리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부유한 시민은 공장을 시작한다. 은행은 부리나케 또 다른 2만 파운드를 그에게 벌려줄 것이고, 그가 '사업수완'이 있다는 평판이 들리면 특히 더 그럴 것이다. 그는 상당한 액수의 이돈을 가지고 500명의 노동자를 맘대로 부릴 수 있게 된다.

만약 그 지역에 사는 모든 남자와 여자에게 매일 뺨을 빼고 일상적인 필요가 이미 충족된 상태라면, 누가 하루 반 크라운의 임금을 받고 서이자 본가를 위해 일하겠는가? 자기가 생산한 상품들이 시장에서 1크라운이 상의 값으로 팔리고 있는데 말이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불행하게도 우리의 도시들과 인근의 빈민가에는 궁핍하고 비참한 사람들�이 바글거리고 있고 그들의 아이는 뺨을 달라고 울어대고 있는 상황이다. 그리하여 공장이 제대로 완성되기도 전에 자신을 고용해 달라는 노동자들이 앞을 다퉈서 몰려온다. 100 명을 모집하는데 300 명이 몰려드는 것이다. 그런 상황에서 공장이 돌아가기 시작한다면, 공장주가 평범한 사업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일지라도 분명 자기가 고용한 노동자 한 사람으로부터 1년에 40 파운드 정도의 이익을 챙길 수 있다.

그렇게 해서 이 시민은 어느 정도의 재산을 모을 수 있게 된다. 만일 그가 이익이 많은 거래를 선택하고, ‘사업 수완’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는 곧 착취하는 사람의 수를 두 배로 늘려서 자기 수입을 늘려갈 것이다. 그리하여 그는 중요한 인물이 되어간다. 그는 이제 다른 유력인사들, 가령 지역 유지들, 부유한 도시민, 법률가, 정치계의 고위 인사들에게 식사 대접을 할 수 있게 된다. 자기 재산으로 그는 돈 많은 아내를 맞이 할 수도 있다. 점차 그는 자기 아이들을 좋은 자리에 앉히고, 나중에는 어쩌면 정부로부터 뭔가 좋은 것을 받을지도 모른다. 군대나 경찰에 납품하는 계약을 따내는 식으로 말이다. 그의 돈은 점점 더 많은 돈을 낳는다. 심지어 그는 전쟁이나 전쟁에 대한 소문 혹은 주가 등락을 예측하면서 더 많은 돈을 벌기 회를 잡을 것이다.

미국이 쌓아 올린 엄청난 부의 10 분의 9는 (헨리 조지<sup>56</sup>가 〈사회 문제〉라는 자신의 글에서 쓴 바와 같이) 국가가 거들어주는 엄청난 규모의 부정 행위가 낳은 결과이다. 유럽의 경우에도 군주제 국가와 공화제 국가에서 축적된 부의 10 분의 9도 미국과 같은 원천에서 나왔다. 백만장자가 되는데는 다른 방법이 없고 유일하게 이 방법뿐이기 때문이다. 이것이 바로 부를 쌓는 비밀이다. 굶주리고 비참한 사람들을 찾아내서 그들에게 하루 반 크라운의 임금을 주고 5 실링 어치의 상품을 생산하게 하라. 이런 식으로 재산을 모은 다음에는 국가의 도움을 받으면서 돈 벌이가 되는 투자를 몇 번 하는 식으로 재산을 불려가는 것이다.

우리는 단지 저축하는 것만으로는 아무 것도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렇게 모은 푼돈을 굶주린 이들을 착취하는 일에 쓰지 않는 한 말이다. 그런데도 경제학자들의 주장처럼 미리 계획하고 절약해서 작은 재산을 모으는 일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할 필요가 있을까?

한 구두장이의 예를 들어보자. 그의 일은 보수도 좋고 손님도 많다. 그리고 그는 대단히 절약하면서 하루에 18 펜스에서 2 실링 까지 저축할 수 있고 한 달에 2 파운드를 모은다. 또 그는 결혼도 하지 않았으며 아이들도 없다. 그리고 그에게는 소비하려는 마음도 전혀 없다. 하여 간워든지 원하는 대로 마음껏 상상해보라!

어쨌든 그는 50 살이 되어도 총 800 파운드를 모으지 못할 것이다. 게다가 그는 나이가 들어 일 할 수 없을 때 살아갈 돈도 충분히 모으지 못할 것이다. 분명히 이런 방식으로는 재산을 모을 수 없다.

그러나 한번 예상을 해보자. 우리의 구두장이 가야 간의 돈을 모으자 마자 그 돈을 알뜰하게 저축은행에 예금한다. 그러면 은행은 그 돈을 자본가들에게 빌려줄 것이고, 그 자본가들은 곧 ‘노동자를 고용할 것’이다. 다시 말해, 구두장이도 어떤 식으로든 가난한 사람들을 착취하게 된다는 뜻이다. 그런 다음에 우리의 구두장이는 어느 가난뱅이의 아들을 견습공으로 들인다. 그 견습공의 아버지는 5년 후에 자기 아들이 기술을 배워서 먹고 살 수 있는 돈을 벌게되면 자신은 운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그러는 동안 우리의 구두장이가 견습공 때문에 손해 보는 일은 없다. 만약 가게 일이 번창하게 되면 구두장이는 곧 두 번째와 세 번째 견습공을 들일 것이다. 그 다음에는 두 세 명의 일꾼들을 고용할 것인데, 그들 역시 가난한 사람이라서 하루에 5 실링 어치 제품을 만들어내면서도 반 크라운을 받으며 감사해한다. 그리고 구두장이에게 운이 따른다면, 다시 말해 그가 충분히 빈틈 없고 충분히 인색하다면 그의 일꾼과 견습공은 하루에 거의 1 파운드를 벌게 해줄 것이고, 거기에다가 구두장이가 직접 만든 제품도 더해질 것이다. 이제 그는 자기 사업을 더욱 크게 확장한다. 그는 점점 더 부자가 될 것이고 삶에 필요한 것들을 애써 절약하거나 아낄 필요가 없게 된다. 자식이 있다면 그는 어느 정도의 재산을 물려줄 것이다.

이것이 바로 사람들이 말하는 ‘절약하고, 검소하게 생활하고, 절제하는 습관을 갖는 일’이다. 깊이 따져 보면 이것 역시 가난한 사람들을 착취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상업은 이런 법칙에서 예외인 것처럼 보인다. 우리는 이런 말을 듣는다.

“상인은 중국에서 차(茶)를 사서 프랑스로 가져오고, 그렇게 해서 원래들인 비용보다 30 퍼센트의 이익을 얻게 된다. 그는 아무도 착취하지 않았다.”

그렇지만 이 경우도 무척이나 비슷한 상황이다. 만약 우리의 상인이 자기 물건을 직접 등에 쳐서 가져온다면 아주 훌륭하고 좋은 일이다! 중세 시대 초기에는 바로그런 식으로 외국 무역을 했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오늘 날처럼 아찔할 정도의 재산을 손에 넣을 수 없었다. 중세 시대 상인들은 길고 위험한 여행을 한 끝에 아주 드물고 힘들게 금

<sup>56</sup> 미국의 경제학자 (Henry George, 1839-1897). 토지를 공유화하고 모든 임대료를 세금으로 징수해서 사회를 위해 써야 한다고 주장. 19세기 영국 사회주의 운동에 큰 영향을 미쳤다.

화들을 벌수 있었다. 그리고 상인들이 이런 일을 하게끔 만드는 동기는 돈에 대한 열망보다는 여행과 모험에 대한 갈망인 경우가 더 많았다.

오늘날에는 상업거래의 방법이 훨씬 간단해졌다. 얼마간의 차본을 가진 상인은 바쁘게 돌아다닐 필요가 없이 책상에 앉아서 부자가 될 수 있다. 그는 대리인에게 전보를 보내서 수백 톤의 차 (茶)를 사라고 지시한다. 대리인은 배에 다차를 실고 몇 주 뒤에, 만약 그 배가 범선이라면 석 달 뒤에 상인에게 화물을 날라다준다. 그는 항해의 위험을 감수할 필요조차 없는데, 그가 구입하는 차상자와 배에는 보험이 들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상인이 4 천파운드의 비용을 들인 경우, 차를 거래해서 5 천파운드나 6 천파운드가 넘는 돈을 벌어들일 것이다. 그가 어떤 진기한 상품에 투자하려는 의도가 없는 한 말이다. 진기한 상품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재산을 두 배로 불리거나 모두 잃을 위험을 무릅쓰는 것이다.

그런데 어떻게 이 상인은 기꺼이 바다를 건너 중국까지 갔다가 돌아올 사람들을 찾아낼 수 있을까? 비참하리 만큼 적은 돈을 받고 서기꺼이 노예와 같은 고된 노동을 참아내고, 생명의 위험을 감수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찾아낼 수 있는 걸까? 어떻게 그는 '간신히 짊어 죽지 않을 정도의 임금'을 받으며 짐을 싣고 내리는 부두 노동자들을 찾아낼 수 있는 걸까?

그건 바로 이 사람들이 너무나 궁핍하고 굶주려 있기 때문이다. 항구에 가서 부둣가에 있는 작은 음식점이나 선술집에 한번 들어가 보라. 그리고 자기의 노동을 팔려고 부둣가로 몰려온 사람들을 바라보라. 이들은 배에서 일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이른 새벽부터 몰려온 사람들이다. 몇 주 혹은 몇 달을 기다린 끝에 장기간의 항해에 고용되었다고 행복해하는 선원들을 한번 보라. 그들은 평생 동안 배를 타고 바다에 나갈 것이며, 파도에 목숨을 잃을 때까지 다른 배를 타고 항해를 할 것이다. 그들의 집으로 들어가서, 가장 인그가 돌아올 때까지 어찌 살아야 할지 전전긍긍하고 있는 누더기를 걸친 그의 아내와 아이들을 바라보라.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을 수 있다.

더 많은 예들을 들 수 있다. 그 예들을 통해서 크든 작든 모든 재산의 기원이 어디에서 유래했는지를 생각할 수 있다. 그 재산이 상업에서 유래했는지, 금융업, 제조업, 땅으로부터 유래했는지 관계없이 말이다. 어디에서나 부자의 재산은 가난한 사람들의 궁핍으로부터 나왔다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아나키스트 사회가 로스차일드 같은 사람들이 나타나서 정착하는 것을 조금도 두려워 할 필요가 없는 것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다. 공동체의 모든 구성원이 몇 시간 동안 생산적인 노동을 한 후에는 문명 사회의 모든 즐거움을 누릴 권리 를 가질 수 있고, 원하는 모든 사람이 예술과 학문 이제 공하는 깊은 즐거움을 누릴 권리가 있음을 알게 된다면, 어느 누구도 굶주림을 겨우면 할 정도의 임금을 벌려고 자기 노동력을 팔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어느 누구도 로스차일드 같은 사람들의 부유함을 위해서 자발적으로 일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가 가진 금화들은 그저 수많은 금속 조각에 불과할 것이고, 다양한 목적으로 사용될 수는 있을 테지만 더 이상 많은 부를 낳지는 못 할 것이다.

위에서 제기된 반론에 답을 하면서 우리는 그와 동시에 재산 수용의 범위를 제시하려고 한다. 이 재산 수용은 모든 것에 적용되어야 하고, 다른 사람의 노동 생산물을 자기 것으로 전용할 수 있는 모든 사람, 가령은 행가, 공장주, 지주 같은 사람들에게도 적용되어야 한다. 재산을 수용해서 공유화하는 우리의 방식은 간단하고 누구나 이해할 수 있다.

우리는 어느 누구의 외투도 빼앗고 싶지 않다. 하지만 노동자들이 갖지 못한 까닭에 착취자들의 손쉬운 먹잇감이 될 수밖에 없었던 모든 것을 노동자들에게 돌려주길 원한다. 그리고 우리는 최선을 다할 것이다. 어떤 사람도 곤궁하게 살 필요가 없고, 단한 사람도 자신과 아이들이 겨우 먹고 살기 위해서 자기 노동력을 강제로 팔 필요가 없는 사회를 위해서 말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재산 수용의 의미이다. 재산 수용은 혁명이 일어나는 동안 우리 의의무가 될 것이고, 이 혁명은 지금으로부터 200년 후가 아니라 곧, 머지 않아 다가올 것이다.

### III

일반적인 아나키즘의 개념과, 특히 재산 수용이라는 개념은 독립적인 인격을 가진 사람들과 계으름을 최상의 이상으로 여기지 않는 사람들 사이에서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많은 공감을 얻고 있다. 우리의 친구들은 종종 우리에게 경고를 하고는 한다.

"그럼에도 너무 멀리 가지 않도록 조심하시오! 인간은 하루 아침에 바뀌지는 않는다오. 그러니 재산 수용과 아나키즘의 계획을 지나치게 서두르지는 마시오. 그렇지 않으면 영구적인 결과를 전혀 얻지 못할 위험이 있소."

그런데 재산수용과 관련해서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은 정확히 그 반대이다. 우리는 재산수용을 지나치게 수행하는 것이 두려운 게 아니라, 그 규모가 너무 작아서 지속되지 못할까봐 걱정한다. 우리는 혁명적인 충동이 도중에 방해를 받아서, 절반 정도의 어중간한 조치들에 지쳐나가 떨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런 조치들은 어느 누구도 만족시키지 못할 것이고, 그러는 동안 사회는 엄청난 혼란에 빠지게 될 것이다. 그리고 혁명에 필요한 관례적인 행동을 중단하면 필요한 힘을 전혀 갖지 못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전반적인 불만만이 널리 퍼질 것이고, 불가피하게 반동이 우세해질 것이다.

실제로 현대 국가에서 확립된 관계들은 세부적인 부분만을 공격하는 것으로는 변화시키기가 불가능하다. 우리 사회의 경제 조직은 복잡하게 뒤얽혀 있다. 이 조직은 대단히 복잡하고 상호 의존적이라서 전체를 훌뜨려 놓지 않고서는 어느 한 부분도 바꿀 수 없다. 어떤 것을 수용하려는 시도를 하자 마자 이점은 곧 분명해질 것이다.

어떤 나라에서 제한된 형태의 재산수용이 이루어졌다고 가정해보자. 예를 들어 여러 번 제안되었듯이 대지주의 재산만이 수용되어서 사회로 환원되고 공장들은 손대지 않은 채 그대로 놔두는 경우를 가정해보자. 또는 어떤 도시에서 주택자산만 코뮌에 의해 수용되고 다른 것들은 개인 소유로 남아 있는 경우도 가정해볼 수 있다. 혹은 어떤 공업 중심지에서 공장들은 공유화되었지만 토지는 건드리지 않고 그대로 인경우도 있을 수 있다.

이 모든 경우에 결과는 똑같을 것이다. 즉, 새로운 방침으로 생산라인을 재조직 할 수 단이 없는 채로 산업시스템은 끔찍하게 붕괴될 것이다. 산업과 금융은 교착 상태에 빠질 것이고, 정의를 이루어 낼 최우선 원칙들은 여전히 실행되지 않은 상태일 것이다. 그리하여 사회는 무력한 상태에 빠져서 전체가 조화로운 사회를 건설할 힘이 없게 될 것이다.

만약 농업 부분은 대지주들로부터 자유롭게 되었는데 산업 부분은 여전히 자본가, 상인, 은행가 가지 배하는 노예 상태로 남아 있다면 어떤 것도 성취할 수 없을 것이다. 오늘날의 농민은 지주에게 높은 소작료를 지불하느라 고통 받을 뿐 아니라, 지금 상황에서는 온갖 사람으로부터 압박을 받고 있다. 소매상인은 삽 하나를 반크라운(30 펜스)에 팔면서 농부를 착취한다. 실제로 그 삽을 만드는데 들어간 비용은 6 펜스이하인데 말이다.

그리고 국가는 농민에게 세금을 부과한다. 왜냐하면 국가는 공무원들을 배치시키는 거대한 위계 구조 없이는 잘 굴러갈 수 없기 때문이다. 또 국가는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군대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모든 국가의 무역 상인들은 시장을 얻기 위해서 끊임없이 싸우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어느 날 아시아나 아프리카의 어느 지역을 착취하는 일을 두고 일어난 작은 분쟁이 결국 전쟁으로 번질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게다가 농민은 시골 지역의 인구 감소 때문에도 고통을 겪는다. 시골의 젊은이들은 사치품 생산업체들이 일시적으로 제공하는 높은 임금에 현혹되거나 보다 활기찬 생활이 주는 매력에 이끌려서 도시를 향해 떠난다. 그런 산업에 대한 인위적인 보호, 해외 국가에 대한 산업적인 착취, 만연하고 있는 증권투기, 생산을 위해 토양의 질을 개선하고 농업 생산 기계를 개량하는 일의 어려움 등, 오늘날에는 이 모든 요인이 결합해서 농업에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다.

농업은 높은 임대료 때문에 허덕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착취에 기반을 둔 사회가 지닌 모든 복합적인 상황으로 인해 고통당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비록 토지 수용이 이루어져서, 모든 사람이 임대료를 내지 않고 자유롭고 최대한 유리하게 땅을 경작할 수 있게 되면 농업은 한 순간 번영(이마저도 결코 당연한 일로 여길 수는 없다)을 누릴 것이다. 하지만 산업 부분이 그대로라면 얼마 안 있어 오늘날과 같은 수렁에 다시 빠지게 될 것이다. 모든 일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할 것이고, 어려움은 더욱 가중된다.

산업의 경우에도 똑같다. 앞서 이야기한 것과 반대의 경우를 예로 들어보자. 즉, 농업 노동자를 토지를 소유한 농민으로 전환시키는 경우 말고, 공장들을 그곳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넘겨주는 경우를 살펴보자. 비록 공장주는 쫓아냈지만 땅 주인에게는 땅을, 은행가에게는 돈을, 상인에게는 교환할 물건들을 그대로 남겨놓는 경우이다. 일하는 사람들의 노동으로 살아가는 게 으름뱅이들, 수많은 중간 상인, 엄청난 관리들을 거느린 국가를 그대로 유지하려고 한다면, 산업은 정지해버리고 말 것이다. 여전히 가난한 농민들 사이에서 산업은 구매자를 찾지 못할 것이고, 원자재를 확보하지 못해서 생산품도 수출하지 못할 것이다. 부분적으로는 무역의 중단 때문에, 크게는 산업들이 전세계에 퍼져 있기 때문에, 제조업자들은 힘들여 일할 의욕을 잃어버릴 것이고, 수많은 노동자는 거리로 내쫓기게 될 것이다. 짙은 군중은 자신들을 착취하러 나타난 첫 번째 음모자에게 기꺼이 복종할 것이다. 심지어 일자리를 보장해준다는 약속만 해준다면, 옛날의 노예 상태로 되돌아가는 일조차 동의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지주들을 몰아내고 공장들을 노동자의 손에 넘겨주었지만 중간 상인 무리는 건드리지 않고 그대로 남겨두는 경우를 살펴보자. 이 중간 상인 무리는 제조업자들의 생산물을 빼돌리고, 거대한 산업 중심지들에서 옥수수와 밀 가루 혹은 고기와 식료품들을 사고 팔면서 투기를 하는 사람들이다. 이들이 활개를 치고 다니면 얼마 지나지 않아 생산품 교환이 느려질 것이다. 곧 대도시들에서는 빵이 부족하게 되고, 대규모 생산 단지는 그들이 생산한 사치품을 구매할 사람들을 찾을 수 없게 될 것이다. 그러면 분명히 반혁명이 일어날 것이다. 학살이 일어나서

총과탄약으로 도시와 마을을 휩쓸 것이고, 추방과 유형이라는 향연에 정신 없이 빠져들게 될 것이다. 바로 1815년, 1848년, 1871년에 프랑스에서 그랬던 것처럼 말이다.

문명화된 사회에서는 모든 것이 상호의존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를 변화시키지 않고서 어느 한 가지를 개혁하는 일은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어느 날 한 나라가 어떤 형식으로든지 토지나 산업과 관련해서 사유재산을 공격하려 한다면, 반드시 그 모두를 공격해야만 한다. 혁명이 성공하려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

게다가 우리가 그러길 원한다고 할지라도 부분적인 재산 수용만으로 변화를 제한하는 일은 불가능할 것이다. 일단 ‘재산의 신성한 권리’라는 원칙이 흔들리게 되면, 무수한 이론 중 어떤 것도 이 원칙의 폐지를 막을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여기서는 논밭에서 일 하던 노예들에 대해서, 저기서는 기계의 노예로 일 하던 사람들에 대해서 그 원칙은 폐지될 것이기 때문이다.

만약 파리 같은 대도시가 공장 지역의 주택들만을 수용하는 식으로 재산 수용을 제한한다면, 다음과 같은 은행 가들의 권리 역시 부정하는 셈이 된다. 즉, 공장이 이전에 대출해 간 돈의 이자로 은행 가가 총 200 만 파운드를 코뮌으로부터 받아 갈 권리가 부정하게 되는 것이다. 또 대도시는 시골 지역들과 관계를 맺을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되면 도시의 영향력으로 인해 농민들도 반드시 지주들로부터 해방될 것이다. 철도 역시 반드시 공유화해야 한다. 그래야 시민들이 식량을 구하거나 일하러 오고 갈 수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물자의 낭비를 막아야 한다. 그리고 1793년 파리 코뮌 때 그랬던 것처럼 곡물을 매점 매석하는 투기꾼들의 공모에 희생양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도시가 자체적으로 창고에 생활 필수 품들을 비축하고 생산을 분배하는 일을 맡아서 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어떤 사회주의자들은 여전히 차별을 두려고 애를 쓴다. 그들은 이렇게 말한다.

“물론토지, 광산, 공장, 제조업체들은 공유화되어야 한다. 이것들은 생산 수단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들을 공공자산으로 여기는 게 옳다고 본다. 하지만 음식, 옷, 집 같은 소비재는 사유재산으로 남겨놓아야 한다.”

대중적인 상식은 이런 미묘한 구별보다 훨씬 더 낫다. 우리는 나뭇가지로 옆은 피난처 말고는 아무것도 없이 숲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야만인들이 아니다. 문명인에게는 지붕, 방, 화로, 침대가 필요하다. 아무것도 생산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이런 침대, 방, 집 이게 으름의 본거지가 되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알맞게 따뜻하고 불이 밝혀진 집은 일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의 생산 수단이다. 그곳은 내일의 노동을 위해서 노동자의 신경과 근육이 힘을 회복하는 장소이다. 노동자에게 휴식이란 기계가 일상적인 수리를 받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음식에서는 이와 같은 주장이 더욱 확실하게 들어맞는다. 소위 경제학자들이란 사람들이 방금 말한 ‘구별’을 만들어내는 자들이다. 그들도 기계 속에서 연소하는 석탄이 생산에 꼭 필요하다는 점을 부정하지는 못할 것이다. 그렇다면 인간 역시 음식이 없으면 일을 할 수 없는데, 어떻게 생산자에게 꼭 필요한 물품 목록에서 음식을 제외할 수 있단 말인가? 음식이 종교적이고 형이상학적인 유물이라도 될 수 있단 말인가? 부자들이 벌이는 향연은 사실 상사치에 불과 할 뿐이지만 노동자들이 먹는 음식은 증기 엔진 속에서 타고 있는 연료와 마찬가지로 생산의 일부분이다.

옷도 마찬가지이다. 우리는 뉴기니에서 사는 야만인이 아니다. 숙녀의 호화로운 의상은 사치품으로 분류해야겠지만, 린넨, 면, 양모로 된 일정량의 옷들은 노동자의 삶에 필요한 필수 품이다. 그가 일터로 입고 갈 셔츠와 바지, 하루의 고된 노동이 끝난 다음에 걸치는 간편한 옷은 모두에 필요한 망치와 마찬가지로 노동자에게 필요한 물건이다.

우리가 좋아하든 싫어하든 간에 민중에게는 이것이 혁명이다. 정부를 깨끗이 몰아내면, 곧바로 민중은 제일 먼저 아담한 집과 충분한 음식, 그리고 옷을 틀림없이 보장받고 싶어 할 것이다. 자본가에게 임대료나 물건값을 지불하지 않고서 말이다.

그리고 민중이 옮을 것이다. 생산 수단과 소비재 사이에 아주 많은 차이를 두는 경제학자들보다는 민중의 방식이 훨씬 더 과학적일 것이다. 민중은 바로 이 지점에서부터 혁명이 시작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이해하고 있다. 그리고 그들은 경제학이라는 이름에 어울리는 유일한 학문의 기초를 놓을 것이다. 이 학문은 이렇게 불릴 것이다. ‘인간의 필요에 관한 연구’, 그리고 그것을 만족시킬 수 있는 경제적 수단에 관한 연구.’



## 05. 음식

### I

만일다가 올 혁명이 사회 혁명이라면, 그 목표나 수단에서 예전에 일어났던 모든 반란과 구별될 것이다. 새로 운 목적에도 달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수단이 필요하다. 우리가 지난 100년 동안 프랑스에서 보았던 세 번의 위대한 민중 운동은 많은 점에서 서로 다르지만, 한 가지 공통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각각의 경우에 민중은 낡은 체제를 전복하기 위해서 열심히 싸웠고, 대의를 위해 용감하게 생명을 바쳤다. 그러나 선봉에서 전투를 치르고 난 후에 그들의 존재는 다시 희미해지고 말았다. 어느 정도 정직한 사람들로 이루어진 정부가 구성되어서 새로운 체제를 만드는 일을 맡았다. 즉, 1793년의 공화국 정부, 1848년의 노동당 정부, 1871년의 자유 코뮌이 그것이다. 과격한 자코뱅주의 사상이 스며들어 있던 이 정부들은 맨먼저 정치적인 문제들을 처리하느라 바빴다. 이를테면 정부 기구를 재 조직하는 일, 행정부에서 반대파를 숙청하는 일, 교회와 국가를 분리하는 일, 시민의 자유 같은 문제들이 그것이다. 노동자 단체들이 새 정부의 구성원을 감시하면서 때로 자기들의 의견을 그들에게 강요했던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이런 단체들조차도 지도자가 중산층이 든 노동 계층이 든 간에 항상 중산층의 사상들이 우세했다. 그들은 다양한 정치적 문제를 광범위하게 논의했지만, ‘빵의 문제’를 논의하는 일은 잊어버리고 있었다.

이 시기에는 위대한 사상들이 나타나서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었다. 그 때의 이야기들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의 마음을 벅차오르게 한다. 하지만 그 당시 민중은 빈민가에서 굶주리고 있었다. 혁명이 시작된 바로 그 순간부터 산업은 불가피하게 중단될 수밖에 없었다. 생산물 유통에 제동이 걸렸고, 자본은 자취를 감췄다. 고용주인 주인은 이 시기에도 두려울 게 아무 것도 없었다. 그는 주변의 빈곤한 상황을 이용해서 투기하지는 않았지만, 자신의 이익 배당금으로 배를 불렸다. 반면 임금 노동자들은 부득이하게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신세로 전락할 수밖에 없었다. 빈곤이 바로 목전에 다가왔던 것이다.

굶주림이나 나라 전역으로 퍼졌고, 이런 굶주림은 구체제에서 조차 거의 찾아보기 힘든 것이다.

“지롱드파<sup>57</sup>들이 우리를 굶어 죽이고 있다!”

1793년 노동자들 사이에서 이런 외침이 터져나왔고, 곧이어 지롱드파들이 단두대에서 처형되었다. 그리고 모든 권력이 ‘산악당<sup>58</sup>’과 코뮌에게 주어졌다. 코뮌은 실제로 빵의 문제로 고민하고 있었고, 파리 시민을 먹이기 위해서 영웅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리옹에서는 푸체 (Fouche) 와 콜롯 데르브와 (Collot d'Herbois) 란 공화파 당원들이 도시 곡물 창고를 설립했지만, 그 창고를 채우는데 지출된 예산은 애처로울 정도로 부족했다. 시의회는 식량을 확보하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기울였다. 밀가루를 매점 매석했던 제빵업자들은 교수형을 당했다. 그래도 여전히 빵이 부족해서 민중은 고통을 겪었다.

그런 다음에 사람들은 왕당파·옹호자들에게 비난의 화살을 돌려서 식량 부족의 책임을 그들에게 뒤집어씌웠다. 하루에 12~15명 정도가 단두대에서 처형되었고, 여기에는 하인들과 공작 부인들도 포함되었다. 특히 하인들이 많이 처형되었는데, 그 이유는 공작 부인들은 이미 독일 콜렌츠로도 망간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매일 수백 명의 공작들과 자작들을 단두대로 보냈을 지라도 희망이 없기는 똑같았을 것이다.

빈곤은 점점 더 심각해져갔다. 임금 노동자는 임금이 없이 살아갈 수가 없는 사람들인데도 임금을 받을 수가 없었다. 그런 사람에게 천여 구의 시체가 대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그러자 사람들은 지쳐서 나가떨어지기 시작했다. 반동주의자는 노동자들의 귀에 이렇게 속삭였다.

“당신들이 자랑스러워 한 혁명은 이제 그만! 당신들은 이전보다 훨씬 비참하게 되었잖소.”

<sup>57</sup> 프랑스 대 혁명 당시 비교적 온건한 공화파로 나중에 과격한 자코뱅파에 의해 무너졌다.

<sup>58</sup> 좌익 성향의 과격 정파로 프랑스 대 혁명 시기에 자코뱅파인 당통과 로베스피에르를 지지했고, 국민의회에서 높은 좌석을 차지한 데서 이런 이름이 유래했다.

그러자부자들은 점점 더 용기를 내고 숨어 있던 곳에서 모습을 드러냈으며, 굶주리고 있는 수많은 사람 앞에서 자기들의 사치스런 생활을 보란 듯이 과시했다. 그들은 향수 냄새가 나는 화려한 옷을 차려 입고 노동자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이봐, 이런 바보 같은 짓 거리는 이제 충분해! 혁명으로 당신들이 대체 뭘 얻었지?”

가슴 깊이 실망하고 지치고 인내심도 바닥이 난 혁명가는 결국 혁명의 대의가 또 다시 실패했다는 것을 인정해 야했다. 그는 자기 오두막집으로 물러나서 최악의 상황을 기다렸다.

그 다음에는 반동이의 기양양하게 등장해서 반혁명의 일격을 가했다. 혁명은 죽었고, 혁명의 시체를 짓밟는 일 말고는 아무 것도 남은 게 없었다. 왕당파의 백색 테러가 시작되었다. 피가 강물처럼 흘러 넘쳤고, 단두대는 결코 쉬는 법이 없었으며, 감옥은 사람들로 가득 찼다. 그러는 동안 상류 사회와 사교계의 겉치레와 유행은 옛날의 자리를 되찾아서 예전과 다름 없이 즐겁게 행진해 나아갔다.

이것이 우리가 거쳐온 모든 혁명의 전형적인 모습이다. 1848년에 파리의 노동자들은 공화국이 업무를 보던 석 달 동안 굶주렸다. 그런데도 그들은 자기들이 낼 수 있는 최대한의 힘을 발휘했고, 6월에는 최후의 필사적인 노력으로 기울였으나, 이 노력은 피의 강물 속에 가라앉고 말았다.

1871년에 파리 코뮌은 싸울 사람들이 부족해서 몰락했다. 코뮌은 교회와 국가를 분리하는 법안은 제정했지만, 사람들에게 빵을 공급하는 방책을 시행하는 일을 소홀히 했고, 애석하게도 그 일을 하려고 했을 때는 너무 늦어 버린 뒤였다. 그리하여 파리에서는 우아하고 세련된 신사들이 코뮌 지지자들을 조롱하는 일이 일어나 곤했다. 신사들은 그들에게 몇 푼의 돈을 줄 테니 목숨을 팔려 가라고 명령했으며 상류층이 모이는 레스토랑에 가서 마음 편히 성찬을 즐겼다. 마침내 코뮌도 자기의 실수를 알아차리고 서공동급식소를 열었다. 그러나 너무 늦었다. 시간이 너무 많이 흘러버렸고, 벌써 베르사유 왕궁의 군대가 성벽을 포위하고 있었다.

“빵, 혁명이 필요로 하는 것은 빵이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혁명의 맨 첫 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해방을 위해 싸우는 모든 지역에서 빵이 없어서 고통 받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어야 한다는 점이다. 단 한 사람의 여성도 자선으로 던져질 지모를 싸구려 빵 하나를 반기위해 피로에 지친 군중과 함께 빵집 문앞에서 있어서는 안 된다. 또한 단 한 명의 아이라도 제대로 먹지 못해 비틀거리느니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중산층 사람들은 항상 ‘위대한 원칙들’, 차라리 위대한 거짓말들이라고 해야 할 것들에 관해 목청을 높여 왔다. 반면 민중에게는 모든 사람에게 빵을 제공하는 일이 훨씬 더 중요하다. 중산층 시민과 중산층 계급의 생각에 휩쓸린 노동자들이 회의실에서 자기들의 화려한 언변을 구사하고 있는 동안, 그리고 실용적인 사람들이 정부 형태에 관해 끝없는 논쟁을 벌이고 있는 동안 ‘유토피아를 꿈꾸는 사람’인 우리는 매일 빵의 문제를 고민해야 한다.

우리에게는 모든 사람이 빵을 먹을 권리가 있고, 모두에게 돌아갈 만큼 충분한 빵이 있다는 사실을 선언할 만한 무모함이 있다. 그리고 ‘모두에게 빵을!’이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서 혁명을 승리로 이끌 것이라는 믿음이 있다.

## II

우리가 유토피아주의자라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다. 그래서 우리는 혁명이 모든 사람에게 집, 음식, 옷을 확실히 보장해야 한다는 사실을 믿는다. 이 사상은 어떤 당파를 지지하나와는 상관없이 중산층 시민에게는 지극히 불쾌한 사상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배고픔이 채워진 민중을 손아귀에 두고 지배하기가 쉽지 않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우리는 주장을 유지할 것이다. 즉, 혁명에 참여하는 민중을 위해 빵을 구해야만 하고, 빵의 문제보다 다른 모든 문제보다 우선시되어야 한다고 말이다. 만약 혁명이 민중의 관심사를 가장 먼저 고려한다면, 그 혁명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간다. 그리고 빵의 문제를 해결하는 일에서 우리는 평등의 원리를 받아들여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모든 해결책을 제외할 수 밖에 없다.

앞으로 다가올 혁명은, 1848년 혁명과 관련해서 보면 거대한 산업 위기 한 가운데서 터져나올 것이 확실하다. 지난 반세기 동안 상황은 들끓어 오르고 있으며 점점 더 안 좋은 쪽으로 변하고 있다. 이 모든 일이 진행되는 방식은 다음과 같은 경향을 보인다. 새로운 국가들이 국제적인 무역 거래 목록에 들어 가려고 하면서 세계 시장을 손에 넣기 위한 분쟁들이 일어나고 있으며, 전쟁과 관세 관련 문제가 끊임 없이 일어나고 있다. 또한 국가의 부채,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대한 식민지 개척 사업 같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지금이 순간에도 유럽에는 수백만의 실업자가 있다. 그러므로 우리 앞에서 갑자기 혁명이 일어나 서화약을 실은 기차에 불이 붙듯이 순식간에 번져나간다면 상황은 더욱 나빠질 것이다. 유럽과 미국에서 바리케이드가 세워지자 마자 일자리가 없는 사람의 수는 두 배로 늘어날 것이다. 이 많은 사람에게 빵을 공급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까?

자기들을 ‘실무가’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이 문제를 솔직하게 자문해 본 적이 있는지 의여부를 우리는 잘 모른다. 하지만 그들이 임금제도를 유지하고 싶어한다는 것은 알고 있다. 그러므로 그들은 실업자들에게 음식을 주기 위한 수단으로 ‘국영 작업장’과 ‘공공근로’를 자랑스럽게 내세우리라는 것을 예상할 수 있다.

왜냐하면 1789년과 1793년에도 국영 작업장이 문을 열었고 1848년에도 똑같은 방식에 의존했기 때문이다. 또나폴레옹 3세<sup>59</sup>도 18년 동안 파리의 프롤레타리아들에게 공공근로 일자리를 제공해서 그들을 만족시키는데 성공했기 때문이다. 그로 인해 오늘 날 파리는 8천만 파운드의 부채를지고 있으며, 시민은 한 사람당 3~4파운드의 지방세를 내고 있다.<sup>60</sup>

‘야수길들이기’라는 이 탁월한 방법은 로마 제국에서도 관례적으로 시행되었고, 심지어 4천년 전의 이집트에서도 행해졌다. 마지막으로는 전제군주들, 왕들, 황제들은 항상 채찍을 움켜쥘 시간을 벌기 위해서 민중에게 음식 부스러기를 던져주는 책략을 쓰곤 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실무에 능한’ 사람들이 임금제도를 영구화하는 이 방법을 칭송하는 것은 당연하다. 이집트 파라오가 썼던 유서 깊은 이 방법을 마음대로 쓸 수 있는데, 다른 방법을 고안한다고 머리를 쥐어 짤 필요가 무었이 있겠는가? 그러나 혁명이 처음부터 이런 한길로 들어서도록 잘못인도 된다면, 그 혁명은 길을 잃고 말 것이다.

1848년 2월 27일에 국영 작업장이 문을 열었을 때, 파리의 실업자 수는 8천 명에 불과했다. 그런데 2주 가지나자 실업자 수는 이미 4만 9천 명으로 늘어나 있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10만 명에 이르렀는데, 지방에서 올라온 수많은 사람을 세지 않았음에도 그 정도였다. 그러나 당시 프랑스의 상업과 제조업 분야에 고용되어 있는 노동자의 수는 오늘 날의 절반 정도 밖에 되지 않았다. 그리고 혁명의 시기에는 전반적인 대변동으로 인해 거래와 산업 부분이 가장 큰 피해를 본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다. 우리가 정말로 생각해보아야 하는 유일한 것은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수출 무역에 종사하고 있는 노동자의 수가 어느 정도인가이다. 또한 소수의 중산층이 주로 소비하는 사치품 생산에 고용된 노동자의 수가 어느 정도인가도 생각해보아야 한다.

어쨌든 유럽에서 혁명이 의미하는 것은 최소한 절반의 공장과 작업장이 어쩔 수 없이 조업을 중단한다는 것을 뜻한다. 이 말은 수백만 명의 노동자와 그 가족들이 거리로 내쫓긴다는 뜻이다. 그리고 우리의 ‘실무에 능한 사람들’은 국가의 실업 구제 사업을 써서 참으로 끔찍한 이상황을 막아 보려고 할 것이다. 다시 말해, 즉석에서 새로 운 산업을 만들어내는 수단을 써서 실업자들에게 일거리를 준다는 것이다!

프루동이 이미 50여 년 전에 지적했듯이 사유재산에 가장 작은 공격을 가하기만 해도 머지 않아 사기업과 임금 노동에 기초한 사회 체제를 완전히 무너트릴 수 있다는 점은 아주 분명하다. 사회는 어쩔 수 없이 생산을 고스란히 떠맡아야 할 것이고, 모든 사람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생산을 다시 조직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일은 하루 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생산 시스템을 재조직하는 일에는 일정한 시간이 걸릴 것이고, 이 기간 동안에 수백만의 사람이 생존 수단을 빼앗기게 될 것이다. 이럴 경우에 무엇을 해야만 할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단한 가지 실제적인 해결책은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이크나큰 임무에 과감하게 직면하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 스스로 도지지 할 수 없는 미봉책을 써서 상황을 일시적으로 수습하려고 애쓰는 대신, 새로운 기반에 기초한 생산을 다시 조직하는 길로 나아가야 한다.

따라서 이럴 경우 필요한 행동 방침은 다음과 같다. 혁명에 대해 반란을 일으킨 곳들의 모든 식량을 즉각 압수하고, 그것들을 엄격하게 관리해서 어떤 것도 낭비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모아진 자원의 도움을 받으면, 모든 사람이 이 위기를 헤쳐나갈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리고 이 시기 동안에 공장 노동자들과 협정을 맺을 필요가 있다. 즉, 그들에게 필요한 원재료들과 그들이 생존 할 수 있는 수단을 확실히 제공하겠다고 말이다. 대신 공장 노동자들은 작업을 해서 농촌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주어야 한다.

이때 우리는 다음의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한다. 즉, 프랑스가 독일의 은행가 부인들, 러시아의 황후, 하와이 제도에 있는 샌드위치 섬 여왕의 몸 치장을 위해 비단이나 새틴을 짠다든가, 파리가 전 세계의 부자들을 위해 멋진 장신구나 노리개들을 유행에 맞춰 만들어내는 일을 한다면, 프랑스 농민의 3분의 2는 불을 밝힐 마땅한 등불도 갖지 못할 것이고, 현대 농업에 필요한 농기구도 갖추지 못할 것이란 점을 말이다.

<sup>59</sup> 나폴레옹 1세의 조카로 1848년 2월 혁명으로 수립된 공화국에서 대통령으로 선출되었다 (1808-1873). 하지만 임기도 종에 쿠데타를 일으켜서 공화국을 붕괴시키고 황제에 즉위했다.

<sup>60</sup> 1904년 파리 시의 부채는 2,266,579,100 프랑에 이르렀고, 그 부채로 인한 수수료는 121,000,000 프랑이었다.

마지막으로, 방치돼있는비생산적인수많은땅을최고의이익을내는땅으로만들고, 척박한토양을비옥하게만들어야한다. 현체제아래서는 4 분의 1, 아니 10 분의 1 정도밖에생산하지못하는땅이비옥한토양으로변하면, 그땅에서집약영농을할수있다. 그곳의식물들은텃밭이나화분에심긴꽃들만큼이나많은보살핌을받으면서재배될것이다. 이것말고이문제를해결할수있는다른실제적인해결책을생각해내기는불가능하다. 그리고우리가좋아하든싫어하든간에순전히상황에따른힘때문에이일이일어날것이다.

### III

오늘날의자본주의에서가장두드러지는특징은임금제도이다. 이것을다음과같이간단하게설명할수있다. 필요한자본을소유하고있는어떤사람혹은집단이어떤산업관련기업을설립한다. 그는공장이나작업장에원재료를공급하고, 생산을조직하며, 고용인에게정해진임금을지급한다.

그리고마지막에는잉여가치혹은이익을자기호주머니에집어넣는다. 자기가기업을경영한것에대해서, 혹이있을지도모르는위험에대비해서, 또는상품의시장가치에변동이일어날경우에대비해서자신에게보상해주어야한다는구실을내세우면서말이다.

이런시스템을유지하기위해서현재자본을독점하고있는사람들은어느정도양보를할준비가되어있다. 가령, 이익의일부를노동자들과나눈다거나‘물가임금연동제’를제정한다든지하는식으로말이다. 임금연동제에따르면상품가격이올라갈경우임금도의무적으로올려야한다. 간단히말해서, 그들은계속자기들이산업을지휘하면서동시에알짜배기결실도가져간다는조건에서만약간의희생을감수할것이란뜻이다.

알다시피, 집산주의는임금제도를폐지하지않는다. 비록집산주의가현존하는질서에상당한변화를도입할지라도말이다. 집산주의는고작해야국가를대체한것일뿐이다. 말하자면각각의고용주를대신하는국가적이거나지역적인일종의대의제정부형태라고할수있다. 집산주의아래에서산업의지휘권을가진주체는국가혹은코뮌의대표자들혹은그들의대리인과관료들일것이다. 모두를위해생산의잉여를사용할권리를스스로에게부여하는사람들도그들이다. 게다가집산주의는단순노동자와숙련된기술을가진사람사이에미묘하지만아주광범위한차별을만들어낸다. 집산주의자의눈에비숙련노동은단순노동일뿐이다. 반면수공예장인, 기계공, 엔지니어, 학자등이하는일은마르크스가복잡한노동이라고불렀던것으로서더높은임금이매겨진다. 그러나노동자와수공예장인, 직조공, 학자모두는임금을받으며국가에봉사하는하인일뿐이다. 최근에는‘관리들’이란말로하인이란말이지닌불쾌함을완화시키고있지만말이다.

어쨌든다가올혁명이인류에게봉사할수있는가장큰일은모든형태의임금제도를불가능하게만들고, 임금노예노동을거부하는코뮌주의를유일한해결책으로만드는것이다. 평화롭고번영하는시기에점진적으로도입된다는조건이라면현체제를집산주의적인방식으로개혁하는것이가능하다는점을인정한다고해도, 혁명의시기에는그것이불가능하게될것이다. 나로서는번영과평화의시기에도그실현가능성이의심스럽지만말이다. 정치혁명은산업의기초를뒤흔들지않고도이룰수있다. 그러나민중이사유재산에손을대는혁명은상품거래와생산의마비를불가피하게가져올것이다. 국가금고에가득찬엄청난공금으로도수많은실업자에게임금을지급하기에는충분하지않을것이다.

이점은아무리강조해도지나치지않다. 새로운원리를토대로삼아서산업을재조직하는일은며칠만에이루어질수있는일이아니다. 다른한편으로, 임금제를지지하는이론가들을위해서민중이몇년동안이나반쯤굶주린상태를감내하지는않을것이다. 힘겨운이시기를극복하기위해서그들은언제나그랬듯이생필품공유화와식량배급을요구할것이다. 참고견디라고설교하는일은아무소용이없을것이다. 민중은그렇게오랫동안참지않을것이고, 식량이배급되지않으면그들은빵집을약탈하기시작할것이다.

그리하여민중이그들앞에닥친모든일을이겨낼만큼충분히강하지않으면, 그들은총살당할것이고, 집산주의를실험하기에적당한실습장을제공할것이다. 이목적을위해서는어떤희생을치르고라도‘질서’가유지되어야한다. 질서, 규율, 복종이필요해지는것이다! 그리고자본가들은금방깨달을것이다. 스스로를혁명가라부르는이들의손에민중이총살당하게되면, 다수대중의눈에혁명자체가혐오스러운것이될것이라는사실을말이다. 이때문에자본가들은틀림없이질서옹호자들을지지할것이고, 심지어집산주의자들이라도별로상관이없을것이다.

자본가들은그런식의처세를하면서나중에때가되면집산주의자들을밟아버릴수단을찾아낼것이다. 그리고이런방식으로질서가세워지면어떤결과가나타날지는불보듯이뻔하다. 질서옹호파들은약탈자들을총살

하는것으로만족하지않고폭동의주모자들을찾아낼것이다. 그들은다시금법정을열고교수형집행인을복귀시킬것이다. 그리하여가장열렬한혁명가들이처형을당할것이다. 1793년의프랑스상황이다시반복되는것이다.

지난세기에반동이어떻게승리하게되었는지를잊지않도록하자. 맨먼저‘에베르파혁명당원들(Hebertists)<sup>61</sup>’과‘과격파들‘이단두대로보내졌다. 그투쟁을생생하게기억하고있는프랑스역사가미네(Mignet)<sup>62</sup>는그들을여전히‘아나키스트‘라고부르고있다. 그들의뒤를이어서당통<sup>63</sup>을따르는사람들이처형되었다. 그리고로베스피에르파가이들혁명가들을단두대로보내고난다음에는, 자기들의차례가되어서단두대로올라가야했다. 그결과이런유혈극에신물이난민중은혁명이실패했음을알아차리고패배를인정하고는, 반동주의자들이뭐든맘대로하게내버려두었다.

질서가회복되면, 사회민주주의자들<sup>64</sup>은아나키스트들을처형할것이다. 점진적사회주의자인페이비언주의자<sup>65</sup>들은사회민주주의자들을처형할것이다. 그다음에는반동주의자들에의해페이비언주의자들이처형될것이다. 그리고나면혁명은막을내릴것이다. 하지만모든점에서우리의믿음은확고하다. 만약민중의힘이충분히강할경우에는, 혁명이자리를잡고서아나키즘적코뮌주의가세력을잡을것이라는믿음말이다. 이것은인위적으로만들어낸사상이아니다. 민중스스로가우리의귀에이사상을속삭여왔으며, 다른해결책이불가능하다는사실이점점더분명해지면서코뮌주의자의수는점점늘어가고있다.

만약민중의추진력이충분히강력하다면상황은아주다르게전개될것이다. 어느날은빵집을약탈하고, 그다음날에는굶주리는일대신에반란이일어난도시의민중은곡물창고들, 가축시장을손에넣을것이고사실상모든식량창고와모든음식을손에넣을것이다. 선의에찬시민은남녀를불문하고자원자로나서서모든가게와곡물창고의물품목록을대강이나마작성하는일을하게될것이다.

만일이러한혁명이프랑스에서, 그러니까파리에서일어난다면 24시간안에코뮌은통계위원회의활약에도불구하고파리시가아직찾아내지못한것이무엇인지를알게될것이다. 그리고1871년의봉쇄기간동안에는결코찾아내지못했던, 파리시가보유하고있는식료품의양을알아낼것이다. 48시간후에는수백만장의일람표가인쇄되어서이용가능한식량의양이얼마인지, 어디에비축되어있는지, 분배방식은어떤것인지를정확하게설명해줄것이다.

모든거주지역과거리에서, 그리고행정구역안에서자원자조직이구성될것이다. 식량과물품의보급을담당하는자원자들은, 함께협력해서일하는것이쉽다는것을느끼면서계속연락을주고받을것이다. 과격한자코뱅주의자들이총칼로방해하지만않는다면, 그리고자칭‘과학적’이라는이론가들이끼어들어서일을혼란스럽게만들지만않는다면말이다! 그런경우만아니라면차라리그들이하고싶은대로자신들의얼간이같은이론들을실컷떠벌리게내버려두자. 그것으로는어떤권위도어떤권력도갖지못할테니까! 그러면민중의조직정신, 무엇보다도모든사회계층을통틀어서프랑스국민속에본래갖춰져있었지만좀처럼실행해볼기회를얻지못한저감탄할만한조직정신이일깨워질것이다. 심지어파리같은대도시에서도그런정신이혁명의한가운데서나타나서, 자유로운노동자들로이루어진거대한동업조합이각자에게필요한식량을공급할준비를할것이다.

민중이자유롭게행동하게해보라. 그러면열흘안에식량공급이감탄스러울정도로질서있게이루어질것이다. 열심히일하는민중을한번도본적이없는사람들, 평생동안자료더미에파묻혀서살아온사람들만이이사실을의심할것이다. 탁월한조직능력을지닌민중에대한‘엄청난오해’에대해서, 바리케이드가세워져있던시기에파리시를목격한사람들에게이야기해보라. 또런던에서부두노동자대파업이일어나서 50만명의굶주리는사람들을먹여야만했을당시의런던시를목격한사람들에게도그이야기를해보라. 그러면그들은민중의조직능력이하급관리의얼빠진관료주의보다얼마나더뛰어난지를말해줄것이다.

보름이나한달정도는어느정도의불편과혼란을견뎌내야할테지만, 이런상황이분명그리큰문제로여겨지지는않을것이다. 수많은사람한테는이런상황조차자신들이예전에처했던조건들보다는한발진보한상태일것이기때문이다. 게다가혁명의시기에는사람들이어떤사건들에대해열심히토론하면서한조각의빵과치즈를나눠먹어도충분히만족스러워할수있는법이다. 어떤경우든간에, 즉각적인필요라는긴장된상황에서자발

<sup>61</sup> 프랑스대혁명당시정치가이자작가, 무신론자였던에베르를따르는정치파별.

<sup>62</sup> 『프랑스혁명사』 등을쓴프랑스의역사가(françois auguste marie mignet, 1796-1884).

<sup>63</sup> 프랑스의법률가로프랑스대혁명지도자의한사람(George Jcques Danton, 1759-1794). 자코뱅파의지도자.

<sup>64</sup> 현존하는정치과정을통해서자본주의로부터사회주의로의평화적이고점진적인사회변화를주장하는정치이념으로혁명과전체주의를거부한다.

<sup>65</sup> 1880년대에영국의젊은지식인들이조직한사회주의단체이름에서유래했다. 진보적이고온건한사회주의형태로발전했으며, 마르크스의이념과달리‘점진적사회주의’의필연성을확신하는사람들을지칭한다.

적으로 생겨난 체제는, 무슨 위원회 따위에 들어가 있는 편협한 이론가들이 회의실에서 고안한 그 어떤 것보다도 분명히 훨씬 바람직 할 것이다.

#### IV

모든 사람이 각자 필요한 만큼 식료품을 받을 수 있게 하려면, 어떤 기초 위에서 사회를 조직해야 하는 것일까? 이것이 우리가 맨 처음에 맞닥뜨리게 되는 문제이다. 여기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대답할 수 있다. 코뮌주의가 공정하게 자리를 잡기 위해서는 한 가지 방법밖에 없다. 또한 우리의 정의로운 천성을 만족시키면서 동시에 실제적인 방법도 한 가지밖에 없다. 다시 말해, 이제 도는 이미 유럽의 농업 코뮌들<sup>66</sup>이 채택했던 방법이다.

어느 농업 코뮌을 예로 들어보자. 어디에 있건 상관은 없다. 심지어 자코뱅주의자들이 모든 공동체적인 관습을 파괴하려고 최선을 다한 프랑스도 괜찮다. 그 코뮌이 숲과 잡목림을 소유하고 있고, 그 숲이나 무가 풍부하게 우거져 있다고 치자. 모든 사람들은 이웃의 여론 말고는 다른 허가나 방해를 받지 않고 각자 원하는 만큼 나무를 가져갈 수 있다. 목재로 쓰일 나무들은 항상 귀하기 때문에 신중하게 분배를 해야 할 것이다.

공동으로 사용하는 목초지의 경우에도 같은 원리가 적용된다. 목초지가 충분하고 넉넉하다면, 아무런 제한 없이 그리고 각 농가의 가축의 수가 얼마든 상관 없이 목초지에서 풀을 뜯게 할 수 있다. 목초지가 부족하지 않는 한, 가축이 풀을 뜯어 먹는 땅을 분할하지 않을 것이고 여물을 아끼워 하지도 않을 것이다. 스위스의 모든 코뮌과 프랑스와 독일의 수많은 코뮌은 공동 목초기가 있으면 어디든 이제도를 실행하고 있다.

동유럽 나라들의 경우에는 거대한 숲들이 있고 땅도 부족하지 않다. 그런 나라의 농부들은 각자가 한정된 범위에서 땅이나 목재를 할당 받는다는 생각 없이 필요 한 만큼 나무를 베어내고, 원하는 만큼의 땅을 경작한다. 하지만 그것들이 부족해지는 상황이 온다면, 곧바로 목재는 각 가정의 필요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볼 수 있게 될 것이고, 땅은 분할될 것이다. 러시아에서는 이미 이런 일이 행해지고 있다.

한마디로 말해 이제 도는 다음과 같다. 공동체가 소유한 것들이 충분할 경우에는 어떤 할당제나 제한을 둘 필요가 없다. 하지만 필수 품들이 모자라거나 부족해지면 공정하게 할당하고 나누는 것이다. 유럽에서는 3 억 5 천 만명의 인구 중 2 억 명이 이 자연스런 코뮌주의 제도를 여전히 따르고 있다. 한 가지 주목할 만한 사실은 대도시에서도 한 가지 필요 한 물자를 배분하면서도 똑같은 제도가 널리 행해지고 있다는 점이다. 즉, 충분하기만 하다면 물이 각 가정에 아무 제한 없이 공급되고 있는 것이다.

공급이 부족해 질 걱정이 없는 한, 어떤 수도 회사가 각 가정의 물 소비량을 일일이 확인하지 않는다. 원하는 만큼 써라! 그러나 큰 가뭄이 들어서 공급이 부족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으면, 수도 회사들은 신문에 간략한 공지를 내어서 상황을 알릴 것이다. 그러면 시민은 물 소비량을 줄이고 물이 낭비되지 않게 할 것이다.

그러나 물이 실제로 부족해지게 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물 할당제에 의지해야 할 것이다. 이 방법은 위낙자연스럽고 상식에 맞는 것이라서, 1871년에 파리 시가 두 번이나 봉쇄되었을 시기 동안에는 두 번 모두 할당제가 요청되었고 시행되었다.

이러한 할당 배급제가 어떻게 잘 운영되는지를 보여주려고 세부적인 것들을 조사하고 상세하게 목록을 작성할 필요가 있을까? 이제 도가 현재 시행되는 것보다 분명히 더 공정하고 평등하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 이 모든 목록과 세부 사항은 중산층 사람들을 설득시키지 못할 것이고, 애석하게도 중산층의 편견에 감염된 노동자들을 설득하는데도 쓸모가 없을 것이다.

이들이 생각하기에 민중이란 국가가 업무를 그만두자 마자 서로를 공격해서 상대의 것을 게걸스럽게 빼앗을 준비가 된 암울한 무리이다. 그러나 민중이 솔선수범해서 일을 결정하고 자발적으로 행동하는 모습을 한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들만이다. 다음과 같은 사실에 의심을 품을 것이다. 즉, 민중이 상황을 자유롭게 통제할 수만 있다면, 가장 엄격한 정의와 평등의 원칙에 따라 모든 사람 각자에게 필요한 것들을 분배할 것이란 사실을 말이다.

민중이 모임에 가서 사냥하고 기간은 맛있는 음식들은 게으른 귀족들의 까다로운 입맛을 위해 남겨 놓고 병원에 있는 아픈 사람들에게는 검은 빵을 주어야 한다는 의견을 낸다면, 분명히 야유를 받을 것이다. 그러나 같은 모임 자리 혹은 거리 모퉁이나 시장에 가서, 가장 맛 좋은 음식들은 아프고 허약한 사람들, 특히 아픈 사람들을 위해 남겨 놓아야 한다고 연설을 해보라. 온도 시에 자고 새 다섯 쌍과 백포도 주한 상자 밖에 없지만 이 것들은 아픈 사람들과 회복 기환자들에게 주어져야 한다고 이야기해보라. 아픈 사람 다음에는 아이들에게 주어야 한다고 말해보

<sup>66</sup> 중세 시대에 나타난 유럽 농촌의 주민 자치 공동체를 말한다.

라. 모두에게 돌아갈 만큼 충분하지 않을 경우라면, 우유와 염소젖은 아이들을 위해 남겨 놓아야 한다고 말해보라. 만약 공동체가 극도로 절약을 해야 할 경우라면, 아이들과 나이든 사람들에게 마지막 남은 한 조각의 고기를 주고, 건강한 사람에게는 마른 빵을 주어야 한다고 말해보라.

한마디로 말해서 이런 저런 필수 품들이 부족해져서 조금씩 나누어 주어야 할 경우, 그것들은 가장 필요한 사람에게 먼저 주어야 한다고 말해보라. 그렇게 말하고나서 당신의 의견이 과연 보편적인 동의를 얻어내는지 아닌지를 한번 살펴보라. 배불리 먹는 사람은 이 사실을 이해하지 못하겠지만 민중은 이해할 것이다. 그들은 언제나 이것을 이해해왔다. 심지어 사치스럽게 살던 아이조차도 거리로 내쫓겨서 민중과 접촉하게 된다면 이 사실을 금방 이해할 것이다.

군인들의 제복과 병영 내의 군대식당을 문명의 결정판으로 여기는 이론가들은, 국영식당과 '간이 급식소' 제도를 틀림없이 시작하려고 할 것이다. 그들은 이렇게 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장점들을 지적할 것이다. 그런 커다란 부엌들이 만들어지면서 연료와 음식이 절약되고, 누구든 그 곳에 가서 자기 몫의 스프와 빵 그리고 채소들을 먹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이다.

우리는 이런 장점이 있다는 점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우리는 이러한 방면으로 이미 경제적으로 중요한 절약들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또한 100 가구의 화덕에 각자 불을 피우기보다는 한꺼번에 100 가족 분의 스프를 끓이는 편이 훨씬 경제적이라는 사실도 분명히 알고 있다.

하지만 이 모든 사실을 아주 잘 알고 있을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주장한다. 즉, 어떤 주부가 자기 냄비와 자기 집 화덕에서 직접 요리하는 것을 더 좋아한다면, 어느 누구도 그녀더러 공동부엌에서 요리된 감자를 가져가라고 강요할 권리가 없다는 사실을 말이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각자가 원하는 대로 가족이나 친구와 함께 혹은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할 '자유'가 있기를 원해야 한다.

자연스럽게 커다란 공공식당들이 생겨나서 우리 의식탁을 대신하게 될 것이다. 요즘에는 그런 식당들에서 사람들이 식중독에 걸리곤 한다. 이미 파리의 주부들은 정육점에서 고기 국물을 사다가 자신이 좋아하는 온갖 스프로 탈바꿈시키고 있다. 또 그런 디자인의 주부들은 이미 구워 진고기 덩어리를 살 수 있으며, 사과파이나 대황으로 만든 파이를 빵집에서 소량으로 구입할 수 있다. 그렇게 하면 시간과 연료를 절약할 수 있다는 사실도 알고 있다. 미래에 공공 빵집이나 공공식당이 세워져서 속임을 당하거나 식중독에 걸릴 위험 없이 조리된 음식을 먹을 수 있게 된다면 어떨까? 사람들이 기본적인 식사를 하러 공공식당에 가는 일이 분명히 일반적인 일로 될 것이고, 개인적인 입맛에 맞게 마지막에 뭘 가를 첨가할 수 있는 여지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것을 엄격하고 고정된 규정이나 의무로 만드는 것은 반감을 불러일으킬 것이다. 이런 것들은 가혹한 압제나 미신에 의해 왜곡된 두뇌에서 생겨난 병적인 생각이다.

누가 코뮌의 음식에 대한 권리를 가지게 될까? 이 물음은 분명히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하는 첫 번째 질문이다. 모든 마을은 직접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내놓을 것이고, 우리는 이해답이 모두 정의감에 따라나올 것임을 확신하고 있다. 노동이다시 조직될 때 까지 혼란스런 시기가 계속되고, 실업자들 중에서 상습적으로 게으른 자와 진짜 노동자를 구분하기가 불가능한 시기 동안, 이용 가능한 식량은 예외 없이 모두에게 나누어져야 한다. 이 새로운 질서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자발적으로 코뮌에서 모습을 감출 것이다.

그러나 언제나 아량이 넓었고 천성적으로 원한의 감정을 품지 않는 다수 민중은 함께 남아 있는 모든 사람과 빵을 기꺼이나눌 것이다. 남아 있는 사람이 정복자이든 정복당한 사람이든 상관 없이 말이다. 그런 생각에 고무될지도라도 혁명에는 아무런 손실이 없을 것이다. 일이다시 시작되면, 어제의 적대자들이 같은 작업장에나란히 서 일하게 될 것이다. 자유롭게 일하는 사회에서는 게으름뱅이들을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우리의 비판자들이 곧바로 소리친다.

"하지만 한 달이 지나면 식량이 부족해질 것이다!"

"그 만큼 더 좋은 일이다"라고 우리는 말한다.

그것은 역사상 처음으로 민중이 충분히 먹었다는 사실을 증명할 것이기 때문이다. 새로운 생필품들을 구하는 방법에 관한 문제는 다음 장에서 논의할 것이다.

만약 온나라가, 더바람직하게는 온유럽이 동시다발적으로 사회혁명을 성취하고 코뮌주의로의 철저한 이행을 시작한다면, 방법은 간단해질 것이다. 하지만 유럽에서 몇몇 지역만 이런 시도를 행하게 된다면, 다른 방법을 선택해야 할 것이다. 상황에 따라 방법이 정해질 것이다.

그러면 더 멀리 나아가기 전에, 우리는 유럽의 상황을 훌륭살펴보고 어떤 과정으로 혁명이 진행될지 예견해 볼 수 있다. 또는 최소한 혁명의 가장 본질적인 특징이 무엇일지 예측해 볼 수도 있다. 온유럽이 한꺼번에 들고 일어나 서 재산 수용이 보편화되고 코뮌주의 원리들이 너나 할 것 없이 모든 사람을 고취시키는 일이 일어난다면, 그것은 분명 아주 바람직한 상황일 것이다. 이렇게 전세계적인 봉기가 일어난다면 우리의 임무가 훨씬 더 간단해질 것이다.

그러나 모든 징후를 살펴보면 그런 일은 일어날 것 같지 않다. 물론 우리는 혁명이 온유럽을 예워쓸 것이란 사실을 의심하지 않는다. 유럽 대륙의 4 대도시인 파리, 빙, 브뤼셀, 베를린 중의 한 곳에서 혁명이 일어나서 정부를 무너뜨린다면, 나머지 세 도시도 몇 주 안에 그 뒤를 따르리란 점은 거의 확실하다. 더 나아가 스페인과 포르투갈이 있는 이베리아 반도나 심지어 영국 런던과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같은 곳들 조차도 오래지 않아 그 뒤를 따를 가능성이 많다. 하지만 도처에서 나타날 혁명이 과연 똑같은 성격을 띠고 있을지는 대단히 의심스럽다.

그보다는 오히려 재산 수용이 유럽 곳곳에 광범위한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훨씬 많다. 그리고 유럽의 중요 한국 가중한 곳에서 이 정책을 시행하면, 나머지 모든 나라에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매우 많다. 혁명이 시작되는 모습은 지역마다 아주 다를 것이고, 그 정도나라마다 차이가 있을 것이다. 1789년 ~ 1793년에 프랑스 농민들이 마침내 봉건 영주의 권리로부터 해방되고, 왕권이 부르주아들에 의해 무너지게 되기까지 4년이 걸렸다.

이 사실을 염두에 두고 서 혁명은 다소 점진적으로 발전해 나갈 것으로 보고 준비를 해야 한다. 이곳 저곳에서 혁명의 발걸음이 어디에나 아갈지도 낙담하지 않도록 하자. 유럽 모든 나라에서 일어나는 혁명이 그 시작에서 어느 정도로 공공연하게 사회주의적 성격을 띠게 될 것인지는 의심스럽다.

생각해보면, 독일은 통일된 제국의 꿈을 여전히 실행해 나가고 있다. 독일의 진보적 당파들은 1848년 프랑스에서 와 같은 자코뱅주의 공화국과 루이 블랑의 원리에 따른 노동 조직을 꿈꾸고 있다. 그런 반면 프랑스 민중은 공산주의적 코뮌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그 무엇보다도 자유로운 코뮌을 원하고 있다.

앞으로 혁명이 일어난다면, 독일이 1793년의 프랑스보다 훨씬 더 나아갈 것이란 사실을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 18세기 프랑스 대 혁명은 17세기 영국의 명예 혁명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간 것이었다. 프랑스 대 혁명은 왕족과 토지를 소유한 봉건 귀족의 권력을 일격에 폐지했는데, 영국에서는 여전히 그 권력이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만약 독일이 한 발 더 나아가서 1793년에 프랑스가 한 일보다 더 많은 일을 하게 된다고 해도, 독일의 혁명을 탄생시키는 사상들은 의심할 여지 없이 1848년 프랑스 사상들일 것이다. 한편 러시아 혁명에 영감을 주게 될 사상들은 아마도 1789년 사상과 1848년 사상을 결합한 것일 것이다.

그러나 이런 예측들에 지나친 중요성을 부여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즉, 혁명이 서로 다른 유럽 국가들에서 각기 다른 성격을 갖게 될 것이라는 결론이다. 또한 재산의 사회화를 달성하는 정도로 모든 곳에서 서로 다를 것이다. 그렇다면 종종 말해지는 것처럼 운동을 선도하는 나라들은 뒤처진 나라들과 보조를 맞추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일까? 우리는 코뮌주의 혁명이 모든 문명 국가에서 성숙해질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것일까? 분명히 아니다. 설령 바란다고 해도 그것은 불가능하다. 역사의 꾸물거리는 나라들을 기다려 주지 않는다. 게다가 어떤 나라에서 혁명이 어떤 사회주의자들이 꿈꾸는 것처럼 단번에, 눈깜박할 사이에 성취되리라고 믿지 않는다. (그 어떤 오류도 사회주의를 표방하는 팜플릿에 의해서 선전되었던 '일일 혁명'이라는 오류만큼 해롭지는 않을 것이다. 그 팜플릿은 3월 18일 베를린 혁명이 프로이센에 대의 정부를 세웠다고 간주하고 있었다. 우리는 1905년부터 1907년까지 러시아에서 이러한 오류가 만들어내는 해악들을 충분히 목격했다. 사실 러시아가 그랬듯이 프로이센은 1871년까지 '헌법'이라고 부르는 종잇조각을 가지고 있었지만 대의 정부는 없었다. 그래서 1870년대의 정부를 위한 예산이 발의될 때까지 내각이나라를 좌지우지 했다.)

프랑스의 대여섯 개 대도시들, 가령 파리, 루앙, 마르세유, 릴, 생에티엔느, 보르도 같은 도시들 중 하나가 코뮌을 선언한다면, 다른 도시들도 그 뒤를 따를 것이고 많은 소도시도 그 뒤를 따를 것이란 점이 훨씬 실현 가능성이 많다. 다양한 광산 지역과 산업 단지도 아마 '소유주'와 '고용주'로부터 벗어나서 자유로운 단체들을 만들어나갈 것이다.

그러나 많은 시골 지역은 아직 그런 수준까지 나아가지 못한 상태이다. 이런 곳들은 기다려보는 태도를 취하면 서 혁명적인 코뮌들과 나란히 존재할 것이고, 개인주의적인 제도에 따라 계속 살아갈 것이다. 더 이상 토지 관리인이나 세금 징수원의 방문으로 괴롭힘을 당하지 않게 된 농민들은 혁명가들에게 적대적이지는 않을 것이다. 그리고 새로 운 상황을 유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한, 농민들은 그 지역 착취자들에게 지불할 계산을 뒤로 미룰 것이다. 하지만 농민 봉기에 항상 나타나는 특징인 실제적인 열의를 가지고 서 (1792년의 농민들의 열정적인 노동이 이를 입

증한다) 농민들은 땅을 경작하는 일에 뛰어들 것이다. 세금과 저당금으로부터 자유롭게 된 땅은 농민들에게 훨씬 더 소중해질 것이다.

다른 나라들에서도 곳곳에서 혁명이 일어나겠지만 다양한 양상으로 일어날 것이다. 어떤 나라에서는 사회주의 국가의 양상을 떨 것이고, 다른 곳에서는 연방제 국가의 양상을 떨 것이다. 모든 혁명이 약간은 사회주의적이겠지만 특정한 규칙을 엄격하게 따르지는 않을 것이다.

## VI

이제 혁명이 일어난 도시로 되돌아가서, 시민이 자기들이 먹을 식량을 어떻게 조달할 수 있을지에 대해 살펴보자. 만약 나라 전체가 코뮌주의를 받아들이지 않은 상태라면, 필요한 식료품을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 이것은 해결해야 할 문제이다.

프랑스에서 가장 큰 도시인 파리를 예로 들어보자. 파리는 매년 수천 톤의 곡물, 40 만 마리의 소, 30 만 마리의 송아지, 40 만 마리의 돼지, 200 만 마리 이상의 양, 그 외에 사냥으로 잡은 아주 많은 양의 짐승과 조류를 소비하는 곳이다. 게다가 이 거대한 도시는 2 천만 파운드 가 넘는 버터, 2 억 개 이상의 달걀과 다른 식료품을 필요로 한다.

파리는 미국, 러시아, 형가리, 이탈리아, 이집트, 인도에서 밀가루와 곡물을 수입한다. 육류는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심지어 루마니아와 러시아에서도 수입한다. 전 세계에서 식료품과 관련해 파리에 기여하지 않는 나라가 거의 없을 정도이다. 그렇다면 파리와 다른 대도시는 어떻게 식료품들을 공급받고 있는지를 살펴보자. 즉, 시골 지역에서 길러지고 기꺼이 도시로 보낼 준비가 된 농산물을 이런 도시들이 어떻게 신선한 상태로 공급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자.

'권력과 권위'를 믿는 사람들에게 이 문제는 아주 간단해 보인다. 그들은 먼저 경찰, 군대, 단두대 같은 억압 기구를 갖춘 강력하고 중앙 집권적인 정부를 세우려 할 것이다. 이 정부는 프랑스에서 생산되는 모든 식료품에 관한 목록을 작성할 것이다. 그런 뒤 나라를 생필품 공급에 따른 지역으로 분할한다음, 어떤 날에 어떤 장소로 지정된 양의 특정한 식료품이 보내지도록 명령을 내릴 것이다. 그래서 그 식료품이 특정 지역에 수송이 된다음, 지정된 날에 특정 관리가 수령해서 특정한 창고에 보관하도록 명령을 내릴 것이다.

그렇지만 우리는 완전한 확신을 갖고 주장한다. 이러한 해결책은 바람직하지 않을 뿐더러 실행에 옮겨질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말이다. 이것은 실현이 불가능한 제멋대로의 공상에 불과하다! 펜데를 잡고 연구하는 이론가는 이런 식의 공상을 할 수도 있다. 하지만 현실과 만나게 되면 이 계획은 수포로 돌아갈 것이다.

1793년 프랑스 상황이 이미 이것을 증명하고 있다. 왜냐하면 이런 이론가 모두는 개인 속에 존재하는 독립 정신을 무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이런 시도는 광범위한 반란을 불러일으키고, 서너 명의 매수자를 생겨나게 하고, 도시에 저항하는 시골 마을들을 생겨나게 하는 식으로 변해갈 것이다. 그곳에 이런 제도를 강요하려는 오만한 시도를 한다면, 온 시골이 도시에 대항해서 무기를 손에 들고 일어날 것이다.

우리는 이미 자코뱅식의 과격한 유토피아 이야기를 너무 많이 들었다. 그러니 다른 형태의 어떤 조직이 이런 경 우에 들어맞을 수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자. 프랑스 대혁명 시기에 시골 지역들은 대도시를 굽주리게 했고 혁명을 망쳐놓고 말았다. 그러나 1792년과 1793년에 프랑스의 곡물 생산량이 줄어들지 않았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으며, 실제로는 곡물 생산이 증가했음을 보여주는 증거가 있다. 하지만 영주의 땅을 손에 넣고 그 땅으로부터 수확을 한 농민들은 종이 돈에 불과한 지폐를 받고는 자기들이 생산한 곡물을 내놓으려 하지 않았다.

농민들은 자기들의 생산물을 손에 쥐고서 가격이 오르거나 금이 도입되기를 기다렸다. 국민의 회의가 가장 엄격한 규율들도 아무 소용이 없었고, 법적인 집행으로도 농민들의 동맹을 해산시키거나 곡물을 팔도록 강제할 수 없었다. 국민의 회의의 원들은 곡물을 시장에 내놓지 않는 사람들을 거리낌 없이 단두대에 보냈고, 식료품을 투기하는 자들 역시 무자비하게 처형했다는 사실은 역사적으로도 잘 알려져 있다. 그럼에도 곡물은 나오지 않았고, 도시민은 굽주림으로 고통받았다.

그렇다면 농부가 행한 힘겨운 노고의 대가로 무엇이 제공되었을까? 혁명 정부가 발행한 아시냑지폐<sup>67</sup>, 즉 매일 가치가 하락하는 종잇조각들로 지불하겠다는 약속이었지만 그것 조차 제대로 지켜질 수 없었다. 40 파운드가 적힌 종이 쪽지로는 장화 한켤레도 살 수 없었다. 농민들이 셔츠 한 장 살 수 없는 종잇조각과 자신의 1년 노동을 바

<sup>67</sup> 프랑스 대혁명 당시 발행된 채권. 파산한 프랑스 재정을 구제하기 위해서 몰수한 교회의 토지를 담보로 발행되었으나 마구 발행된 탓에 점점 가치가 떨어졌고, 프랑스에 심한 인플레이션을 일으켜서 민족을 고통에 빠트렸다.

꾸는것에분개한것은지극히당연한일이었다. 그것이아시나지폐로불리든노동자폐로불리든간에아무가치가없는지폐가생산자농민에게지불되는한, 상황은언제나똑같을것이다. 시골은자기들이생산한식량을내놓지않을것이고, 도시는식량부족으로고통받을것이다. 설령반항하는농민들을예전처럼단두대로보낸다고해도말이다.

우리는농민이행한노동의대가로쓸모없는종이돈이아니라그들에게당장필요한물품들을제공해야한다. 농민에게필요한것은땅을경작할수있는적절한농기구들, 악천후로부터보호해줄옷들, 희미한골풀양초나수지를대신할등불과기름이고, 삽, 갈퀴, 쟁기인것이다. 현상황에서농민은이런온갖것이부족한상태에서힘겹게지내고있다. 그까닭은필요없다고생각해서가아니라, 궁핍에시달리는그들의힘겨운삶속에서는이런수많은유용한물건을구입할여력이없기때문이다. 즉, 그것들을살돈이없기때문이다.

도시는때를놓치지말고농부들이필요로하는모든것을만드는일을해야한다. 부유한도시민의아내들을위해값비싼장신구들을만드는대신에말이다. 파리의재봉틀이시골주민이입을작업복과일요일에입을옷들을만들도록하자. 영국과러시아귀족들그리고아프리카의금광거울의부인들이입을야회복을만드는대신에말이다. 공장들과주물공장들은농기구들, 삽, 갈퀴같은것들을생산하게하자. 영국이프랑스와인을수입하는조건으로프랑스가그런물품들을보내기를기다리는대신말이다!

더이상도시가시골마을에붉은색과푸른색혹은무지개색견장을두른감독관을보내서농민이생산한것을이곳저곳으로가져오라는명령을전달하지못하게하자. 그대신에시골주민에게친절한사절단을보내서우호적인방식으로그들에게권유하도록하자.

“여러분의생산물을우리에게가져오시오. 그리고우리의창고와가게에서원하는모든제품을가져가시오.”

그러면사방에서식료품들이쏟아져들어올것이다. 농민들은자기에게꼭필요한것만을남겨놓고나머지는도시로보낼것이다. 그러면역사상처음으로농민은, 도시에서일하는이노동자들이자기를착취하는자들이아니라자기의동지이며형제라고느낄것이다.

어쩌면우리는이렇게하기위해서산업을완전히바꾸는일이불가피하다는이야기를들을것이다. 아마도어떤분야에서는이말이사실일것이다. 하지만지금은도시가농민들에게터무니없이비싸게팔고있는옷, 시계, 가구, 간단한도구들을값싸게제공하는방식으로신속하게개혁할수있는부분들도있다. 직조공, 재봉사, 구두장이, 양철공, 목수, 그리고다른특수한기술을가진많은사람은유용하고필요한물품들을만들어내는일에쉽게자기에너지를쓸수있으며, 순전한사치품생산은삼갈것이다. 그러기위해서유일하게필요한것은대중의마음이이런변환의필요성을충분히확신해야한다는점이다. 그리고이것을정의롭고진보적인행동으로여길수있어야한다. 더이상대단하신이론가들이몽상하는그런꿈에속아서는안된다. 그들이꿈꾸는혁명이란산업에서나오는이익을손에넣는것만으로혁명을제한하고, 생산과유통은현재와똑같이놔두는것을의미한다.

이것이바로전체문제를바라보는우리의견해이다. 더이상농민들을크나큰숫자를적어넣은종잇조각으로속이지말라. 그대신농민의생산물을그들에게필요한것으로바꾸게하라. 그러면땅의수확물들이도시로쏟아져들어올것이다. 이렇게하지못하면도시는굶주리게될것이고, 반동과절망이뒤를이어나타날것이다.

## VII

알다시피모든대도시는필요한곡물, 밀가루, 고기들을국내에서뿐만아니라해외에서도들여와야한다. 다른나라에서는파리시에향신료, 어류, 다양한진미들뿐만아니라엄청난양의옥수수와고기를보내주고있다. 그러나혁명이일어나면이대도시들은그들에게의존하지못하게될것이다. 설령러시아산밀, 이탈리아나인도산쌀, 그리고스페인과헝가리산와인들이서유럽시장에넘쳐난다고할지라도, 이것들은남아돌만큼물자가풍부하거나저절로쑥쑥자라는것이아니기때문이다.

가령, 러시아의농민들은하루에 16 시간을일하고있는데도매년 3 개월에서 6 개월동안절반의농민이굶주리고있다. 그이유는농민이지주나국가에게지불한곡물이해외로수출되고있기때문이다. 오늘날러시아농촌마을에는수확을끝내자마자경찰이나타난다. 그리고어떤희생자가자발적으로수출업자에게자기곡물을팔아넘김으로써스스로희생하려고하지않으면, 경찰은지주들에게지불하기로한세금이나임대료를못냈다는이유로그농민에게남은마지막말과암소를강제로팔아치운다.

대부분의농민은자기가축을그렇게불리하게팔아넘기기보다는차라리 9 달동안먹을곡물만남겨놓고나머지곡물을시장에내놓을수밖에없다. 그러고나서다음수확시기까지목숨을부지하기위해그는운이좋으면

3 달동안, 운이나쁜해에는 6 달동안 밀가루에 자작나무껍질이나 살갈퀴씨앗 등을 섞어 먹는다. 그러는 동안 련던 시민은 러시아 농민이 생산한 밀로 만든 비스킷을 먹고 있다.

하지만 혁명이 일어나자마자, 러시아 농민들은 자신과 아이들을 위해서 충분한 빵을 확보할 것이다. 이탈리아와 형가리 농민들도 마찬가지이다. 미국은 농부들이 유럽이 겪고 있는 고통 부족 전부를 해결하지는 못할 것이다. 따라서 그때까지 유럽에 부족한 모든 밀과 옥수수를 공급하던 다른 나라 농민들의 그동안의 공헌을, 유럽은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게 될 것이다.

우리의 중산계급 문명은 산업이 덜 발달한 나라와 열등한 민족을 착취하는데 그토대를 두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혁명은 맨 처음 시작부터 그려 한 문명을 위협하고, 소위 열등하다고 불리는 민족이 스스로 해방되도록 함으로써 이익을 가져올 것이다. 그러나 이 커다란 이익은 서유럽의 대도시들로 쏟아져 들어왔던 식량 공급이 꾸준하고 두드러지게 감소되면서 그 모습을 드러낼 것이다.

시골 지역들에서 사태가 어떻게 전개될지를 예측하기란 어려운 일이다. 한편으로는 땅의 노예였던 사람들이 혁명에서 이익을 얻고서 자신의 구부린 등을 곧게 펼 수 있을 것이다. 농민들은 지금처럼 하루에 14 시간이나 15 시간씩 일하는 것 대신에 그 절반의 시간 만자 유롭게 일 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기초 생활 물품인 곡물과 고기의 생산이 감소하는 결과가 나타날 것이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농민들이 더 이상 힘들게 일해서 게으른 부자들을 먹여 살릴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자 마자 생산은 증가하게 될 것이다. 새로운 지역의 땅들이 개간될 것이고, 보다 새롭고 개량된 기계들이 사용될 것이다.

“일찍이 1792년 만큼 땅이 활발하게 경작된 적은 없었다. 그해는 농민들이 그렇게 나오랫동안 갈망해온 땅을 지주로부터 되찾았던 때였다.”

프랑스 역사학자인 미술레 (Michelet)<sup>68</sup>는 프랑스 대혁명에 관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 물론 오래지 않아 집약영농이 모든 곳에서 그 범위를 넓혀갈 것이다. 개량된 기계, 화학비료, 그리고 필요한 재료 모두가 코뮌에 의해서 곧 공급될 것이다. 하지만 모든 것을 고려해 보면 처음에는 프랑스나 다른 곳들에서 농업 생산이 크게 감소할 것이다. 어느 경우든 시골에서 오던 식량 공급과 외국으로부터 들여 오던 것들이 감소할 것이라는 점을 예상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태도일 것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감소를 별충할 수 있을 것인가?

그야 물론, 우리 스스로 일을 하면 된다. 치료 책이 바로 가까이에 있는데 무리하게 만병통치약을 찾느라고 머리를 쥐어 짤 필요가 전혀 없다. 작은 마을들 뿐만 아니라 대도시들도 농사를 짓기 시작해야 한다. 우리는 생물학에서 말하는 ‘기능들이 통합’되는 상태를 회복해야 한다. 다시 말해, 노동이 분화된 후에는 그것을 전체로서 다시 통합해서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자연계 전체가 따르고 있는 과정이다. 게다가 철학은 별도로 놔두고라도, 상황의 힘 때문이라도 이런 결과가 나타날 것이다. 혁명이 일어난지 8 개월이 지날 무렵이면 빵이 부족하게 된다는 사실을 파리 시민들이 알게 하자. 그러면 파리 사람들도 밀을 기르기 시작할 것이다.

땅이 부족해지는 일은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대도시 주변, 특히 파리 근교에 지주 계급이 소유했던 공원과 유원지를 찾아내서 경작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들 수천에 이어 카의 땅들은 오직 숙련된 농부의 노동만을 기다리고 있다. 그렇게 되면 파리 시민은 비옥하고 생산적인 밭으로 틀림없이 둘러싸이게 될 것이다. 노동력도 부족하지 않을 것이다. 200만 파리 시민이 더 이상 러시아 공작들, 루마니아 귀족들, 베를린 금융업자 부인의 사치스런 유행과 유흥을 위한 것들을 제공하지 않아도 될 때, 그들이 어디에 관심을 돌리게 되겠는가?

지금 세기의 모든 기계적 발명품을 가지고, 복잡한 기계를 능숙하게 다루는 노동자들의 지식과 기술을 가지고, 발명가, 화학자, 식물학 교수, 그리고 시장에 내다 팔 채소를 재배하는 사람들 (마켓 가드너)처럼 실제적인 식물학자들과 함께, 기계를 늘리고 성능을 향상시키는 데 이용할 수 있는 모든 공장 설비를 가지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파리 시민의 조직 정신과 용기와 에너지를 이용한다면, 이 모든 것을 자유자재로 활용하게 된 파리의 아나키즘 적 코뮌의 농업은 프랑스 북부 지역의 거칠고 엉성한 농업과는 아주 다른 것이 될 것이다.

머지 않아서 증기, 전기, 태양력, 풍력이 사용될 것이다. 증기로 작동하는 쟁기와 써레가 땅을 미리 준비하는 거친 작업에 재빨리 쓰일 것이다. 그렇게 해서 정리가 되고 비옥해진 땅에 필요한 것은 오직 인간의 합리적인 보살핌뿐이다. 어떤 경우에는 남자보다 여성의 보살핌만으로도 땅이 풍성한 식물들로 뒤덮일 것이고, 1년에서 너번 씩 그럴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전문가들로부터 재배 기술을 배우고, 실험을 목적으로 남겨놓은 작은 텃밭들에서 다양한 방식을 실험해보며, 가장 많은 수확을 얻기 위해서로 거둬보기도 하고, 육체를 단련하는 길을 발견하고, 일에 지쳐나가떨어지거나 과로하는 일 없이, 도시에서는 너무나 자주 쇠약해지던 건강과 힘을 되찾게 되면 남녀 노소 모두가 논밭에서 즐겁게 농사일을 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농사일은 더 이상 조로운 노역이 아니라 즐거움이자 축제가 되고 건강과 기쁨을 새롭게 부활시키는 일 이 될 것이다.

<sup>68</sup> 자유주의 사상을 지닌 프랑스 역사가이자 문학가 (Jules Michelet, 1798-1874)로 『프랑스 혁명사』 등의 저서가 있다.

“불모의땅이란없다. 대지는인간만큼이나가치가있다.”

이것이현대농업의결정적인표어이다. 대지에게뭔가를구해보라. 그러면대지는빵을줄것이다. 올바르게 요청한다면말이다. 비록파리근교의센과센에투아즈같은작은지역이파리같은대도시를먹여살려야하는경우라고해도, 실제로모든식량을공급할수있을만큼충분히길러낼수있을것이다. 만약그러지못하다면식량조달에실패할지도모른다. 농업과산업의결합, 한개인이농부이면서기계공이되는것, 이것이바로아나키즘적 코뮌주의가필연적으로우리를이끌어가는길이다. 재산수용이공정하게시작될경우에말이다.

혁명이그렇게멀리까지나아가게해보자. 그러면굶주림은우리가두려워해야할적이아니다. 혁명을위태롭게할위험은굶주림이아니라, 겁이많은소심함, 편견, 미봉책들속에있다. 그위험은당통이프랑스대혁명 때보았던그곳에있다. 당통은프랑스를향해이렇게외쳤다.

“대담하게, 대담하게, 다시한번대담하게.”

대담한생각이먼저이다. 그러면대담한행동은반드시그뒤를따르게될것이다.

## 06. 주택

### I

노동자들사이에서 사회주의사상이 자라나는 것을 가까이 지켜본 사람들은 분명이 알아차릴 것이다. 사람들 이 살 주택이라는 한 가지 중대한 문제 가 어느 틈엔가 분명한 결론에 다다르고 있다는 사실을 말이다. 프랑스의 대 도시들과 다른 많은 소도시에서 노동자들은 주택들이 국가가 주인으로 인정하는 사람들의 재산이 아니라는 결론 에 점차 이르고 있다. 이 생각은 민중의 마음 속에서 자연스럽게 성장해왔으며, 민중은 '사유재산의 권리'가 주택 들로 까지 확대된다는 것을 다시는 믿지 않을 것이다.

집은 소유주 가지은 것이 아니다. 수많은 노동자가 재재소에서, 벽돌 공장에서, 작업장에서 최저임금을 받으면서 열심히 노동해서 집을 짓고, 꾸미고, 설비한 것이다. 집주인이 집을 소유하기 위해 지불한 돈은 스스로 노동을 해서 얻은 것이다. 다른 모든 재화와 마찬가지로그 돈은 노동자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몫의 3분의 2나 고작 2분의 1 만큼 불하면서 축적된 것이다.

게다가 집의 실질적 가치는 소유주가 그 집에서 얻을 수 있는 이익에 달려 있다. 전체 과정의 악랄함이 가장 분명하게 드러나는 곳도 바로 이 지점이다. 그런데이 이익은 바로 그 집이 도시에 자리 잡았다는 사실에서 나온다. 즉, 포장된 도로와 다리, 부두가 있고 멋진 공공 건물들이 있으며 환하게 불이 밝혀진 수많은 다른 집과 함께 모여 있다는 사실에서 집의 가치가 생긴다. 도시에 사는 주민은 시골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수많은 안락과 편의를 누리고 있다. 도시는 다른 도시들과정기적으로 통신을 주고받고 있으며 도시 자체가 산업, 상업, 과학, 예술의 중심지이다. 이처럼 도시는 20 세대 혹은 30 세대에 걸친 사람들의 노동으로 살기 좋고 위생적이며 아름다운 곳으로 만들 어졌다. 이런 이유 때문에 그 집이 가치가 있는 것이다.

파리의 어느 구역에 있는 집 한 채는 수천 파운드의 값이나간다. 그 이유는 특정한 그 집에 그만한 가치의 노동이 들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 집이 파리 시에 있기 때문이 그런 것이다. 즉, 수세기 동안 노동자들, 예술가들, 사상가들, 학자들, 문학인들이 산업, 상업, 정치, 예술, 과학의 중심이 된 오늘날의 파리를 만드는데 공헌했기 때문이다. 또한 파리가 과거의 역사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문학 작품들 덕분에 파리에 있는 거리 이름들이 국내뿐만 아니라 외국에도 잘 알려져 있기 때문이다. 또한 파리가 18 세기 동안 이어져온 사람들의 고된 노동의 산물이고, 50 여 세대에 걸친 전 프랑스 국민의 작품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파렴치한 부정을 저지르지 않는 이상, 도대체 누가 이 땅의 가장 작은 한 조각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단 말인가? 도대체 누가 이 도시에 있는 가장 초라한 건물 한 채라도 자기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단 말인가? 도대체 누가 공동으로 물려 받은 유산의 가장 작은 한 부분이라도 비싼 값을 부르는 자에게 팔아 넘길 수 있는 권리 가지고 있단 말인가?

앞서 말했듯이, 노동자들은 이 점에 대해 의견이 일치하기 시작했다. 무료 주택이라는 아이디어는 파리가 봉쇄되어 있던 대 혁명 기간 동안에 아주 분명하게 그 실체를 드러냈다. 당시 노동자들은 집주인들이 요구한 지불 조건을 전적으로 완화 시켜달라고 거세게 요구했다. 이 아이디어는 1871년 파리 코뮌 기간에 다시 나타났다. 그 때 파리의 노동자들은 코뮌 협의회가 집 세의 폐지에 관해 과감한 결정을 내려주길 기대했다. 그리고 만약 새로 운 혁명이 일어나게 되면, 주택 문제는 가난한 사람들이 제일 먼저 관심을 가지는 문제일 것이다.

혁명의 시기이든 평화의 시기이든 간에, 노동자들은 어떻게든 살 집이 있어야 한다. 어떤 종류이든 간에 그 아래 머리를 눕힐 지붕이 있어야 한다. 하지만 지금 사는 집이 금방 쓰러질 것 같은 누추한 곳일지라도, 거기에는 언제 나그를 내쫓을 수 있는 집주인이 있다. 사실상, 혁명 기간 동안에는 집주인이 노동자의 누더기 옷들과 세간들을 길 바닥으로 내던질 주택 관리인이나 경찰들을 찾을 수 없을 것이다.

하지만 새로 운 정부가 앞으로 무슨 일을 할지 누가 알겠는가? 새 정부가 강압적인 수단을 써서 다시 그런 짓을 하지 않으리라고 누가 말할 수 있을 것인가? 새 정부가 그를 모두 막 집에서 쫓아내려고 경찰을 배치하지 않으리라고

누가 말할 수 있을 것인가? 파리 코뮌이 오직 4 월 1 일까지 지불 할 집세 만을 면제한다고 선언 했음을 보지 않았던가! (3 월 30 일 포고령: 이 포고령에 의해서 1870 년 10 월과 1871 년 1 월, 4 월 까지 지불 하게 되어 있었던 집세는 무효 가 되었다.)

그 다음부터 노동자들은 다시 집세를 지불 해야 했다. 당시 파리가 혼란 상태에 빠져서 산업이 정지 한 상태였는데도 그려 했다. 그래서 파리의 독립을 지키기 위해 무기를 들었던 '연합군' 사람들 한 테하루 15 펜스의 수당 말고는 자신과 가족들이 의지 할 만한 것이 아무 것도 없었던 것이다!

이제는 노동자가 확실히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집주인이나 소유주에게 집세의 지불을 거부함으로써 그가 얻는 것이 단순히 권리의 이해체로 얻는 이익만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이다. 임대료의 폐지는 그 정당성이 인정되고 승인을 받은 것으로, 말하자면 다수의 동의를 얻은 것이라는 사실을 노동자는 이해 해야 한다. 임대료 없는 집에서 사는 것은 민중이 큰 소리로 선언한 정당한 권리이다.

모든 정직한 사람의 정의감에 부합하는 이 방법이, 중산층들 사이에 흘어져 있는 몇몇 사회주의자에 의해 채택 될 때 까지 우리는 기다려야 할까? 혹은 임시 정부가 구성될 때 까지 기다려야 할까? 만약 그때 까지 기다려야 한다면, 민중은 오랫동안 기다려야 할 것이다. 사실상 반동 세력이다시 복귀 할 때 까지 말이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권리와 예속의 외적 표시인 제복과 배지들을 거부하고, 민중 사이에 민중으로 남아 있는 진정한 혁명가들이 민중과 함께 차츰 차츰 집세의 폐지, 주택들을 공유화하는 일을 실제로 이루어 나갈 것이다.

그들은 이런 일들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고 생각들이 이 방향으로 성장하도록 격려 할 것이다. 그리고 이들이 수행한 노동이 결실을 맺었을 때, 민중은 틀림없이 주택을 공유화하는 길로 나아갈 것이다. 그들은 자기들의 방식을 방해 할 것이 분명한 이론들에 귀를 기울이지 않을 것이다. 즉, 집주인들에게 보상금을 지불하고 그걸 위해 필요한 기금을 마련하는 일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이론들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을 것이다.

주택의 수용이 이루어지는 바로그 날이야말로 착취 당해온 노동자들이 새로운 시대가 왔음을 깨닫는 날이다. 그 날은 노동자들이 더 이상 부자들과 권력자들에게 속박 당할 필요가 없어지는 날이다. 그 날은 평등이 공개적으로 선언되는 날이며, 혁명이 예전에 빈번히 그랬던 것처럼 과장된 겉치레가 아니라 진정한 현실이 되는 날이다.

## II

만약 주택 수용이라는 아이디어가 민중에 의해 채택된다면,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 넘을 수 없는 모든 장애물에 도 불구하고 그것은 실행될 것이다. 물론 새 재복을 입고 서시청 사무실의 팔걸이의자에 앉아 있는 훌륭하신 분들은 분명히 장애물을 쌓아 올리느라고 바쁠 것이다. 그들은 집주인들에게 지불 할 보상금과 통계자료 만드는 일에 대해 이야기하고 기다란 보고서를 작성하며 시간을 끌 것이다.

강제로 아무 일도 못 한 채 기다리면서 짊짜우리를 겪고 있던 민중은 결국 아무 일도 안 일어난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그들은 혁명에 대한 애정과 신뢰를 잃어버리고, 반동주의자들이 활약하게 내버려 둘 것이다. 새로운 관료주의는 주택 수용을 모든 이의 눈에 역겨운 것으로 비치도록 만들면서 끝내 버릴 것이다.

바로 여기에 실제로 우리의 희망을 좌초 시킬지도 모르는 암초가 있다. 그러나 만약 민중이 과거에 자기들을 혼혹시켰던, 걸으로 만 그럴싸한 주장을 무시하고 새로운 삶에는 새로운 조건들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면, 그리고 그들이 직접 그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면 주택 수용은 큰 어려움 없이 실행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어떻게? 어떻게 그 일을 할 수 있단 말인가?"

사람들이 우리에게 묻는다. 우리는 이 질문에 대답하려고 노력하겠지만 한 가지 유보 조건이 있다. 우리는 주택 수용 계획들을 아주 세세한 부분 까지 설명하겠다는 의도가 전혀 없다. 어떤 사람이 나단체는 모두 지금 예상하는 것보다 앞으로 다가올 현실에서 훨씬 잘해 낼 수 있으리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다. 인간은 앞으로 더욱 위대한 일들을 성취해 낼 것이다. 그리고 인간은 예전에 명령에 따라 행한 것보다 훨씬 간단한 방법으로 훨씬 잘해 낼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종류의 주택 수용이 정부의 개입 없이 이루어 질 수 있을지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고 한다.

우리는 그런 일은 불가능하다고 단언하는 사람들에게 대답하려고 우리의 방식에서 벗어날 생각이 전혀 없다. 다만, 우리가 어떤 특정 조직 체계를 옹호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점만은 말할 수 있다. 우리는 재산 수용이 민중의 주도에 의해 실행될 수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일에만 관심이 있다. 그리고 그것 말고는 다른 어떤 방법으로도 실행될 수 없음을 보여주는 일에 관심이 있을 뿐이다.

주택수용이 공정하게 시작되자 마자 자원자 단체들이 모든 지역과 거리, 주택가에서 생겨날 것이라는 점은 아주 분명하다. 이 단체들은 비어 있는 아파트와 주택의 수를 조사하고, 지나치게 많은 사람이나 밀집해서 살고 있는 집들의 수를 조사할 것이다. 또 비위생적인 빈민가들, 거주하는 사람 수에 비해 지나치게 넓은 집들을 조사해서 비좁은 공동거주지에서 우글우글 모여 사느라 숨이 막힐지 경인 사람들이 넓은 집을 이용할 수 있게 할 것이다. 오래지 않아 자원자들은 거리와 구역에 있는 모든 아파트, 공동거주지, 가정집과 시골 저택을 포함하는 목록을 완성할 것이다. 그리고 그 목록에는 모든 방들이 위생적인지 아닌지, 큰지 작은지, 악취나는 오두막인지 호화로운 저택인지 까지가 전부 적혀 있을 것이다.

자원자들은 자유롭게 서로 의논하며 곧 통계자료들을 완성해낼 것이다. 회의실과 사무실들에서는 잘못된 통계가 만들어질 수도 있겠지만, 올바르고 정확한 통계는 개별적으로 시작해서 간단한 것에서부터 복잡한 것으로 자료를 쌓아가야만 만들어질 수 있다. 그런 뒤 시민은 누구의 허락도 기다리지 않고 밖으로 나가서 아마도 비참한 다락방이나 오두막에서 살고 있을 동지들을 찾아내서 간단하게 설명할 것이다.

“동지, 이번에는 진정한 혁명이고, 틀림 없는 것 같소. 오늘 저녁에 이 장소로 오시오. 모든 이웃이 그곳에 와 있을 것이오. 우리는 주택들을 재분배할 것이오. 당신이 이 빈민굴 같은 다락방에서 사는데 지쳤다면, 와서 준비된 집들 중 방이다섯 개 땔린 아파트를 고르시오. 그리고 일단 그 곳에 이사를 하게 되면, 당신은 계속 살 수 있고 전혀 두려워 할 필요가 없소. 민중이 무기를 들고 있고, 감히 당신을 쫓아내려는 사람은 그들에게 허락을 받아야 할 것이다.”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듣는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좋은 집과 넓은 아파트를 원할 것이다!”

아니다. 당신이 아주 잘못 생각하고 있다. 하늘에 떠 있는 달을 달라고 시끄럽게 요구하는 것은 민중의 방식이 아니다. 그와는 반대로 우리는 항상 그들이 잘못된 일을 바로 잡으려 하는 모습을 보아왔으며, 민중을 활기차게 해주는 분별 있는 양식과 정의로운 천성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 민중이 불가능한 것을 요구했다는 이야기를 들어 본 적이 있는가? 두 번의 도시 봉쇄 기간과 참혹했던 1792년부터 1794년까지의 시기 동안, 파리의 민중이 배급 식량과 장작을 서로 달라고 맞붙어 싸우는 모습을 본 적이 있는가? 1871년에 그들 사이에 널리 퍼져 있던 참을 성과 불평을 감내하는 태도는 외국 언론의 특파원들이 끊임없이 치탄한 것이었다. 하지만 그들도 알고 있다. 맨 마지막으로 오는 사람은 음식이나 불없이 그 날을 보내야 한다는 사실을.

고립된 개인에게는 아주 많은 이기적인 본능이 있다는 사실을 부정하지는 않는다. 우리는 이 사실을 아주 잘 알고 있다. 이런 본능들을 되살리고 장려하는 방법은 바로, 민중이 살 집과 같은 문제들을 무슨 위원회나 이사회가 관할하도록 제한하는 것이다. 사실 이런 방법은 어떤 형식으로든지 그 문제를 관료주의의 허약한 자비심에 맡긴다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실제로 온갖 사악한 열망들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 일은 위원회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하는 문제가 될 것이다. 아주 작은 불평등이 말다툼과 상호 비방을 불러일으킬 것이다. 만약 어느 한 사람에게 아주 작은 이익이라도 주어지게 되면, 엄청난 고함과 항의가 터져나올 것이다. 그럴 만한 이유도 있고 말이다.

하지만 민중 스스로가 자기가 사는 거리들, 구역들, 지역들에서 자체적인 조직을 만들고, 빈민가의 주민을 반쯤 비어 있는 중산층이 살던 주택으로 이사하게 하는 일을 맡아서하게 된다면, 사소한 불편들과 작은 불평등은 어렵잖게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대중의 선한 천성에 호소를 했던 적은 좀처럼 없었다. 이런 경우는 오직 혁명의 시기에 가라앉는 배를 구하기 위한 마지막 수단으로 쓰였을 뿐이다. 그렇지만 이런 호소가 헛되이 끝난 적은 한 번도 없었다. 노동자의 자기 헌신과 숭고한 행위가 이 호소에 응하지 않은 적이 한번도 없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다가 올 혁명에서도 그려 할 것이다.

하지만 모든 것을 고려해봤을 때, 약간의 불평등과 피할 수 없는 부정 행위는 틀림없이 남아 있을 것이다. 우리 사회에는 이기주의의 수렁에 너무나 깊이 빠져 있어서 서끌어 낼 수 있는 개인들이 있다. 그러나 문제는 앞으로 부정 행위가 있을 것인가의 여부가 아니라, 어떻게 그런 부정 행위의 수를 제한할 것인가이다.

그런데 인류의 모든 역사와 모든 경험, 그리고 모든 사회 심리학은 일치 단결해서 다음과 같은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즉, 가장 훌륭하고 공정한 방법은 그 문제와 가장 관련이 깊은 사람들이 결정을 하도록 믿고 맡겨두는 일이라고 말이다. 오로지 당사자들만이 그 일을 할 수 있다. 직무상의 재분배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빠트리게 되는 세부사항들을 하나부터 열까지 검토하고 허가를 내릴 수 있는 사람들은 오직 당사자들 뿐이다.

### III

더욱이 단번에 모든 주택을 완전히 공평하게 재분배 할 필요는 전혀 없다. 처음에는 약간의 불편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재산 수용을 받아들인 사회에서는 머지 않아 문제들이 바로 잡힌다. 벽돌공들, 목수들, 그리고 주택 건축과 관련된 일을 하는 모든 사람이 매일 자기들이 먹을 뺨이 보장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하루에 몇 시간씩 자기들이 예전에 해왔던 일에 종사하는 것 말고는 딱히다른 것을 요구하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과거에 노동자들의 시간을 빼앗아 갔던 멋진 저택들을 개조해서, 대여섯 가구에게 보금자리를 만들어 줄 것이다. 그리고 몇 달 안에 새로운 집들이 세워질 것이고, 틀림없이 이 집들은 오늘 날 노동자가 사는 집들보다 더 위생적이고 편리한 설비가 갖춰져 있을 것이다. 그리고 아직 편안한 집을 얻지 못한 사람들에게 아나키즘적 코뮌은 이렇게 말할 것이다.

“동지들, 조금만 기다리시오! 우리의 해방된 도시에는 자본가들이 자기를 위해 지었던 그 어떤 것보다 더 멋있고 훌륭한 집들이 건설될 것이오. 그 집들은 가장 필요한 사람들이 갖게 될 것이오. 아나키즘적 코뮌은 이익을 보려고 건물을 짓지는 않는다오. 시민을 위해 세워지는 이 건축물들은 집단 정신의 산물로 온 인류에게 모범이 될 것이다. 그것들이 바로 여러분의 것이 될 것이라는 모범 말이오.”

만일 혁명을 일으킨 민중이 주택들을 수용하고 임대료 없이 살 수 있음을 선언한다면, 주택들을 공유화하고 모든 가정이 버젓한 집에서 살 권리와 선언한다면, 혁명은 처음부터 코뮌주의적인 특성을 띠게 될 것이다.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는 과정에서도 그 특성에서 결코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것이다. 혁명은 사유재산에 치명적인 타격을 가하게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주택 수용은 완전한 사회 혁명의 징을 품고 있다. 주택 수용을 실행하는 방식이 어떠한가에 따라서, 뒤따라오는 모든 일의 특성이 결정된다. 우리는 아나키즘적 코뮌주의를 향해 곧게 뻗은 탄탄한 길을 따라갈 수도 있고, 횡포한 개인주의의 진흙탕 속에 그대로 남아 있을 수도 있다.

우리가 한편에서는 이론적이고 다른 편에서는 실제적인 수많은 반론을 틀림없이 맞닥뜨리게 되리라는 점은 쉽게 알 수 있다.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부정 행위를 유지하려고 하는 문제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반대자들은 당연히 정의의 이름으로 저항할 것이다. 그들은 이렇게 외칠 것이다.

“파리에 사는 시민만이 이 모든 좋은 집을 차지하고, 반면 시골 농민들은 쓰러져 가는 오두막에서 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부끄러운 일이 아닌가?”

그러나 오해는 하지 말도록 하자. 이런 정의 열광자들은 기억력 상실에 빠지는 경향이 있어서, 정작 자신들이 암묵적으로 응호하고 있는 ‘너무나 부끄러운 일들’을 잊어버리고 있다. 즉, 그들은 자기들이 살고 있는 바로그 도시에서는 아내와 아이들이 있는 노동자가 악취나는 다락방에서 숨이 막힐 듯이 비좁게 살고 있고, 다락방 창밖으로는 부자들이 사는 대저택들이 보인다는 사실을 잊고 있는 것이다. 그들은 또한 혼잡한 빈민가에서 노동자가 족 세대 전부가 공기와 햇빛을 갈망하면서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잊고 있다. 이러한 불공평을 바로 잡는 일 이야말로 혁명의 최우선 과제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그들은 ‘망각’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불성실한 저항들이 우리를 가로막지 못하게 하자. 혁명의 초기에는 도시와 시골 사이에 어느 정도의 불평등이 존재 할 수 있다. 이를 평등은 전환의 시기에 자연히 일어나는 일이다. 기때문에 시간이 지나면서 저절로 바로 잡아질 것이다. 왜냐하면 시골 마을에 사는 농민들이 지주, 상인, 고리대금업자, 국가 가지웠던 집을 끄는 짐승의 신세에서 벗어나자 마자 그들이 사는 집들도 분명히 개선될 것이다. 기때문이다. 우발적이고 일시적인 불평등을 피하기 위해서 케케묵은 잘못을 바로 잡는 일을 우리가 멈추어야 할까?

소위 말하는 실제적인 반론들 역시 그렇게 대단한 것은 결코 아니다. 우리가 어떤 가난한 사람의 힘겨운 상황을 한번 고려해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해보자. 이 사람은 갓은 고난을 겪으면서 어찌어찌 자기 가족들과 살기에 딱 알맞은 집을 사게 되었다. 그런데 그가 어렵게 얻은 행복을 우리가 빼앗으려 하고 거리로 내몰려고 하고 있다! 분명히 그렇지 않다. 만일 그 집이 그의 가족이 살기에 딱 알맞은 집이라면, 그는 반드시 그곳에서 살게 될 것이다. 또는 자신의 작은 텃밭에서 맘대로 일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의 젊은 이들은 그를 방해하기는커녕 그를 거들어줄 것이다.

하지만 그의 집에 빙방들이 있어서 그 가방을 세놓고 있다고 가정해보자. 그러면 사람들은 세입자에게 이제 더 이상 집주인에게 방세를 낼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알려줄 것이다. 지금 살고 있는 곳에서 계속 살아도 된다. 하지만 집세는 무료이다. 더이상 빚 독촉을 하는 사람도 수금인도 없다. 사회주의가 그 모든 것을 폐지했다.

이번에는 이런 가정을 해보자. 어느 집주인은 많은 방을 전부 빙자지하며 살고 있는데, 근처의 가난한 부인은 다섯 아이들과 비좁은 방 하나에서 살고 있다. 이런 경우라면 사람들은 이 집주인의 빙방들을 적당히 개조해서 가난한 부인과 다섯 아이들이 살기에 알맞게 바꿀 수 있는지 알아볼 것이다. 그렇게 하는 것이다. 라락방 하나에서 쇠약해가는 어머니와 다섯 아이들을 그대로 두는 것보다 훨씬 정의롭고 공정하지 않겠는가? 호화롭게 사는 부자나 리

는 텅빈 저택에 편안히 살고 있는데 말이다. 게다가 어쩌면 이 선량한 부자나리가 자진해서 그렇게 하려고 서두를 지도 모른다. 어쩌면 그의 부인도 그렇게 큰 집을 유지해줄 하인들이 더 이상 없게 되었을 때는 이 큰 집의 절반으로부터 해방된 것을 기뻐할지도 모른다.

“그래서 당신들은 모든 것을 다 뒤집어놓으려고 한다.”

법과 질서의 옹호자들은 말한다.

“퇴거와 이사들이 끝없이 이어질 것이다. 방향을 완전히 전환해서 새롭게 시작하려면, 차라리 모든 사람을 집 밖으로 나오게 한다음에, 제비뽑기로 집들을 재분배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비판자들은 이런 식으로도 말할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굳게 확신하고 있다. 만일 어떤 정부도 이 문제에 간섭하지 않는다면, 그리고 이 일을 맡기 위해 생겨난 자유로운 단체들에게 모든 변화를 맡겨둔다면, 퇴거와 이사들은 훨씬 적을 것이라고 말이다.

모든 대도시에는 많은 빈집과 아파트가 있어서 빈민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들어가 살기에 거의 충분할 정도이다. 궁전 같은 호화 저택들과 방이 많이 떨린 고급 아파트의 경우에는, 많은 노동자가 할 수만 있다면 그 곳에서 살지 않으려고 할 것이다. 수많은 하인이 없는 상태에서는 그런 저택들을 유지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그런 저택들에 살던 사람들도 머지 않아 덜 사치스러운 집을 찾아봐야겠다고 생각할 것이다. 귀부인들도 부엌에서 손수 요리를 하기에는 그런 저택이 별로 적당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사람들은 점차 차분히 자리를 잡아갈 것이다. 총검으로 위협을 하면서 부자들을 다락방으로 보낼 필요가 전혀 없을 것이다. 혹은 무장한 호위대와 함께 가난한 사람들을 부자의 대저택으로 데려갈 필요도 없을 것이다. 민중은 가능한 최소한의 혼란과 소동을 겪으면서, 쓸모 있는 집들을 찾아내서 우호적으로 자리를 잡아갈 것이다.

우리에게는 시골의 공동체적 코뮌들이 농지를 재분배했던 실례들이 이미 있지 않은가? 그때 그 코뮌들은 할당된 농지의 주인들을 거의 방해하지 않았기 때문에, 누구나 그들이 사용한 방법이 아주 합리적이고 양식 있는 방법이라고 칭찬할 수밖에 없다. 러시아에서 코뮌이 농지를 관리하던 시절에는 농지의 주인이 거의 바뀌지 않았다. 사유재산이 지배하고 서로 간의 분쟁들을 끊임 없이 법정으로 가져가던 때보다 말이다. 그렇다면 유럽의 대도시 주민이 러시아나 인도의 농민들보다 지성이 모자라고 조직화하는 능력이 부족하다고 생각해야 할까?

더욱이 우리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못 본 척해서는 안된다. 모든 혁명은 어느 정도 일상적인 삶에 혼란이 일어남을 의미한다는 사실을 말이다. 의심할 여지 없이 혼란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오로지 손실만을 가져오는 혼란이 되어서는 안된다. 혼란은 최소화되어야 한다. 우리 스스로가 직접 이해 관계가 있는 모임들에 참여해서 일을 시작해야 하고, 이사회나 위원회에 맡겨서는 안된다. 그렇게 하면 우리는 모든 사람이 느끼는 불편의 정도를 줄여가는 일에 제대로 성공할 수 있을 것이다.

민중을 대표하는 명예를 달라고 졸라대는 어느 경박한 후보자를 투표로 선출해야 하는 상황을 만든다면, 그들은 어리석은 실수를 무심코 또 저지르는 것이다. 이런 후보는 자신이 모든 것을 알고 있고,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모든 것을 조직화 할 수 있다고 여기는 사람이다. 그러나 민중 스스로가 자기들이 알고 있는 것, 그리고 자기들과 직접 관련이 있는 일을 조직하는 일을 맡게 되면, ‘입씨름만 하는 의회’를 모두 합친 것보다 훨씬 더 잘해낼 것이다. 파리 코뮌이 그 적절한 사례가 아니던가? 영국의 부두 노동자 총파업<sup>69</sup>은 어떤가? 또 온갖 농촌 공동체가 끊임 없이 이사실을 증명하고 있지 않은가?

---

<sup>69</sup> 영국 런던에서 1889년에 행해진 부두 노동자 총파업을 말한다.

## 07. 의복

### I

주택들이 시민의 공공자산이 되고, 모든 사람이 매일 의음식을 공급 받게 되면, 또 다른 단계로 한발 더 나아가야 할 것이다. 의복에 관한 문제 가 당연히 그 다음으로 고려 대상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이번에도 유일하게 해결책은, 옷을 판매하거나 보관하는 모든 가게와 창고를 민중의 이름으로 손에 넣고, 그문을 활짝 열어서 각자가 필요한 옷을 가져갈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의복을 공유화하는 일, 즉 각자가 필요한 옷을 공동 창고에서 가져갈 권리를 갖는 것은, 주택과 식량의 공유화로부터 쉽게 추론할 수 있는 필연적인 귀결이다.

분명 우리가 모든 시민의 외투를 강제로 빼앗아서 산더미처럼 쌓아놓은 다음에 제비뽑기를 할 필요는 전혀 없을 것이다. 위트와 재간을 적절히 갖고 있는 우리의 비판자들은 그렇게 말했지만 말이다. 외투 한 벌을 갖고 있는 사람은 그대로 갖고 있게 하자. 오히려 어떤 사람이 외투 열 벌을 갖고 있다고 해도, 어느 누구도 그걸 빼앗고 싶어 하지 않을 가능성이 훨씬 높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뚱뚱한 부르주아의 어깨를 거친 것보다는 새 외투를 더 좋아할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새 외투가 남아돌 만큼 충분히 있을 것이라서, 굳이 헌옷들을 입을 필요가 없을 것이다.

대도시에 있는 가게들과 창고들을 조사해 보면 파리, 리옹, 보르도, 마르세유 같은 도시에는 남녀 노소 모두 시민에게 공급하기에 충분한 옷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모든 사람이 자기에게 맞는 옷을 즉시 찾아내지 못할 경우에는, 얼마 안 있어 공동 양복점이 부족한 부분을 채울 것이다. 대규모 생산을 위해 특별하고 안된 기계를 갖추게 되었을 때, 오늘 날 양복과 드레스를 만드는 큰 작업장이 얼마나 빠르게 일하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검은 담비가죽으로 안감을 댄 코트나 벨벳 야회복을 원할 것이다!”

우리의 반대자들은 이렇게 외친다.

솔직히 말해서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모든 여성은 벨벳 드레스를 맹목적으로 좋아하지도 않거니와, 모든 남성이 검은 담비가죽으로 안감을 댄 옷을 꿈꾸지도 않는다. 지금이라도 각각의 여성에게 옷을 고르라고 한다면, 최신 유행의 온갖 기이한 장식들을 불인 옷들보다 간소하고 실용적인 옷을 더 좋아하는 여성들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취향은 시대에 따라 변하기 마련이고, 혁명의 시대에 유행하는 패션은 틀림없이 간소한 것이다. 개인들과 마찬가지로 사회 역시 소심한 시기도 있지만 대담한 순간도 있다. 비록 오늘날의 사회는 개인의 편협한 이해 관계를 추구하고 보잘것 없는 사상에 빠져 있는 초라한 모습일지라도, 중대한 위기가 닥치면 전혀 다른 분위기가 나타날 것이다.

그때는 위대함과 열정의 시기가 될 것이다. 관대한 성품을 지닌 사람들이 오늘날 사익을 챙기는 자들이 쥐고 있는 권력을 얻을 것이다. 헌신적인 행동들이 분출할 것이고, 고결한 행위들은 또 다른 고결한 행위들을 낳을 것이다. 이기주의자 조차 참여하지 않고 망설이는 것을 부끄러워 할 것이고, 비록 그가 본받지는 않을지라도 관대하고 용감한 사람들에게 자기도 모르게 감탄하게 될 것이다.

1793년의 대혁명 시기에는 이런 종류의 실례들이 아주 많았다. 인류를 순식간에 향상시키는 이 열정의 급류가 일어나는 시기는, 개인과 마찬가지로 사회에서도 언제나 이런 정신적인 부활의 시기 동안이다.

우리는 이러한 고귀한 열정이 하는 역할을 과장하고 싶지도 않고, 그런 열정들에서 우리가 꿈꾸는 이상적 사회를 발견하리라고 희망하지도 않는다. 하지만 이런 열정의 힘으로 최초의 가장 힘든 시기들을 극복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이 그리 무리한 요구는 아니다. 우리는 나날의 일상이 그런 고조된 열광 상태에 끊임 없이 영향받기를 바라지 않는다. 하지만 처음에는 그런 감정들의 도움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고, 그것이 우리가 필요로 하는 전부이다.

새로운 아나키스트 사회가 이런 우애의 물결을 필요로 하는 것은 바로 세상을 깨끗이 청소하기 위해서이다. 그리고 수세기에 걸친 노예 상태와 억압 때문에 축적된 파편들과 쓰레기들을 깨끗이 쓸어버리기 위해서이다. 나중에 이 우애는 굳이 헌신적인 정신에 호소하지 않아도 존속할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모든 압제가 사라지고, 연대감이 넘치는 새로운 세상이 만들어졌을 것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혁명의 특성이 우리가 여기에서 개략적으로 묘사해본 것과 같다면 개인의 자유로운 창의성이 광범위한 활동 영역을 찾아낼 것이기 때문에, 이기주의자의 시도들은 좌절될 것이다. 모든 거리와 구역마다 단체들이 생겨나서 의복을 담당하는 일을 맡을 것이다. 그들은 도시가 갖고 있는 모든 의료의 재고 목록을 작성할 것이고, 즉시 이용 할 수 있는 물품들은 대략 어떤 것들인지를 밝혀낼 것이다. 의복의 문제에서도 시민이 식량 문제와 똑같은 원리를 적용할 것임은 거의 확실하다. 다시 말해서, 그들은 공동 창고에 풍부하게 있는 것들은 무료로 제공할 것이고, 양이 부족한 것은 무엇이든지 조금씩 배분할 것이다.

모든 남자에게 검은 담비 가죽 안감을 댄 외투를 주거나 모든 여자에게 벨벳 야회 복을 제공할 수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는 아마도 꼭 필요하지 않은 것과 생활 필수 품들을 구분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검은 담비 모피와 벨벳은 잠정적으로 삶에 꼭 필요한 물품은 아닌 것으로 분류될 것이다.

오늘 사치품인 것들이 미래에는 모두가 흔히 쓰는 것이 될지 어떨지는 시간이 증명하도록 놔두자. 반면 필수 품인 의복은 아나키스트 도시의 모든 주민에게 보장될 것이다. 잠정적으로 사치품으로 간주된 물품들을 아픈 사람들과 허약한 사람들에게 제공하는 일과, 평범한 시민의 일상적인 소비재가 아닌 특별한 물품들을 덜 건강한 사람들에게 가져다주는 일은 민간 의사적인 활동으로 남게 될 것이다.

“하지만 그것은 회색 빛 획일화를 뜻하고, 인생과 예술에서 모든 아름다운 것의 끝을 의미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 우리는 대답한다. “분명히 그렇지 않다”라고. 그리고 이미 존재하고 있는 것들을 증거로 삼아 추론한 것에 기초해서, 우리는 어떻게 아나키스트 사회가 재산을 축적하는 백만장자를 허락하지 않고서도 시민의 가장 예술적인 취향을 만족시킬 수 있는지를 보여줄 것이다.

## 08. 방법과수단

### I

어느한사회, 한도시, 한지역이주민에게생활필수품을보장해주려면 (그리고우리는어떻게생활필수품이란개념이확장되어서서비스럽다는것들까지포함할수있는지를보여줄것이다), 그사회는생산에절대적으로필요한것들을부득이하게손에넣어야할것이다. 다시말해서토지, 기계, 공장, 운송수단등을손에넣어야한다. 사적소유자들이손에쥐고있는자본도몰수해서공동체에돌려줄것이다.

이미이야기했듯이부르주아사회가저지른커다란해악은, 각각의산업적이고상업적인기업들이내는이익의상당부분을자본가가차지하고그들자신은일하지않으면서살아간다는점이다. 뿐만아니라생산이전부잘못된방향으로가고있기때문에, 모든사람의행복을보장하려는목적으로수행되지않는다는점도있다. 바로이런이유때문에그것은비난받아야한다.

상업적인생산이모든사람을위해운영된다는것은절대적으로불가능하다. 그렇게되기를바라는것은자본가들이자신의활동영역을넘어서서어떤의무를수행하기를기대하는일이다. 이의무는자본가들이지금의자신이기를그만두지않고서는수행할수없는것들이다. 즉, 자신의부유함을추구하는사적인공장주이기를그만두어야하는것이다.

고용주개인의사적인이익에기반을둔자본가조직은사회가그들에게서기대할수있는모든것을사회에게제공하고있는데, 바로노동생산력을증가시키는일이다. 증기, 화학의갑작스런발전, 우리세기에이루어진다른발명들덕분에일어난산업혁명으로이득을얻은자본가들은스스로를위해인간의노동에서나오는이익을증가시키는일을하고있다. 그리고지금까지는아주크게성공했다. 하지만자본가에게그것말고다른의무들을부과한다는것은터무니없는일이다. 예를들어자본가가이막대한노동이익을사회전체를위해서쓰기를기대한다는것은그에게박애주의와자비심을요구하는격이지만, 자본주의기업은자비심에기초할수없다.

이제사회가해야하는일은, 첫째로지금은특정산업에만한정되어있는이생산성을더욱크게확대해서공공의이익을위해쓰는것이다. 그러나이런노동생산성을모두의행복한삶을보장하는데쓰려면사회는모든생산수단을손에넣어야한다.

늘 그렇듯이 경제학자들은 특정 부류의 젊고 건강한 노동자들, 현체제 아래의 특수 산업 분야에 맞게 숙련된 기술을 가진 노동자들이 비교적 좋은 삶을 산다는 것을 우리에게 상기 시켜줄 것이다. 경제학자들이 자랑스럽게 자리에 보여주는 것은 언제나 그런 소수의 사람이다. 하지만 이런 소수 노동자들의 예외적인 권리인이 행복 조차 과연 안전한 것일까? 아마도 내일이 되면, 부주의함, 장래에 대한 준비 부족, 고용주들의 탐욕이 그들의 일자리를 빼앗을지도 모른다. 그리고 몇 달 혹은 몇 년 동안 누렸던 편한 세월을 이제는 가난과 결핍으로 갚아야 할지도 모른다.

얼마나 많은 직물업, 철강업, 제당업 같은 중요한 산업들이 쇠퇴하거나 조업을 중단하는 모습을 보아 왔던가! 투기 때문에, 또는 작업의 자연스러운 대체 때문에, 혹은 자본가들 사이의 경쟁의 결과 때문에 말이다. 주요한 직물업이나 기계 공업 조차 1866년을 지나오면서 그러한 위기를 겪어야 했다면, 소규모 기업 모두가 조업 중단의 기간을 보내야만 했다는 사실은 말할 필요조차 없다.

게다가 특정 부류의 노동자들이 누리는 상대적인 행복을 위해 치러야 하는 대가는 어떤 것일까? 불행히도 농업의 몰락, 농민들에 대한 파렴치한 착취, 다수 민중의 빈곤으로 그 대가를 치르고 있다. 어느 정도의 안락을 즐기는 소수의 힘없는 노동자들과 비교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안정된 임금도 없이, 부르는 곳이라면 어디든 갈 준비가 된 채로, 하루 벌어서 하루를 근근이 살아가고 있는지 모른다. 얼마나 많은 농민이 쥐꼬리만한 수입을 얻으려고 하루에 14시간씩 일하고 있는지 모른다. 자본은 시골의 인구를 줄어들게 하고, 산업 발달이 거의 안 된 식민지와 다른 나라들을 착취하고, 엄청나게 많은 노동자가 기술 교육도 받지 못한 채 자기 직업에서 조차 열등한 사람으로 남아 있게 만든다.

이런 상황은 그저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 자본주의 체제에서 필연적으로 생기는 일이다. 특정 부류의 노동자들에게 좋은 보수를 주기 위해서, 농민들은 사회의 짐을 끄는 짐승이 되어야 한다. 시골은 도시를 위해서 황폐해져야 한다. 소규모 산업들은 대도시의 불결한 외관에 모여서, 수많은 잡화 물품을 거의 공짜나 다름 없이 만들어야 한다. 그래야 적은 월급을 받는 구매자들이 대기업의 상품들을 구매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만들어진 질나쁜 천은 월급이 보잘 것 없는 노동자들에게 팔릴 것이고, 기아 임금에 만족하는 재단사들이 그 천으로 옷을 만들 것이다. 동양의 후진국들은 서양에 의해 착취당하고 있다. 자본주의 체제에서 몇 가지 특권적인 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이 제한된 안락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말이다.

그러므로 현체제의 해악은 로트베르투스<sup>70</sup>와 마르크스가 말한 것처럼 생산물의 ‘잉여 가치’가 자본가들에게 돌아간다는 점에 있는 것이다. 이런 생각은 사회주의적 개념과 자본주의 체제에 대한 일반적인 견해를 협소하게 제한하는 것이다. 잉여 가치 체제는 더 깊은 원인들이 낳은 하나의 결과에 불과하다. 해악은 각각의 세대들이 소비하지 않고 남겨둔 단순한 잉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잉여 가치가 존재할 것이라는 사실에 있다. 왜냐하면 잉여 가치가 존재해야 한다는 것은 남자와 여자, 아이들 모두가 강요된 배고픔에 못 이겨서 자기들의 노동이 생산 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적은 뜻만을 받고 노동력을 팔아야 한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해 악은 생산 수단들을 소수의 몇몇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한계 속될 것이다. 사람들이 땅을 경작할 권리와 기계를 쓸 권리를 얻으려고 그것을 소유한 사람들에게 무거운 임대료를 강제로 납부하는 한, 그리고 땅과 기계를 소유한 자들이 자기들에게 가장 많은 이익을 가져다 줄 유망 제품들을 자유롭게 생산할 수 있는 한, 행복은 아주 소수의 사람에게만 일시적으로 보장될 뿐이다.

그리고 그런 행복은 오직 사회의 다수를 차지하는 가난한 사람들이 가져다 준 것일 뿐이다. 만약 수많은 다른 노동자가 동시에 착취당하고 있다면, 거래에서 실현된 이익을 균등하게 분배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문제는 가능한 인간의 에너지를 최소한으로 써서 모든 사람의 행복에 필요한 재화들을 최대한 많이 생산하는 것이다.

이런 보편적인 목표는 사적 소유자의 목표가 될 수 없다. 전체로서의 사회, 생산에 관한 이런 견해를 이상적으로 여기는 사회가 강제로 모든 것을 수용해야 하는 것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다. 그래야 부를 생산해서 모두의 행복을 증진 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사회는 토지, 공장, 광산, 통신 수단 등을 손에 넣어야 할 것이다. 그밖에도 적절한 생산 방법과 수단을 연구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어떤 생산이 보편적인 행복을 증진 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연구해야 할 것이다.

## II

<sup>70</sup> 독일의 경제학자이자 사회주의자 (Johann Karl Rodbertus, 1805-1875). 임대료와 이윤이 노동의 잉여 가치에서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사람이 하루에 몇 시간 동안 일해야 만족을 위한 영양가 있는 음식, 안락한 집, 필요 한 옷을 생산할 수 있을까? 이 질문은 사회주의자들이 흔히 물어 하는 문제이다. 대체로 그들은 하루 네 다섯 시간이면 충분 할 거라는 결론에 다 다르 곤 했다. 모든 사람이 일을 한다는 암묵적인 조건 아래에서 그렇다는 것이다. 지난 세기 말 (18 세기 말) 에 벤자민 프랭클린<sup>71</sup>은 그 계를 하루 5 시간으로 정했다. 지금은 안락에 대한 요구가 훨씬 늘어 났지만, 생산력 역시 늘어 났고, 아주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농업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하자면, 우리는 대지가 인간에게 얼마나 많은 것을 생산해 줄 수 있는지를 알게 될 것이다. 땅을 경작하는 사람이 오늘 날처럼 제대로 갈지 않은 땅에 되는 대로 씨앗을 뿌리는 대신, 합리적인 방식으로 경작할 경우에 말이다. 미국 서부의 대농장들 중 어떤 것은 30 평방 마일이나 되는 것도 있지만 문명화된 국가의 비옥한 땅들 보다 척박하기 때문에, 에이커당 고작 15 부셸 밖에 수확하지 못한다. 다시 말해 수확량이 유럽의 농장이나 미국 동부에 있는 농장의 절반 밖에 안 된다는 뜻이다. 그럼에도 두 사람이 하루에 4 에이커의 땅을 갈 수 있게 해주는 기계 덕분에, 100 명의 농부는 1 만 명이 1 년 내내 먹을 뺨을 만드는데 필요 한 밀을 한 해에 생산해 낼 수 있다.

따라서 한 사람이 그런 조건에서 주당 30 시간, 즉 6 일 동안 반나절인 5 시간씩 일하면 그는 1 년 내내 뺨을 뺨을 충분히 얻을 것이다. 또한 30 일 동안 반나절씩 일하면, 5 인 가족에게 같은 조건을 보장해 줄 수 있다. 우리는 오늘 날 얻을 수 있는 결과에 근거해서 다음과 같은 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 즉, 집 약영 농방법을 쓸 경우 반나절씩 6 일 이하로 일해서 온 가족이 먹을 뺨, 고기, 채소, 심지어는 사치스러운 과일 까지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말이다.

게다가 오늘 날 대도시에 세워지는 노동자 주택의 가격을 조사해 보면 이런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즉, 영국 대도시의 경우 노동자들에게 250 파운드로 제공되는 작은 연립 주택은 매일 5 시간씩 1 천 800 일 정도 일하면 충분히 구입할 수 있다. 그리고 그런 종류의 집은 최소한 50 년 정도는 유지될 것이기 때문에, 노동자가 1 년에 약 36 일 동안 반나절 노동을 한다면 한 가정에 필요한 편의 시설을 갖춘, 가구가 딸리고 위생적인 집을 제공받을 수 있다. 이와 달리 똑같은 집을 소유주로부터 임대할 경우 노동자는 1 년에 100 일 동안 온종일 일해야 그 임대료를 지불할 수 있다.

이 숫자들은 우리 의 불완전한 사회 체제를 전제로 하고서 오늘 영국에서 집을 짓는데 드는 비용의 최고치로 추정한 것임을 주목해야 한다. 벨기에에서는 노동자 주택이 훨씬 더 적은 비용으로 지어지고 있다. 그러므로 모든 상황을 고려해 보면 잘 조직된 사회에서는 1 년에 40 일간의 반나절 노동으로 완벽하게 편안한 집을 충분히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말할 수 있다.

이제 옷 문제 가 남아 있는데 옷의 정확한 가격을 정하는 일은 거의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중간 상인 무리가 가져가는 이익이 얼마인지 추정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옷감을 예로 들어보자. 그 천에는 지주들, 양주인들, 양모상인들, 모든 중개업자가 부과 한 세금이 매겨져 있으며 그 다음에는 철도 회사들, 공장 소유주들, 방직 공들, 기성 품 판매 도매상들, 소매상들, 위탁 판매인들이 부과 한 세금도 더 해야 한다. 그렇게 해야 만가 가의 옷 제품을 구입 할 때 자본 가무리 전체에게 지불하는 돈이 얼마나 되는지를 대충 알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 일은 불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련던의 큰 가게에 진열된 외투 한 벌에 4 파운드의 가격표가 붙어 있을 경우, 노동자가 며칠의 노동을 해야 그 걸 구입할 수 있는지 절대로 말할 수 없는 것이다. 확실한 것은 지금의 기계를 이용하면 믿을 수 없을 만큼 많은 양의 의복들을 값싸고 빠르게 만들어내는 일이 가능하다는 사실이다.

몇 가지 실례만으로 이 사실을 충분히 증명할 수 있을 것이다. 가령 미국에서는 751 개의 면 방직 공장 (실을 잣고 천을 짜는 공장)에서 17 만 5 천 명의 남녀가 2 억 300 만 야드의 면 제품과 그 밖에 막대한 양의 실을 생산하고 있다. 평균을 내보면 300 일 동안 매일 9 시간 30 분씩 일하면 1 만 2 천 야드가 넘는 면 제품을 만들 수 있다. 즉, 10 시간마다 40 야드의 면 제품을 생산할 수 있다는 뜻이다. 한 가족이 1 년 동안 필요로 하는 면 제품이 최대 200 야드라고 한다면, 총 50 시간 동안 일하면 된다. 즉, 매일 5 시간씩 10 일간 일하면 된다. 그 밖에도 필요 한 실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해서 바느질 할 수 있는 면, 천으로 짤 수 있는 실 등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면을 섞여 넣은 양모 제품도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이다.

직물 제조업에서 얻어진 결과만 보더라도 1870 년 미국의 공식 통계는 다음 사실을 말해주고 있다. 즉, 노동자들이 하루에 14 시간 동안 일할 경우, 그들은 1 년에 훤 면 직물 1 만 야드를 만들어 낸다는 사실이다. 16 년 뒤인 1886 년에는 노동자들이 일주일에 55 시간 정도 일해서 3 만 야드의 훤 면 직물을 생산할 수 있었다.

<sup>71</sup> 미국의 정치가, 과학자, 저술가 (Benjamin Franklin, 1706-1790). 미국 독립 선언서를 작성한 기초 위원회 중의 한 사람 이었다.

심지어작물로짜서염색한면직물의경우에도, 그들은 1년에 2천 670 시간을일해서 3만 2천야드를생산했다. 시간당 12 야드정도를얻은셈이다. 그러므로한가족이 1년동안필요한 200 야드의흰면직물과염색한면직물을얻기위해서는, 1년에 17 시간만일해도충분할것이다. 여기서주목할필요가있는것은이원재료들은대개밭에서수확한상태그대로공장에도착하는것이라서상품으로만들기전에재료를공정하는일이필요한데, 이과정도여기 17 시간속에포함된다. 그러나이 200 야드를상인에게서구입하기위해서는, 보수가좋은노동자라도최소한하루에 10 시간씩 15 일동안을일해야한다. 다시말해약 150 시간을일해야한다는뜻이다. 영국농민의경우, 이비싼제품을구입하기위해서는한달이나그보다약간적은기간동안노동해야한다.

이예를통해우리는이미알고있다. 잘조직된사회에서는 1년에 50 일동안반나절노동을하면, 오늘날중하류계층이입는것보다더잘입을수있다는사실을말이다. 이모든사실에따르면농산물을얻기위해서는하루반나절씩 60 일만일하면되고, 집을얻기위해서는 40 일, 옷을위해서는 50 일이든다. 1년중에휴일을빼고일하는날을 300 일이라고친다면, 이날들을다합해봐야고작 1년의절반밖에되지않는다. 아직하루반나절씩일하는날이 150 일남아있다. 이날들은생활에필요한다른것들, 가령와인, 설탕, 커피, 차, 가구, 교통비등을얻는일에사용할수있다.

이러한계산들은단지대략적으로만계산한것임이분명하지만다른방법으로도위의계산을증명할수있다. 다음과같은사실을고려할경우에, 각각의나라에서진짜필요한생산물들의양을두배로늘릴수있다. 즉, 얼마나많은소위문명화된나라가아무것도생산하고있지않은지를고려하고, 얼마나많은노동이곧사라져버릴지모르는직업들에쓰이고있는지를고려하고, 쓸모없는중간상인들이얼마나많은지를고려할경우에말이다.

만약필수품을생산하는일에 10 명이아니라 20 명의사람들이종사한다면, 또사회가인간의에너지를절약하기위해애쓴다면, 이 20 명의사람들은하루에 5 시간만일을해도생산량은감소하지않을것이다. 그리고낭비되고있는인간에너지를줄여서이힘들을활용한다면충분히그나라의생산력을크게증가시킬수있다. 실제로그렇게한다면지금생산되는모든제품을생산하는데필요한노동시간을하루에 4 시간까지줄일수있을것이다.

이러한사실들을다연구하고나면우리는다음과같은결론에이르게될지도모른다. 농업과다양한산업에종사하는몇백만명의주민이살고있는사회를상상해보자. 가령, 근교인센에투아즈지역을포함한파리를예로들수있다. 이사회에서는모든아이들이머리와함께손을써서일하는법을배운다. 아이들교육을맡고있는여성들을제외한모든여른이, 20~50 살까지하루에 5 시간씩일을할의무가있다. 일자리는그도시가필요하다고여기는다양한분야의직업중에서한가지를고를수있다. 그에대한보답으로사회는모든구성원에게행복한삶을제공해줄것이고, 그행복은오늘날중산층이즐기는것보다훨씬실질적이고내용이있을것이다.

더나아가, 이사회에속한노동자들은각자하루에적어도 5 시간을자기마음대로쓸수있다. 그들은그시간동안학문이나예술에전념할수있으며, 개인적인일을하는데그시간을쓸수도있다. 아마도인간의생산성이증가하게되면, 학문이나예술같은것들이더이상사치스럽거나접근하기어려운일로보이지않을것이다.

## 09. 사치스러운취미에대한욕구

### I

인간이란먹고, 마시고, 집을마련하는일만을삶의유일한목적으로삼는존재가아니다. 물질적인결핍이충족되자마자다른욕구들, 일반적으로말해서예술적특성이라고할수있는욕구들이앞으로튀어나온다. 이욕구들은아주다양하고각개인마다모두다르다. 그리고사회가점점더문명화될수록개인성은더욱발달하게되고, 이욕구들도더욱다양해질것이다.

심지어오늘날에도어떤남녀들은아주사소한것들을얻기위해서, 또뭔가특별한만족혹은어떤지적이나물질적인즐거움을얻기위해서필수품소비를자제하는모습을볼수있다. 기독교인이나금욕주의자는이런사치스러운욕구들에대해서비난할지도모른다. 하지만실존의단조로움을깨트리고삶을유쾌하게만드는것은바로이사소한것들이다. 나날의노동외에자신의취미에맞는단하나의즐거움조차얻을수없다면, 피할수없는갖 가지고된노동과슬픔으로가득한인생이얼마나살아갈만한가치가있겠는가?

만일우리가사회혁명을바란다면무엇보다먼저모두에게빵을제공해야한다는점은의심할여지가없다. 즉, 이런저주스러운사회를바꾸어야한다는것이다. 매일우리는유능한노동자들이자신을착취하고용주에게자기를고용해달라고매달리는모습을보고있다. 여자들과아이들이밤에잘곳이없어서떠돌고있으며, 온가족이마른빵만먹으며근근이살아가야한다. 남자들, 여자들, 아이들이제대로보살핌을받지못하거나먹을것이없어서죽어가고있다. 우리가반란을일으키는것은이런정의롭지않은상황을끝장내기위해서다.

하지만우리는혁명에서더많은것을기대한다. 우리는알고있다. 가까스로생존하기위해서강제로고통스럽게일해야하는노동자는보다고상한즐거움, 인간이도달할수있는보다수준높은것들을외면할수밖에없는처지임을말이다. 가령, 학문의즐거움, 특히과학적발견의즐거움, 예술적창조의즐거움같은것들말이다. 사회혁명이모두에게매일의빵을보장해주어야하는이유는, 지금은소수만누리는이런즐거움들을모두가누릴수있도록하기위해서이다. 모든사람이여가를누리도록해서자신의지적능력을계발할가능성을제공하기위해서이다. 빵이보장된다음에는여가가가장중요한목표가될것이다.

오늘날수백수천만명의사람이빵, 석탄, 옷, 집을필요로하고있는상황에서사치스런욕구가범죄라는사실에는의심할나위가없다. 그런사치스런욕구를채우기위해서노동자의아이는빵없이지내야한다. 하지만모든사람이필요한음식과집을 가지고있는사회에서는오늘날우리가사치스런것으로여기는욕구들이더욱강하게느껴질것이다. 그리고모든사람은서로다르고, 또같을수도없는존재이기때문에 (취미와욕구의다양성은인류의진보를확증해주는주요한것들이다), 특정방면에서평범한개인들의취미를넘어서는욕구를가진남자와여자들이항상있을것이다. 이것은바람직한일이다.

모든 사람이 망원경을 필요로 하지는 않는다. 심지어 배움이 보편화된다고 할지라도, 별이 가득한 하늘을 탐구하기보다는 현미경을 통해 뭔가 조사하기를 더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다. 어떤 사람은 조각을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그림을 좋아한다. 어떤 사람은 좋은 피아노를 갖는 것이 가장 큰 열망이지만, 누군가는 아코디언으로 충분히 즐거워 한다. 취미는 다양하겠지만 예술적 욕구는 모든 사람이다가지고 있다.

현재 우리가 사는 비열한 자본주의 사회에서 예술적 욕구를 가진 사람들은 운이 좋아서 많은 재산을 상속 받지 않는 한, 이 욕구들을 충족시킬 수 없다. 아니면 열심히 공부해서 지적인 자산을 얻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 그 사람은 이것으로 나중에 좀 더 자유로운 직업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언젠가는 자신의 취미를 약간이나마 충족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품는다. 아마도 이런 이유 때문에 그는 이상적인 코뮌주의 사회를 비난할지도 모른다. 코뮌주의 사회에서는 개인들의 유일한 목표가 물질적인 생활이 아니냐고 말이다. 그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한다.

“아마도 당신들의 공공상점에는 모두를 위한 빵이 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곳에는 아름다운 그림, 광학기계, 화려한 가구, 예술적으로 세공한 보석은 없을 것이다. 간단히 말해서 무한히 다양한 인간의 취향을 만족시켜 줄 수 있는 많은 것이 없을 것이란 뜻이다. 그리고 당신들은 코뮌이 모두에게 제공할 수 있는 빵과 고기, 그리고 여성 모두가 입게 될 단조롭고 우중충한 린넨 옷을 제외한다른 것들을 갖지 못하게 얹압할 것이다.”

이것들은 모두 코뮌주의 체제가 생각해 봐야 할 반대의견들이다. 또한 미국의 황무지에 정착해서 새로운 공동체 사회들을 건설했던 사람들이 결코 이해하지 못했던 반론이기도 하다. 그들은 공동체가 모든 구성원이 입을 만큼 충분한 천을 조달할 수 있고, ‘형제들’이 서로 투르게 음악을 연주할 수 있는 음악실이 있으며, 때때로 연극한 편을 공연한다면 그걸로 충분하다고 믿었다.

그들은 도시민들과 마찬가지로 농민에게 예술적 감수성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잊고 있었다. 그리고 예술적 감수성을 표현하는 방식은 문화의 차이에 따라다를 수 있지만 핵심은 똑같다는 사실을 잊고 있었다.

공동체는 생활에 필요한 일반적인 필수 품들을 보장했지만 그것만으로는 소용이 없었다. 개성을 발달시키는 모든 교육을 얹었으나 소용이 없었다. 성경을 제외한 모든 읽을 거리는 없앴지만 허사였다. 개인적인 취미들이 터져나왔고 불만이 널리 퍼졌다. 누군가 피아노나 과학 기구들을 사려고 하면 싸움이 일어났다. 그리고 진보를 위한 요인들이 시들어갔다. 그런 사회는 모든 개인적인 감정, 갖가지 예술적 성향, 그리고 모든 발전의 짓밟아버렸던 조건에서 만존재할 수 있었다.

아나키즘적 코뮌도 어쩔 수 없이 같은 방향으로 가게 될 것인가? 분명히 그렇지 않다. 이 코뮌이 물질적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생산하고, 다른 한 편으로 인간 정신이 표현하려는 모든 것을 열심히 충족시키려고 애써야 한다는 사실을 이해한다면 말이다.

## II

솔직하고 백하자면 우리를 둘러싼 혼란과 고통에 대해 생각하고 있을 때, 거리에서 일자리를 구걸하는 노동자들의 비통한 외침을 듣고 있을 때, 다음과 같은 질문을 논의하고 끈 마음이 썩 내키지는 않는다. ‘모든 구성원이 충분한 음식을 공급받게 된 사회에서 세브르산도자기나 벨벳 드레스를 가지고 싶어하는 특정 개인의 욕구를 충족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같은 질문들 말이다. 이 질문에 우리는 이렇게 대답하고 싶다. 제일 먼저 빵을 확실하게 확보하도록 하자고, 도자기나 벨벳은 그 다음에 알아보자고 말이다.

그러나 우리는 사람은 음식 말고도 다른 욕구들을 가진다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 또한 아나키스트 사회의 힘은 분명 인간의 모든 재능과 열정을 이해하고, 그 어떤 것도 무시하지 않는다는 것에서 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간단하게 설명할 것이다. 어떻게 해야 인간이 자신의 온갖 지적이고 예술적인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지를 말이다. 우리가 이미 이야기 한 바와 같이 사람들이 45 세나 50 세가 될 때까지 하루에 4~5 시간씩 일하면, 사회의 안락을 보장하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쉽게 생산할 수 있다.

그러나 노동하는데 익숙해진 사람에게 하루의 노동은 5 시간으로 끝나지 않는다. 그런 사람에게 일은 1년에 300 일 동안 하루 시간씩 노동하는 것이며, 평생 동안 그렇게 한다. 물론 사람이 기계에 매인 존재가 되면 얼마 지나지 않아 그의 건강은 점점 나빠지고 저력도 고갈될 것이다. 하지만 그 사람이 작업을 바꿀 수 있는 가능성을 갖게 된다면, 특히 육체 노동과 정신 노동을 번갈아 할 수 있다면 그는 피로하지 않고 심지어는 즐겁게 하루 10 시간이나 12 시간 동안 일에 전념할 수 있다. 따라서 육체 노동을 4~5 시간하고 난 사람은 생존에 필요한 일을 마친 셈이기 때문에, 하루 중 남은 5~6 시간은 자신의 취미에 따라 할 일을 찾을 것이다. 그리고 그 시간을 온전히 자기 자신

에게필요한것을얻는데쓸수있다. 만약그가다른사람들과협력해서일한다면, 모두에게보장된필수품들뿐만이아니라그가원하는모든것을구할수있다.

그는먼저논밭과공장등에서사회의총생산에기여하는자신의의무를수행할것이다. 그런다음에는하루, 한주, 일년의나머지반을자신의예술적이거나학문적인욕구를충족시키기위해혹은자신의취미를위해사용할수있을것이다. 갖가지취미와모든가능한흥미를만족시키기위해수많은협회와단체가생겨날것이다. 예를들어어떤사람들은여가시간을문학에쏟을것이다. 그래서그들은자신에게귀중한사상을널리퍼트린다는공통의목적을추구하는모든사람과함께단체를만들것이다. 작가, 식자공, 인쇄업자, 조판공, 제도사를포함하는단체를말이다.

오늘날어떤작가는하루에몇실링을받고짐나르는짐승처럼일하는노동자가있다는것을알고있다. 그는인쇄소에자기작품을책으로만들어달라고맡길수있다. 하지만그는그인쇄소가어떤곳인지에대해서는아무런관심이없다. 식자공이납중독으로고통받고, 기계를지키는아이가빈혈로죽어간다고해도, 그들을대신할가난한사람들이얼마든지있지않은가? 그러나자기의노동을몇푼의돈에팔준비가된굶주린사람들이더이상없게되는날, 오늘날착취당하고있는노동자가교육받게되는날, 그리하여자기의생각을글로적어서다른사람들과소통할수있게되면작가들과학자들은자신의시와산문을출판하기위해서어쩔수없이서로협력해서인쇄일을할수밖에없을것이다.

작업복과육체노동을열등함의표시로여기는한, 작가가스스로인쇄소에서자기책의활자를조판하는모습을보면사람들은놀랍게생각할것이다. 기분전환을위해서라면체육관에가거나게임을할수도있지않은가? 그러나육체노동에서연상되는불명예가사라지고모든사람이자기손으로일해야할대가되면어느누구도대신일해주지않을것이다.

그렇기때문에그들의승배자들과마찬가지로작가들도곧활자를조판하는법을배우게될것이다. 그들은활자를조판하고, 페이지를매기고, 인쇄기에서나오는책을받아보는그순결한즐거움을알게될것이다. 이멋진기계들, 아침부터밤까지그것을지켜봐야하는어린노동자를고문하는도구로쓰였던이기계들은, 자기들이좋아하는작가의사상을널리알리려고그걸사용하는사람에게는즐거움의원천이될것이다.

그로인해문학이손해볼일이있을까? 시인이바깥에서일을하거나, 인쇄소에서자기작품을인쇄하도록도움을준후에는덜시인다워지는걸까? 소설가가숲이나공장에서다른사람들과어깨를맞대고일하거나, 도로나철로를만드는일을하고난다음에는인간의본성에대한이해를잃어버리게될까? 이질문들에답을할수있겠는가?

어떤책들은부피가줄어들수도있지만줄어든페이지에더많은것들을담을수있을것이다. 아마도쓰레기같은인쇄물들은거의출판되지않을것이다. 하지만인쇄된것들은보다주의깊게읽혀질것이고, 그진가를더욱인정받을것이다. 책은잘교육받은광범위한독자들의관심을받을것이고, 그들에게는책을평가할만한충분한역량이있을것이다.

게다가인쇄기술은구텐베르크시대이후로거의진보하지않았고, 여전히초기단계에머물러있다. 손으로10분동안쓴것을활자로조판하는데는2시간이걸린다. 하지만증가하고있는사상을보다신속하게전달하는방법들이연구되고있으며, 언젠가는발견하게될것이다. (이글을쓴뒤로그것들이이미발견되었다.)<sup>72</sup>

모든작가가자기작품을인쇄하는일에서자기몫을하지않는다는것은얼마나안타까운사실인가! 만약그렇게했더라면인쇄업이벌써얼마나진보했겠는가. 그랬더라면우리는17세기와똑같은활자를더이상사용하지않았을것이다.

### III

이런사회를생각하는것은꿈일까? 모든사람이생산자가되고모든사람이학문과예술을계발할수있도록교육받고, 모든사람이그렇게할수있는여가를갖는사회를생각하는게꿈일까? 그런사회에서사람들은자신이선택한작품들을출간하기위해협력해서일할것이고, 각자가자기몫의육체노동을하면서그일들에기여할것이다.

<sup>72</sup> 이글을쓸당시는타자기가발명되지않았을때였다. 그뒤로곧미국에서타자기가발명되었고, 크로포트킨도나중에는이타자기를알게되었다.

우리에게는 이미 수많은 학문단체와 문학단체, 다른 많은 단체들이 있다. 그리고 이 단체들은 특정한 학문 분야에 관심이 있거나, 자기들의 작품을 출판할 목적으로 연합한 자원자들의 단체나 마찬가지이다. 이런 단체들이 발행하는 정기간행물에 글을 쓰는 저자들은 고료를 받지 않으며, 한정된 부수를 제외하고 이간행물들은 대개 비매품이다.

이런 간행물들은 같은 학문 분야를 연구하고 있는 전 세계의 다른 단체들에 무료로 보내진다. 협회의 어떤 구성원은 자신의 의견을 해석해 한쪽으로 요약해서 간행물에게 재할 것이고, 어떤 사람은 여러 해에 걸친 연구 결과를 광범위한 작품으로 발표할 수도 있다. 반면에 다른 사람들은 보다 발전된 연구를 위한 출발점으로 그간행물을 참고하는데 만족할 것이다. 어떻게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 저자와 독자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작품을 생산하는 일에 협력하고 있는 것이다.

개인 저자들과 마찬가지로 학계도 노동자들이 인쇄 일을 하는 인쇄소로 가서 함께 일할 것이다. 오늘 날 학계에 소속된 사람들은, 실제로 악조건 아래서 행해지고 있는 육체 노동을 경멸하고 있다. 하지만 모든 구성원에게 풍부한 철학교육과 과학교육을 제공하고 있는 공동체는, 어떻게 해야 육체 노동을 인간의 자부심이 되게끔 조직할 수 있는지를 알 것이다. 이런 공동체의 학문 단체들은 탐험가들, 과학애호가들, 노동자들이 함께 연합하는 곳이 될 것이다. 이 단체의 모든 사람 이 육체 노동을 알고 있고, 모두가 학문에 관심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지리학을 연구하는 단체가 있다면 모든 회원이 지구의 지층을 조사하는 일에 기여할 것이다. 각 회원은 자기 뜻의 연구를 분담할 것이고, 지금은 100 명 정도 밖에 없는 조사자들이 만명으로 늘어나서, 우리가 20년 동안 할 수 있는 조사보다 더 많은 일을 1년 안에 해낼 것이다. 그리고 그들의 연구들이 출판된다면서 서로 다른 분야에 기술을 가지고 있는 만명의 남녀가지도를 그리고, 도안을 작성하고, 활자를 조판하고, 책자를 인쇄할 것이다. 그들은 기쁜 마음으로 자신의 여가 시간을 할애해서 여름에는 탐사를 나가고 겨울에는 실내에서 작업을 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의 연구 물들이 출판되면, 100 명이 아니라 만명의 독자들이 그들이 공동으로 해낸 연구에 관심을 보일 것이다.

진보는 이미 이런 방향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심지어 오늘날에도 영국에 영어 대사전이 필요하다고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자신의 전생에 를 사전 편찬에 바친 리트레<sup>73</sup> 같은 사람의 탄생을 기다리지 않아도 되었다. 왜냐하면 그 일에 흥미를 느끼는 1천여 명의 자원자들이 자발적인 무료 봉사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그들은 도서관들을 살살이 뒤지고, 주석을 달면서, 한 사람이 일생에 걸쳐 해도 완성하지 못 했을 일을 몇 년 안에 해내었던 것이다. 인간 지성과 관련된 모든 분야에서 이와 똑같은 정신이나 타고 있다. 그러니까 다음과 같은 사실을 예상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인간 성에 대해서 아주 제한된 지식만을 갖고 있는 셈이다. 즉, 미래에는 이러한 일시적인 협력이 더욱 많아져서, 점차 개인적인 연구 작업을 대신하게 될 거라는 사실 말이다.

이사전 작업이 실제로 집단적인 작업이 되기 위해서는 많은 자원자 저자들, 인쇄 공들, 독자들이 공동으로 작업 할 필요가 있다. 그곳은 우리에게 육체 노동과 정신 노동이 결합된 실례들을 보여주고 있다. 사회주의자인 어느 저자는 자신이 쓴 기사를 직접 조판해서 신문을 만들어내고 있다. 이런 시도들이 드물기는 하지만 실제로 있다. 그리고 이 시도들은 진보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이 시도들은 자유로 향하는 길을 보여주고 있다. 미래에는 어떤 사람 이 자기 시대의 사상을 넘어서는 뭔가 쓸모 있는 이야기를 갖고 있다면, 그는 필요한 자금을 선불해 줄 만한 편집자를 굳이 찾을 필요가 없을 것이다. 그는 인쇄 일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과 그의 새로운 연구 결과 속에 있는 아이디어를 인정하는 사람들 속에서 협력할 사람들을 찾을 것이다. 그들은 함께 이새로운 책이나 잡지를 출판할 것이다.

문학과 저널리즘은 더이상 돈벌이의 수단으로 쓰이거나 다른 사람들을 희생시키면서 유지되는 일을 그만둘 것이다. 하지만 앞으로 그렇게 되었을 때, 문학과 저널리즘을 내부에서 잘 아는 사람이 있을까? 과거에 문학을 후견했던 사람들로부터 마침내 문학이 자유로워지기를 열렬히 바라지 않는 사람도 있지 않을까? 또 지금 문학을 이용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때에도 있지 않을까? 드물게 예외는 있겠지만, 문학의 저속함에 비례해서 대중으로부터 돈을 받아내려하거나, 다수의 저급한 취향에 쉽게 영합하려는 사람이 있지는 않을까?

문학과 학문은 오직 인류의 발전을 위한 연구 작업들 속에서만 자신의 적절한 자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돈벌이라는 속박에서 해방된 문학과 학문은, 오직 그것들을 사랑하는 사람들에 의해서만, 그리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만 육성되고 발전해 나갈 것이다.

#### IV

<sup>73</sup> 프랑스의 언어학자이자 철학자 (Émile Littré, 1801-1881). 표준 불어 사전의 편찬자이다.

문학, 과학, 그리고 예술은 자유로운 사람들에 의해서 육성되고 계발되어야 한다. 오직 이런 조건에서만 그들은 국가와 자본의 명예로부터 해방되는데 성공할 것이고, 그것들을 질식시키고 있는 부르주아의 저속함으로부터 해방될 것이다.

오늘날의 학자들은 자신이 관심 있는 주제들을 연구하기 위해 어떤 수단을 쓸 수 있는가? 국가에게도 움을 요청해야 할까? 국가는 100 명 중에 오직 한 사람의 후보자에게만 도움을 주고 있고, 그것도 그 후보자가 정해진 길만을 따르겠다고 표면상으로 나마 약속해야 만연을 수 있다. 프랑스 과학 아카데미가 어떤 식으로 다윈을 거부했는지를 기억하도록 하자.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과학 아카데미가 멘델레예프<sup>74</sup>를 얼마나 모욕적으로 대했는지 기억하자. 어떻게 런던 왕립 학회가 열과 일의 비례 관계를 측정한 줄<sup>75</sup>의 논문을 ‘비과학적’이라는 이유로 거절 했는지를 (우리는 이 사실을 플레이페어를 통해 알게 되었는데, 그는 줄이 사망한 후에 이 이야기를 해주었다.) 기억하도록 하자.

모든 위대한 연구, 과학에 변혁을 가져오는 모든 발견이 아카데미나 대학 외부에서 이루어진 것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다. 또 이런 연구들이다원이나 라이얼<sup>76</sup>처럼 독립적으로 연구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부유한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또는 엄청난 궁핍 속에서 연구하면서 건강을 해친 사람들이나, 실험실을 구하러 다니느라 하염 없이 시간을 허비한 사람들, 연구를 계속하는데 필요한 도구들이나 책들을 얻을 수 없는 데도 굴하지 않고 희망을 가졌던 사람들, 그리고 때로 계획한 목표에도 달하기도 전에 죽어간 사람들에 의해 이루어졌는지의 이유이다. 그런 이들은 무수히 많다.

대체로 국가가 지원하는 연구 보조금제도는 너무나 형편 없고 불쾌한 것이라서, 과학은 언제나 그런 지원으로부터 벗어나려고애를 써왔다. 이런 이유 때문에 유럽과 미국에 지원자들에 의해 조직되고 유지되는 수많은 학문 단체가 있는 것이다. 어떤 단체들의 모든 재산과 백만 장자의 부를 가지고 그들이 소유한 보물을 살 수 없을 정도이다. 어떤 정부산하 연구소도 지원자들의 자발적인 후원을 받고 있는 ‘런던 동물학 협회’ 만큼 부유하지 않다.

이 협회의 동물원에 있는 수천 마리의 동물은 사들인 것이 아니다. 그것들은 전 세계에 있는 다른 단체들과 수집 가들이 보내준 것이다. ‘봄베이 동물학 협회’는 선물로 코끼리 한 마리를 보냈다. 다른 날에는 이집트의 박물학자들이 하마와 코뿔소를 보내왔다. 또한 새들, 파충류, 수집한 곤충들처럼 대단히 훌륭한 선물들이 매일 세계의 온갖 지역에서도 착하고 있다. 이렇게 보내온 것들 중에는 종종 이 세상의 모든 황금을 주고도 살 수 없는 동물들도 포함되어 있다. 이를테면,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어떤 동물을 사로 잡았던 여행가가 있었다. 그는 이제 아이를 사랑하는 것처럼 그 동물을 아끼지만, 협회에 그 동물을 선물했다. 왜냐하면 그 동물이 틀림없이 좋은 보살핌을 받을 것이라고 확신하기 때문이다. 무수히 많은 방문객이 내는 입장료는 그 거대한 시설을 유지하기에 충분하다.

‘런던 동물학 협회’나 다른 유사한 단체들의 결점은 그곳에서 일하는 것으로 협회의 회비를 지불할 수가 없다는 점이다. 즉, 이 거대한 시설을 유지하는 사람들과 수많은 고용인은 협회의 회원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한 편 많은 사람이 자기들의 명함에 ‘F.Z.S(동물학 협회 회원)’이라는 신비로운 글자를 쓰는 것 말고는 협회에 참여할 만한 다른 동기가 전혀 없다는 것도 결점이다. 한마디로 말해, 이런 곳들에 필요한 것은 보다 완전한 협력이다.

과학자들에 대해했던 것과 똑같은 이야기를 발명가들에 대해서도 할 수 있을 것이다. 모든 위대한 발명 대부분이 어떤 고통의 대가를 치러왔는지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 잠못 이루던 밤들, 먹을 게 없어서 고통 받는 가족들, 실험 도구와 재료의 부족, 이것들은 우리 문명의 진정으로 합당한 긍지인 발명들을 이루어서 산업을 풍요롭게 해준 거의 모든 사람이 거친 역사이다.

그렇다면 모든 사람이 불쾌하고 해롭다고 여기는 조건들을 바꾸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특히 제도가 시도되고 있지만, 그 결과가 무엇인지 우리는 알고 있다. 발명가는 몇 파운드의 돈을 받고 자신의 특허권을 판다. 그리고 자본금을 제공하기 만한 사람은 종종 그 발명 덕분에 생긴 엄청난 이익을 자기 것으로 챙긴다.

게다가 특허제도는 발명가를 고립시킨다. 발명가들은 어쩔 수 없이 자기 연구를 비밀로 유지하게 되고, 그리하여 연구는 종종 실패로 끝난다. 반면에 근본적인 문제에 그다지 몰두해 있지 않은 머리에서 나온 가장 간단한 제안이 때로는 그 발명을 풍부하게 만들어서 실용화 시키도록 도와주기도 한다. 국가의 모든 통제와 마찬가지로 특

<sup>74</sup> 러시아의 화학자 (1834-1907). 당시 알려진 63 종의 원소의 특징에서 일정한 주기를 발견했으며, 이를 토대로 주기율표를 만들었다.

<sup>75</sup> 영국의 실험 물리학자 (James Prescott Joule, 1818-1875). ‘줄의 법칙’을 발견했고, 열과 일의 관계를 탐구하는 실험으로 에너지 보존 법칙을 확립시키는데 크게 기여했다.

<sup>76</sup> 스코틀랜드의 지질학자 (1797-1875).

허제도역시 산업의 발전을 가로막는다. 생각은 특허를 받을 수 없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특허제도는 이론상으로도 심각하게 부당하며, 실제로도 발명이 빠르게 발전하는데 큰 걸림돌이 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발명정신을 장려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깨어 있는 사고와 대담한 생각이 필요하다. 그런데 우리의 전반적인 교육 체계는 이런 것을 모두 시들게 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발명정신에 필요한 것은 과학교육을 널리 보급시키는 일이다. 그래야 탐구자의 수가 수백 배로 늘어나기 때문이다. 또 인류가 앞으로 나아가리라는 믿음을 갖는 일도 중요하다. 왜냐하면 모든 위대한 발명가에게 영감을 불어넣은 것은, 열정 그리고 선을 행하고자 하는 소망이 기 때문이다. 오직 사회 혁명만이 이러한 사고와 하려는 충동, 대담성, 과학적 지식, 모두를 위해 연구하고 있다는 확신을 줄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동력과 온갖 종류의 도구가 구비된 거대한 연구소들을 갖게 될 것이다. 많은 산업 실험실이 모든 탐구자에게 개방될 것이다. 사람들은 사회에 대한 자신들의 의무를 수행한다음에는 그곳에서 자신들의 꿈을 실험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들은 기계로 가득한 훌륭한 연구실들에서 하루 6시간 정도의 시간을 보낼 것이다. 그곳에서 그들은 실험을 하고, 다른 동지들, 다른 산업 분야의 전문가들을 만날 것이다. 이 사람들 역시 어떤 어려운 문제를 연구하기 위해서 그곳을 찾은 사람들이다. 그리하여 그들은 서로서로 도움과 가르침을 주고 받을 것이다. 그들의 아이디어와 경험의 만남은 그토록 고대하던 해답을 찾아내게 해줄 것이다.

다시 말하지만 이것은 꿈이 아니다. 러시아의 상트페테르부르크에 있는 솔라노이고로독 (Solanoy Gorodok)이라는 연구소는 기술적인 문제에 한해서는 이미 부분적으로 이 꿈을 실현하고 있다. 이곳은 설비가 잘 갖춰져 있고 모든 사람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작업 공장이다. 도구들과 동력 기관들은 무료로 제공되고, 오직 금속 재료나 목재를 쓸 때만 원가를 받는다. 그렇지만 불행하게도 노동자들은 직장에서 10시간의 노동을 다 끝내서 녹초가 된 밤이나 그곳에 갈 수 있다. 게다가 그들은 자기의 발명들을 서로 가보지 못하도록 주의 깊게 감추곤 한다. 왜냐하면 현 사회의 해악이 자방해 물인 특허제도와 차본주의 가지 적이고 도덕적인 진보로 가는 길을 가로막고 있기 때문이다.

## V

그렇다면 예술은 어떠한가? 우리는 사방에서 예술의 타락에 대한 탄식을 듣고 있다. 정말로 우리는 르네상스 시기의 위대한 거장들보다 한참 뒤떨어져 있다. 예술적인 기교들은 최근에 커다란 진보를 이루고 있다. 어느 정도의 재능을 타고난 수많은 사람이 제각기 다양한 분야에서 예술을 하고 있지만, 예술은 문명으로부터 달아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기교들은 발전하고 있지만 영감은 예전 만큼 예술가의 작업실에 찾아오고 있지 않다.

실제로 예술적 영감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오직 위대한 사상만이 예술에 영감을 불어넣을 수 있다. 우리의 이상으로는 예술은 창조와 동의어이다. 그리고 예술은 앞을 내다보아야 한다. 하지만 몇몇 아주 드문 경우를 제외하면, 전문 예술가들은 너무나 속물적이어서 새로운 지평을 감지하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이런 영감은 책에서나 올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 영감은 삶으로부터 나와야 한다. 그런데 지금 사회는 그것을 불러일으킬 수 없다.

라파엘로<sup>77</sup> 와 무리요<sup>78</sup>는 낡은 종교적 관습들이 그대로 유지되고는 있지만 동시에 새로운 이상에 대한 탐구를 추구 할 수 있었던 시대에 그림을 그렸다. 그들은 어떤 도시에 있는 성당들을 장식하는 그림을 그렸는데, 그 성당들은 그 자체로 여러 세대에 걸친 종교적인 작품들을 대표하는 것들이었다. 신비로운 모습의 장엄한 바실리카<sup>79</sup> 형식의 성당은 도시의 삶 자체와 관련이 있었기 때문에 예술가에서 영감을 줄 수 있었다. 그들은 일반인에게 기념이 될 만한 작품을 만들려고 일을 했다. 그들은 동료 시민에게 말을 걸었고, 그 보답으로 예술적 영감을 얻을 수 있었다.

그들은 성당의 본당, 기둥들, 채색된 창문들, 조각상들, 세공한 문들을 만들어 낼 때도 같은 방식으로 대중의 마음에 호소했다. 오늘날에는 화가가 바라는 가장 큰 영광이란 것이고 작가가 그림이 금도금된 액자에 넣어져서, 일종의 낡은 골동품점이라고 할 수 있는 미술관에 걸리는 것이다. 스페인에 있는 프라도 미술관 같은 곳에 가면, 무리요가 그린 ‘그리스도의 승천’ 그림이 벨라스케스<sup>80</sup>가 그린 거지나 펠리페 2세의 개그림 옆에 나란히 걸려 있는

<sup>77</sup> 이탈리아 르네상스 시대의 화가이자 조각가 (Raffaello Sanzio, 1483-1520). 대표작으로 〈아테네 학당〉, 〈성모〉 등이 있다.

<sup>78</sup> 17세기 스페인의 화가 (Bartolomé Esteban Murillo, 1617-1682). 종교화 외에도 평민들을 그린 풍속화를 많이 남겼다.

<sup>79</sup> 집회 등에 쓰이던 장방형의 고대로마 건축물로, 초기 기독교 교회를 말하기도 한다.

<sup>80</sup> 스페인 바ロック 시대의 화가 (Diego Velazquez, 1599-1660). 대표작으로 〈시녀들〉 등이 있다.

것을볼수있다. 불쌍한벨라스케스, 불쌍한무리요! 자기네도시에있는아크로폴리스<sup>81</sup>에서살았지만, 지금은 루브르박물관의붉은커튼아래에서숨막혀하고있는불쌍한그리스조각들!

그리스조각가는대리석을조각할때, 그도시의정신과영혼을표현하려고애를썼다. 도시의모든감정과영광스러운전통이작품속에서되살아나도록한것이다. 하지만오늘날에는그런도시는더이상존재하지않으며, 공동으로추구하는이상도더는없다. 도시는서로알지못하는사람들의우연한집단이고, 이들은상대방을희생시켜서자기의부를쌓으려는것말고는어떤공통의관심사도없다. 조국이란게존재하지않는것이다. 국제금융가와넝마를줍는이가어떤조국을공유할수있겠는가?

오직공통의이상이있는도시, 지역들, 나라, 나라들의연합들이자신의조화로운삶을회복해야만예술은이런공동의이상들에서영감을얻을수있을것이다. 그러면건축가는더이상사원, 감옥, 요새가될건축물이아니라도시의기념물이될만한건축물들을고안할것이다. 화가, 조각가, 공예가는자신의그림, 조각상, 장식품을어디에놓아야할지를알게될것이다. 그들은모두동일한활력의원천으로부터예술적인힘을끌어올것이고, 모두함께미래를향해서영광스럽게행진할것이다.

그렇지만그때까지예술은그저무기력한상태일것이다. 현대화가들이캔버스에그린가장훌륭한작품들은자연, 마을, 계곡, 위험한바다, 장엄한산을묘사한것들이다. 그런데화가가단지주의깊게바라만보거나상상만하고, 한번도직접그일에참여해서즐거워해본적이없다면, 들판에서일하는시적이정경을어떻게표현할수있겠는가? 고작철새들이날아가던중에높은하늘에서보는정도밖에그시골을알지못한다면, 어떻게그것을표현하겠는가? 만일젊은청춘의활기로새벽에챙기를끌고, 주위를가득채우는활기찬소녀들의노랫소리에맞춰일하는건강한사람들곁에서긴낮으로건초를베는즐거움을모른다면, 어떻게그것을표현할수있겠는가?

땅과그위에서자라는것들에대한사랑은붓으로그린다고해서얻어질수있는것이아니다. 오직그땅에봉사를할때에만얻을수있다. 그리고땅에대한사랑이없이어떻게그것을그릴수있겠는가? 이런식으로그림을그렸던훌륭한화가들의작품이여전히그토록불완전하고, 삶에진실하지못하며, 대부분감상적인것은바로이런이유때문이다. 그들의작품속에는‘힘찬’기운이없는것이다.

화가인당신은일을마치고돌아오는길에석양을바라본적이있어야한다. 농부의훌륭한모습을제대로파악하려면, 당신이농부들사이에서함께농부가되어본일이있어야한다. 당신이고기잡이에관한시를이해할수있으려면, 어부들과함께밤낮으로바다에서지내면서고기를잡아본적이있어야한다. 파도와싸우고, 폭풍우와맞서고, 거친노동끝에무거운그물을끌어올리는기쁨을경험하고, 텅빈그물을보고실망하는경험을해보아야한다. 또당신이인간의힘을이해하고그것을작품으로표현하려고한다면, 공장에서시간을보내본적이있어야한다. 생산적인노동의피로와기쁨을알고, 활활타는용광로의불꽃으로금속을연마하며, 기계장치속에들어있는활력을느껴본적이있어야한다. 실제로당신이사람들의감정을묘사하려면그감정속에푹빠져보아야하는것이다.

더욱이과거의위대한예술가들처럼, 민중의삶을살아본적이있을예술가들의작품들은미래에도잘팔릴운명은아닐것이다. 그렇지만그작품들은살아있는전체를구성하는데없어서는안될중요한부분이될것이다. 그작품들이없으면전체도완전해지지않을것이고, 전체가없으면그작품들도더이상완전해지지않을것이다. 사람들은예술가들의작품을감상하려그들이활동한도시로갈것이다. 그리고이런창작품들이지닌영적이고요한아름다움은사람들의마음과정신에유익한영향을미치게될것이다.

러스킨<sup>82</sup>과위대한사회주의자시인인모리스<sup>83</sup>가그렇게나여러번훌륭하게증명했듯이, 예술이발전하기위해서는수많은중간단계를거치면서산업과밀접한관계를맺어야한다. 말하자면산업과뒤섞여야하는것이다. 거리에서, 공공기념물의안팎에서, 인간을둘러싼모든것이순수하게예술적인형태를띠고있어야한다.

그러나이것은오로지모든사람이안락과여가를즐길수있는사회에서만실현될수있다. 그런사회가되어야만비로소각자가자신의능력을발견할여지가있는예술협회들이나타날것이다. 왜냐하면그런예술은엄청나게많은육체노동과기계적인보완작업이없이는행해질수없기때문이다. 이러한예술협회들은회원들의집을아름답게장식하는일을시작할것이다. 스코틀랜드에든버러시의선량한자원봉사자들인젊은화가들이그도시의가난한사람들을위한큰병원의벽과천장을장식했던것처럼말이다.

개인적인감정을작품으로표현하는화가나조각가는그것을사랑하는사람이나친구에게선물할것이다. 사랑을위해서작품을만들어내는것이다. 이렇듯사랑으로부터영감을받은그의작품이, 오늘날무척이나비싸다는이유로속물들의허영심을만족시키는예술보다더못한것으로여겨지게될까?

<sup>81</sup> 고대그리스나로마에서집회등에쓰이던장방형의고대건축물이나장소.

<sup>82</sup> 영국의저술가, 미술비평가, 사회사상가 (John Ruskin, 1819-1900).

<sup>83</sup> 영국의화가이자공예가, 시인, 저술가, 사회운동가 (William Morris, 1834-1896).

생활에 꼭 필요한 것들에 포함되지 않는 온갖 즐거움에 관해서도 이와 똑같은 원리가 적용될 것이다. 그랜드 피아노를 원하는 사람은 악기 제작 협회에 들어갈 것이다. 그리고 자기의 반나절 여가 시간의 일부를 그 협회 일을 하는데 제공함으로써, 그는 곧 꿈꾸던 피아노를 갖게 될 것이다. 천문학 연구를 좋아하는 사람은 천문학자 협회에 가입해서 그 협회의 이론가들, 관찰자들, 계산가들, 천문 기구를 만들어 내는 기술자들, 과학자들과 아마추어들과 함께 협회 일을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는 협동 작업에서 자기 뜻의 일 ○ 르함으로써 바라던 망원경을 얻을 것이다. 천문 관측소에서 필요로 하는 작업들은 특히 거친 일로써, 벽돌 공, 목수, 주물 공, 기계 공의 일이 많기 때문에 그곳에 있는 정밀한 도구들에 마지막 손질을 가하는 것은 주로 기술자가 맡아서하게 될 것이다.

간단히 말해서, 하루 종대여섯 시간 동안 필수 품을 생산하는 일에 전념한다음에는 모든 사람이 5~7 시간 정도를 각자 바라던 사치스러운 취미에 대한 모든 열망을 충분히 만족시키는데 쓸 수 있을 것이다. 수많은 협회가 그런 일들을 지원할 것이다. 지금은 하찮은 소수만의 특권으로 여겨지는 것을 모든 사람이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사치스러운 취미는 부르주아 계급의 어리석고 허영에 찬 과시가 아니라 예술적인 즐거움이 될 것이다. 그로 인해 모든 사람이 보다 행복해질 것이다. 각자는 가벼운 마음으로 공동 작업을 수행해서 책, 예술 작품, 사치품 등 원하는 것들을 얻을 것이다. 그리고 그런 작업을 통해서 삶을 즐겁게 만들어주는 자극과 여유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주인과 노예 사이의 구분을 없애기 위해 일을 할 때, 우리는 주인과 노예 양쪽 모두의 행복을 위해서, 인류의 행복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다.

## 10. 유쾌한노동

### I

사회주의자들이자본주의자들의지배로부터해방된사회는노동을유쾌한것으로만들고, 모든불쾌하고불건강한노역을없앤사회라고말하면, 그들은비웃음을당한다. 그렇지만심지어오늘날에도이런방향으로놀랄만한진보가이루어지고있음을볼수있다. 그리고이런진보가이루어지는곳이라면어디에서든, 고용주들스스로가이런진보덕분에얻게된에너지절약을축하하고있다.

공장을과학실험실만큼이나위생적이고쾌적한곳으로만들수있다는점은분명하다. 또한그렇게만드는것이유리하다는점도확실하다. 공간이넓고환기가잘되는공장에서는일을더욱잘할수있기때문이다. 수많은작은개선을도입하는일은쉽게시도해볼수있고, 이런개선들은시간과노동력을절약해줄것이다. 우리가아는대부분의일터가불결하고비위생적인이유는공장경영진이그곳에서일하는노동자들을전혀고려하지않기때문이다. 그리고인간에너지의가장어리석은낭비가현재산업체제의특징이기때문이다.

그럼에도때때로우리는지금시대도, 그곳에서일하는것이정말로즐거울만큼훌륭하게운영되고있는공장들을이미찾을수있다. 만약그곳에서의노동이하루에 4~5 시간을넘지않는다면, 그리고모든사람이자신의적성에따라서그일을바꿀수있는가능성이있다면더욱좋겠지만말이다.

아주굉장한공장들도있는데, 그중에서내가알고있는곳이하나있다. 영국중부의시골에있는그공장은불행히도전쟁용무기를생산하는곳이다. 그러나그곳은위생과합리적인조직면에서보면완벽한공장이다. 그공장은 50 에이커의부지에세워졌고, 그중 15 에이커는유리로된천장으로덮여있다. 내화벽돌로포장된바닥은광부의오두막집바닥만큼이나깨끗하고, 유리천장은그일만전담하는한무리의노동자들이늘깨끗이청소하고있다. 이공장에서는 20 톤이넘는강철주괴나강철빔이만들어지고있다. 불꽃의온도가섭씨천도가넘는엄청난용광로에서 30 피트떨어진곳에서있다면, 여러분은용광로의커다란문이열리면서강철괴물이튀어나오는모습말고는그것이대체어떤모습인지제대로볼수가없을것이다. 그런데그괴물을조종하는사람은고작

서너명의노동자들이다. 그들은이곳저곳에있는꼭지를열어서거대한크레인이물의압력에의해여기저기로움직이게만들고있다.

이런곳에들어서면서여러분은귀가멀정도로큰소리를내는커다란압인기<sup>84</sup>의소음을예상하겠지만, 거기에그런것은없다. 수백톤의거대한대포와대서양횡단증기선의크랭크가증기엔진에서나오는물의압력에의해벼려지고있다. 그리고노동자들은엄청난양의강철덩어리를성형하기위해서그저꼭지를돌리기만하면된다. 그러면두께가아무리두툼해도흠이나갈라짐이없는균질의금속이만들어진다.

나역시지옥같은소음을예상했지만, 내가본것은치즈를자르는데필요한정도의소음으로 30 피트길이의 강철주괴를자르고있는기계였다. 나를안내해주고있던엔지니어에게감탄을표하자그는이렇게대답했다.

“순전히경제문제일뿐입니다! 강철을평평하게만드는이기계는 42 년째사용되고있습니다. 만일이기계의부품들이잘못맞춰져있어서, 서로‘충돌하고’, 철을누르는판이움직일때마다삐걱거렸다면, 이기계는 10년도가지못했을겁니다!”

“용광로요? 그곳의열을사용하지않고새어나오게하는것은낭비가될것입니다. 몇톤의석탄을태운열이방사열로빠져나오게해서주물공을그슬릴이유가있을까요?”

“5 리그(약 15 마일) 떨어진건물들도진동시키는압인기역시낭비입니다. 충돌보다압력으로철을벼지는것이더낫지는않지만, 비용이적게듭니다. 손실이덜한것이지요.”

“이공장에서조명, 청결함, 각작업대에할당된공간도단순히경제적절약의문제일뿐입니다. 자신이하는 일을잘볼수있고팔꿈치를자유롭게움직일수있을때노동자가일을더효율적으로할수있으니까요.”

그가말했다.

“사실입니다. 이곳으로오기전까지는우리도아주비좁은공간에서일했습니다. 대도시근방의땅은너무나 비싸고땅주인들은아주탐욕스러우니까요!”

광산에서도상황은마찬가지이다. 우리는오늘날의광산이어떤모습인지졸라<sup>85</sup>의묘사와신문기사를통해 서잘알고있다. 그러나미래의광산은통풍시설이잘갖춰지고도서관에서처럼쉽게온도를조절할수있는곳이 될것이다. 그곳에는지하에서죽어갈운명에처한말(馬)들도더이상없을것이다. 지하견인차는탄광입구에서자동으로조절할수있는케이블에의해움직여질것이다. 환풍기가항상돌아갈것이고탄갱폭발도결코없을 것이다. 이것은꿈이아니다. 영국에서는이미이런광산을볼수있고, 나도그런광산에직접내려가본적이있다.

여기에서도훌륭한조직은순전히경제문제이다. 내가말하는광산은엄청난깊이(466 야드)를가진곳인데도불구하고, 고작 200 명의광부가하루에 1 천톤가량의석탄을캐내고있었다. 한사람의광부가하루에 5 톤의석탄을캐내는셈이다. 반면내가이광산을방문했던 1890 년대초, 영국에있는 2 천여개광산의평균채굴량은한사람당 1 년에 300 톤도안됐다. 필요하다면물질적인조직과관련된푸리에의꿈이유토피아가아니라는것을증명하는수많은예를쉽게들수있다.

하여간광산의열악한환경문제는사회주의신문들에서워낙자주이야기하고있기때문에여론은이미이런 관점으로교육되어있는상태이다. 철을주조하고석탄을캐는공장들도현대적대학들에있는가장좋은실험실만큼이나위생적이고훌륭한것이될수있다. 그리고조직이더훌륭할수록인간의노동생산성도더늘어날것이다.

만약그렇게된다면평등한사회에서는일이기쁨이고위안이될거라는사실을우리가의심할수있을까? 그런 사회에서는‘일꾼들’이어떤조건이든받아들이면서강제로자기노동력을팔지않을것이다. 불쾌한노역들은사라질것이다. 왜냐하면그런불건강한노동조건들은사회전체에해가될것이분명하기때문이다. 노예들은그런 조건들에복종할지도모르지만, 자유인들은새로운노동조건을만들어낼것이다. 그리하여그들의노동은즐겁고분명히훨씬생산적일것이다. 오늘날에는예외적인것이앞으로는통례가될것이다.

이와똑같은일이가사노동에서도일어날것이다. 오늘날의사회는여성들의어깨위에가사노동이라는힘겨운노역을부과하고있다.

## II

<sup>84</sup> 열이나압력을가해서금속을만들어내는기계

<sup>85</sup> 프랑스자연주의문학을대표하는작가. 사회주의자 (Émile Zola, 1840-1902). 대표작 『목로주점』 등.

혁명에 의해 다시 태어난 사회는 아마도 가정에서 노예처럼 일하는 것을 사라지게 만들 것이다. 가사 노동은 마지막 남은 노예 형태인데, 아마도 가장 끈질긴 것일 것이다. 왜냐하면 고대로부터 내려와 가장 오래되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팔랑스테르주의자들이 꿈꾼 방식으로 사라지지는 않을 것이고, 또한 권위주의적 공산주의자들이 흔히 상상하는 방식으로 사라지지도 않을 것이다.

푸리에 가주 창한 팔랑스테르 공동체는 많은 사람의 비위에 거슬리는 것이다. 가장 내성적인 사람일지라도 공동 작업의 목적을 위해서 동료들과 만나야 할 필요성을 틀림 없이 느낄 것이다. 그가 자신을 커다란 전체의 일부라고 느낄 수록 공동 작업은 매력적인 일이 될 것이다. 하지만 휴식과 친교를 위해 남겨놓은 여가 시간의 경우에는 그렇지가 않다. 팔랑스테르 공동체와 가족 스타일 공동체는 이것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았다. 아니면 그들은 인위적인 그룹 활동을 통해 이 욕구를 채우려고 애쓰고 있다.

사실 상 거대한 호텔에 불과한 팔랑스테르 공동체는 어떤 사람들을 만족시켜 줄 수 있을 것이다. 심지어 인생의 특정한 시기에는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해줄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많은 대중은 가족 생활 (미래의 가족 생활을 뜻 한다) 을 더 좋아한다. 그들은 각자의 아파트를 더 좋아하고, 심지어 앵글로색슨 사람들은 할 수 있는 한 6~8 개의 방이 딸린 집을 더 좋아할 것이다. 그런 집에서는 가족이나 친구들과 좀 떨어져서 지낼 수 있기 때문이다. 때로는 팔랑스테르 공동체처럼 함께 사는 게 필요하지만, 그것이 일반 규칙이 되면 혐오스러운 것이 될 것이다. 사회 속에서 서로 교류하며 시간을 보낸 다음에는 혼자 지내는 시간을 원하는 것이 인간 본성의 자연스런 욕구이다. 혼자 지내는 고독이 불가능한 감옥이 가장 큰 고문이 되는 것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다. 반대로 고독을 보완해 줄 수 있는 몇 시간의 사회적 교류가 전혀 없는 독방 감옥 역시 그 만큼 심한 고문이 된다.

경제 문제를 고려해서 때로 팔랑스테르 공동체의 좋은 점을 강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들은 하찮은 장사꾼에 불과하다. 가장 중요한 경제, 유일하게 합리적인 경제는 모든 사람의 삶을 즐겁게 만드는 것이다. 왜냐하면 자기 삶에 만족하는 사람은 주변 상황을 저주하는 사람보다 분명히 훨씬 많이 생산할 것이다. (젊고 저돌적인 코뮌주의자들은 일터 바깥에서의 일상적인 관계를 자유롭게 고르는 것의 중요성을 이해했던 듯하다. 종교적인 코뮌주의자들의 한결 같은 이상은 공동으로 식사를 하는 것이었다. 초기 기독교도들이 기독교에 대한 자신의 충실한 믿음을 분명하게 드러내보였던 것도 공동으로 식사를 하면서였다. 그때의 흔적으로 기독교의 성찬식이 아직도 남아 있다. 하지만 저돌적인 젊은이들은 이런 신성한 전통을 포기했다. 그들은 공동식당에서 식사를 하지만, 그때마다 마음가는 대로 골라 잡은 작은 개별 식탁에 앉아서 식사를 한다. 또 아나마의 코뮌주의자들은 각자가 집을 가지고 있어서 공동 상점에서 원하는 식품을 구입하기는 하지만 식사는 가정에서 한다.)

다른 사회주의자들은 팔랑스테르 공동체를 거부한다. 그렇지만 가사 노동을 어떻게 꾸려야 하는지 물어보면 그들은 이렇게 대답한다.

“각자가 ‘자신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내 아내는 살림을 하지요. 부르주아의 아내들도 앞으로는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심심풀이로 사회주의 놀이를 하고 있는 부르주아가 있다면, 그는 관대한 미소를 지으며 자기 아내에게 이렇게 말할 것이다.

“여보, 당신이 사회주의 사회에서 하인도 없이 그런 일을 한다는 게 사실은 아니겠지? 당신이 우리의 선량한 동지인 폴의 아내나 목수 존의 아내처럼 일을 할 수가 있겠소?”

하녀이든 혹은 아내이든 간에 남자들은 언제나 집안 일은 여성의 해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여성들 역시, 결국은 인간 해방에 자기도 참여하기를 요구한다. 여성들은 더 이상 가정에서 소처럼 일하고 싶어하지 않는다. 그녀는 아이들을 기르면서 인생의 많은 세월을 보냈으니까 이제는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그녀는 가정의 요리사, 수선공, 청소부이기를 더 이상 원하지 않는다.

그리고 미국 여성들은 자신이 요구하는 권리의 얻기 위해서 지금 앞장서 나아가고 있다. 미국에서는 으스대지 않고 기꺼이 가사 노동을 할 여성의 부족하게 될 것이라는 불평이 널리 퍼져 있다. 우리의 숙녀 분도 예술, 정치, 문학, 혹은 게임 테이블을 더 좋아하는 것이다. 앞치마를 두른 노예가 되어 순순히 따르겠다고 동의하는 처녀들도 거의 없다. 하녀들을 찾아내는 일도 아주 어렵다.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아주 간단한 것으로서 지금의 삶 자체가 보여주고 있다. 즉, 가사 일의 4 분의 3 을 기계가하도록 하는 것이다.

여러분은 구두 약을 칠해서 직접 구두를 닦는다. 그리고 이 일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를 안다. 구두 솔 하나로 구두 한 짝을 이삼십 번씩 문지르는 것보다 더 바보 같은 일이 있을까? 유럽 인구의 10 분의 1 은 비참한 거주지와 불충분한 음식이라고 구하기 위해서 강제로 이런 일에 자신을 팔아야 한다. 또 수백만 명의 여성은 매일 아침마다 이런 행위를 해낼 수 있도록 자신을 노예로 생각해야 한다.

하지만 미용사들은 이미 반짝 거리는 머리나 곱슬 머리를 빛질해주는 기계를 가지고 있다. 그렇다면 똑같은 원리를 왜 다른 쪽 끝에는 적용할 수 없단 말인가? 이미 그렇게 하고 있다. 오늘 날 구두를 닦아주는 기계는 미국과 유럽의 큰 호텔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다. 호텔이 아닌 곳에서도 이 기계를 쓰는 일이 늘어나고 있다. 학생들이 교사의 집

에서 하숙하고 있는 영국의 큰 학교에서는, 매일 아침마다 천결례의 구두를 닦아 줄 수 있는 기계한대를 보유하는 게 더 편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설거지하는 일도 마찬가지다. 보통 시간이 오래 걸리고 지저분한 이 일을 대부분의 가정 주부가 싫어 한다. 이 일을 싫어하지 않는 가정 주부가 있다면 그녀가 단지 가사 노예가 하는 이 일을 전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다.

미국에서는 더 잘하고 있다. 이미 미국의 많은 도시에서는 유럽에서 찬 물이 공급되듯이 뜨거운 물이 각 가정마다 공급되고 있다. 이런 조건에서 설거지는 보다 간단한 문제로 되어 있으며, 코크레인 (Cochrane) 부인의 문제를 해결했다. 그녀가 고안한 기계는 열 두 다스나 되는 그릇과 접시들을 3 분만에 닦아서 말려준다.

일리노이에 있는 한 공장은 이 기계들을 제작해서 평균적인 중산층 사람들이 살 수 있을 만한 가격으로 판매하고 있다. 그렇다면 작은 가정들이 구두 뿐만 아니라 설거지 그릇들도 그런 기계가 갖춰진 시설에 보내면 되지 않겠는가? 심지어는 구두를 닦고 설거지를 해주는 기계를 갖춘 단체가 두 가지 일을 맡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피부가 벗겨질 만큼 런던 옷들을 빨래하고 비틀어짜내는 일, 마루를 쓸고 카펫을 터는 일, 그리하여 먼지 구름이 가득 일어나고 나중에 먼지들이 내려앉은 곳을 다시 털어내느라고 생하는 일 모두가 여전히 행해지고 있다. 왜냐하면 여성들이 여전히 노예로 남아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기계가 훨씬 잘 해낼 수 있다는 사실이 분명해지면서 이 일들은 점차 사라지고 있는 추세이다. 미래에는 각종 기계들이 가정에도 입될 것이다. 그리고 각 가정에 동력 모터가 보급되면, 사람들은 몸을 쓰며 애쓰지 않아도 그런 일들을 쉽게 해낼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기계들은 제작하는데 많은 돈이 들지 않는다. 우리가 그것들을 여전히 아주 비싸게 사야 하는 이유는 아직 일 반적으로 쓰이지 않기 때문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주요한 이유는 신사양 반들이 모든 기계 각각에 터무니 없는 세금을 부과했기 때문이다. 이 신사들은 호화로운 삶을 살고 싶어하고, 땅, 원자재, 제조업, 판매업, 특히 제도, 관세 등을 두고 서시 세를 예측하고 투기를 해온 사람들이다. 가사 노동으로 부터의 해방은 소형 가전제품들만으로 이뤄지지는 않을 것이다. 가정들은 지금의 고립 상태에서 벗어나고 있다. 가정은 다른 가정들과 협력해서 이전에는 제각기 해왔던 일들을 공동으로 하기 시작했다.

실제로 미래에는 구두 닦는 기계 뿐만 아니라 설거지 기계, 세탁기 등을 각 가정마다 갖고 있을 필요가 없을 것이다. 그와는 반대로 미래에는 공동 난방 장치가 있어서 한 구역 전체의 각 가정마다 열을 보낼 것이기 때문에 불피우는 일을 제각기 안해도 될 것이다. 미국의 어떤 도시들은 이미 그렇게 하고 있다. 커다란 중앙 난로가 파이프를 통해 모든 가정과 방으로 뜨거운 물을 보내고 있으며, 온도를 조절하면서 마개를 돌리기만 하면 된다. 그리고 어떤 특정한 방에 활활 타는 불을 갖고 싶다면, 중앙 저장소에서 난방 목적으로 특별히 공급해주는 가스에 불을 붙일 수도 있을 것이다. 굴뚝을 청소하고 불을 꺼트리지 않기 위해 하는 끝없는 일들,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리는지를 여성들이 잘 아는 이런 일들은 사라질 것이다.

촛불, 등불, 심지어 가스마저도 과거의 것이 되고 있다. 버튼 하나만 누르면 도시 전체에 환하게 불을 밝힐 수 있는 도시들이 있다. 실제로, 전기 불이라는 사치를 자신에게 선물하는 일은 단순히 경제 문제이고 지식의 문제다. 그리고 최근에 역시 미국에서는, 사람들이 가사 노동을 거의 완전히 없애도록 사회를 구성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그런 사회를 구성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모든 주택 가마다 이런 일들을 담당하는 부서 하나를 설치하는 것 뿐이다. 수레가 각 집의 현관 앞까지 올 것이고, 그러면 닦아야 할 구두와 설거지 할 사기 그릇들, 세탁해야 할 의류, 수선해야 할 잡화들 (그럴 가치가 있을 경우), 먼지를 털어야 하는 카펫을 내주면 된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이면 이 모든 것을 깨끗한 상태로 돌려받을 것이다.

조금 시간이 지나면 뜨거운 커피와 요리된 달걀이 알맞게 준비되어서 여러분의 식탁에 놓일 것이다. 낮 12 시에서 2 시 사이에 2 천만 명 이상의 미국인과 많은 영국인이 구운 쇠고기나 양고기, 삶은 돼지고기, 감자와 계절 채소를 먹는다. 그러면 가장 낮게 잡아도 800 만 개의 불이 두 세 시간 동안 지펴져서 고기를 굽고 채소들을 요리한다. 그리고 800 만 명의 여성들이 각자의 가정에서 많아 봐야 열 두 개 정도 되는 서로 다른 요리를 준비하느라 자기 시간을 쓰고 있다.

언젠가 어느 미국 여성은 이런 글을 썼다.

“한 개의 불이면 충분한데도, 50 개의 화로가 타오르고 있다!”

원한다면 여러분의 식탁에서 아이들과 함께 식사를 하라. 하지만 한번 스스로 생각을 해보라. 왜이 50 명의 사람들이 몇 잔의 커피와 간단한 음식을 준비하는 일에 아침 시간을 통째로 허비해야 하는가! 두 명의 사람과 화로 하나만 있으면 그 정도 양의 고기와 채소를 요리할 수 있는데, 어째서 50 개의 화로에 불을 피워야 할까? 여러분이 선호하는 것이 있다면 쇠고기로 할 것인지 양고기로 할 것인지 직접 고르도록 하라. 특별한 양념을 더 좋아한다면 입맛에 맞게 야채에 특별한 소스나 양념을 뿌려라! 하지만 하나의 화로가 있는 하나의 부엌만으로도 충분하다. 그리고 할 수 있는 한 그곳을 기분 좋게 정리해놓도록 하라.

왜여성들의노동은한번도중요하게여겨진적이없을까? 어째서모든가정에서어머니나서너명의하인들이 요리와관련된일에그렇게나많은시간을써야만할까? 왜냐하면인류해방을원했던사람들이해방이라는자기들의꿈속에여성은포함시키지않았기때문이다. 그리고그들은힘든노동을견뎌야하는여성의어깨위에자기들이올려놓은‘그런부엌일따위’를생각하는것은, 자신들의우월한남성적인위엄에어울리지않는다고생각했기때문이다.

여성을해방시킨다는것이대학, 법정, 혹은의회의문을그녀들에게개방한다는것만을뜻하지는않는다. 왜냐하면그렇게‘해방된’여성은항상자기집의가사노동을다른여성에게떠넘길것이기때문이다. 그러므로여성해방이란부엌과세탁실에서의고된노동으로부터여성을해방시킨다는뜻이기도하다. 그녀가정말로원한다면, 스스로자기아이들을기를수있는방식으로가정을꾸리면된다. 그러면서도그녀가자기몫의사회적인생활을할수있도록충분한여가시간을확보해놓아야한다.

그런해방은이루어질것이다. 이미말했듯이상황은벌써개선되고있다. 다만제대로이해하도록하자. 자유, 평등, 연대같은아름다운말에도취된혁명이, 가정에서노예제도를그대로유지하고있다면그것은제대로된혁명이아니라는사실을말이다. 가정에서노예제의지배를받고있는절반의인류는여전히나머지절반에대항해야할것이다.

## 11. 자유로운 협약

### I

우리는 대대로 내려온 편견, 그리고 잘못된 교육과 훈련으로 인해 모든 곳에서 정부, 법률의 제정, 행정 관들의 유익한 지배를 받고 있다는식으로 우리 자신을 설명하는 일에 익숙해져 있다. 그렇기 때문에 경찰의 감시가 없어지는 순간 사람들이 야수처럼 서로를 갈가리찢어버릴 것이라고 믿게 되었다. 만약 혁명이 일어나는 동안 권력 조직이 붕괴되면 그런 절대적인 대혼란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이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이 법의 어떤 개입 없이 도스 스스로 자유롭게 단체들을 만들어낼 것이고, 정보의 보호 아래서보다 나은 결과를 얻을 것이라는 사실에는 눈을 감고 지나쳐버린다.

일간 신문을 펼쳐보면, 모든 지면마다 정부가 수행하는 업무들과 정치적인 부정 행위에 관련된 기사들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볼 것이다. 다른 세상에서 온 사람이 그걸 읽는다면 그는 주식 거래 행위들은 예외로 치더라도, 유럽에서는 몇몇 거물의 명령에 의한 것 말고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믿게 될 것이다. 신문에서는 행정 법규가 없어도 협회들이나 학회들이 생겨나고, 자라나며, 발전해나간다는 소식은 전혀 찾을 수 없다. 거의 아무 것도 말이다. 심지어 ‘이런 저런 사건들’(프랑스 신문들에서 가장 인기 있는 칼럼)이라는 표제가 붙은 것이 있어도, 그 사건

들이 경찰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실린 것이다. 가정에서 벌어지는 극적인 사건, 반란 행동 같은 것들은 오직 경찰이 그 장면에 등장할 때만 언급될 것이다.

3 억 5 천만 명의 유럽인들이 서로 사랑하거나 미워하고, 일을하거나 자신의 정기적인 수입으로 살아가고 있다. 하지만 문학, 연극, 혹은 스포츠를 제외하면 그들의 삶은 신문에서 계속해서 무시된다. 어떤 식으로든 정부가 개입하지 않는다면 말이다. 심지어 역사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우리는 왕의 생애나 회의 역사에 대해서는 아주 세세한 것들까지 알고 있다. 정치가들이 했던 연설은 좋거나쁘거나 상관없이 전부 보존되어 있다. 의회 법 규에 정통한 어느 나라이든 원이 말했듯이 ‘단한 사람의 표조차 얻지 못할 정도로 영향력이 없었던 연설들’ 까지 보존되어 있다. 국왕의 방문들, 정치가들의 좋고 나쁜 기분, 그들의 농담과 솔책들은 모든 후세 대를 위해서 정성을 들여 기록되었다.

하지만 중세 시대에도 시를 재건축했던 일, 한자동맹을 맺었던 도시들 사이에 오고간 엄청난 상업 거래의 메커니즘을 이해하는 일, 루앙시가 어떻게 대성당을 건축했는지를 알아보는 일은 거의 기록이 없어서 조사하기가 너무나 어려운 실정이다. 어떤 학자가 일생을 바쳐서 이런 주제들을 연구한다고 할지라도, 그의 작업은 잘 알려지지 않은 채 잊혀버린다. 그런데 회의 역사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 이 역사는 단지 사회 생활의 한 단면만 다루기 때문에 불완전한 것인데도 말이다. 그런 회의 역사ς는 계속 유포되고, 학교에서도 가르쳐진다.

이런 식으로는 매일 자발적으로 모인 단체들이 성취해내는 비범한 작업들에 대해서 우리는 조금도 알아차리지 못할 것이다. 그것들이 우리 세기의 주요한 업적들을 구성할 터인데도 말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업적들 중 몇몇 가장 놀라운 것들을 주목해보자고 제안한다. 그리고 서로의 이해가 절대적으로 대립하지 않는 한, 어떻게 사람들이 조화롭게 협력하는지, 그리고 아주 복잡한 특성이 있는 일을 어떻게 협동해서 수행해내는지를 보여주고자 한다.

사유재산에 토대를 둔 현대 사회, 말하자면 약탈과 편협함에 근거를 두었기 때문에 어리석은 개인주의가 팽배한 사회에서는, 이런 종류의 일들이 어쩔 수 없이 제한된다는 사실은 아주 분명하다. 이런 사회에서는 합의들이 항상 상완전히 자유롭게 이루어지지도 않는데다가 종종 비열한 목적을 가지곤 한다.

그러나 우리가 관심을 갖는 일은 맹목적으로 따라야 할 본보기기를 제공하는 것이다. 더욱이 그런 본보기들을 지금 사회가 제공해줄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권위주의에 근거한 숨막히는 개인주의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전체 삶 속에는 오직 자유로운 협약에 의해 행동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주 많이 남아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리고 정부 없이 살아가는 것이 생각보다 훨씬 쉽다는 점을 알게 하는 것이다.

우리의 견해를 뒷받침하면서 이미 철도에 대한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지금 그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려고 한다. 유럽에는 이미 17 만 5 천 마일의 철도 시스템이 있다. 오늘날에는 이 철도망을 이용해서 북에서 남으로, 동에서 서로,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러시아의 페테르부르크까지, 프랑스의 칼레에서 터키의 콘스탄티노플까지 지체 없이, 심지어 열차를 갈아탈 필요도 없이 (급행 열차 일 경우) 여행을 할 수 있다. 그뿐이 아니다. 어느 역에서 부친 짐 꾸러미는 터키든 중앙 아시아든 간에 상관없이 주소가 쓰인 어느 곳에서나 받아볼 수 있다. 그것을 보내는데는 종이 한 장에나 목적지를 적는 것 말고는 다른 어떤 절차도 필요하지 않다.

이런 결과는 아마 두 가지 방식으로 얻어질 수 있었을 것이다. 나폴레옹이나 비스마르크 혹은 유럽을 정복했던 어떤 군주라면, 파리, 베를린, 로마에서부터 철도 선을 그려서 철도지도를 만들고 기차들의 운행 시간을 조절했을 것이다. 러시아의 황제 니콜라이 1세는 이러한 권력을 꿈꾸었다. 그에게 모스크바와 상트페테르부르크 사이를 잇는 철도의 계략적인 설계도를 보여주자, 그는 러시아지도에 있는 두 도시 사이에 1→ 선을 긋고는 이렇게 말했다.

“이것이 설계도이다.”

그리하여 직선으로 철로가 건설되었다. 깊은 계곡들을 메우고 까마득한 높이에 다다리들을 세웠지만, 몇 년 후에는 공사를 중단할 수밖에 없었다. 그 철로가 마일당 대략 12 만파운드에서 15 만파운드의 비용이 들었기 때문이다.

이것이 한 가지 방식이다. 하지만 대행히도 일은 아주 다르게 진행되었다. 철도들이 한 구간씩 건설되었고, 각 구간들이나 중에 함께 연결되었던 것이다. 그리고 이 구간들을 소유하고 있던 수백 개의 서로 다른 철도 회사는, 자기네 역으로 오는 기차의 도착과 출발과 관련해서 점차 상호 이해에도 달하게 되었다. 그리고 온갖 나라에서 오는 열차들이 자기네 철로 위를 달리고 있어도, 화물을 내리지 않고 하나의 철도망에서 다른 철도망으로 통과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이 모든 일은 자유로운 협약에 의해 이루어졌다. 서로 편지와 제안을 교환하고, 대표자들이 만나 회의를 하면서 이루어진 것이다. 이런 회의에서 대표자들은 아주 전문적이고 특정한 점들을 논의했고, 그것들에 대한 합의에 도달하더라도 법률을 만들지는 않았다. 회의가 끝나면 대표자들은 각자가 대표하는 회사로 돌아갔지만, 법률을 갖고 간 것이 아니라 승인되었거나 거부된 계약서 초안을 갖고 갔다.

물론 그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설득시키기 어려운 고집 센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공통의 이해 때문에 그들도 어쩔 수 없이 결국에는 합의했다. 함께 연결된 이런 광대한 철도망과 그것이 불러일으킨 엄청난 교통과 수송은 의심의 여지 없이 19 세기의 가장 놀랄 만한 특징이다. 그리고 이것은 자유로운 협약의 결과이다. 만약 누군가가 80 년 전에 이런 상황을 예언했다면, 우리의 조상들은 그가 바보이거나 미쳤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그들은 이렇게 말했을 것이다.

“수백 개 회사의 주주들을 도리에 따르도록 만드는 일은 절대 불가능하다! 그런 일은 공상이고 동화일 뿐이야. 오직 ‘철의 통치자’가 있는 중앙 정부만이 강제로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런 데 이 조직에서 가장 흥미로운 점은, 철도에는 ‘유럽 중앙 정부’가 전혀 없다는 점이다. 철도부장관도 없고, 독재자도 없고, 심지어 대륙의 회나 관리 위원회조차 없다. 모든 것은 자유로운 합의에 의해 행해졌다. 그래서 “교통을 조정하는 문제만 봐도, 중앙 정부가 없이는 절대 해나갈 수 없다”라고 주장하는 국가 신봉자들에게 우리는 묻는다.

“그렇다면 유럽의 철도들은 중앙 정부 없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 것일까? 어떻게 대륙을 가로질러서 수백만 명의 여행자들과 산더미 같은 화물을 계속해서 수송하고 있을까? 철도를 소유하고 있는 회사들이 합의를 할 수 있다면, 앞으로 철도를 손에 넣을 철도 노동자들이 왜 합의에도 달하지 못하겠는가? 상트페테르부르크-바르샤바 구간 회사와 파리-벨포트 구간 회사가 공동 지휘관이라는 사치스런 직책 없이도 서로 조화롭게 일할 수 있다면, 자유로운 노동자 단체들로 구성된 우리 사회에 왜 정부가 필요 할까?”

## II

오늘 날 사회 전체를 구성하고 있는 부정한 조직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자신의 이해 관계가 완전히 부정당하지 않을 경우에는 권위의 개입이 없어도 서로 합의를 하고 있다. 이런 실례들을 입증하려고 노력할 때, 우리는 제기되는 반대들을 무시하지 말아야 한다.

이런 모든 실례에는 제각기 불충분한 면이 있다. 왜냐하면 강자에 의한 약자의 착취, 부자에 의한 가난한 이들의 착취에서 벗어난 단 하나의 조직이라도 예로 들기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국가주의자들이 늘 하던 논리대로 우리를 향해 다음과 같이 말하는 것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다.

“이런 착취를 끝내기 위해서라도 국가의 개입이 필요하다는 걸 당신들은 알 것이다!”

그들은 단지 역사의 교훈을 잊고 있을 뿐이다. 그들은 국가 자체가 프롤레타리아들을 만들어내고, 착취자들의 손에 그들을 넘김으로써 현질서를 유지하는 일에 어느 정도로 기여했는지 말하지 않는다. 그들은 사적 자본과 빙곤이라는 일차적 원인들의 3 분의 2는 국가에 의해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것인데, 그것들이 계속 존재하는 가운데 어떻게 착취를 끝내는 일이 가능하다는 건지를 우리에게 증명하는 것을 잊은 것이다.

우리가 철도 회사들 간에 성립된 협정에 대해 이야기하면, 부르주아 국가의 승배자들은 아마도 이렇게 말할 것이다.

“철도 회사들이 직원들과 여행자들을 얼마나 억압하고 학대하는지를 보지 않는가? 유일한 해결책은 노동자들과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국가가 개입하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가 여러 번 반복해서 말하지 않았던가? 자본가들이 존재하는 한, 이런 권력의 남용은 영원히 지속되리란 사실을 말이다. 기업들에게 오늘 날 그들이 소유하고 있는 독점권과 다른 권리들을 부여한 것은 정확히 국가, 자기 딴에는 후원자인 척하는 국가이다. 국가가 허가제도와 보증 계약을 만들어내지 않았던가? 국가가 파업 중인 철도 노동자들을 해산시키려고 군대를 보내지 않았던가? 그리고 철도가 처음으로 시운전을 할 때 (아주 최근에 러시아에서도 있었다), 국가는 자신이 보증한 주식의 하락을 막기 위해서, 철도 사고들을 신지 말라고 언론에 압력을 가할 정도로 철도 거물들의 특권을 확대하지 않았던가? 국가는 P.I.M(파리-리옹-지중해 철도), C.P.R(캐나다 태평양 철도), 세인트고트하르트 터널 철도의 중연인 반더빌트와 폴리야코프스(Polyakoffs) 같은 소위 ‘우리 시대의 왕들’이라는 실업계 거물들에게 독점권이라는 특혜를 베풀지 않았던가?

그러므로 우리가 철도 회사들 사이에 이루어진 합의를 하나의 예로 드는 경우에, 그것은 결코 경제적인 경영 관리에 관한 하나의 이상으로 예를 드는 것이 아니다. 또한 기술적인 조직의 이상으로 예를 드는 것도 아니다. 이 예를 드는 이유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이다. 즉, 다른 사람들을 희생시켜서 자기들의 이익 배당금을 축적하는 것 말고는 다른 목적이 없는 자본가들이 ‘국제 외무성’ 같은 것을 만들지 않고도 철도를 성공적으로 개발할

수있다면, 노동자들의협회들은유럽철도장관같은것을임명하지않아그런일들을그만큼잘할수있고, 심지어더잘해낼것이라는사실을보여주기위해서이다.

언뜻보기에도다른반론은좀더심각해보인다. 우리는이런이야기를들을것이다. 우리가말한합의는완전히자유로운것이아니고, 큰회사들은작은회사들에게강압적으로명령할것이라고말이다. 예를들어서이렇게이야기할수도있다. 국가의지원을받는어느부유한독일회사는베를린에서바젤까지가는승객들이라이프치히를지나가는노선대신쾰른과프랑크푸르트를경유하도록만든다. 혹은이러한회사는영향력있는주주들에게이익을주기위해서화물의운송을130마일이나멀리돌아가게(장거리로)만들고, 그리하여간선철도노선을황폐하게한다. 또미국에서는때로승객들과화물들이도무지있을수없을만큼먼우회로를터쩔수없이돌아가야하는데, 이것은철도거물의호주머니에달려를쏟아붓기위해서라는예를듣것이다.

우리의대답은달라지지않을것이다. 즉, 자본이존재하는한더큰자본은소자본을억압할것이다. 하지만억압이오직자본으로부터만나오는것은아니다. 억압은또한국가의지원때문에생겨난다. 국가가만들어낸독점권이라는특혜를입은큰회사들이작은회사들을억압하는것이다.

영국과프랑스의사회주의자들은오래전부터보여주었다. 어떻게영국의법이온갖방법을다써서중소기업들을파괴하고, 농민들을빈곤으로몰아넣는권력을갖고있는지를말이다. 그리고어떻게법이그렇게빈민이된수많은사람을산업계의부유한고용주들에게넘겨주어서, 임금이얼마나되든상관없이일할수밖에없도록만들었는지를말이다. 철도에관련된법률제도똑같다. 군사전략에중요한노선들, 보조금을받는노선들, 국제우편을독점할수있는권리를회사들등, 부유한금융가의이익을증진시키기위한온갖법률이만들어져서적용되었다. 모든유럽국가가돈을빌리고있는로스차일드가철도에자본을투자하면, 그의충실한심복인유럽의각료들은그가더많은돈을벌수있도록최선을다할것이다.

미국의경우, 권위주의자들이이상적으로여기는민주주의나라에서가장수치스러운부정행위들이철도와관련된모든일에달라붙어있다. 그래서한회사가값싼운임으로다른경쟁회사들을무너트린다면, 대개는뇌물을받은국가가그회사에게준땅덕분에손해를보상할수있기때문이다. 미국의밀관련거래에관해최근에출간된자료들은, 강자들이약자들을착취하는일에서국가가어떤역할을하는지아주잘보여주고있다. 여기서도역시축적된자본을가진권력자들은국가의도움을받아서재산을10배, 100배로증가시켰다.

그렇기때문에대기업에맞서서자신들의소기업들을보호하는데성공하고있는철도회사동업조합들(자유로운협약으로만들어진신디케이트<sup>86</sup>)을보게되면, 우리는놀라는것이다. 즉, 국가의특혜를받는모든강력한자본에스스로맞설수있는, 자유로운합의에내재되어있는고유한힘에놀라게되는것이다.

국가의이런편파성에도불구하고작은회사들이존재한다는것은사실이다. 중앙집권화된나라인프랑스에서는철도산업에서고작대여섯개의대기업만을볼수있지만, 놀랄만큼협약을잘맺은영국에서는110여개가넘는회사가활동하고있다. 그리고이회사들은분명프랑스와독일회사들보다더잘운영되어서승객과화물을빠르게수송하고있다.

더군다나우리가논의하고있는문제가그것만이아니다. 국가의특혜를받는대자본은이익이있을경우에는언제나소자본을무너뜨릴수있다. 우리에게중요한것은이점이다. 즉, 유럽의철도들을소유하고있는수백개의자본주의회사사이에서맺어진합의는, 몇몇회사에게강압적으로명령을내릴수있는중앙정부의개입없이이루어졌다는사실이다. 이합의는대표자들로구성된회의를통해서유지되어왔다. 대표자들은이회의에서서로토의하고, 자기네회사에게법률이아닌제안서를제출한다. 이것은정부와관련된모든원칙, 군주제혹은공화제, 전제군주제나대의제등과는완전히다른새로운원칙이다. 이원칙은유럽의관습속에소심하게도입된혁신이지만계속유지되고있다.

### III

우리는국가를옹호하는사회주의자들의글에서얼마나자주이런이야기를읽었는지모른다.

“그렇다면, 미래사회에서는누가운하수송관련일을조정할것인가? 당신네아나키스트‘동지들’중한사람의마음속에이런생각이떠오른다면, 즉자기거릇배로운하를가로막고서수천척의다른배들을방해할생각이떠오른다면, 누가그더러분별있게행동하라고강제할수있겠는가?”

<sup>86</sup> 동일한시장내에서몇개의기업이연합한기업조합. 생산은개별적으로하지만, 판매를공동으로함으로써경쟁을줄이고시장을독점한다.

이런 가정 자체가 다소 공상의 산물이라는 점을 인정하도록 하자. 그래도 그들은 여전히 이렇게 말할지도 모른다.

“어떤 코뮌 혹은 코뮌들 단체가 운하에서 자기네 배가 다른 배들보다 먼저 가게 만들고 싶어하는데, 그들은 아마 둘을 나르기 위해서 운하를 가로막을 것이다. 그러는 동안 다른 코뮌에서 필요한 밀을 수송하는 배는 기다려야 한다. 이럴 경우, 정부가 아니라면 누가 이 수송 문제를 조정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러나 현실의 삶은 다시 한번 보여주었다. 다른 모든 곳과 마찬가지로 이곳에서도 정부 없이 잘해나갈 수 있다 는 사실을 말이다. 자유로운 협약과 자유로운 조직 이해롭고 비용이 많이 든 제도를 대신해서 더 잘해나갈 수 있다.

우리는 네덜란드에서 운하들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알고 있다. 운하들은 우리나라의 주요 도로나 마찬가지이다. 또한 그 운하들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수송이 이루어지는지도 알고 있다. 우리가 도로나 철도를 통해 수송하는 것을 네덜란드에서는 운하를 운항하는 배들이 수송한다. 그곳에서도 다른 배보다 앞서 가려고하면서 싸움이 일어날지도 모른다. 그러면 수송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정부가 실제로 개입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그렇지가 않다. 네덜란드인들은 오래전에 뱃사람들의 길드나 신디케이트(동업조합)를 통해서 보다 실용적인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했다. 이것은 항해의 필요에 의해 생겨난 자유로운 연합들이었다. 배들의 운항 방식에 관한 권리는 항해 등록부에 적힌 순서에 따라 조정되었다. 배들은 서로 순서에 따라야 했다. 길드에서 제명 당하는 고통을 감수할 각오를 하지 않는 한 누구도 다른 배들을 앞질러 갈 수 없었다. 누구도 정해진 날보다 더 오래 부두에 머물러 있을 수 없었다. 만약 배주인이 부두에 머무는 동안 신고 갈화물을 찾지 못하면 아주 불리한 일 이었다. 그는 새로 오는 배들에게 자리를 내주기 위해서 빈 배로라도 출항해야 했다. 이런 식으로 서로의 항해를 방해하는 일을 피했다. 비록 배를 소유한 주인들 간에 끊임 없는 경쟁이 존재했지만 말이다. 경쟁이 폐지되었더라면, 협약은 훨씬 더 진심어린 것이 되었을 것이다.

물론 선주들은 동업조합에 자유롭게 가입하거나 안하거나 할 수 있었다는 점은 두 말 할 나위가 없다. 가입 여부는 그들이 알아서 할 일이었지만, 그들 대부분은 가입하는 쪽을 선택했다. 게다가 이 동업조합들이 워낙 많은 이익을 제공했기 때문에 라인강, 베저강, 오데르강을 따라서 널리 퍼졌고, 베를린까지 퍼져나갔다. 선원들은 비스마르크<sup>87</sup> 대제가 네덜란드를 독일에 합병시키고, ‘국가 운하 운항 참모부 최고 고문관’이라는 기관 직위 만큼이나 많은 금박 견장을 단 사람을 임명할 때까지 기다리지 않았다. 그들은 국제적인 상호 합의를 이루는 편을 더 좋아했다. 러시아뿐만 아니라 독일과 스칸디나비아 반도 사이를 운항하는 범선을 소유한 많은 선주 역시 이 동업조합에 가입했다. 발트 해에서의 운항을 조정하고, 범선들이 서로 교차할 때 조화롭게 배길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이러한 연합들은 자유롭게 나타나서 조합을 지지하는 자발적인 회원들을 모집했으며, 정부와는 보통 아무런 관계도 갖지 않았다.

그렇지만 여기서도 더 큰 차이가 있다. 소자본을 억압하는 일이 충분히 일어날 법하다. 아마도 동업조합 역시 독점 단체가 되려는 경향이 있을 수 있는데, 특히 어떻게든 개입하곤 하는 국가로부터 엄청난 보조금을 받았을 경우에 그 러했다. 그래도 우리는 다음 두 가지 점을 잊지 말도록 하자. 이런 동업조합들은 오직 회원들의 사적인 이해관계에만 관련을 갖는 단체들을 대표한다는 점이다. 그리고 만약 생산, 소비, 교환이 공동으로 이루어지는 사회화로 인해 각 선주들이 어쩔 수 없이 코뮌 연합에 가입하게 된다면, 혹은 자신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수많은 다른 조합에도 가입하게 된다면, 상황은 아주 다른 양상으로 전개될 것이라는 점이다. 바다에서는 강력한 선주들 단체가 육지에서는 약하다고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은 철도, 공장, 그밖에 다른 단체들과 타협을 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자신들의 주장을 줄일 것이다.

하여간 미래를 논의하지 않더라도 정부 없이 잘해나가고 있는 또 다른 자발적인 협회가 있다. 그 예들을 더 인용해보자. 지금 선박들과 배들에 관해 이야기하고 있는 중이므로, 19 세기에 나타난 가장 훌륭한 조직들 중의 하나를 이야기해보자. 이것은 우리가 자부심을 가질 권리가 있는 협회들 중의 하나인 ‘영국 구명 협회’이다.

매년 1 천척 이상의 배가 영국 해안가에서 좌초된다고 알려져 있다. 튼튼하게 만들어진 범선은 바다에서 폭풍 우를 두려워 할 일이 좀처럼 없다. 위험이 나타나는 곳은 해안 균처이다. 배의 선미에 있는 기둥을 산산이 부수는 거친 물결, 둑과 둑대를 쓸고 가버리는 광풍, 키를 잡기 어렵게 만드는 격류, 배를 좌초시키는 암초와 모래톱들이 해안 균처에 있기 때문이다.

심지어 아주 면 옛날, 해안가 주민이 배를 암초로 유인하고, 배에 실린 화물을 약탈하기 위해서 불을 피우는 관습이 있었던 시절에도, 그들은 조난당한 선원들의 목숨을 구하는 일에는 항상 최선을 다했다. 난파된 배를 보게 되면 그들은 자기들의 배를 띠워서 선원들을 구하러 가곤했다. 그러다가 그들 자신도 목숨을 잃는 일도 흔하게 있었

<sup>87</sup> 프로이센의 정치인이자 외교관 (Otto von Bismarck, 1815-1898). 독일 통일을 완성해서 독일 제국을 건설했고 재상을 지냈다.

다. 모든 해안가 마을에는 조난당한 선원들을 구했던 남자들 뿐만이 아니라 여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영웅담으로 전해져 내려오고 있다.

국가와 과학자들이 바다에서 죽는 사람들의 수를 줄이기 위해서 중요한 일들을 한다는 점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등대, 신호 체계, 해상지도, 기상 경보 등은 사상자 수를 크게 줄였다. 하지만 여전히 수천 척의 배와 수천 명의 사람이 해마다 구조를 필요로 한다.

이를 위해서 선의를 가진 몇몇 사람이 발벗고 나섰다. 스스로 가톨릭 한 선원이자 항해자인 그들은 폭풍우에도 부서지지 않고 전복되지 않는 구명정을 발명해냈다. 그리고 그들은 이 구명정들을 만들고 어디서나 이용될 수 있도록 해안가를 따라서 서비스 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모으기 위해, 자신들의 모험적 사업에 대중의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일에 착수했다.

자코뱅 주의자가 아니었던 이 사람들은 정부에게 의지하지 않았다. 그들은 자신의 계획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협동, 열정, 지역에 대한 지식, 그리고 특히 그 지역 선원들의 헌신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이해하고 있었다. 또한 처음 조난신호를 발견한 후에 밤바다의 격심한 파도 속으로 배를 띠우는 사람들, 어둠과 성난 파도에 대한 공포로 고민하지 않고, 조난당한 배에 당을 때까지 10 시간씩 파도와 싸울 수 있는 사람들,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자기 생명의 위험을 무릅쓸 사람들을 찾아내기 위해서는 그 무엇으로도 살 수 없는 연대감과 희생정신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그들은 이해하고 있었다.

이렇듯 이 운동은 완벽하게 자발적인 운동이었고 협약과 개인의 진취정신으로부터 생겨난 것이었다. 해안가를 따라서 수백 개의 지역 단체가 생겨났다. 이 운동을 처음 시작한 사람들은 지도자인 양 끌지 않는 분별력을 갖고 있었다. 그들은 어부들이 사는 마을에서 경험으로부터 나온 지혜를 구했다. 어느 부자가 어떤 마을에 구명정 선착장을 지으라고 철파운드를 기부했을 때도, 그 제안은 받아들여졌지만 장소를 선택하는 일은 부자가 아닌 그 지역 어부들과 선원들에게 맡겨졌다. 새로운 구명정의 설계도를 역시해 군본부의 감수를 받지 않았다. 이 협회의 보고서에는 이렇게 쓰여 있다.

“구명정을 타는 사람들은 자기가 타고 있는 보트에 완전한 신뢰를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위원회는 반드시 구명정을 타는 사람들의 바람대로 배를 만들고 설비를 갖추도록 할 것을 강조한다.”

그 결과, 해마다 새로운 운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일들은 모두 자원자들이 조직한 위원회들과 지역 단체들에 의해 행해지고 있다. 상호 부조와 협약에 의해 행해지는 것이다! 오, 아나키스트들! 게다가 그들은 지방 세습 세자들에게 아무 것도 요구하지 않았는데도 해마다 4 만파운드에 이르는 자발적인 기부금을 받는다.

그 결과가 여기 있다. 1891년 이 협회에는 293 척의 구명정이 있었다. 같은 해에 협회는 601 명의 조난당한 선원들과 33 척의 배를 구했다. 설립 때부터 합하면 32,671 명의 생명을 구했다. 1886년에는 세척의 구명정이 파손되었고, 거기에 탄 사람 모두가 바다에서 목숨을 잃었다. 그러자 수백 명의 새로운 자원자들이 협회에 가입하고 스스로 지역 단체들을 조직했다. 그리고 이 열띤 운동은 20 척의 구명정이 새로 만들어지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야기를 예속 진행 시켜서 다음 사실도 주목해보자. 협회는 매년 어부들과 선원들에게 상점에서 팔리는 가격보다 세배나 쌍가격으로 품질 좋은 기압계를 보내주고 있다. 또한 협회는 기상 학적 지식을 널리 보급하고 있고, 과학자들이 예측하는 갑작스러운 기상 변화를 관계자들에게 경고해주고 있다.

반복해서 말하자면, 이들 수백 개의 위원회와 지역 단체는 권위적인 위계질 서로 조직되지 않았다. 오로지 자원자들, 구명정 구조원, 그리고 이 일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로만 이루어져 있다. 중앙 위원회는 어떤 식으로든 간접하는 법이 없으며 단지 통신 연락 센터일 뿐이다. 어느 지역에서 교육이나 지방 세에 관한 어떤 문제로 투표를 하는 경우에도, ‘전국 구명정 협회’의 위원들은 위원자격으로는 토의에 참여하지 않는다. 그것은 불행히도 선거로 선출된 사람들이 흉내 조차 낼 수 없는 겸손함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이용 감한 사람들은, 한번도 폭풍우에 맞서 싸워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생명을 구하는 일에 자기들을 대신해서 나가도록 허락하지 않는다. 조난의 첫 신호를 접하자 마자 그들은 구명정으로 달려가 바다로 나아간다. 여기에는 수놓은 어떤 제복도 없지만 선량한 의지는 아주 많다. 이와 같은 종류의 다른 협회인 ‘적십자’를 예로 들어보자. ‘십자가’라는 이름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 협회에 대해 설명해보도록 하자.

50년 전에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것을 상상해보라.

“국가는 하루에 2만 명을 학살하고, 5만 명이 넘는 부상자를 만들어 낼 수 있지만, 이 전쟁으로 인한 희생자들을 도와줄 능력은 없다. 따라서 전쟁이 계속 일어나는 한, 개인적인 진취정신이 개입해야 하고 선의를 가진 사람들�이 이인도적인 사업을 위해서 국제적인 조직을 만들어야 한다!”

감히 이런 주장은 한 사람이 당시에 얼마나 비웃음을 받았을까? 처음에 그는 유토피아를 꿈꾸는 공상가라는 소리를 들었을 것이다. 그래도 그가 가만히 있지 않으면 이런 말을 들었을 것이다.

“무슨헛소리! 당신이 말하는 자원자들은 도움이 가장 필요한 바로그 곳에서는 전혀 찾을 수 없을 것이고, 자원 병원들은 안전한 장소에 한데 몰려 있을 것이오. 반면에 야전 병원들에서는 모든 게 부족할 거요! 당신 같은 공상가들은, 국가들 사이의 대항이란 불쌍한 병사들이 어떤 도움도 못 받고 죽어가도록 내버려두는 것임을 잊고 있소.”

말하는 사람이 많을 수록 이런 기운 빠지는 말들도 늘어났을 것이다. 우리 중에 어느 누가 사람들이 이와 같은 어조로 말하는 것을 들어보지 않은 사람이 있겠는가? 그러나 우리는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알고 있다. 적십자 협회는 모든 나라, 모든 곳에서, 수천 개의 현장에서, 자유롭게 스스로 조직되었다. 그리고 1870-1871년에 전쟁<sup>88</sup> 이터지자자원자들이 일을 시작했다. 남자들과 여자들이 스스로 봉사에 나섰다. 수천 개의 병원과 야전 병원이 조직되었다. 기차들이 부상자를 위한 야전 병원, 식량, 봉대, 의약품들을 나르기 시작했다. ‘영국 적십자 위원회’는 음식, 의복, 농기구들, 곡물 씨앗, 땅을 갈아 줄가축들, 심지어는 운전 해줄 사람과 함께 증기 경운기 까지 갖춘 전체 호송대를 보내어, 전쟁으로 황폐해진 지역의 농사를 도와주었다! 구스타프 무와니에 (Gusave Moynier) 가 쓴 『적십자』 란책을 참고해보라. 그러면 얼마나 많은 일이 수행되었는지를 보고 정말로 감동받을 것이다.

다른 사람들의 용기, 양심, 지성을 출곧부인하려들면서, 오로지 자신만이 세계를 판결할 수 있다고 믿었던 예언자들의 어떤 예측도 실현된 적이 없다. 적십자 자원자들의 헌신에 대해서는 칭찬할 말이 모자랄 정도이다. 그들은 가장 위험한 곳에 배치되거나, 간절히 바랄 정도로 아주 열심이었다. 프로이센 군대가 진격해왔을 때, 나폴레옹 1세가 다스리는 국가로부터 월급을 받는 군의 관들은 부하들과 함께 도망쳤지만, 적십자 자원자들은 포화 아래에서 서비스 마르크 군대와 나폴레옹 군대 장교들의 잔학 행위들을 참고 견디면서, 국적과 상관없이 모든 부상자들을 아낌없이 돌보는 일을 계속했다.

네덜란드인, 이탈리아인, 스웨덴인, 벨기에인, 심지어 일본인과 중국인도 놀라우리 만큼 합의를 잘 이루어 냈다. 그들은 현장의 필요에 따라서 병원들과 야전 병원들을 배치했다. 그들은 특히 병원들의 위생 상태를 두고 서로 겨루었다. 그리고 많은 프랑스인은 적십자 야전 병원에서 네덜란드나 독일에서 온 자원자로부터 받은 상냥한 보살핌에 깊이 감사하며 지금까지도 이야기하고 있다. 그러나 권위주의자들에게 이런 것이 무슨 소용이겠는가? 그의 이상은 국가로부터 월급을 받는 연대 배속 군의 관이다. 적십자 간호사들이 그곳의 직원이 아니라면, 그들이 적십자나 그곳의 위생적인 병원에 무슨 관심이 있겠는가!

바로 얼마 전에 막 생겨난 데회원이 수십 만이나 되는 조직이 여기 있다. 야전 병원들과 병원 열차들을 가지고 있으며, 부상자를 돌보는 새로 운 치료법을 고심해서 만들어내는 조직이다. 그리고 이 조직은 처음에 몇몇 헌신적인 사람이 자발적으로 주도해서 생겨난 조직이다. 아마도 우리는 국가가 이 조직과 어떤 관계가 있을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을 것이다. 그렇다. 국가는 이 조직을 손아귀에 넣으려고 손을 내밀었다.

이 조직의 감독위원회는 추종자들이 왕자라고 부르는 자들이 주로 맡고 있다. 황제들과 황후들은 이 조직의 전국 위원회를 아낌 없이 후원하고 있다. 하지만 이 조직의 성공은 이런 후원 때문이 아니다. 각 나라마다 있는 수천 개의 지역 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성공한 것이다. 그리고 개개인의 활동, 전쟁의 희생자들을 돋고자 하는 모든 사람의 헌신 때문에 가능했다. 그리고 이 헌신은 국가가 개입하지만 않는다면 훨씬 더 커질 것이다.

아무튼 1871년 전쟁에서 영국인, 일본인, 스웨덴인, 중국인들이 부상자들에게 도움을 보내려고 열심히 노력한 것은, 국제 감독위원회의 명령 때문이 아니었다. 점령당한 지역들에 병원이 세워지고, 전장에 구급대를 보낸 것도 국제 원조 부서의 명령 때문이 아니었다. 그것은 각국 자원자들의 자발적인 주도에 의해서였다. 일단 현장에도착하면 자원자들은 모든 나라의 자코뱅주의자들이 예상했던 것처럼 서로를 마음대로 지배하려 들지 않았다. 그들 모두는 국적을 구분하지 않고 일에 착수했다.

우리는 이렇게 위대한 노력들이 전쟁이라는 그토록 추악한 원인에 봉사해야 하는 것을 유감스럽게 여길 것이다. 그리고 마치 시인의 아이처럼 이렇게 물어볼지도 모른다.

“나중에 치료를 해줄 거라면, 왜 그들을 다치게 하나요?”

자본가들과 중산층의 권위와 권력을 파괴하려고 노력하면서, 우리는 전쟁이라는 이름의 대량 학살을 끝내기 위해서도 노력한다. 우리는 적십자 자원봉사자들이 전쟁을 끝내기 위해 우리와 함께 활동하는 것을 훨씬 많이 보게 될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이 대단한 조직을 자유로운 협약과 자유로운 원조의 결과로 생겨난 또 다른 실례로서 언급해야 한다.

만약 인간들을 몰살시키는 기술과 관련된 예를 들고자 한다면 결코 끝이 없을 것이다. 독일 군대의 힘을 뒷받침하고 있는 수많은 단체가 있다는 사실을 인용하는 것으로 충분할 것이다. 일반적인 믿음과는 달리, 독일 군대의 힘은 훈련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다. 즉, 군사적인 지식을 널리 보급하려는 목적을 가진 여러 단체에서도 의지하고 있다는 뜻이다.

<sup>88</sup> 비스마르크 대제 시절의 프로이센이나 폴레옹 1세 시절의 프랑스와 벌인 전쟁을 말한다.

‘독일군대동맹’의 가장 최근 회의들 중 하나에는 151,712 명의 회원들로 구성된 2,542 개 동맹 단체의 대표들이 참석했다. 그밖에 독일에는 ‘사격회’, ‘군대 게임’, ‘전략 게임’, ‘지형 연구 협회’ 같은 수많은 단체가 있다. 독일 군대의 기술적 지식이 발달하고 있는 것은 이런 단체들이 행하는 워크숍들을 통해서 이지, 군대에서 행하는 훈련으로만 그런 것은 아니다. ‘독일군대동맹’은 군인들과 민간인들, 지질학자들과 체육교관들, 운동 선수들과 기술자들 등이 모인 온갖 종류의 단체들을 포함하고 있는 가공할 만한 조직망이다. 자발적으로 생겨난 이 단체들은 스스로 조직하고, 연합하고, 토론하고, 지역을 탐사하기도 한다. 독일 군대의 실제 중추를 이루고 있는 것은 이러한 자발적이고 자유로운 협회들인 것이다.

물론 그 목적은 몹시 끔찍하다. 바로 제국을 유지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가 관심을 갖는 것은, 군대 조직이 ‘국가의 위대한 사명’임에도 불구하고, 이 조직을 단체들의 자유로운 합의와 개인들의 자유로운 진취 정신이 이끌어 가게 하면, 성공이 훨씬 확실해진다는 사실을 지적하려는 것이다.

자유로운 협약은 심지어 전쟁과 관련된 문제에서 조차 그런식으로 호소력을 갖고 있다. 우리의 주장을 좀 더 입증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예들을 들어보자. 산맥을 통과하는 길들을 상세히 연구하고 있는 ‘스위스 지형학자 자원자 단체’, ‘프랑스 비행 협회’, 30 만명의 영국 자원병, ‘영국 포병 협회’, 그리고 영국 해안을 방어하기 위해서 지금 조직 중인 협회도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상선들로 이루어진 선단, ‘자전거 타는 사람들 단체’, 그리고 새로이 조직된 개인 자동차 조직과 증기엔진이 달린 대형 보트 조직 등도 인기를 끌고 있다.

모든 곳에서 국가가 뒤로 물러나고 있으며, 자신의 신성한 역할들을 개인들에게 넘겨주고 있다. 모든 곳에서 자유로운 조직들이 국가의 영역을 침범하고 있다. 그럼에도 우리가 여기서 인용한 사실들은 미래에 더 이상 국가가 존재하지 않게 되었을 때, 어떤 자유로운 정부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지를 언뜻 보여주는 것일 뿐이다.

## 12. 반론들에 대해

### I

이제 코뮌주의를 반대하면서 나오는 주요한 반론들을 살펴보도록 하자. 이 반론들 대부분은 단순한 오해 때문에 생긴 것이 분명하지만, 중요한 문제들도 제기하고 있으므로 우리 의관심을 받을 가치가 있다.

권위주의적 공산주의에 관해 제기된 반론들에 우리가 응수 할 필요는 없다. 우리 자신도 그것에 동의하기 때문이다. 문명화된 국민은 개인의 해방을 위해 오랫동안 힘겨운 투쟁을하면서 너무나 많은 고통을 겪어왔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과거의 노력을 부정할 수 없으며 국민 삶의 세세한 점까지 간섭하려는 정부를 묵인할 수 없다. 설령 그 정부가 공공의선을 위한 목적 말고는 다른 목적이 없을지라도 말이다. 어떤 권위주의적 사회주의 사회를 수립하는데 성공했다고 해도 그 사회는 지속될 수 없을 것이다. 널리 퍼진 불만으로 인해서 곤무너지거나, 아니면 자유의 원리에 따라서 다시 조직될 것이다.

우리가 말하려고 하는 것은 아나키즘적 코뮌주의 사회이다. 이 사회는 개인의 절대적인 자유를 인정하고, 어떤 권리도 허용하지 않으며, 사람들이 일을 하게 만드는 어떤 강제도 사용하지 않는 사회이다. 이 사회에 대한 우리의 탐구를 경제적 측면의 문제로 한정하고, 오늘날의 사람들보다 더 선량하지도 더 악하지도 않고, 더 근면하거나 덜 근면하지도 않은 사람들로 구성되는 이 사회가 성공적인 발전을 이룰 수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자.

반론은 잘 알려져 있다.

“만일각자의생존이보장되고, 돈을벌기위해서여지로일할필요가없다면, 아무도일하지않을것이다. 강제로일하게하지않으면모든사람은자기일을남에게떠넘길것이다.”

우선이런반론이믿을수없을만큼경솔하게제기된다는점에주목하도록하자. 왜냐하면이반론은정말로문제가되는두가지지점을인식조차못하고있기때문이다. 한편으로는임금노동을통해얻기로되어있는결과를효과적으로얻었는가하는점이고, 다른한편으로는오늘날자발적으로하는일이돈때문에하는일보다더생산적인지아닌지를아는것이중요하다는점을인식조차못하고있는것이다. 이문제를올바르게다루기위해서는보다진지하게연구할필요가있다. 정밀과학을연구하는사람들은분명덜중요하고덜복잡한문제들을진지하게조사하며, 신중하게사실들을모으고분석하고난뒤에야자기의견을제시한다.

반면에우리가다루는문제에서반대론자들은항소할기회도주지않은채판결해버리는식으로행동한다. 가령, 미국의몇몇공산주의자단체가성공하지못했다는것을예로들면서반대하는식이다. 그들은꼭법정변호사처럼행동하고있다. 즉, 반대측변호인을어떤주장혹은자신과반대되는의견을대변하는사람으로여기는것이아니라그저방해꾼으로, 말하자면수사로가득한말싸움의적으로치부해버리는식이다. 법정에서재치있는대꾸를금방찾아낼만큼운이좋다면모를까, 다른경우에는소송이유를정당화하는일에는전혀주의를기울이지않는법정변호사처럼행동하는것이다. 이런이유때문에경제학의기본토대에대한연구, 즉인간에너지를최소한으로낭비하면서사회에최대한유용한생산을하는사회를만들기위한가장바람직한조건들에대한연구는진전을보지못하고있다. 사람들은진부한주장들을되풀이하면서선을그어버리거나, 우리의주장을모르는척하고있다.

이러한경솔함에서가장놀라운점은자본주의정치경제학에서조차몇몇학자들은사실들을보고서어쩔수없이자기들학문의창시자들이만들어낸공리를의심하게되었다는점이다. 즉, 굽주림의위협이야말로사람들이생산적인노동을하게되는가장중요한동기라는공리말이다.

이학자들은지금까지너무나도많이부정되어온사실을알아차리기시작했다. 즉, 생산에어떤협동적인요인이도이보디면그요인이개인적이익보다더중요하게여겨질수있다는점이다. 임금노동의열등한성질, 현대농업과산업노동에서끔찍하게낭비되는인간에너지, 자기의집을다른사람에게떠넘기고쾌락을추구하는사람들의계속적인증가, 생산에서점점더뚜렷해지고있는어떤훨씬먼저는어떤후기의결여. 이런모든상황이‘고전학파’경제학자들의관심을끌기시작했다. 그들중어떤이들은자기들이혹시잘못된길을택한것이아닌지의심하고있다. 또어떤이들은오직이익이나임금이라는미끼로만유혹당한다고가정했던사람들, 상상속의사악한사람들이정말로존재하는지에대해서도의문을품고있다. 기존학설과반대되는이런의견은심지어대학에까지스며들어서정통경제학책들에서도발견할수있다.

하지만이것이수많은사회주의개혁가가여전히개인적인보수를지지하고, 임금노동이라는낡은성채를방어하는일을방해하지는못한다. 비록이성채를이루는돌들이과거의성채방어자들에의해서하나둘씩공격자들에게넘겨지고있을지라도, 이들은계속방어하고있다. 그들은강제가없으면대중이일하지않을까봐두려워한다.

그러나우리가살아가고있는시대에이와똑같은두려움들이두번표현되는것을듣지않았던가? 한번은흑인들이해방되기전미국의노예제폐지반대론자들에의해서였고, 다른한번은농노제가폐지되기전러시아귀족들에의해서였다.

“채찍질이없으면검둥이들은일하지않을것이다.”

노예제폐지반대론자들이말했다.

“영주의감독으로부터자유로워지면농노들은농지를경작하지않고내버려둘것이다.”

러시아의농노소유자들이말했다. 이것은1789년에프랑스귀족들이했던말의반복이며, 중세시대의반복이고, 인간세상의역사만큼이나오래된반복이다. 그리고불의를없애는문제가제기되는시대라면언제나듣게되는반복일것이다. 그리고매번현실은이말이거짓말이라는사실을보여준다. 1792년에해방된프랑스농민들은그들의조상은알지못했던열렬한에너지에넘쳐서땅을갈았다. 해방된흑인들은자기부모세대보다더많이일을한다. 러시아농민은일요일뿐만아니라농노해방이선포된금요일까지축하하며해방이라는달콤한영광을만끽한다. 그후에는열의를갖고서일하기시작했다. 땅이자기것이되면농민은필사적으로일을한다. 필사적이라는말은농민이하는일에정확히들어맞는단어다. 노예제폐지반대론자들이반복하는주장은노예소유주들에게는가치가있을지도모른다. 노예들역시그런반복이가치가있다는것을알지만, 그동기가뭔지를알고있기때문이다.

게다가다음과같은사실을우리에게가르쳐준사람이경제학자들자신이아니던가? 즉, 대체로임금노동자의일은좋지도나쁘지도않은평범한노동인반면, 집중해서하는생산적인노동은자기가한노력에비례해서자

기의부가증가한다는점을알고있는사람한테서만나온다는사실말이다. 사유재산을찬양하는모든찬송은부득이하게이원리로귀결된다.

그러므로사유재산의은총을찬양하고싶어하는경제학자들이다음과같은사실들을우리에게보여줄때, 사유재산에대한옹호라는논제를조금도증명해주지못한다는점은아주주목할만한사실이다. 즉, 자기땅을가진농민이비생산적이고, 질척거리고, 자갈이많은땅을경작하게되면, 그땅이어떻게풍요로운수확물들로뒤덮이는지를우리에게보여줄때말이다. 자신이행한노동의결실을빼앗기지않게해주는유일한보장은노동수단을소유하는것이다. 이사실을인정함으로써, 경제학자들은사람이란자유롭게일할때실제로가장생산적이라는사실을입증할뿐이다.

또직업을선택할자유가있을때, 그를강제하는감독관이없을때, 노동자는실제로가장생산적이라는사실을보여줄뿐이다. 마지막으로자신의노동이자신과자기처럼일하는다른사람들한테이익을가져다주지만, 게으름뱅이들에게는이익을거의가져다주지않는다는사실을알고있을때, 사람은가장많이생산한다는사실을증명할뿐이다. 그들의논증에서빼야할것은아무것도없고, 우리가주장하는것도바로이런것들이다.

노동수단을소유하는형태와관련해서, 경제학자들은그문제를오직간접적으로만언급하고있다. 즉, 경작자가수확에서얻은이익과땅을개선해서생겨난이익을빼앗기지않도록보장해주는수단정도로만언급하고있는것이다. 그렇지만그밖에도경제학자들이다른모든소유형태를반대하고사유재산을옹호하는자신의논제를뒷받침하여면, 다음사실도보여줘야하는것이아닐까? 즉, 땅을공공으로소유하는형태에서는사적으로소유했을때만큼풍성한수확을결코할수없다는사실을증명해야하지않을까? 하지만그들은이사실을증명하지못했다. 사실, 관찰된사실은정반대의상황이다.

스위스보지방의코뮌을예로들어보자. 이산악지방에겨울이오면마을주민모두가숲으로나무를베려간다. 이숲은그들모두가공동으로소유하고있는곳이다. 가장열심히일하고가장주목할만한인간의힘이발휘되고드러나는시기는분명히이축제와같은노동기간때이다. 그어떤임금노동자도, 사유재산가의어떤노력도이노동에비교할수없을것이다.

혹은러시아의시골마을을한번살펴보자. 이마을에서는모든주민이코뮌소유거나코뮌이임대한들판에서건초를벤다. 여러분은그곳에서공동생산을위해서공동으로일할때사람들이얼마나큰성과를낼수있는지를볼수있을것이다. 동지들은가장많이낫질을하려고서로겨루고, 여자들도풀베는사람에게뒤지지않으려고그뒤를따라가며열심히일한다. 이것은노동의축제이다. 이런축제에서는백여명의사람들이각자했으면며칠이걸려도끝내지못했을일을몇시간만에완성해낸다. 이런노동과비교한다면, 고립된소유자들이하는노동이란얼마나초라한대조를이루는지모른다!

사실우리는미국의개척자들과스위스, 독일, 러시아에서그리고어느프랑스시골마을들에서많은실례들을가져올수있다. 또러시아에서석공, 목수, 뱃사람, 어부등이모인노동자협동조합(artels : 러시아에서옛날부터있었던노동자협동조합)들이행하는노동을예로들수도있다. 이곳에서그들은각자맡은일을하고, 생산물과이익금을중간상인의중개를거치지않고직접분배한다. 또내가보았던영국의조선소에서행해지는노동도같은원리에따라보수가지급되고있다. 우리는또한유목민부족들이행했던대규모공동수렵과성공적으로운영되는수많은공동기업을예로들수있다. 우리는이모든경우에서보여줄수있다. 임금노동자의노동이나고립된사적소유주의노동과비교해서공동으로하는작업이두말할나위없이우수하다는사실을말이다.

행복, 다시말해서신체적, 예술적, 도덕적인욕구들이충족된상태는언제나일을하는데가장강력한동기가되어왔다. 돈때문에일하는사람은필요량을겨우겨우생산하는데비해, 자유로운노동자는자기노력에비례해서자신과다른사람들을위한휴식과취미생활이증가한다는사실을알고있기때문에분명훨씬더많은에너지와지성을일에쏟아서더많은생산물을얻을것이다. 한사람은비참한처지에빠져있다고느끼지만, 다른사람은미래에휴식과풍요가있을거라는희망을 가지고있다. 여기에모든비밀이있다. 그러므로모든사람의행복을목표로삼고있고, 모든사람이즐겁게살아갈가능성이목표인사회는사람들이자유롭게할수있는일을제공할것이다. 이런노동은분명히노예제, 농노제, 임금제라고하는몰이꾼의막대기아래에서행해지는노동에비해서훨씬뛰어나고, 훨씬더많은생산을하게될것이다.

## II

오늘날에는 생존에 필수 불가결한 자기 몫의 노동을 남들에게 떠넘길 수 있는 사람은 누구나 그렇게 하고 있다. 그리고 앞으로도 항상 그럴 것이라고 여겨지고 있다. 그런데 생존에 필수 불가결한 노동은 본질적으로 육체 노동이다. 우리가 예술가나 과학자가 될 수도 있겠지만 우리 중 누구도 육체 노동으로 얻어지는 것들인 빵, 옷, 도로, 배, 불, 난방 등이 없이는 예술이나 과학을 할 수 없다. 더군다나 우리의 즐거움이 아무리 예술적이거나 철학적이더라도, 그것들 모두는 육체 노동에 의존하고 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회피하려고 하는 것 또한 분명히 삶의 토대인이 육체 노동이다.

우리는 오늘날의 육체 노동은 그럴 수 밖에 없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이해하고 있다. 왜냐하면 오늘날 육체 노동을 한다는 것은, 실제로 하루에 10~12 시간씩 불건강한 일터에 갇혀 있어야 하는 현실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또한 20~30년 동안 어쩌면 평생 동안 똑같은 일에 매여 있어야 함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육체 노동은 변변찮은 임금, 미래에 대한 불확실함, 일의 부족, 빈번하게 빈곤이라는 운명에 처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것도 당신과 당신 아이들을 위해서서 가 아니라 타인을 잘먹이고, 잘입히고, 즐겁게 살게 하고, 교육 받게 하기 위해서 흔히 40년 동안 일한다음 병원에서 죽어갈 운명에 처한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육체 노동은 평생 동안 열등함이라는 낙인을 달고 사는 것을 뜻한다. 왜냐하면 정치가들이 뭐라고 말하든 간에 육체 노동자들은 항상 정신 노동자들보다 열등하게 여겨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작업장에서 10시간씩 힘들게 일해야 하는 사람은 학문이나 예술이라는 고상한 즐거움을 스스로에게 제공해줄 만한 시간도 없고, 그럴 수 있는 수단도 거의 없다. 심지어는 그들을 감상할 수 있도록 스스로를 준비 시킬 만한 시간도 방법도 없다. 그는 특권 층 사람들의 식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들에 만족해야만 하는 것이다. 이런 조건들 아래서는 육체 노동이 저주스런 운명으로 여겨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해하고 있다.

우리는 모든 노동자가 단 하나의 꿈만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이해한다. 즉, 이런 열등한 상태로부터 벗어나고 자기 아이들도 벗어날 수 있으리라는 꿈 말이다. 이것은 스스로를 위해서 독립된 지위를 만들어낸다는 것인데, 오늘날이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역시 다른 사람들의 노동으로 살아간다는 뜻이다! 육체 노동자 계급과 정신 노동자 계급이 있고 검은 손과 하얀 손이 있는 한 상황은 똑같을 것이다.

실제로 어느 노동자가 요람에서 무덤까지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 운명이 평범함, 빈곤, 내일에 대한 불안 속에서 사는 것임을 알고 있다면, 그가 이를 적한 노동에 무슨 흥미를 가지겠는가? 그렇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매일 아침마다 자신들의 불쾌한 일을 다시 시작하는 것을 볼 때면, 우리는 그들의 인내심과 일에 대한 열의에 놀라움을 느낀다.

또한 기계처럼 맹목적으로 주어진 명령에 복종하게 된 그들의 습관, 미래에 대한 희망도 없이 비참한 삶으로 이끌어가는 그들의 습관에도 놀라움을 느낀다. 그들은 언젠가 자신이, 혹은 적어도 자기 아이들만이라도 인류가 쌓은 부에 참여하리라는 희미한 예상조차 없이 그런 일을 하고 있다. 이러한 부는 풍요로운 자연의 온갖 보물들, 지식의 향유, 과학적이고 예술적인 창조 같은 것들인데, 오늘날에는 소수 특권 층만이 누리는 것들이다.

우리가 임금제를 폐지하고 싶어하고 사회 혁명을 원하는 것은, 바로 이 육체 노동과 정신 노동 사이의 분리를 분명히 끝장내기 위해서이다. 그렇게 되면 노동은 더 이상 저주스러운 운명으로 여겨지지 않을 것이다. 노동은 원래 그래야 하는 것, 인간의 모든 능력을 자유롭게 훈련하고 자유롭게 사용하는 것이 될 것이다. 더 나아가 이제는 임금제의 채찍 아래에서 얹어진다고 알려져 있는 우월한 노동에 관한 이 신화를 진지하게 분석 해봐야 할 때이다.

현대 산업의 특징인 인간 에너지의 막대한 낭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따금씩 조사하는 시범 공장들과 작업장들이 아니라 수많은 평범한 공장을 방문하는 걸로 충분할 것이다. 약간이나마 합리적으로 조직되고 운영되는 공장이 한 군데 있다면, 인간의 노동이 낭비되는 공장은 백여 개가 넘기 때문이다. 그런 곳들은 고용주에게 아마 하루에 몇 파운드를 더 벌어다주는 것 말고는 아무런 실질적인 동기도 없이 인간의 노동이 낭비되고 있다.

이런 곳에서 여러분은 20~25살 나이의 청년들이 하루 종일 기다란 작업대의 자에 앉아 있는 모습을 본다. 그들은 가슴을 푹수그리고 열병에 걸린 것처럼 머리와 몸을 떨면서, 요술쟁이처럼 빠른 속도로 레이스 직조기의 부산물인 면실 부스러기의 양끝을 잡아매고 있다. 부들부들 떨리고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 같은 이 몸뚱이들이 자기들 나라에 어떤 자손을 남겨놓을까? “그렇지만 그들은 공장에서 정말로 공간을 거의 차지하지 않으며, 각자 가매 일나에게 6 펜스의 이익을 갖다준다”고 고용주는 말할 것이다.

런던에 있는 어느 커다란 공장에서 우리는 17살의 나이에 이미 대머리가 된 소녀들을 보았다. 바퀴가 달린 가장 단순한 기계로 성냥을 작업대까지 나르면 되는데도, 이 소녀들은 성냥을 담은 낮은 상자들을 직접 머리에이고 서 옮기느라 그렇게 된 것이다.

그러나 고용주는 이렇게 말할 것이다.

“그렇게 하면 비용이 거의 안든다. 특별한 직업이 없는 이 여성들의 노동력은 너무나 싸다! 그런데 왜 우리가 기계를 쓰겠는가? 이 여성들이 더 이상 일을 못하게 되면, 쉽게 다른 사람으로 대신할 수 있다. 거리에는 이런 여성들이 가득하다!”

꽁꽁얼어붙는추운밤에여러분은맨발의아이가팔에신문꾸러미를안고서부자의저택계단위에잠들어있는모습을볼것이다. 아동노동은위낙싸게먹히기때문에쉽게일을시킬수있다. 매일저녁마다 10 페니가량되는신문을파는가난한아이는고작 1 페니나 1 페니반을받을것이다. 그리고여러분은모든대도시에서몇달간실업자로지내고있는건장한남자들이무거운발걸음으로거리를헤매고있는모습을계속볼것이다. 그동안그들의딸들은직물공장의과열된증기속에서창백해지고있고, 아들들은손으로구두약통을채우고있거나, 기술을배워야하는시기에채소바구니를나르는일로시간을허비하고있을것이다. 그러다가 18 살이나 20 살이되면정기적으로실업자가될것이다.

이런일은모든곳에서일어나고있다. 샌프란시스코에서모스크바까지, 나폴리에서스톡홀름까지인간에너지의낭비는우리산업에서눈에띠는우세한특성이다. 낭비가어마어마한비율에이르는상업에대해서는두말할것조차없다. 정치경제학을‘임금제도아래서의낭비와에너지다루는학문’이라고이름붙인다면, 이이름은얼마나슬픈풍자인가!

이것이전부가아니다. 잘조직된공장의감독관에게물어보면, 그는순진하게설명해줄것이다. 즉, 오늘날에는숙련된기술이있고, 건강하며, 원기왕성한노동자, 일할의지가있는노동자를찾기가어렵다고말이다.

“매주월요일마다일자리를구하려고우리를찾아오는 20~30 명정도되는사람들사이에그린이들이보이면, 우리는분명그를고용한다. 비록지금일하는노동자수를줄이더라도말이다. 그런사람은한눈에알아볼수있고항상고용된다. 다음날에는나이가들고활기가덜한노동자를해고해야할지라도말이다.”

그리하여방금해고통지를받은사람, 그리고미래에해고통지를받을사람은모두실업자라는거대한산업예비군부대에강제로편입되게된다. 이들은오로지작업량이많을때나파업자들을방해하려고할때만직조기와작업대로오라는부름을받을것이다. 그리고경기가한산해지자마자, 좀나은등급의공장들에서해고된일반노동자들은어떠할까? 그들역시나이가들고서투른노동자로이루어진가공할만한실업자군단에들어가서이류공장들을계속전전해야한다. 이런이류공장들은자신의고객들, 특히외국의소비자들에게속임수를쓰고올가미를씌워서간신히수지를맞추고있는것이다. 노동자들에게말을걸게되면, 여러분은곧이런공장들에서는절대로최선을다해일하지않는것이규칙이라는사실을알게될것이다.

“싸구려임금에는싸구려노동으로!”

이것이바로그런공장에들어간노동자가동료로부터받게되는충고이다. 노동자들은알고있기때문이다. 만일그들이관대한기분이드는순간에고용주의간청에넘어가서긴급한주문에맞추려고강도높은일을하는데동의하면, 앞으로는이런심한노동이임금비율을정할때규칙으로강요될것이라는사실을말이다. 그러므로이런모든공장에서노동자들은할수있는한많이생산하는일을절대로하지않는다. 어떤산업에서는높은가격을유지하기위해서생산이제한된다. 그러면때때로‘살살해라’라는암호가쓰이는데, 그의미는‘형편없는임금에는형편없는노동으로!’이다.

임금노동은노예노동이다. 임금노동은생산할수있는만큼생산하지않으며, 생산해서도안된다. 그러므로지금은임금제가생산적인노동을하는데가장좋은동기라는신화에의혹을제기할가장좋은때이다. 오늘날의산업이우리네할아버지시대보다백배나많은생산을하고있다면, 그것은 18 세기말에자연과학과화학이폭발적으로발전했기때문이다. 즉, 생산력은임금제라는자본주의적제도때문에늘어난것이아니라, 이런제도에도불구하고늘어난것이다.

### III

이문제를진지하게연구해온사람들은코뮌주의의어떤장점도부정하지않는다. 다만이코뮌주의가완전히자유롭다는조건, 말하자면아나키즘적코뮌주의라고잘이해되었을경우에그려하다. 그들은돈으로지불되는노동은임금제의특징을계속가지고있을것이고, 그단점도계속유지할것이라는사실을알고있다. 설령그돈이국가의지배를받는노동자연합에서발행하는‘노동전표’라는이름으로변장한다고하더라도말이다.

그들은사회가생산수단을손에넣게되었을지라도, 임금제때문에곧전체체제가고통받게되리라는점에동의한다. 그리고그들은인정한다. 모든아이에게‘통합적인’완전한교육이행해지고, 근면하게일하는문명화된사회의습관과직업을선택하고바꿀수있는자유가있고, 모두의행복을위해서평등하게수행되는일의매력이있는코뮌주의사회에서는, 생산하는사람들이부족하지않을것이라는점을말이다. 그리고이생산자들이땅을3~10 배더비옥하게만들것이고산업에새로운자극을줄것이라는점도인정한다.

우리의 반대자들도 동의한다. 그들은 이렇게 말한다.

“그렇지만 위험은 소수의 부랑자로부터 올 것이다. 그들은 유쾌하게 일할 수 있는 우수한 조건인데도 정기적으로 일하는 습관이 없는 사람들이다. 오늘 날에는 굶주림이 닥쳐올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가장 반항적인 사람들도 할 수 없다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일하고 있다. 정시에 출근하지 않는 사람은 해고된다. 하지만 한마리의 검은 양은 하얀 양떼 전체를 물들이기에 충분하다. 두세 명의 게으르고 반항하는 노동자가 다른 사람들을 나쁜 길로 끌어들일 것이고, 그러면 작업장에 무질서와 반항의 기운이 감돌게 되어서 작업이 제대로 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결국 우리는 이주 모자들을 제자리로 보내도록 하는 강제적인 시스템으로 다시 돌아가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수행한 노동량에 비례해서 임금을 주는 제도가 이런 강제를 실행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아니겠는가? 노동자의 독립적인 정서를 상하게 하지 않으면서 말이다. 다른 모든 방법은 자유로운 사람들의 비위에 거슬리는 끊임없는 권위의 간섭을 의미할 것이다.”

우리 생각으로는 이것이 비교적 명료하게 설명된 반론이다. 우선 첫째로, 이런 반론은 국가, 형법, 재판관, 교도관을 정당화하려는 주장과 같은 부류에 속한다.

권위주의자들은 말한다.

“사회적 관습에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 아주 소수라도 있는 한, 우리는 치안 판사, 법정, 감옥을 유지해야 한다. 비록 이런 기관들이 갖가지 새로운 악의 원천이 된다고 해도 말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권위주의와 관련해서 일반적으로 자주 해왔던 말을 반복할 수밖에 없다.

“당신은 있을 법한 악을 피하기 위해서 그 자체가 더 거대한 악인 방법을 쓰고 있다. 그리고 이 방법은 당신이고 치고 싶어했던 것과 똑같은 악용의 원천이 되고 있다. 왜냐하면 노동자가 자기 노동력을 팔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게 만드는 임금제가 지금의 자본주의 체제를 만들어낸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당신은 여기서 생기는 해악들을 인정하기 시작하고 있다.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게다가 권위주의자들이 사용하는 이런식의 논법은 현존 체제의 해악들을 정당화하는 억지이론일 뿐이다. 임금제도는 코뮌주의의 단점들을 없애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임금제의 기원은 국가나 사적 소유의 기원과 마찬가지로 어느 곳에서든 찾을 수 있다. 임금제도는 강제로 만들어진 노예 제도와 농노제에서 생겨났으며, 단지 현대적으로 겉모양을 바꾼 것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임금제를 옹호하는 주장은 사유재산과 국가를 변호하려는 주장과 마찬가지로 무가치한 것이다. 그럼에도 우리는 이 반론을 살펴보고, 혹시 그 안에 일말의 진실이 있는지를 알아보려고 한다.

우선 첫째로, 자유로운 노동의 원리에 기초해서 세워진 사회가 일하지 않는 게 으름뱅이에 의해 정 말로 위협 당하고 있다면, 그 사회가 오늘 날과 같은 권위주의 체제도 없이, 그리고 임금제에 의지하지 않고 서도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다는 사실이 분명하지 않겠는가?

어떤 특정한 사업을 위해서 힘을 합치고 있는 자원자 단체를 예로 들어보자. 자원자들은 모두 이 일이 성공하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의욕적으로 일한다. 빈번히 자기 자리를 비우는 회원만 빼고 말이다. 그렇다고 그들이 그 한 사람 때문에 단체를 해산하거나, 대표를 뽑아 벌금을 부과하거나, 벌칙을 만들어야 할까? 분명히 그 어떤 것도 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자신들의 사업을 위태롭게 만드는 그동료는 어느 날 이런 말을 듣게 될 것이다.

“친구여, 우리는 당신과 함께 일하고 싶소. 하지만 당신이 수시로 자리를 비우고, 당신이 맡은 일을 소홀히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헤어져야 하겠소. 다른 곳으로 가서 당신의 태만함을 참아줄 만한 다른 동지들을 찾아보시오!”

이 방법은 워낙 자연스럽기 때문에 심지어 오늘 날에도 도처에서 실행되고 있다. 이 방법은 모든 산업 영역에서 벌금제도, 임금삭감, 감독제도 같은 모든 가능한 제도와 경쟁하면서 실행되고 있다. 노동자는 정해진 시간에 공장으로 들어가긴 하지만, 그가 자기 일을 형편 없게하거나 게으름이나 다른 결점들로 동료들을 방해한다면, 또는 그가 싸우기를 좋아한다면, 그걸로 끝이 날 것이다. 그는 어쩔 수 없이 작업장을 떠나야 할 것이다.

권위주의자들은 공장에서 노동자들이 정규적이고 능률적으로 일하도록 유지하는 사람은 전능한 고용주와 그가 고용한 감독관들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실제로 약간 복잡한 모든 기업들, 그러니까 제품이 완성되기 전까지 많은 사람의 손을 거쳐야 하는 기업들에서 만들어내는 제품의 품질을 살펴보는 사람들은 하나로 단결한 노동자들, 즉 공장 전체이다. 그렇기 때문에 영국 민간 산업의 가장 팬찮은 공장들에는 감독관의 수가 프랑스 공장들과 비교해서 평균적으로 훨씬 적고 영국의 국영 공장들보다도 적다.

대중의 어떤 도덕적 규범도 이와 똑같은 방법으로 유지되고 있다. 권위주의자들은 도덕이 유지되는 것은 지방 경비대, 판사, 경찰들 때문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판사들, 경찰들, 지방 경비대들이 있음에도 도덕이 유지되고 있는 것이다. “법이 많을수록 범죄자도 많다!”라는 오래된 속담도 있지 않은가.

이런식으로 일들이 진행되는 곳은 산업 분야의 작업장들에서만이 아니다. 이런 일들은 모든 곳에서 매일 큰 규모로 일어나고 있다. 단지 책벌레들만이 아직 알아차리지 못하고 있을 뿐이다. 다른 회사들과 협동해서 일하는 어

느철도회사의경우에, 그회사의기차들이연착하고화물들이역에방치되어있는식으로계약을제대로수행하지못하게되면, 다른회사들이계약을취소하겠다고위협할것이며, 보통은그런위협만으로충분할것이다.

상업에서는오로지소송에대한걱정때문에계약을준수한다는것이일반적인믿음이며, 국가가인가한공립학교들에서도그렇게가르치고있다. 하지만전혀그렇지가않다. 약속을어긴상인중에열에아홉은판사앞에나타나지않을것이다. 런던처럼상업이활발한곳에서는돈을빌려준채권자가소송을걸었다는단한가지사실만으로대다수상인이그사람과의거래를거절하는데충분하다. 그이유는그가자기들중한사람을법정에서게만들었기때문이다. 상황이이렇다면, 오늘날작업장에서일하는노동자들, 거래를하는상인들, 수송체계를맡고있는철도회사들사이에서행해지고있는방법이자발적인노동에기초한사회에서는왜사용되지않겠는가? 가령, 각각의회원들이다음의약관을따라야한다고명시하고있는한협회를예로들어보자.

“우리는여러분이 20 세에서 45 세나 50 세까지, 하루에 4~5 시간동안생존에필요하다고인정된어떤일을성실히수행한다는조건에서, 여러분에게집, 창고, 거리, 수송수단, 학교, 박물관등을사용하게할것을약속한다. 생활필수품을생산하는일을할경우에는원하는생산단체를스스로선택할수있고새로운단체를만들수도잇다. 그외에나머지시간은좋아하는사람들과협력해서오락, 예술, 과학등뭐든취미에맞는일을할수있다.”

“1년중약 1 천 500 시간은식량, 의복, 집을생산하는단체에가입해서일하거나, 혹은공공위생이나수송등에서일하는것, 이것이우리가여러분에게요구하는전부이다. 이노동에대한대가로이모든단체가생산한것과앞으로생산할모든것을자유롭게사용할것을보장한다. 하지만우리의수많은연합단체중어느하나도그동기가어떻든간에여러분을받아들이지않는다면, 또여러분이유용한물건을생산하는데완전히무능하거나그일을하는것을거절한다면, 여러분은고립된사람이나병자처럼살아야할것이다. 만일우리가생활필수품을제공할수있을정도로풍요롭다면, 기꺼이그것들을제공할것이다. 하지만여러분은특별한조건아래서살고싶어했고, 대열에서이탈하고싶어했기때문에다른시민과일상적인관계를맺는데어려움을겪을가능성이높다. 만약몇몇친구들이여러분한테재능이있음을발견하고, 친절하게도필요한모든노동을대신해주어서사회에대한도덕적의무로부터자유롭게해주지않는다면, 여러분은부르주아사회의망령으로간주될것이다.”

“마지막으로, 우리의조건이마음에들지않는다면, 넓은세상어딘가에서다른조건을찾아보길바란다. 아니면동조하는사람들을찾아내서그들과함께새로운원리에따른사회를조직하기바란다. 우리는우리의것을더좋아한다.”

이것이바로게으름을피우는사람들의수가너무많아졌을때, 공동체사회가그들을쫓아보내기위해쓸수있는방법이다.

#### IV

개인의완전한자유에실제로기반을둔사회에서우리가이런일이일어날가능성을우려할필요가있는지는아주의심스럽다. 사실, 자본의사적소유때문에일하지않는게으름이장려되고있음에도병자가아닌한실제로게으른사람은상당히드물다.

노동자들사이에서는흔히부르주아를게으름뱅이라고부른다. 틀림없이게으른부르주아가있긴하겠지만그들역시예외적인경우이다. 그와는반대로모든산업체에서아주열심히일하는부르주아들을분명히한사람이상찾을수있을것이다. 대다수부르주아들은자기의특권적인지위덕분에불쾌한일은최소화하고, 공기와음식등이위생적인환경에서일한다. 이런조건들덕분에그들은지나치게과로하지않고일을할수있다. 그런데바로이런조건들이우리가모든노동자를위해서분명히요구하는것들이다.

또한이이야기도꼭해야만한다. 즉, 부자들은자기의특권적인지위덕분에종종사회에완전히쓸모가없거나심지어해가되는일들을한다. 그럼에도장관, 국장, 공장사장, 상인, 은행가등은어쨌든매일몇시간씩은다소지루하다고느껴지는일들을해야한다. 그래서그들모두는그런의무적인일보다는여가시간을훨씬더좋아하고있다. 그일이십중팔구해로운경우라고해도그들은지루하다고느낀다.

하지만중산층이토지를소유한귀족계급을몰아내는데성공하고자신들이그뒤를이어서대중을지배하게된것은, 분명히그들이엄청난에너지로일했기때문이다. 심지어(알든모르든간에) 해로운일까지하고자기들이특권적인지위를방어하는일에도엄청난힘을발휘했기때문인것이다. 만약그들이게으른자들이었다면, 벌써오래전에존재하지않게되었을것이고귀족계급처럼사라졌을것이다.

하루에 4~5 시간동안유용하고, 즐겁고, 위생적인일을하는사회에서는이중산층사람들도자기들이맡은 일을완벽하게잘해낼것이다. 또그들은오늘날처럼노동자들이힘들게일하는이끔찍한작업환경을개선하지 않은채일하지는않을것이다. 만약헉슬리<sup>89</sup>가런던의재봉공장에서 5 시간정도만이라도지내야했더라면, 그는틀림없이그공장을자신의생리학연구실만큼이나위생적으로만들수있는방법을찾아내었을것이다. 다수 노동자의게으름에관해서는오직속물경제학자들과박애주의자들만이그런허튼소리를감히입밖으로낼수있다.

여러분이합리적인제조업자에게질문을한다면그는이렇게말할것이다. 즉, 노동자들이게으름피울궁리 만하고있다면모든공장은문을닫아야할것이고, 어떤엄격한조치를취하거나어떤감시제도를써도아무소용 이없을것이라고말이다. 여러분은 1887년에영국의고용주들사이에서일어났던공포를알고있을것이다. 즉, 몇몇소수의선동자가‘살살하라’는논리, 즉‘형편없는보수에는형편없는노동으로’, ‘적당히하고, 너무열심히 일하지마라. 그리고할수있는한빈둥거려라’는말들을퍼트리기시작했을때고용주들은공포에떨었던것이다. “그선동가들이노동자들을부도덕하게만들고, 우리산업을망하게하고싶어한다!”라고외친사람들은바로전 날에노동자들의부도덕성과불량한작업태도를심하게욕했던바로그고용주들이었다. 하지만노동자들이고 용주들이묘사한것처럼게으른사람이라면, 다시말해고용주가직장에서해고시키겠다고끊임없이위협했던 게으름뱅이들이라면, “부도덕하게만든다”는말이뜻하는바가대체무엇인가?

그러므로있을수있는게으른자들에관해이야기할경우, 우리는이문제가사회에존재하는소수사람의문제 일뿐이라는사실을제대로이해해야한다. 그리고이소수사람에관련된법률을만들기전에그런게으름이생긴 원인에대해서연구해보는것이더현명하지않을까? 이성적인안목으로관찰하는사람이라면누구나잘알고있 다. 학교에서공부를안하고계으르다고평가받는아이는흔히형편없는방식으로가르침을받았기때문에그저 이해를못하는아이일뿐이라는사실을말이다.

또한아이가가난과비위생적인공부환경때문에생긴뇌빈혈로고통받고있어서그런경우도매우빈번하다. 그리스어나라틴어공부에는게으름을부리던아이가과학을아주열심히공부할수도있는데, 특히그아이가몸 과손으로하는구체적인실습을받으면서배울경우에는더욱그럴것이다. 수학을잘못하는소녀도우연히자신 이이해하지못하는산수의원리를설명해줄수있는누군가를만나게되면, 자기반에서제일수학을잘하는학생 이될수도있다. 그리고일터에서는게으름을피우는노동자도새벽에떠오르는태양을바라보며자기텃밭을일 구고, 모든자연이쉬고있는밤에도다시텃밭에서일하는중일수도있다.

먼지란잘못된장소에있는물질이라는말이있다. 이와똑같은정의를게으름뱅이라고불리는사람중열에아 흡에게도적용할수있다. 그들은자신의기질이나능력에어울리지않는방향으로가서길을잃고헤매는사람들 이다. 위대한인물들의전기를읽다보면, 우리는그들가운데많은이가‘게으름뱅이’였다는사실과맞닥뜨린다. 그들은자기한테맞는길을찾아낼때까지오랫동안계으르게지냈다. 그러다가길을찾은후에는지나칠만큼열 심히공부하고일했다. 다윈, 스티븐슨, 그밖에많은인물이이런종류의게으름뱅이에속한다.

게으름뱅이는자신의전인생을브로치의 18 번째부분을만드는일이나시계의 100 번째부품을만드는일 들을하면서보내는것을끔찍이도싫어하는사람일경우가아주허다하다. 반면에그는자신의왕성한기운을어 딘가다른곳에쓰고싶어한다. 또한때때로그는반항아이다. 즉, 그는고용주로하여금천가지즐거움을얻도록 하기위해서평생을작업대에매여있기를거부할수있는사람인것이다. 그리고자신이고용주보다머리가나쁜 사람아니라는사실도알고있으며, 자신의유일한결점은대저택에서태어나는것대신에오두막집에서태어 난것뿐임을알고있다.

마지막으로, 엄청나게많은수의‘게으름뱅이’는생계를위해어쩔수없이갖게된자신의직업에대해충분히 제대로알지못하기때문에게으름뱅이가된사람들이다. 그들은자신의손으로만든불완전한것들을보고는좀 낫게만들어보려고헛되이애를써보기도하지만, 이미몸에밴나쁜습관들때문에결코성공하지못할것임을깨 닫는다. 그리고나서부터그들은자기직업을싫어하기시작하고, 또다른직업은알지못한채로전반적인일을모 두싫어하게된다. 수많은실패한노동자와기술자는이런이유때문에고통을겪는다.

그런반면어려서부터피아노를잘치는법을배워온사람이나, 대패, 끌, 붓, 줄을잘다루는법을배워온사람 은자신이하는일이아름답다고느낀다. 이런사람은피아노치는일이나끌을쓰는일혹은줄로쇠붙이를다듬는 일을결코포기하지않을것이다. 그는자기가하는일에서즐거움을찾아낼것이고, 너무지나치게몰아가지않는 한, 그일때문에지치지도않을것이다.

게으름이라고하는하나의이름아래에서로다른원인들때문에생긴일련의결과들이함께모여있다. 이것들 각각은사회에악의원천이되는대신에선의원천이될수도있는것들이다. 범죄와관련된문제와인간의능력들

<sup>89</sup> 영국의진화생물학자이자저술가 (Tomas Henry Huxley, 1825-1898).

과관련된문제처럼서로아무런공통점이없는사실들이함께모여있는것이다. 사람들은그원인을분석해보려는노력도하지않으면서, 게으름이나범죄에관해이야기를한다. 그들은처벌자체가‘게으름’이나‘범죄’를유발하는것이아닌지자세히조사해보지도않고성급하게이잘못들을처벌하려고한다. (크로포트킨: 『러시아와프랑스의감옥』, 런던, 1887)

이러한이유로자유로운사회에서는게으른사람들의수가증가하는것을보게되면, 맨먼저게으름의원인을알아볼생각을분명하게될것이다. 처벌이라는수단을쓰기전에먼저그것을가라앉히기위해서이다. 우리아이미말했던것처럼단순히빈혈문제라면, 아이의머릿속에과학지식을채워넣기전에몸이피를만들어낼수있도록영양을공급해주고원기를복돋아줄것이다. 그리고아이가공연히시간을허비하지않도록시골이나바닷가로데리고갈것이다. 그곳의탁트인야외공간에서그를가르쳐보라. 책에있는기하학이아니라뾰족한탑까지의거리를재거나나무의높이를재는식으로기하학을가르쳐보라. 들꽃을꺾고바다에서낚시를하면서자연과학을가르쳐보라. 하지만제발아이의머릿속에고전어문장들이나죽은언어들을채워넣지는마라. 아이를공부못하는게으름뱅이로만들지마라!

아니면, 여기정리정돈을못하고규칙적인습관을갖지못한아이가있다. 아이들은먼저자기들사이에서질서를서로가르치도록놔두어야한다. 그리고나중에는지혜로운교사의지도아래실험실과실습장이라는제한된공간에서많은도구들을가지고하는일들이아이에게정돈하는방법을가르쳐줄것이다.

그러나여러분의학교에의해서아이들을무질서한존재로만들어서는안된다. 그런학교에서질서란고작결상들이줄지어배치된것일뿐이고, 그학교에서행해지는가르침은혼란의참모습일뿐이다. 그런질서는어느누구에게도결코조화에대한사랑, 그리고일관성과올바르게일하는방법에대한사랑을불어넣지못할것이다.

여러분은알고있지않는가? 여러분이가르치는방법은 800 만명의서로다른능력을나타내는 800 만의학생들을위한답시고단하나의부서가고안한것이다. 그리고이런방법은오직일반적인수준에맞도록고안된, 학습체계일뿐이다. 여러분의학교는게으름을가르치는학교가되어가고있다. 감옥이범죄를가르치는대학인것처럼말이다. 그러니학교를자유롭게만들어라. 대학의학점제를폐지하고, 자원해서가르치려는사람들에게호소하라. 단지게으름을늘리는데기여할뿐인법을만드는것대신에이런식으로시작하라.

평생어떤물건의작은부품을만드는운명을받아들일수없다고말하는노동자에게는다른기회를주어라. 구멍뚫는소형기계때문에숨이막힐것같아서결국자기일을몹시싫어하게된노동자에게도다른기회를주어라. 그런사람에게는땅을경작하거나, 숲에서나무를베거나, 폭풍우치는바다에서항해를하게하거나, 기관차를타고힘차게바람을가를수있는기회를주어라. 하지만그로하여금일생동안작은기계에얽매여있게하거나, 나사못의끝을갈고있거나, 바늘귀를뚫는일에종사하게해서그를게으른사람으로만들지는말아야한다.

게으름의원인을없애라. 그러면일하는것을정말로싫어하는개인은거의없다는사실을당연하게생각할것이다. 특히자발적으로하는노동을싫어하는사람들은거의없고, 그들때문에법률을만들필요는전혀없다는것을당연하게생각할것이다.

### **13. 집산주의적임금제도**

I

사회를 재구성하려는 계획에서 집산주의자들은 이중의 실수를 저지르고 있다. 그들은 자본가의 지배를 폐지하겠다고 말하면서도 이지배의 가장 기본이 되는 두 가지 제도를 계속 유지하려고 한다. 이 두 가지 제도는 바로 대의제 정부와 임금 제도이다.

소위 말하는 대의제 정부에 관해서는 종종 이야기를 한 바가 있다. 프랑스, 영국, 독일, 미국의 역사가 준 그 모든 교훈에도 불구하고, 집산주의자들 사이에도 적잖게 존재하는 지성적인 사람들이 여전히 국회나 시의회의 지지자라는 사실은 우리에게는 정말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의회의 통치권이 무너지는 중이고, 사방에서 그 결과 뿐만 아니라 그것의 원리들까지 이통치권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져 가고 있는데도, 어째서 사회주의 혁명가들은 이미 사형선고를 받은 이제도를 옹호하는 것일까?

의회의 통치권은 중산층이 왕권에 대항해서 자신의 권리를 확보하고 동시에 노동자들에 대한 자신의 영향력을 승인하고 강화하기 위해서 만든 것으로, 그야말로 중산층이 주로 지배하는 것을 뜻한다. 이 체제의 지지자들은 국회나 시의회가 한 나라나 도시를 대표한다고 진지하게 주장한 적이 결코 없다. 그들 중에 가장 합리적인 사람들은 이것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중산층은 의회 제도를 민중에게 자유를 주는 수단으로 사용한 것이라 아니라, 오직 왕권의 요구에 대항할 수 있는 방어벽으로 만이 용했다.

그러나 민중이 점차 자신들의 진정한 권익을 자각하고 있고 그 권익의 다양성도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 체제는 더 이상 제대로 기능하지 못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나라의 민주주의자들은 이제도 의 단점을 완화 시켜 줄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헛되이 상상하고 있다. 의회가 의결한 것을 국민 투표에 부치는 시도를 해보기도 했지만 실패임이 드러났다. 소수자를 대표하는 비례대표제와 다른 의회 제도 유 토피아가 논의되었다. 한마디로 말해서, 그들은 찾을 수 없는 것을 찾으려고 애쓰고 있다. 그리고 각각의 새로운 실험들을 해본 후에, 그들은 의회 제도가 실패라는 사실을 어쩔 수 없이 인정하게 된다. 그리하여 대의제 정부에 대한 신뢰는 점점 더 약해지고 있는 것이다.

임금 제도도 마찬가지다. 일단 사유재산의 폐지가 선언되고 모든 생산 수단의 공동 소유가 도입되면, 어떻게 임금 제도가 유지될 수 있겠는가? 그런데도 집산주의자들이 시행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제도이다. 즉, 그들은 ‘노동 전표’의 사용을 권하고 있는데 이 것은 거대한 집산주의자 고용 주인 국가를 위해서 수행한 노동에 대한 하나의 지불 방식이다.

로버트 오언 시대부터 왜 초기 영국의 사회주의자들이 노동 전표 제도에 이르게 되었는지를 이해하기는 어렵지 않다. 그들은 단순히 자본과 노동을 조화롭게 만들려는 시도를 했던 것이다. 그들은 혁명적인 조치들을 써서 자본가의 재산을 손에 넣는다는 생각을 거부했다. 또한 왜나중에 프루동이 이와 똑같은 아이디어를 채택했는지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자신의 상호 부조체계에서 그는 자본을 덜 불쾌한 것으로 만들려고 시도했으나, 그럼에도 사유재산은 그대로 유지하고자 했다. 그는 마음 속 깊이 사적 소유를 혐오했지만, 국가에 대항해서 개인들을 지키기 위해서는 그것이 필요하다고 보았던 것이다.

다소 부르주아적인 몇몇 경제학자들이 노동 전표를 인정한다는 사실도 크게 놀라운 일은 아니다. 그들은 노동자가 임금을 노동 전표로 받는지, 공화국이나 제국의 초상이 찍힌 화폐로 받는지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을 쓰지 않는다. 그들은 오직 주택, 땅, 공장들의 개인적인 소유가 파괴되지 않는 것에 만족의 기울인다. 어떤 경우 이든 최소한 주택과 자본의 소유는 생산하는데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다. 그리고 노동 전표는 이사유재산을 유지한다는 목적에 제대로 부합하는 해결책일 것이다.

노동 전표가 보석이나 마차와 교환될 수 있는 한, 집주인은 기꺼이 집세로 그 것을 받을 것이다. 또 주택과 농지 그리고 공장들이 고립된 개인 소유주에 속해 있는 한, 사람들은 이런 저런 방식으로 이 소유주들에게 대가를 지불해야 할 것이다. 가령, 논밭이나 공장에서 일할 수 있게 허락 받는 대가, 혹은 집에서 살 수 있게 허락 받는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 것이다.

소유주들은 갖가지 필요한 것들과 교환하는 대가로 노동자들이 지불하는 금, 지폐, 수표를 받는데 동의할 것이다. 노동에 대한 사용료 징수 제도가 유지되고 그것을 징수 할 수 있는 권리가 자기들한테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주택, 논밭, 공장들이 더 이상 사유재산이 아니고, 코뮌이나 국민에게 속한다는 것을 인정하게 될 경우, 어떻게 우리가 새로운 운형태의 임금 제도인 노동 전표를 옹호할 수 있겠는가?

## II

프랑스, 독일, 영국, 이탈리아의 집산주의자들이 선전하고 있는 이 노동 보상 제도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기로 하자. (여전히 자기들을 집산주의자라고 부르고 있는 스페인이나 키스트들은, 집산주의를 모든 생산 수단의 공

동소유란뜻으로이해하고있다. 그리고집산주의가‘각각의집단이코뮌주의나다른원리에따라서자기들이적합하게생각하는대로생산물을분배할자유’를뜻한다고보고있다.)

요컨대이런것이다. 모든사람이논밭, 공장, 학교, 병원등에서일을한다. 노동하는날은국가에의해정해져있다. 국가는땅, 공장, 도로등을소유한다. 일하는날은모두노동전표로지불되며, 이노동전표에는‘8시간노동’이라고쓰여있다. 이수표를가지고노동자는국가혹은다양한법인체들이소유한가게에서온갖종류의상품을구매할수있다. 이수표는나누어서계산될수있어서한시간노동어치의고기, 십분노동어치의성냥, 반시간노동어치의담배를살수있다. 집산주의혁명이이루어진후에는‘2 펜스짜리비누’라고말하는대신‘5 분노동어치의비누’라고말해야할것이다.

대부분의집산주의자는중산층경제학자들(그리고마르크스)이구분한숙련노동과단순노동간의구별을성실하게따른다. 게다가그들은이렇게말한다. 숙련노동혹은전문노동은단순노동보다어느정도보수를더받아야한다고말이다. 따라서의사의 1 시간노동은간호사의 2~3 시간노동과똑같은것으로간주되어야하고, 비숙련노무자인막일꾼의 3~5 시간노동과똑같이여겨질것이다. “전문노동이나숙련노동은단순노동보다더많이받을것이다. 왜냐하면이런종류의노동은다소오랜훈련기간이필요하기때문이다”라고집산주의자인그伦룬트(Grönlund)<sup>90</sup>는말하고있다.

프랑스의마르크스주의자인게드<sup>91</sup> 같은다른집산주의자들은이런구별을하지않는다. 그들은‘임금의평등’을주장하고있다. 의사, 교사, 교수는막일꾼과똑같은임금을(노동전표로)받을것이다. 병원에서환자를 8시간간병하는일은토목작업을하거나광산이나공장에서 8시간일한것과똑같은가치를가질것이다.

어떤이들은더욱양보를한다. 그들은도시의하수구청소처럼불쾌하고불건강한노동에는쾌적한노동보다더많은보수를지불해야함을인정한다. 그들은하수구청소부의 1 시간노동은교수의 2 시간노동만큼가치가있다고말한다. 몇몇집산주의자들은수행한일에대한대가를일괄로지급받는법인체협동조합을인정하고잇다는점을덧붙이자. 이법인체는이렇게말할것이다.

“여기 100 톤의강철이있고, 그걸생산하는데 100 명의노동자가 10 일동안일하는게필요하다. 그들의노동시간은하루에 8 시간이므로강철 100 톤을생산하는데 8 천시간이걸린다. 톤당 8 시간이걸린셈이다.”

이에대해서국가는 1 시간짜리노동전표를 8 천장지불할것이고, 이 8 천장의노동전표는철강노동자들사이에서적당하다고여기는방법으로분배될것이다.

한편 100 명의광부가 8 천톤의석탄을캐는데 20 일이걸렸고, 석탄은톤당 2 시간어치의값이나간다. 그러면광부조합은 1 시간짜리노동전표를 1 만 6 천장받아서자기들의평가에따라사회원들과분배할것이다. 만약광부들이강철은톤당 8 시간이아니라 6 시간어치의가치밖에없다고항의하고, 또교수가간호사보다보수를 4 배더받기를바란다면, 국가가개입해서그런불화를조정할것이다.

한마디로집산주의자들이사회혁명을통해보고싶어하는체제는이런식이다. 알다시피그들의원리는다음과같다. 즉, 생산수단을집단적으로소유하고, 생산에소요된시간에따라각자에게보수를지급하며, 그럴때각자의노동생산성을고려한다. 정치제도의경우에는의회제가될텐데, 이것은선출된사람들에게내려지는적극적인지시와국민이찬성과반대를할수있는국민투표에의해수정되는의회제이다. 우리에게이체제는단순히실현불가능한것으로보인다는사실을인정하자.

집산주의자들은사유재산의폐지라는혁명적원리를선언하면서시작한다. 그리고얼마지나지않아사유재산에서비롯된생산과소비조직을지지함으로써곧바로그원리를부정한다. 그들은혁명적원리를선언하지만, 이원리가필연적으로가져오게될결과들을무시한다. 그들은토지, 공장, 도로, 자본같은노동수단의사적소유를폐지한다는바로그사실자체는사회가완전히새로운경로를나아간다는뜻임을잊고있다. 그들은사적소유를폐지하면현재의생산시스템을그수단뿐만이아니라목적까지완전히폐지해야한다는사실을잊고있다. 토지, 기계, 그외모든생산수단이공동자산으로간주되자마자, 개인들사이의일상적관계도변화해야한다는점을잊고있는것이다.

그들은“사유재산은없다”라고말한뒤, 얼마지나지않아일상생활에서나타나는사적소유를유지하려고애를쓴다. “생산에관한한여러분은모두코뮌이어야한다. 즉, 논밭, 도구들, 기계같은지금까지고안된모든것과, 공장, 철도, 부두, 광산같은것들이모두여러분의것이라는뜻이다. 이런공동자산을각자에게분배하는일에서는어떤근소한차이도두지않을것이다.”

<sup>90</sup> 미국의변호사, 작가, 정치운동가 (Laurence Grönlund, 1846-1899). 마르크스와라살의국제사회주의개념을처음으로미국에도입한사람으로, 미국의사회주의운동에영향을미쳤다.

<sup>91</sup> 프랑스의사회주의자언론인 (Jules Guesde, 1845-1922).

“하지만내일부터여러분은새로운기계의제작이나새로운광산의채굴에서자신이받을몫에관해상세하게논의할것이다. 새로운생산의어떤부분이여러분에게속하는지를신중하게잴것이다. 여러분은자기가한노동시간을상세하게계산하고, 이웃들이 1 분의노동시간으로여러분보다더많은것을구매하는것이아닌지신경을쓸것이다.”

“1 시간으로아무것도측정할수없는경우, 또어떤공장에서는노동자가한꺼번에 6 대의직조기를지켜볼수있는데비해, 다른공장에서는고작 2 대만을지켜보는경우에는, 자신이사용한근육의힘, 두뇌에너지, 신경에너지를측정할것이다. 미래의생산에기여할각자의시간을측정하기위해서훈련기간을정확하게계산할것이다. 그리고과거에자기가생산에기여한몫을고려하지않겠다고선언한후인데도이렇게할것이다.”

우리에게는아주분명해보인다. 사회는서로완전히반대되는두가지원리, 끊임없이서로모순되는두가지원리에토대를둘수없다는사실말이다. 이런제도를갖게된나라나코뮌은어쩔수없이생산수단의사적소유로되돌아가거나아니면스스로코뮌주의사회로전환하게될것이다.

### III

이미말했던것처럼어떤집산주의자저술가들은숙련노동이나전문노동과단순노동사이에차별이있기를바란다. 그들은엔지니어, 건축가, 의사의한시간노동은대장장이, 벽돌공, 간호사의두세시간노동과같이여겨져야한다고주장한다. 그리고훈련기간이필요한직업과단순한일용직노동같은온갖종류의직업사이에이와같은구별을두어야한다고주장한다.

그런데이런구별을세운다는것은지금사회의모든불평등을유지한다는것을뜻한다. 이것은처음부터노동자들과그들을지배한다고우기는사람들사이에분명한선을긋는것을뜻한다. 이것은서로다른두개의계급으로사회를분할한다는뜻이다. 즉, 거칠고딱딱해진손을가진하층계급위에지식을가진귀족계급이위치하고있고, 한쪽은다른쪽을위해서봉사할운명에처해진다는뜻이다. 한쪽은다른쪽사람들에게먹을것과입을옷을제공하기위해육체노동을하고, 덕분에여가를얻은다른쪽사람들은자기들을양육해주는육체노동자들을지배할방법을연구한다는것을뜻한다.

이것은지금사회의두드러지게이상한특성하나를다시부활시켜서사회혁명이라는이름을붙이고승인한다는것을의미한다. 이것은무너져가는우리의오래된사회에서이미악습이라고선고받은원리를다시내세우는것을의미한다.

이런이야기에어떤대답이돌아올지를우리는안다. 그들은‘과학적사회주의’에대해이야기할것이다. 그들은또한임금격차가존재할이유가있음을증명하기위해부르주아경제학자들과마르크스를인용할것이다. 가령, 엔지니어의‘노동력’은막일꾼의‘노동력’보다사회에더많은가치가있기때문이라는식이다. 사실, 경제학자들이우리에게증명해보이려고애쓰는것은바로이런것이아니던가? 즉, 엔지니어가막일꾼보다 20 배많은보수를받는다면, 그이유는엔지니어를양성하는데필요한비용이막일꾼을만드는데필요한비용보다훨씬많이들었기때문이라는식으로말이다. 그리고마르크스도주장하지않았던가? 이런구분이두가지분야의육체노동간에도똑같이적용되는게합리적이라고말이다. 그는다른식의결론을내릴수가없었다. 왜냐하면그자신이리카도의가치이론을받아들였고, 상품의교환가치는그생산에사회적으로필요한노동의양에비례한다는이론을지지했기때문이다.

그러나우리는이것이무슨생각인지를안다. 만일엔지니어, 과학자, 의사가단순노동자보다 10 배 100 배많은보수를받고, 직조공이농업노동자보다 3 배나많은보수를받고성냥공장에서일하는소녀보다 10 배더많은보수를받는다면, 그이유는그들의‘생산비용’때문이아니라고육의독점과산업의독점때문이다. 엔지니어, 과학자, 의사들은졸업증서나자격증이라는자기의자본을이용하고있을뿐이다. 마치중산층공장주가공장을이용하고귀족들이자기의작위를이용하는것처럼말이다.

어떤엔지니어에게단순노무자보다 20 배많은보수를지급하는고용주의경우도, 단순히개인적인이해관계때문에그렇게하는것이다. 만일그엔지니어가생산비용을 1 년에 4 천파운드절약해준다면, 공장주는그에게 800 파운드를지급할것이다. 그리고노동자들을교활하게착취해서 400 파운드를절약하게해주는감독관이있다면, 공장주는기꺼이그에게 1 년에 80 파운드나 120 파운드를더줄것이다. 자기가 400 파운드의

이익을더얻을수있다고예상할때공장주는 40 파운드의추가비용정도는나눠줄것이다. 이것이바로자본주의체제의본질이다. 이와똑같은구별이서로다른육체노동직업들사이에서도행해지고있다.

그러므로그들이우리에게이런이야기를하게놔두지말자. 즉, 숙련노동자의대가를높이는‘생산비용’에대해말하게놔두지말자. 그리고대학에서즐겁게보내고있는어떤학생이 11 살때부터광산에서일하며창백하게시들어가고있는광부의아들보다 10 배나많은임금을받을권리가있다고말하게놔두지말자. 또직조공은농업노동자보다서너배많은임금을받을권리가있다고말하게놔두지말자. 직조공에게일을가르치는데드는비용이농업노동자에게일을가르치는데드는비용보다 4 배나많이들지는않는다. 그직조공은아직산업이발달하지않는나라들과의국제무역에서직조산업이거둬들이고있는이익때문에득을보고있을뿐이다. 그리고토지를경작하는것보다산업을더선호하는모든국가들이허락한특권으로말미암아이익을얻고있을뿐이다.

지금까지어느누구도생산자의생산비용을정확히측정해본적이없다. 비록귀족출신의계으름뱅이에대해서는노동자보다훨씬더많은비용을사회가부담하고있을지라도, 여전히다음과같은사실을살펴보아야한다. 즉, 가난한사람들의유아사망률, 빈혈로인한피해, 때이른죽음을고려해보았을때사회가건강한일용직노무자에게숙련공에비해서더많은비용을치르고있는것은아닌지말이다.

예를들어그들이다음과같은점을우리에게설득시킬수있을까? 즉, 파리의여직공에게지급되는 1 실링 3 펜스, 레이스짜는일을전혀모르고자란오베르뉴지방의농부딸이받는 3 펜스, 농부에게지급되는 1 실링 8 펜스는그들의‘생산비용’을나타내준다는이야기말이다. 우리는이보다더적게받으며일하는사람들을아주잘아고있다. 그러나그들이그렇게하는이유는전적으로우리의놀라운제도덕분이고, 이런웃기는임금을받지않으면굶어죽을것이기때문이라는사실도우리는잘알고있다.

이런임금격차는세금, 정부의보호, 자본가의독점등이복합된결과처럼보인다. 간단히말해, 국가와자본때문에생긴결과라는뜻이다. 그러므로모든임금이론들은지금존재하고있는불평등을정당화하기위해서나중에고안된것이다. 그리고우리는그런이론들을고려할필요가없다. 그들중어느누구도집산주의적인임금격차가개선될것이라고우리에게말하지못할것이다. 그래서그들은이렇게말한다.

“어느장관이노동자가 1 년을일해도벌수없는돈을하루에받는모습을보는것보다는, 어떤기능공이일반노동자보다두세배더높은임금을받는것을보는것이훨씬나을것이다. 이것은평등을향한위대한한걸음일것이다.”

우리가보기애이한걸음은진보와는반대로가는한걸음이다. 새로운사회에서단순노동과전문노동을구별하는것은, 우리가오늘날굴복하고는있지만그럼에도부당하다고느끼는잔인한현실을하나의원리로인정하고혁명이라는이름으로승인하는결과를가져올것이다. 이것은 1789 년 8 월 4 일프랑스의회의신사들이했던일을똑같이모방한다는의미일것이다. 그들은그날귀족의봉건적권리를폐지한다고선언했지만, 8 월 8 일에는농민들이귀족들에게배상할의무를부과하고, 의무를혁명의보호아래둠으로써이권리를다시승인했다. 또한이것은러시아왕실이했던일을똑같이모방하는일일것이다. 러시아왕실은농노해방을선포함과동시에, 이전에농노들의것으로간주된이토지들이앞으로는귀족들의소유라고선포했다.

또는더잘알려진예를들어볼수도있다. 가령, 1871 년파리코뮌은코뮌의회의의원에게는하루 12 실링 6 펜스를지급하는반면, 방벽을방어하는동맹군들에게는고작 1 실링 3 펜스를지급하기로결정했다. 그리고이결정은우월하고민주적인평등행위로갈채를받았다. 사실, 코뮌은관리와병사사이, 통치자와피지배자사이에있었던예전의불평등을그대로승인했을뿐이다. 이런결정이기회주의자들이구성했던예전의프랑스하원에서나왔다면칭찬할만한것으로보였을것이다. 하지만코뮌은자신의혁명적원리를실천하는일에실패함으로써운명적으로패배할수밖에없었던것이다.

현존하는우리의사회체제아래에서는장관이 1 년에 4 천파운드를받는반면, 노동자는 1 년에 40 파운드나그보다적은임금을받는데만족해야한다. 공장감독은노동자보다두세배많이받고, 노동자들사이에서도온갖차이가존재해서하루에 8 실링을받는사람부터 3 펜스를받는농부딸까지다양하다. 이런상황에서우리는장관이받는높은봉급을인정하지않는다. 뿐만아니라 8 실링을받는노동자와 3 펜스를받는가난한여성사이의차별도인정하지않는다. 그리고우리는이렇게말한다.

“출신성분의특권뿐만이아니라교육의특권도폐지하라!”

분명우리는이런특권들에깊은반감을갖고있기때문에아나키스트인것이다. 이런권위주의적인사회에존재하는특권들에우리는이미깊은반감을갖고있다. 평등을선언하면서시작한사회속에그런것들이존재하는것을우리가참아낼수있을까? 일부집산주의자들이서둘러서임금의평등을선언한것은이런이유이다. 그들은혁명의숨결에영감을받은사회에서는임금격차를유지하는것이불가능하다는점을이해한사람들이다. 하지만그들도새로운어려움들과마주쳤는데, 자기들이생각한평등한임금역시다른집산주의자들의임금격차만큼이나실현불가능한공상이기때문이다.

모든사회적부를공동으로소유한사회, 이런부에대한모두의권리를대답하게선언한사회, 각자가그부를 생산하는데얼마나기여했는가와상관없이모두가권리를갖는다고선언한사회는현금이든노동전표로지불하 건간에모든임금제도를어쩔수없이폐지하게될것이다.

#### IV

집산주의자들은“각자의노동을각자에게”라고말한다. 다른말로하면, 각개인인사회에봉사한정도에따라보수를받는다는뜻이다. 그들이느사회혁명이모든생산수단을공동소유로만드는즉시이원리를실행하는 것이적절하다고생각한다. 하지만우리는다르게생각한다. 만약사회혁명이불운하게도이런원리를선언한다면, 혁명은필연적으로실패할수밖에없다고말이다. 그런원리를선언한다는것은지난세월들이우리에게떠넘겨놓은사회적인문제들을해결하지않은채그대로남겨놓는다는것을뜻한다.

물론일을더많이할수록더적게보상을받는우리사회에서는언뜻보면이원리가마치정의에대한갈망인것 처럼보일지도모른다. 하지만실제로는단지불평등을영구화하는것일뿐이다. 임금제는이원리를선언하면서 시작되었고, 결국명백한불평등과자금사회의온갖혐오스러운것들로귀결되었다. 왜냐하면노동이화폐나 다른형태의임금으로평가받기시작하는순간부터다음사실을인정하는셈이기때문이다. 즉, 사람은스스로속박 당할수밖에없는임금만을받을뿐이고, 국가가후원하는자본주의사회의전체역사는기록된것만큼좋은것이라고말이다. 임금제원리안에이미이런싹이들어있었던것이다.

그렇다면우리는출발점으로되돌아가서똑같은발달과정을다시거쳐야할까? 우리의이론가들은그러기를 바라지만다행스럽게도그것은불가능하다. 우리가주장하는혁명은반드시코뮌주의혁명이어야한다. 그렇지 않으면그혁명은피로물들것이고, 처음부터다시시작해야할것이기때문이다.

사회에제공한봉사는돈으로그가치를매길수없다. 그것이공장이나논밭에서행한것이든정신적인것이든 간에말이다. 생산과관련해서보면, 어떤가치(교환가치라는잘못된용어로쓰이고있다)와사용가치를측정 할수있는정확한기준은있을수없다. 만일두명의개인이하루 5 시간씩공동체를위해일하고있고, 시간이흐르 면서이노동이그들각자에게똑같이마음에든다면, 우리는전체적으로보아서그들의노동은거의동등하다고 말할수있을것이다. 그렇지만우리는그들의노동을분할할수는없다. 즉, 한사람이행한어느특정한날의시간 의노동결과가, 다른사람의어느날의어느시간의노동결과와동일한가치를가진다고말할수없다는뜻이다.

우리는대충은말할수있을지모른다. 즉, 평생동안하루에 10 시간의여가시간을빼앗기고일한사람은, 하루에 5 시간만여가시간을빼앗기거나전혀여가시간을빼앗기지않은사람보다사회에훨씬많은기여를했다고 말이다. 하지만우리는그가 2 시간동안일한것을측정할수는없다. 그리고그가일한 2 시간동안의결과물이 1 시간만일한다른사람의결과물보다 2 배의가치가있다고말할수없으며, 두사람에게그에비례해서보수를지급할수도없다. 이렇게하는것은산업, 농업, 그리고지금사회의모든삶속에복잡하게얽혀있는것전부를무시 하는일이될것이다. 또한모든개인적노동이어느정도로전체사회의과거와현재노동의결과인가하는점을무시하는일이될것이다. 이것은우리가지금강철의시대를살고있는데도석기시대에살고있다고믿는것과마찬 가지일것이다.

여러분이현대식탄광에들어가보면, 승강기를올리고내리는거대한기계를조종하고있는사람을볼것이다. 그는손에레버를들고서그기계를멈추기도하고방향을바꾸기도한다. 그가레버를내리면승강기는순식간에방향을바꾼다. 그는레버를위아래로움직여서어지러울정도로빠르게승강기를올려보내기도하고깊은수직터널로내려보내기도한다. 그는모든주의를기울여서작은표시기에눈을고정하고있다. 이표시기는승강기 가터널의어느지점에서어떤속도로움직이는지를작은눈금으로알려준다. 그리고표시기가어느수준에도달하자마자, 그는필요한지점보다높지도낮지도않은곳에서승강기를급정거시킨다. 그러면곧바로탄광인부들이석탄수레에서석탄을펴내고난뒤에빈수레를밀어낸다. 그러면그는레버를역전시켜서승강기를다시갱도로돌려보낸다.

그는날마다 8 시간이나 10 시간동안쉬지않고일정한주의력을기울이고있어야한다. 그의두뇌가잠시라도긴장을늦추면승강기는불가피하게기어에부딪칠테고, 바퀴가부서지고, 줄이끊어지고, 사람들이깔려서 광산의모든작업은중단될것이다. 그가레버를조작할때마다 3 초를허비한다면, 우리의현대적이고설비가잘 된광산의채굴량은하루에 20 톤에서 50 톤까지줄어들것이다.

그렇다면 광산에 가장 필요한 사람이 그 사람일까? 아니면 저 밑에서 승강기를 올리라고 그에게 신호를 보내는 소년일까? 수직 쟁도의 맨 아래에서 매순간마다 목숨을 걸고 있으며 언젠가 가스 폭발로 죽음을 맞게 될 광부일까? 아니면 석탄이 묻힌 층을 제대로 찾지도 못 했으며, 단순한 계산 실수 때문에 광부들이 돌덩이를 파게 만드는 기술자일까? 혹은 자기 자본을 광산에 투자한 광산 소유주일까? 어쩌면 그는 전문가들의 조언과는 반대로, 그곳에서 양질의 석탄이 발견될 거라고 확신하는 사람일지도 모른다.

이 모든 사람이 광산에서 석탄을 채굴하는 일에 기여하고 있다. 각자 자신의 육체적 힘, 에너지, 지식, 지성, 기술을 가지고 서 말이다. 그리고 생활 필수 품들이 모두에게 보장되었을 때 우리는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모든 사람은 살아갈 권리, 자신의 필요를 충족 시킬 권리, 심지어 일시적인 변덕조차 만족 시킬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말이다. 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그들 각자의 노동을 평가할 수 있단 말인가?

그리고 더 나아가, 그들이 채굴한 석탄은 전적으로 그들만의 작업물일까? 석탄은 또한 광산으로 가는 철로를 건설한 사람들, 모든 기차역에서 사방으로 뻗어나가는 도로를 건설한 사람들의 작업도 포함되지 않겠는가? 또한 땅을 갈고 씨를 뿌린 사람들, 석탄을 태우는 기계를 만든 사람들처럼 어떤 식으로든 전체 광산업이 천천히 발달하도록 한 사람들의 작업도 포함되지 않겠는가?

이런 사람들 각각의 노동을 구별하는 일은 절대로 불가능하다. 결과만을 가지고 노동을 측정하게 되면 부조리함에 빠지기 때문이다. 전체 일을 분할하고 그 일에 소요된 시간으로 그 부분들을 측정하는 일 역시 우리를 부조리함에 빠트린다. 남은 것은 한 가지 뿐이다. 즉, 노동보다 필요를 우선시 하는 것이다. 무엇보다 먼저 살아갈 권리 를 인정하고, 그 다음에 생산에 기여한 모든 사람이 행복한 삶을 살 권리 를 인정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인간 활동의 다른 분야, 전체로서의 삶이 드러나는 분야를 한번 살펴보자. 우리들 중 누가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더 높은 보수를 요구할 수 있을까? 병을 발견해낸 의사가 그럴 수 있을까? 혹은 위생적인 간호로 환자의 회복을 도운 간호사가 그럴 수 있을까? 증기 기관은 최초로 발명한 사람일까? 아니면 증기가 피스톤 아래로 흘러가도록 밸브를 열어주는 줄을 기계에 달린 레버에 동여맸던 소년일까? 어느 날이 소년은 밸브 줄을 잡아당기는 일이 지긋지긋해져서 기계에 달린 레버에 그 줄을 동여맸던 것이다. 자신이 모든 현대적 기계의 본질적인 부품인 자동 밸브를 발명했다는 사실을 알아차리지도 못한 채로 말이다.

기관차를 발명한 사람일까? 아니면 탄력성이 부족한 돌은 기차 탈선의 원인이 되므로, 이전에 철로 밑에 깔아 놓았던 돌 대신에 나무 침목들을 끼는 게 좋겠다고 제안한 뉴캐슬의 한 노동자일까? 기차를 멈춰 세우거나 지나가게 하는 신호수일까? 아니면 기차를 한 선로에서 다른 선로로 이동시키는 전철수일까?

한편으로, 대서양 횡단 케이블을 건설해 준 것에 대해서 우리는 누구에게 감사해야 할까? 과학자들이 불가능하다고 단언했는데도 케이블로 전보를 보낼 수 있다고 집요하게 주장한 전기 기사일까? 두꺼운 케이블 대신 지팡이 만큼 얇은 것들로 대체하라고 조언한 자연 지리학자 모리<sup>92</sup> 일까? 아니면 어디에서 왔는지 누구도 모르는 자원봉사자들일까? 그들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자기들의 시간을 써서 배의 갑판 위에서 매야드마다 케이블을 세심하게 조사하고, 기선회사의 주주들이 어리석게도 케이블이 작동되지 않게 하려고 절연 피복에 박아 넣도록 한 못들을 제거했던 사람들이다.

그리고 보다 넓은 영역, 기쁨과 고통과 사고가 있는 인생의 참된 영역에서, 우리 중 어느 누가 우리 삶에 커다란 도움을 준 사람들을 떠올리지 않을 수 있단 말인가? 우리 삶에 너무나 커다란 봉사를 제공했기 때문에 그들의 봉사를 돈으로 환산하는 것을 들으면 분개하게 되는 그런 사람들을 말이다. 그것은 적절한 때에 말해 진한 마디 말이었을지도 모른다. 혹은 몇 달이나 몇 년 동안의 헌신이었을지도 모른다. 그런데도 우리가 이 '값을 매길 수 없는' 봉사를 '노동 전표'로 계산해야 한단 말인가?

"각자의 노동을 각자에게!" 하지만 모든 사람이 돈, 수표, 혹은 보상금으로 지불 받는 것보다 훨씬 많은 것을 제공하지 않았다면, 인간 사회는 두세 대이상 존속하지 못했을 것이다. 만일 어머니들이 자기 아이들을 돌보기 위해 자기 삶을 헌신하지 않는다면, 사람들이 동등한 보상을 요구하지 않으면서도 끊임 없이 뭔가를 제공하지 않는다면, 아무런 보상을 기대할 수 없는 바로그 때가 가장 많은 것을 제공하지 않는다면, 인류는 곤멸종하고 말 것이다.

만일 중산층 사회가 쇠퇴하고 있는 중이라면, 우리가 막다른 골목길에 다다라 있어서 횃불과 손도끼를 가지고 과거의 제도들을 공격하지 않고서는 거기에서 빠져나올 수 없다면, 그 이유는 분명 우리 가지나치게 많은 계산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오직 받기 위해서 만주는 방식에 우리 가물들어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이 사회를 부채와 신용에 기초를 둔 상업적 회사로 바꾸는 것을 목표로 삼아 왔기 때문이다.

결국 집산주의자들 스스로도 이 사실을 알고 있다. 그들도 어렵잖게 이해하고 있다. 만일 '각자의 노동을 각자에게'라는 원리가 시행된다면, 사회가 존속하지 못할 것이라는 사실을 말이다. 그들도 필수 품들 (일시적인 변

<sup>92</sup> 미국의 해군 장교, 해양학자 (Matthew Maury, 1806-1873). 근대 해양학의 개척자로 평가 받는다.

덕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에 대한 개인의 요구들이 각자의 노동과 항상 일치하지는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그래서 드페페<sup>93</sup>는 이렇게 말하고 있다.

“두드러지게 개인주의적인 이원리는 아이들과 젊은 이들을 위한 교육 (생계와 숙소를 제공하는 교육)을 위한 사회의 개입을 통해 적당히 완화될 것이다. 또 약자와 병자를 돋고나이든 노동자의 은퇴 후를 돋는 사회 기관 등에 의해서도 완화될 것이다.”

그들도 세 아이의 아버지인 40 세의 남자는 20 살짜리 젊은 이와는 다른 욕구들을 갖는다는 사실을 이해하고 있다. 밤새도록 잠을 못 자고 침대 곁에서 아기에게 젖을 먹이는 여성은 평화롭게 잠을 잔 남자 만큼의 일을 할 수가 없다는 사실을 그들도 알고 있다. 사회를 위해 과도한 노동을 하느라 녹초가 된 남자와 여자는 국가 공무원이라는 특권적 지위 때문에 한가하게 시간을 보내면서도 자기주머니에 ‘노동 전표’를 챙겨 넣고 있는 사람들 만큼 많은 일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그들도 이해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들은 자기들의 원칙을 적당히 완화시키기 위해 열심히 애쓴다. 그들은 말한다.

“사회는 아이들을 부양하고 양육할 수 있을 것이다. 또 나이든 사람들과 약한 사람을 도울 수 있을 것이다. ‘일 한 만큼’이라는 원칙을 적절히 완화하기 위해서 사회가 떠맡아야 할 비용을 재는 척도는 의심할 여지 없이 필요가 될 것이다.”

자선, 자선, 언제나 기독교적이던 자선이 이번에는 국가에 의해 조직이 된다. 그들은 고아원을 개선하고 노후 보험과 질병 보험을 시행하면 그 결과로 자기들의 원칙이 완화될 것이라고 믿고 있다. 하지만 그들은 ‘먼저 상처를 입히고 나중에 치료 한다’는 생각은 아직도 버리지 못하고 있다! 그리하여 공산주의를 반대하고 ‘각자에게 필요한 만큼’이라는 코뮌주의 공식을 마음 편히 비웃어 준다음에야, 아주 요경제학자들은 자기들이 뭔가 중요한 것을 잊었다는 점을 깨닫는다. 그것은 바로 생산하는 사람들의 필요와 욕구들이다. 경제학자들은 이제야 이것을 인정하고 있다. 다만 이 필요를 축정하는 것은 국가이다. 필요가 노동과 균형을 이루는지 아닌지를 조사하는 것은 국가인 것이다.

국가는 조금씩 자선을 베풀 것이다. 이 자선은 영국의 빈민 구제 법과 극빈자 수용소에서부터 단지 한 걸음 밖에 떨어져 있지 않다. 거기에는 아주 사소한 차이밖에 없다. 왜냐하면 우리가 반감을 갖고 있는, 사회라고 하는 이 계 모역 시어쩔 수 없이 자신의 개인주의적 원리들을 완화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이다. 이게 모는 또한 코뮌주의 적인 방향으로 양보를 해야 할 것이고, 자선과 같은 방식으로 그렇게 할 것이다.

이게 모는 또한 가게들이 약탈당하지 않게 하려고 반페니짜리 식사를 제공한다. 전염병으로 사회가 황폐해지는 것을 막으려고 대체로는 형편 없지만 때로는 아주 훌륭한 병원들을 짓기도 한다. 또한 노동 한 시간 만큼 보수를 준 후에 자기가 파멸 시킨 사람들의 자녀들에게 주거지를 제공한다. 그들의 욕구들을 고려하고 서는 조금씩 자선을 베푸는 것이다.

우리가 어디에서나 말해 온 것처럼 가난은 부의 첫째가는 원인이었다. 최초의 자본가를 만들어 낸 것은 가난이었다. 왜냐하면 우리가 너무나 많이 듣고 있는 ‘잉여 가치’가 축적되기 이전에, 굶어 죽지 않으려고 자기 노동력을 파는데 동의 할 정도로 빈곤한 사람들이 있어야만 했기 때문이다. 자본가들을 만든 것은 가난이었다. 그리고 중세 시대에 가난한 사람들 수가 매우 빠르게 늘어났던 것은, 국가의 설립에 따른 침략과 전쟁 때문이었다. 그리고 동양에 대한 착취로부터 얻은 부가 증가했기 때문이다. 이 두 가지 원인은 농촌 공동체와 도시 공동체 안에서 함께 살아가던 사람들의 유대 관계를 갈가리 칾어 버렸다. 그리고 그들에게 예전의 부족적인 삶 속에서 실천했던 연대감이 아니라 착취자들의 마음에 쏙드는 임금 제원리를 선언하도록 가르쳤다.

그런데 감히 ‘사회 혁명’이라고 부르는 것으로부터 생겨나는 것이다. 다시 이 임금 제원리인 것이다. 이 ‘사회 혁명’이라는 이름은 굶주린 사람들, 억압 받는 사람들, 고통 받는 사람들에게 너무나도 귀중한 이름이다! 결코 그럴 수 없다. 왜냐하면 프롤레타리아의 도끼 아래 낡은 제도들이 무너지는 날에는 이런 외침들이 울려 퍼질 것이기 때문이다.

“모두에게 빵, 집, 편안한 삶을!”

그리고 사람들은 이 외침들에 귀를 기울일 것이다. 민중은 이렇게 말할 것이다.

“우선 삶에 대한 갈망, 그리고 행복과 자유에 대한 갈망이라는 우리가 한번도 풀어보지 못했던 갈망을 가라앉히자. 이 기쁨을 맛보고 난 다음에는 중산층 지배의 마지막 흔적들을 없애는 일을 시작할 것이다. 회계장부에서 뽑아낸 그들의 도덕, ‘부채와 신용’이라는 그들의 철학, ‘내것과 네것’이라는 그들의 제도들을 없앨 것이다. 프루동은 ‘우리는 파괴하면서 건설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우리는 코뮌주의와 아나키즘의 이름으로 건설할 것이다.”

<sup>93</sup> 벨기에의 의사이자 사회주의자 (César De Paepe, 1841-1890). 그의 저작들은 유럽의 노동 조합 운동과 생디칼리즘 운동에 큰 영향을 미쳤다.



## 14. 소비와 생산

### I

우리는 모든 권위주의 학파와는 다른 관점에서 사회와 그 사회의 정치제도를 바라본다. 왜냐하면 우리는 국가에서 시작해서 개인으로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자유로운 개인에서 시작해서 자유로운 사회로 나아가려고 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경제적 문제들에 있어서도 똑같은 방법을 따른다. 우리는 생산, 교환, 세금부과, 정부 같은 것들을 논의하기에 앞서, 개인의 필요와 욕구, 그리고 그것을 충족시킬 수 있는 수단들을 연구한다. 언뜻 보면 이 차이는 사소해 보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실제로 이 방식은 공식적인 주류 정치경제학의 모든 표준을 뒤엎는 것이다.

누구든 상관 없이 어느 경제학자의 저서를 펼쳐본다면, 여러분은 그가 ‘생산’으로 글을 시작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즉, 분업, 공장, 기계, 자본 축적이라는 부富를 만들어내기 위해 오늘 날 쓰이고 있는 수단들을 분석하면서 시작한다는 뜻이다. 아담스미스에서부터 마르크스까지 모든 경제학자들은 이런 방침을 따르고 있다. 그들은 책의 뒷부분에 가서야 ‘소비’를 다룬다. 다시 말해, 지금 사회에서 개인들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사용하는 수단들을 다룬다는 뜻이다. 그리고 소비를 다룰 때 조차 경제학자들은 자신의 소유를 위해서 경쟁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부富가 어떻게 나누어지는지를 설명하는 것으로 그친다.

어쩌면 여러분은 이것이 논리적이라고 말할지도 모른다. 필요를 충족시키기에 앞서 필요한 수단을 만들어내야 하지 않느냐고 말이다. 하지만 뭔가를 생산하기 전에 여러분은 먼저 그것에 대한 필요를 느껴야 하지 않을까? 인간이 처음 사냥을 하고, 가축을 기르고, 땅을 경작하고, 도구를 만들고, 기계를 발명해낸 것은, 그것이 필요했기 때문이 아닌가? 생산을 관리하는 것은 필요에 대한 연구여야 하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이 필요를 고려하는 것으로 시작하는 것이 적어도 논리적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런 다음에 이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생산이 어떻게 조직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조직되어야 하는지를 논의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정확히 우리가 하려고 하는 일이다. 그러나 이런 관점에서 정치경제학을 살펴보는 순간 정치경제학은 완전히 변화된 양상을 띈다. 정치경제학은 단순히 사실을 기술하는 것이 아니라 과학이 된다. 그리고 우리는 이 과학을 다음과 같이 정의 할 수 있다. ‘인류의 필요에 대한 연구, 그리고 인간에너지를 최소한으로 낭비하면서 그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한 연구’라고 말이다. 그래서 이 학문의 진정한 이름은 ‘사회 생리학’이어야 한다. 이 학문은 식물과 동물 생리학과 비슷하게 구성된 학문이다. 식물과 동물 생리학은 식물과 동물의 욕구를 연구하고, 가장 효율적으로 그 욕구를 충족시키는 방법들을 연구한다. 일련의 사회학안에서 인간 사회를 다루는 경제학은 일련의 생물학안에서 유기체를 다루는 생리학이 차지하고 있는 위치에 놓일 것이다.

여기, 함께 모여서 사회를 만든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모두 견고한 집에서 살고픈 욕구를 느낀다. 원시인의 오두막집은 더 이상 그들을 만족시켜 주지 못한다. 그들은 어느 정도 안락하고 견고한 집을 원한다. 그럴 때 문제는 다음과 같다. 현재의 생산력을 가지고 서 모든 사람이 자기 집을 가질 수 있을까? 그리고 그것을 갖는데 방해가 되는 것은 무엇인가?

이런 질문을 던지자마자 우리는 곧 알게 된다. 유럽에 있는 모든 가족이 안락한 집을 충분히 가질 수 있고, 영국과 벨기에 혹은 풀먼시<sup>94</sup>에 지어진 집 같은 것이나 그와 비슷한 모습을 한 방들을 가질 수 있다고 말이다. 일정한 기간 동안 일을 하면, 통풍이 잘되고 설비가 잘 갖춰져 있으며, 전깃불이 들어오는 아담하고 깔끔한 집을 충분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유럽인의 10 분의 9 는 한 번도 견고한 집을 가져본 적이 없다. 왜냐하면 보통 사람들은 언제나 지배자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날마다 일을 해야만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들은 자기들이 꿈꾸는 집을 짓는데 필요

<sup>94</sup> 미국 워싱턴 주 남동부에 있는 도시

한여가나돈을가져본적이없기때문이다. 지금같은상황들이바뀌지않고그대로인한그들은번듯한자기집을 가질수없을것이며, 계속해서작고초라한오두막에서살것이다.

이렇듯우리의방법은다른경제학자들과완전히다름을알수있다. 이들경제학자들은소위생산의법칙이라 는것을영구화하고매년지어지는집의수를계산한다. 그리고는새로지어진집들의수가모든수요를충족시키 기에는너무나부족하므로유럽인의 10 분의 9 는오두막에서살아야만한다는것을통계로증명하곤한다.

식량문제로넘어가보자. 경제학자들은분업으로생기는이익을세세히나열한다음에, 분업을위해서어떤 사람들은농업에종사해야하고다른사람들은제조업에종사해야한다고말한다. 분업에따라농부들은이만큼 생산하고있고, 공장은저만큼생산하고있고, 교환은이런식으로이루어지고있다고말하면서, 경제학자들은 판매, 이익, 순이익혹은잉여가치, 임금, 세금, 예금등을분석한다. 그러나그렇게멀리까지그들이론을따라 갔는데도우리는조금도더알게된것이없다. 그래서그들에게묻는다.

“각각의농가에서매년 10 명, 20 명, 심지어는 100 명이먹을만큼충분한밀을기를수있는데도, 어떻게수 백만의사람들에게빵이부족한것인가?”

그러면그들은분업, 임금, 잉여가치, 자본등에대해서말한다. 그리고는생산이모든필요를충족시킬만큼 충분하지않다는똑같은결론에도달한다. 그결론이사실이라고할지라도다음질문에대한대답이되지는못한다. “사람은자신에게필요한빵을자기노동으로생산할수있는가없는가? 만약생산할수없다면그를가로막는 것이무엇인가?”라는질문말이다.

여기 3 억 5 천만명의유럽인이있다. 그들은매년아주많은빵, 많은양의고기, 포도주, 우유, 계란, 버터 를필요로한다. 그들은많은집과옷을필요로한다. 이것은그들이필요로하는최소한의것이다. 그들은이모든 것을생산할수있는가? 그리고생산할수있다면, 그들에게예술, 과학, 오락이라는절대적으로필요한것의목 록에는포함되지않는모든즐거움을위한여가시간이충분히있을것인가? 만일그대답이‘그렇다’라면지금무엇 이그들을방해하고있는가? 그들이장애물을치우기위해서는무엇을해야할까? 그러한결과를이루기위해서 필요한것은시간인가? 그렇다면그들이그시간을갖게하자! 하지만모든사람들의필요를충족시킨다는생산의 목적을잊지는말자.

만약사람의가장절박한필요가충족되고있지않다면, 우리는노동생산성을높이기위해무엇을해야만할까? 혹시여기에다른원인이있는것은아닐까? 혹시우리의생산이사람의필요를잊어버리고완전히다른방향 에서잘못헤매고있는것은아닐까? 그래서생산체계가완전히잘못되어있는것은아닐까? 우리는바로그렇다는것을증명할수있으므로, 모든사람들의필요를실제로충족시킬수있도록어떻게생산을재조직할수있는지를 알아보도록하자.

이것만이사태에직면하는유일하게올바른방법처럼보인다. 즉, 정치경제학을사회생리학이란학문이되 도록하는유일한방법인것이다. 사회생리학이지금문명국가들의생산그리고문명화되지않은인도의공동체 들이나원시인들의생산을다루는한, 그학문은현재의경제학자들이말하는것이상의다른사실들을거의말해 주지않을것이다. 다시말해서, 동물학과식물학을다루는장들과유사하게단순히서술만하는장들일뿐이라는 뜻이다. 그러나이장이인간의필요를충족시키는데필요한에너지절약이란점에초점을맞춰서서술된다면, 이 장은제대로된설명일뿐아니라정확한설명도될수있을것이다. 현재의체제에서인간에너지가얼마나심하게 낭비되고있는지를분명히보여줄것이고, 이체제가존재하는한인간의필요는결코충족되지않으리란점을입증할것이다.

그러면우리가보는관점이완전히뒤바뀐다. 아주많은길이의옷감을짜는직조기뒤에서, 강철판에구멍을 뚫는기계뒤에서, 배당금을넣어두는금고뒤에서우리는남들을위해자신이준비한잔치에서대개제외되곤하는숙련된생산자의모습을보게될것이다. 또한우리는소위말하는가치와교환의‘법칙들’은오늘날일어나고있는사건들을아주잘못설명한것일뿐이란사실을이해할수있다. 그리고생산이사회의모든필요를충족시키는 방식으로조직될때는상황이아주다르게돌아갈것임을알게될것이다.

## II

우리의관점에서살펴보면, 그모습이변하지않을정치경제학의원리란단하나도없다. 날마다우리귀에메 아리치고있는단어인‘과잉생산’을예로들어보자. 과잉생산때문에경제위기가일어난다는주장을지지하지않는경제학자, 학회회원, 혹은학회의명예회원후보자가단한사람이라도있을까? 그들은어떤시기에필요한것

보다더많은면직물, 의복, 시계가생산되었기때문에경제위기가온다고말한다. 하지만우리모두는소비할수 있는것보다더많이생산하는일에집요하게매달리는자본가들의탐욕을맹렬히비난하지않았던가!

그러나신중하게조사해보면이모든논증이불합리하다는것을증명할수있다. 사실상, 널리사용되는물품 들중에서필요한것보다더많은양이생산되고있는것이단하나라도있는가? 대규모수출국들에서보내지고있 는모든필수품을하나하나조사해보라. 그러면거의모든것이정작그것들을수출하는나라의주민을위해서는 불충분한양이생산된다는사실을알게될것이다.

러시아농민들이유럽으로밀을보내는것은여분의밀이남았기때문이아니다. 러시아에서밀과호밀이아무 리풍족하게생산되어도오로지그곳의인구가충분히먹을정도로만생산하고있을뿐이다. 일반적으로농민들 은지대와세금을지불하기위해서수확한밀과호밀을팔때, 실제로 1년동안자신에게필요한것까지강제로팔 아야하는실정인것이다.

영국이세계곳곳으로보내고있는석탄도잉여분이아니다. 왜냐하면국내소비를위해서는매년일인당 4분 의 3톤만을남겨둘뿐이라서수백만의영국인이겨울에불을피우지못한채지내거나겨우채소를삶을정도로만 불을피우는실정이기때문이다. 사실, 불필요한사치품들을제외한다면, 영국이다른나라보다많이수출하는 것들중충분히생산되는단하나의필수품은면직물이다. 면직물생산만큼은영국인들이쓰고도남을만큼필요 이상으로많이생산하고있다. 그런데도영국에사는사람들의 3분의 1이상이누더기라고할만한옷들을입고 있는것을보면, 우리는이렇게묻지않을수없다. 즉, 수출하고있는면직물은전체적으로보면국내인구의실제 필요를충족시키지못하는상태에서수출하는것이아닌가?

비록맨처음수출을시작할때는그랬을지모르지만, 수출되고있는것은대개잉여물이아니다. 신발을만들 지만자신은맨발인구두장이우화는예전에기능공들에게사실이었던것처럼국민의경우에도사실이다. 우리는우리자신에게필요한물품들을수출하고있다. 그렇게하는이유는노동자들이자신의임금만으로는자기가 생산한것들을살수가없기때문이고, 그외에도자본가들과은행가들한테임대료나집세나이자를지불해야하 기때문이다. 계속증가하고있는안락한삶에대한욕구도여전히충족되지않고있다. 뿐만아니라생활에꼭필요 한필수품조차도종종부족한실정이다. 그러므로‘과잉생산’이란존재하지않는다. 적어도경제학이론가들이 말하는의미에서의과잉생산은존재하지않는다.

다른사항도한번살펴보자. 모든경제학자들은‘사람은자신이소비하는것보다더많이생산한다’는공인된 법칙이있다고말한다. 즉, 자기노동의결과물로살아가고난다음에도잉여가남는다는것이다. 그러므로땅을 경작하는농가한가구는대여섯가구가먹을식량을충분히생산할수있다. 하지만이런말은우리에게아무런의 미가없다. 만약그것이각각의세대가미래세대를위해서뭔가를남겨놓는다는뜻이라면, 그것은사실이다. 가령, 어떤농부는나무를많이심는데, 이나무는아마앞으로 30~40년혹은 100년을살게될것이다. 그래서농 부의손자들도이나무의열매들을따먹을수있을것이다. 혹은농부가몇에이커의미개척지를개간할수도있다. 그러면미래세대에게남겨진유산이그만큼늘어났다고말할수있다. 이런식으로도로, 다리, 운하, 집과가구 들은다음세대에게전해지는많은‘부’가되는것이다.

그러나우리가의미하는바는이런것이아니다. 우리는농부가자기가소비하는것보다더많이생산한다는말 을듣고있다. 하지만그들은오히려이렇게말해야한다. 국가가언제나농부가생산한것중많은양을세금으로빼 앗아가고있다고말이다. 성직자들은십일조헌금으로빼앗아가고, 지주는지대로빼앗아가고있다. 예전에는 모든계급의사람들이자신들이생산한것을직접소비했다. 예상치못한사고, 조림사업이나도로사업등에드는 비용을따로남겨놓는것을제외하고는말이다. 하지만오늘날생산하는사람들은어쩔수없이하루벌어하루먹 고사는식으로근근이살아가고있고, 나머지생산물은국가, 지주, 성직자, 고리대금업자가빼앗아가고있다.

그러므로우리는이렇게말할것이다. 농업노동자와산업노동자들은자기들이생산한것보다덜소비하고있 다고말이다. 왜냐하면그들은생산물의대부분을강제로팔아야만하고나머지아주작은부분만을가지고만족 해야하는실정이기때문이다.

또한다음과같은점도주목해보자. 만약개인의필요가우리가연구하는정치경제학의출발점이된다면, 우리는틀림없이코뮌주의에도달하게되리라는사실을말이다. 이코뮌주의는가장철저하고경제적인방식으로 우리의모든필요와욕구를충족시켜줄수있는체제이다. 이와는달리, 우리의생산이필요를충족시키는데부합 하는지여부를묻지도않은채현재의생산방식으로부터출발해서이익과잉여가치를목표로삼는다면, 우리는필연적으로자본주의고작해야집산주의에도달하게될것이다. 이둘은현재의임금제도를그대로유지하는두 가지다른형태의제도일따름이다.

사실, 우리가개인과사회의필요를고려하고, 인생의여러발달단계마다나타나는필요를충족시키기위해 사람들이사용하고있는수단들을고려한다면, 곧바로우리는오늘날하고있는것처럼되는대로아무렇게나생 산하는것대신에노력을조직적으로체계화할필요가있음을알게된다. 소수의부자들이점유한부가제대로사

용되지도 않은 채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넘겨진다는 것은 일반적인 이익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점점 분명해지고 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런 방식들 때문에 4 분의 3이나 되는 사람들의 필요가 충족되지 못하고 있다 는 사실도 알고 있다. 따라서 지금처럼 쓸모 없는 것들에 인간의 힘을 낭비하는 것은 범죄와 다름 없는 일이라는 사실도 알고 있다.

더나아가, 우리는 모든 필요한 물품들을 가장 유익하게 사용하는 방법은 그것들 각각을 제일 먼저 가장 절실한 사람들의 필요를 충족시키는데 쓰는 것임을 깨닫고 있다. 다시 말해, 소위 말하는 상품의 '사용 가치'는 흔히 주장되는 것과 달리, 단순히 일시적인 변덕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욕구들을 충족 시킬 수 있는가에 달려 있다는 뜻이다. 그러므로 코뮌주의가 이러한 일에 부합할 수 있는 논리적인 결과가 된다. 다시 말해, 소비, 생산, 교환의 관점을 전체적으로 아우를 수 있는 조직이 코뮌주의라는 뜻이다. 우리의 의견으로는 코뮌주의만이 진정으로 유일하게 과학적인 것이다.

모두의 필요들을 충족 시킬 수 있는 사회, 그리고 이 목적에 맞게 생산을 조직하는 방법을 알고 있는 사회는 산업과 관련된 편견들 역시 깨끗이 쓸어 없애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경제학자들이 흔히 주장하는 '분업이론'을 깨끗하게 없애야 한다. 분업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논의할 예정이다.

## 15. 분업

### I

정치경제학은 사회에서 일어나는 사실을 서술하고, 그것들을 지배계급의 이해관계에 맞게 정당화하는 식으로 언제나 제한적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학은 산업에서 분업을 옹호한다고 선언한다. 분업이 자본가에게 이익을 가져다주고 있기 때문에 원리로 채택된 것이다.

현대 경제학의 아버지인 아담스미스는 마을의 어느 대장장이를 보라고 말했다. 대장장이가 못을 만드는데 숙달되지 않았다면 힘들게 일해도 하루에 고작 200~300 개의 못밖에 만들어내지 못할 것이다. 심지어는 그 못들도 품질이나쁠 것이다. 하지만 못만드는 일 말고 다른 일을 전혀 하지 않는다면, 그는 하루에 2~3 천개의 못을 어렵잖게 공급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아담스미스는 서둘러 결론을 내렸다.

“분업하라, 전문화하라, 더욱 전문화하도록 하라. 오로지 못 대가리나 뾰족한 끝 부분을 만드는 방법만 아는 대장장이들을 기르자. 그러면 우리는 더 많이 생산할 것이다. 우리는 부유해질 것이다.”

일생동안 못만들라는 운명을 선고받은 대장장이는 자기가 하는 일에 모든 흥미를 잃어버릴 것이다. 제한된 기술을 가진 그는 완전히 고용주의 처분에 맡겨질 것이고, 때로 1년 중 넉 달 간 일을 구하지 못할 수도 있다. 그리고 다른 견습생이 그의 자리를 쉽게 대신 할 수 있게 되면, 그의 임금은 더욱 낮아질 것이다. 아담스미스는 이런 모든 점들을 생각하지 않았다. 그가 “분업 만세, 이것이야말로 우리나라를 부유하게 만들 진정한 황금 광맥이다!”라고 외쳤을 때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그의 외침에 합세했을 때 말이다.

나중에 시스몽디<sup>95</sup>나 J.B. 세이<sup>96</sup>가, 분업이란 전 국민을 부유하게 만들어 주기는커녕 부자들을 더욱 부유하게 해줄 뿐이라는 사실을 이해했을 때, 일생동안 브로치의 18 번째 부품을 만드는 운명을 선고받은 노동자는 점점 우둔해지고 가난에 빠지게 된다는 사실을 이해하게 되었을 때, 주류 경제학자들은 무엇을 제안했을까? 아무런 제안도 하지 않았다! 그들은 마음 속에서 조차 다음과 같은 점을 생각하지 않았다. 즉, 평생동안 반복적이고 기계적인 노동을 하면서 혹사당한 노동자는 지성과 발명 정신을 잃어버리게 되지만, 이와 반대로 다양한 직업을 가질 수 있다면 국민 생산성이 눈에 띄게 증가할 것이라는 점을 말이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생각하려는 것이 바로 이 점이다.

그렇지만 분업을 영속화하고 때로 분업을 세습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오직 경제학자들뿐이라면, 우리는 그들이 좋을 대로 떠들라고 내버려두었을 것이다. 하지만 이 박사님들께서 가르치는 생각들은 사람들 의 마음 속으로 스며들어가서 그들이나 뻔길로 빠지게 한다. 그리고 분업, 이익, 이자, 신용 등의 문제가 마치 오래 전에 해결된 것인 양 계속 반복해서 듣다 보면 모든 중산층 사람들과 노동자들 역시 마침내는 경제학자들처럼 주장하게 된다. 그들도 똑같은 미신을 신봉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회주의자들, 심지어 경제학의 오류들을 지적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회주의자들조차 분업을 정당화하는 모습을 보게 된다. 그들에게 혁명 기간 동안에 노동을 조직하는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라. 그러면 그들은 분업이 계속 유지되어야 한다고 대답할 것이다. 즉, 혁명 전에 당신이 장식 브로치를 만드는 일을 했다면, 혁명 후에도 그 일을 계속해야 한다는 것이다. 혁명으로 이제는 하루에 5 시간 이상을 일할 필요가 없게 된 것은 사실이지만, 평생 브로치를 예리하게 만들어야 한다.

<sup>95</sup> 프랑스의 경제학자이자 역사학자 (Jean Sismondi, 1773-1842). 아담스미스의 신봉자였으나 나중에는 노동자 보호를 주장하며 사회주의의 기틀을 닦았다.

<sup>96</sup> 프랑스의 경제학자 (Jean Baptiste Say, 1767-1832). 아담스미스의 학설을 계승, 발전시켰다. ‘세이의 법칙’, ‘3 생산요소론’ 등을 확립했다.

반면 다른 사람들은 당신이 평생 동안 무수한 브로치를 만들도록 기계를 발명할 것이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문학, 과학, 예술 등 보다고 상한 분야의 전문가가 될 것이다. 파스퇴르<sup>97</sup>가 탄저백신을 발견하도록 태어났다면 당신은 브로치를 만들기 위해 태어난 것이다. 그리고 혁명은 두 사람이 각자 맡은 일을 하도록 내버려둘 것이다. 그렇다면 이것은 무시무시한 원리이다. 사회에 너무나 해악이 되고 개인에게는 너무나 잔인한 것이고, 너무나 많은 해로움의 원천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분업이라는 이름처럼 원리를 다양한 실례를 통해서 논의해 보자고 제안한다.

우리는 분업의 결과들을 충분히 잘 알고 있다. 무엇보다 먼저, 우리가 두 계급으로 분열된다는 사실은 분명하다. 한 쪽에는 생산자가 있다. 그들은 아주 적은 양만을 소비하고 생각하는 일로부터는 제외되어 있다. 왜냐하면 그들은 단지 육체 노동만을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들의 두뇌는 활발하게 활동하지 않기 때문에 일도 형편 없이 하게 된다.

반면 다른 쪽에는 소비자들이 있다. 그들은 거의 혹은 아예 아무 것도 생산하지 않으면서도 다른 사람들을 대신 해서 생각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그들은 육체 노동을 하는 사람들의 세계를 전혀 알지 못하기 때문에, 형편 없이 생각한다. 그렇게 해서 기계에 대해서는 아무 것도 모르면서 땅에서 일하는 사람이 있는 한편, 기계를 다루는 사람은 농업에 대한 모든 것을 무시해 버린다.

현대 산업의 아이디어는 자신이 이해할 수도 없고 이해할 필요도 없는 기계를 지켜보고 있는 아이와 아이의 주의가 잠깐이라도 산만해지면 벌을 주는 공장 감독이 있는 상황을 보여준다. 산업적인 농업의 이상은 농업 노동만 하는 사람을 모두 없애고, 여가를 이용해서 틈틈이 증기 경운기와 탈곡기를 운전하는 사람들을 배치하는 것이다. 분업은 사람들에게 꼬리표를 붙이고 낙인을 찍는 것을 뜻한다. 즉, 어떤 사람은 평생 공장에서 밧줄만 꼬아야 하고, 어떤 사람은 공장 감독이 되고, 또 다른 사람은 광산의 특정 부분에서 거대한 석탄차를 밀어야 하는 것이다. 하지만 그들 중 어느 누구도 기계, 산업, 광산업을 전체로서 알지 못한다. 그 결과 그들은 일에 대한 애정과 발명하는 능력을 잃어버리게 된다. 현대 산업의 초기에는 이런 마음과 능력들이 있어서 우리가 그렇게 나자랑스러워하는 기계를 만들었는데 말이다.

그들은 개인에게 적용하고 있는 이 분업을 국가에게도 적용하고 싶어 했다. 인류는 제각기 전문 분야를 가진 나라별 작업장들로 나누어졌다. 우리가 배운 대로, 러시아는 옥수수를 기르기로 본래부터 운명지어진 나라이다. 영국은 면실을 생산하는 운명이고, 벨기에에는 직물을 짜는 운명이다. 반면 스위스는 간호사나 여자가 정교사를 훈련시키는 운명이다. 더 나아가 각각의 도시들도 전문 분야를 확립했다. 리옹은 비단을 짜는 곳이고, 오베르뉴는 레이스를 만들고, 파리는 장신구를 만든다. 경제학자들은 이런 방식으로 생산과 소비가 자유롭게 뻗어나갈 수 있는 광대한 분야들이 열렸고, 이런 방식으로 인류를 위한 무한한 부의 시대가 바로 다가왔다고 말한다.

그러나 나이원대한 야망들은 기술적인 지식이 널리 퍼지자 마자 재빨리 사라져버렸다. 오직 영국만이 면직 물 제조와 대규모 철강 산업의 일인자이고, 오직 파리만이 예술적인 장신구들을 만들어내는 식으로 상황이 돌아가던 특정 시기 동안에는 모든 일이 잘되어 갔다. 경제학자들은 반박당하지 않고서 이른 바 분업이라는 것을 주장할 수 있었다.

그러나 새로운 사고의 흐름 때문에 모든 문명 국가들은 점차 스스로 제조업을 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그 전까지 다른 나라에서 혹은 자기네 식민지들로부터 수입하던 물품들을 자기 나라가 직접 생산하는 편이 유리하다는 점을 깨닫게 되었다. 왜냐하면 식민지 나라들도 이제는 본국에서부터 해방되려는 목적을 갖게 되었기 때문이다. 과학적인 발견들이 생산 방법들을 널리 보편화시키는 역할을 했고, 따라서 자국에서 쉽게 생산할 수 있는 것을 외국에서 서비스 가격으로 들여 올 필요가 없게 되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산업 혁명이 오랫동안 너무나 견고한 것으로 보였던 분업이론에 결정타를 날리는 모습을 이미 보고 있다.

<sup>97</sup> 프랑스의 세균학자 (Louis Pasteur, 1822-1895). 미생물의 자연 발생설을 부정하고, 미생물이 질병의 원인이 됨을 증명했다. 저온 살균법과 광전병 백신 등을 발명했다.

## 16. 산업의분산

### I

나폴레옹전쟁이후 영국은, 18 세기말에프랑스에서나타났던주요산업들을무너뜨리는데거의성공하고 있었다. 영국은또한바다의지배자가되었으며중요한경쟁자들도전혀없었다. 영국은그상황을잘이해했고자신의특권과이익을위해서어떻게그상황을이용해야하는지도잘알았다. 그래서영국은산업에대한독점권을 확립해서, 영국만이제조한상품들을이웃나라에팔때마음대로가격을정하는식으로점점더많은부를쌓아갔다.

그러나 18 세기에프랑스에서일어난부르주아혁명으로농노제가폐지되고프롤레타리아가등장하게되자, 한동안정체되었던프랑스산업이다시일어나기시작했다. 19 세기후반부터프랑스는공업제품에서영국의종속을받지않게되었다. 오늘날에는프랑스역시수출국으로변화했다. 프랑스는 6 천만파운드가넘는공업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데 이 제품의 3 분의 2는 섬유제품이다. 많은 프랑스인이 수출분야에서 일하거나 무역업에 종사하고 있고, 그 수가 대략 300 만명 정도로 추산된다.

그러므로 프랑스는 더 이상 영국에게 종속된 나라가 아니다. 자기 차례가 되자 프랑스도 비단이나 기성복 같은 특정 무역 산업을 무역에서 독점하려고 기를 쓰고 노력했으며 그로부터 막대한 수익을 거두었다. 그러나 영국이 면직물 제품 독점권을 잃어버리고 있는 것처럼 프랑스도 자기의 독점권을 영영 잃어버리는 시점에 와 있다.

동쪽으로 뻗어나가던 산업은 독일에 다다랐다. 50년 전에 독일은 중요한 산업 분야에서 생산되는 대부분의 산업 제품들을 영국과 프랑스에 의존하던 종속국이었다. 이제는 더 이상 그렇지 않다. 지난 50여년 동안, 특히 프랑스-독일 전쟁 이후로 독일은 자국의 산업을 완전히 재조직했다. 새로 지어진 공장들은 최고의 기계 설비를 갖추고 있다. 영국 맨체스터로부터 온 최신의 면직 산업 기술, 프랑스 리옹에서 온 최신 실크 산업 기술들을 이제는 독일의 새로운 공장들도 적용하고 있다. 리옹과 맨체스터에서는 현대적인 기계 설비를 구비하기까지 노동자들 두 세대 혹은 세 세대가 걸렸지만 독일은 완전해진 기계를 바로 도입했다. 산업의 필요에 따라 세워진 기술 학교들은 공장들에 적인 노동자 부대를 보내고 있다. 이들은 육체노동 뿐만 아니라 두뇌도 잘 사용할 줄 아는 실질적인 엔지니어들이다. 독일 산업은 맨체스터나 리옹이 50여년간의 노력들과 실험들이라는 암중모색 끝에도 달한 바로 그 지점에서 시작하고 있다.

독일 국내에서 제조업을 잘해내게 되면서 독일은 프랑스와 영국에서 수입하는 것들을 해마다 줄여나가고 있다. 독일은 공업 제품 생산에서 아시아와 아프리카와 경쟁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런던과 파리와도 경쟁할 정도가 되었다. 근시안적인 프랑스 사람들은 프랑크푸르트 조약에 대해 반대한다고 외칠지도 모른다. 또 영국의 제조업자들은 독일의 경쟁력은 철도 요금이 약간 저렴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할지도 모른다. 그들은 하찮은 문제 점들 만지적하면서 질질끌고 있고, 거대한 역사적 사실을 무시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예전에는 영국과 프랑스가 겪고 있었던 주요 산업들이 점차 동쪽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점은 확실하다. 그리고 주요 산업들은 독일이 짚고, 에너지가 넘치며, 지적인 중산층이 있고, 외국과의 무역으로 부자가 되려고 열심인 나라라는 점을 발견하고 있다.

독일이 프랑스와 영국의 종속에서 벗어나면서 직접 면직물들을 생산하고, 자체적으로 만든 기계들을 설비하고, 사실상 모든 필요 제품들을 제조하는 동안에, 러시아에서도 역시 주요 산업이 뿌리를 내리기 시작했다. 러시아에서 일어난 제조업의 발달은 아주 최근의 일이라서 더욱 교훈적인 점이 많다. 1861년 농노 제지가 폐지될 당시 러시아에는 거의 아무런 공장도 없는 상태였다. 기계를 써서 만들어야 하는 온갖 것들, 철도, 기관차, 좋은 옷감 재료 등이 모두 서유럽에서 수입되었다. 20년이 지나자 러시아는 벌써 8만 5천 개의 공장을 갖게 되었으며, 러시아에서 만들어지는 제품들의 가치도 4배나 올랐다.

낡은 기계들이 교체되었고 오늘 날 러시아에서 쓰고 있는 거의 모든 강철, 4분의 3의 철, 석탄의 3분의 2, 모든 기관차, 객차, 철로, 거의 모든 증기선이 러시아에서 직접 만들어지고 있다. 경제학자들 말대로라면, 농업 지역으로 남을 운명이었던 러시아는 공업 생산을 하는 나라로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 지금 러시아는 영국에서 거의 아무 것도 주문하지 않고, 독일에는 아주 약간만 주문하고 있다.

경제학자들은 이런 사실들이 관세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러시아에서 만들어진 면직물은 런던에서 같은 가격으로 팔리고 있다. 자본에는 국경이 없기 때문에 독일과 영국의 자본가들은 자기 나라의 엔지니어와 감독을 러시아와 폴란드에 데리고 가서 공장을 세우기도 한다. 여기서 만들어지는 제품들은 영국 제품들과 품질의 우수함을 두고 경쟁하고 있다. 앞으로 관세가 폐지된다면, 제조업은 이익만을 얻을 것이다. 얼마 전에도 러시아에 있는 영국인 제조업자들은 서구로부터 수입되는 면직물과 모직물 제품들에 또 다른 강타를 날렸다. 그들은 러시아 남부와 중부에 거대한 모직물 공장들을 세우고는, 영국에서 가져온 완벽한 기계 설비를 갖춰놓았다. 이제 러시아는 영국, 프랑스, 오스트리아에서 최고 품질의 면직물과 모직물만을 수입하고 있다. 나머지는 국내에서 제조되고 있으며, 공장과 가내 공업 모두에서 생산된다.

주요 산업들은 동쪽 뿐만 아니라 남쪽의 반도로도 퍼져나가고 있다. 1884년에 이탈리아 토리노에서 개최된 박람회는 이탈리아의 산업 생산에서 이루어진 진보를 보여주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점에서도 실수하지 말도록 하자. 즉, 프랑스와 이탈리아 중산층들 사이에 존재하는 상호증오는 그들 간의 산업적 경쟁에서 비롯된 것일 뿐이라는 사실 말이다. 스페인 또한 공업국이 되어가고 있는 중이다. 반면 동쪽에서는 보헤미아<sup>98</sup>가 완벽한 기계들을 갖추고 가장 훌륭한 과학적 방법들을 적용하면서, 갑자기 새로운 제조업의 중심지로 중요성을 갖기 시작했다.

우리는 또한 형가리의 주요 산업에서 일어난 급속한 발전을 이야기 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보다는 브라질을 예로 들어보기로 하자. 경제학자들은 브라질에게 앞으로도 영원히 목화를 생산해서 그 원재료를 수출하고,

<sup>98</sup> 체코슬로바키아에서 부지방을 주로 가리킨다. 원래는 오스트리아에 속한 지역이었다.

그대가로 유럽에서 면직물을 받는 나라라는 선고를 내렸다. 실제로 40년 전의 브라질은 385개의 방적 기계를 가진 9개의 보잘 것 없는 면직물 공장밖에 없었다. 오늘날 브라질에는 150만 대의 방적 기계와 5만 대의 직조기를 갖추고 있는 160개의 면직물 공장이 있고, 해마다 5억 야드의 직물을 시장에 내놓고 있다.

심지어 멕시코에서도 이제는 면직물을 유럽에서 수입하는 대신 아주 성공적으로 직접 생산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를 보면 미국은 유럽의 감독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났고, 자기들의 상품 제조 능력을 엄청 날 정도로 의기양양하게 발달시키고 있다. 하지만 국가 산업의 전문화에 맞서는 가장 놀라운 반대 증거를 보여주는 나라는 인도이다.

우리 모두 다 읊어온 것을 알고 있다. 즉, 위대한 유럽 국민은 식민지를 필요로 한다는 이론 말이다. 왜냐하면 식민지는 면화, 가공하지 않은 양모, 향신료 등 원재료를 본국으로 보내주기 때문이다. 그리고 본국은 식민지에 산업 제품들을 보낸다는 미명 아래, 실제로는 손상된 제품들과 고철이 된 낡은 기계 등 자기들이 더 이상 쓰지 않는 것들을 모두 식민지로 보내어 처분한다. 이 일은 비용이 거의 혹은 전혀 들지 않는데도, 어떤 물품들은 때로 터무니 없이 비싼 가격에 팔리곤 한다.

이런 것이 그식민지이론이고 오랫동안 실제로 실행되었던 이론이다. 인도가 황폐해지는 동안 런던과 맨체스터에는 부가 쌓인다. 런던에 있는 인도 박물관에는 영국 상인들이 캘커타와 봄베이에서 수집한 전대 미문의 재화(財貨)들을 볼 수 있다. 하지만 영국의 다른 상인들과 자본가들은 다음과 같은 아주 간단한 아이디어를 생각해냈다. 즉, 인도가 매년 2천 만 파운드에서 2천 400만 파운드 어치의 면제품을 수입하게 하는 것보다, 직접 면직물을 생산하게 해서 그 곳 주민들을 착취하는 것이 훨씬 편리할 것이라고 말이다.

처음에 행해진 일련의 실험들은 계속 실패로 끝났다. 수공예 분야에서는 나름대로 장인들이고 전문가인 인도의 직조공들은 공장 생활을 견뎌 낼 수가 없었고, 영국 리버풀에서 보내온 기계는 불량품이었다. 날씨도 고려해야 했고, 상인들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야 했다. 어쨌든 이제는 이 문제는 완전히 극복되었다. 영국령 인도는 오늘 날 본국인 영국과 경쟁하는 위협적인 라이벌이 되어가고 있다.

지금 인도에는 대략 23만 명의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는 200개 이상의 면직물 공장이 있는데, 이 공장들에는 600만 대 이상의 방적 기계와 8만 대 이상의 직조기가 있다. 그리고 40만 대의 황마 방적 공장도 있다. 인도는 매년 중국, 네덜란드, 렉동인도 제도<sup>99</sup> 그리고 아프리카에 800만 파운드 상당의 흰 면직물을 수출하는데, 이것들은 영국 특산 품으로 여겨진다. 그리고 영국의 노동자들은 때때로 실직해서 대단히 궁핍한 상태로 지내는 반면, 인도의 여성들은 하루에 6펜스의 임금을 받으면서 극동지방으로 보낼 면직물을 기계로 짜고 있다.

간단히 말해 영리한 제조업자들은 이전까지 영국에서 수출했던 면직물을 짰던 '공장 일꾼들'을 데리고, 자기들이 뭘 해야 할지 모르게 되는 날이 머지 않았다는 사실을 충분히 깨닫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인도가 영국에서 단 1톤의 철도 수입하지 않게 되리라는 사실도 점점 더 분명해지고 있다. 인도에서 생산되는 석탄과 철광석을 활용하는 일에서 생긴 초기의 어려움은 극복되고 있다. 그리고 영국과 경쟁할 만한 용광로들이 인도 양연 안지역에 건설되고 있다. 식민지들은 자기가 생산한 공업 제품들을 가지고 본국과 경쟁하고 있다. 이것이 바로 20세기의 경제를 좌우하게 될 요인이다.

그런데 왜 인도가 제조업을 하지 않겠는가? 무엇이 방해를 하는 것일까? 자본? 하지만 자본은 착취할 수 있는 가난한 사람들이 있는 곳이면 어디든지 간다. 지식? 하지만 지식은 어떤 국경도 인정하지 않는다. 노동자들의 숙련된 기술? 아니다. 인도의 노동자들이 지금 영국의 직물 공장에서 일하고 있는 18세 도안된 수많은 소년 소녀들 보다 더 열등하다는 말인가?

## II

국가적인 산업들을 잠깐 살펴본 다음에 몇몇 특별한 분야로 눈을 돌리면 아주 흥미로울 것이다. 19세기 전반기에 프랑스의 특산 품이었던 실크를 예로 들어보자. 우리 모두는 리옹이 어떻게 실크 무역의 중심지가 되었는지를 알고 있다. 처음에는 남부 프랑스에서 실크 원재료를 가져왔다. 그러다가 더 많은 실크 직물 제조를 위해서 점차 이탈리아, 스페인, 오스트리아, 코카서스<sup>100</sup>, 그리고 일본에 주문을 하게 되었다. 1875년에 리옹 부근에서 실크 제품으로 만들어진 500만 킬로그램의 실크 원재료 중에서 프랑스 것은 고작 40만 킬로그램뿐이었다.

하지만 리옹이 실크 원재료를 수입해서 실크를 제조할 수 있다면, 스위스, 독일, 러시아 같은 나라들이 왜 그렇게 하지 않겠는가? 결국 스위스 취리히 근방 마을에서 실크 제조업이 발달하기 시작했다. 스위스 바젤은 실크 무역

<sup>99</sup> 현재의 인도네시아

<sup>100</sup> 흑해와 카스피 해 사이에 있는 지역으로, 예전에는 아제르바이잔, 아르메니아, 그루지야 같은 소비에트 공화국이 있었다.

의거대한중심지가되었다. 코카서스행정부는그루지야사람들에게완벽하게누에치는방법을가르치고코카서스농민들에게견사를견직물로짜는기술을가르치기위해서프랑스마르세유출신여성들과리옹출신의노동자들을고용했다. 오스트리아가그뒤를따랐다. 그다음에는독일이리옹출신노동자들의도움을받아서거대한실크공장들을세웠다. 마찬가지로미국도패터슨시에공장을세웠다.

오늘날실크무역은더이상프랑스가독점하는분야가아니다. 실크는독일, 오스트리아, 미국, 영국에서도만들어지고있고, 지금프랑스에서사용되는실크제품의 3 분의 1 은수입된것으로계산되고있다. 겨울에코카서스농민들은리옹의실크직조공들이라면굶주릴정도의임금을받으면서비단손수건을짜고있다. 이탈리아와독일은프랑스로실크를보내고있다. 리옹은 1870 년에서 1874 년사이에 4 억 6 천만프랑의실크직물을수출했지만, 지금은고작그것의절반정도밖에수출하지못하고있다. 사실, 리옹이보다고급스러운제품들과패턴이새로운신제품들만을독일, 러시아, 일본에보낼날이미지않았다.

그리고모든산업에서마찬가지일들이일어나고있다. 벨기에는더이상옷감을독점하는나라가아니다. 옷감은독일, 러시아, 오스트리아, 미국에서도만들어지고있다. 스위스와프랑스의쥐라산맥지역은더이상시계제조를독점하고있지않다. 시계들은어디에서나만들어지고있기때문이다. 스코틀랜드는더이상러시아에보낼설탕을정제하지않는다. 정제된러시아설탕이영국으로수출되고있기때문이다. 석탄과철강이나지는않지만, 이탈리아는자기네증기선에필요한금속판과엔진을직접만들고있다.

화학산업도더이상영국이독점하고있지않다. 황산과소다는심지어우랄지방<sup>101</sup>에서도만들어진다. 스위스빈터투어에서만들어진증기엔진은모든곳에서명성을얻었다. 오늘날스위스는석탄도철도생산이안되고교역할무역항도없으며, 가진것이라곤훌륭한기술학교들밖에없지만, 영국보다품질이좋고더저렴한기계들을만들고있다. 교환이론은이렇게끝이난다. 다른모든것과마찬가지로, 무역이나아가는경향은분산화로향하고있다.

모든나라들이농업을최대한으로다양한공장들과결합시키는것이유리하다는사실을알아차리고있다. 경제학자들이소리높여외친전문화는분명히소수의자본가들을부유하게해주고있지만, 이제는더이상별로쓸모가없다. 이와달리, 모든지역과모든나라가자기네가면을밀과채소들을기르고소비할상품을대부분국내에서제조하는것이유리하다. 다양성이야말로상호협동에의한생산의완전한발달을약속하는가장확실한보증이자진보의원동력이다. 반면에전문화는이제진보의방해물이다. 농업은공장들과가까운곳에서만번영할수있다. 그리고하나의공장이나타나자마자곧수많은다양한공장들이주위에생겨날것이다. 그러면그들은자기들이발명한것을가지고서로를지원하고자극하면서생산성을증가시켜나갈것이다.

### III

밀을수출하고밀가루를수입하는것, 양모를수출하고모직물을수입하는것, 철을수출하고기계를수입하는것은정말로어리석은일이다. 왜냐하면물품수송에는시간과돈이낭비될뿐만아니라, 무엇보다도산업이발달하지못한나라는불가피하게낙후된농업국가로남아있어야하기때문이다. 마지막으로다양한분야의산업을실제로응용해보지않는다면, 그나라의산업적기술적능력들은발달되지못하고정체된채남아있을것이기때문이다.

오늘날생산의세계에서는모든것이서로연결되어있다. 땅을경작하는일은더이상기계없이, 대규모의관개시설없이, 철도없이, 비료공장없이는가능하지않다. 그리고이기계, 철도, 관개시설에쓰이는엔진등을들여오기위해서는특정한발명정신과일정수준의기술력이발달해야한다. 반면삽과쟁기가유일한경작도구로남아있는한이런정신들은잠들어있을것이다.

논밭이적절하게경작되고그곳에서사람들이기대할권리가있는풍성한수확물을산출하려면논밭에서아주멀지않는곳에작업장들, 주물공장들, 공장들이생겨나는것이꼭필요하다. 직업의다양성과그로부터생겨나는기술의다양성, 이들은공동의목적을위해서함께일하고있다. 이것들이야말로진보의진정한힘이다. 그렇다면이제인구가많든적든상관없이어떤도시혹은어떤지역의주민이처음으로사회혁명으로향하는길에들어섰다고상상해보자.

<sup>101</sup> 유럽과아시아의경계지역으로북빙양에서카스피해까지뻗은거대한우랄산맥이자리하고있다.

우리는 종종 “아무것도 변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듣는다. 즉, 광산, 공장 등이 수용되고 국민 혹은 공동체의 소유라고 선언되고나면, 모든 사람은 자신의 평상시 일로 돌아갈 것이고 그렇게 되면 혁명이 달성될 것이라는 식이다. 하지만 이것은 순전히 꿈일 뿐이다. 사회 혁명은 그렇게 간단하게 일어날 수 없다.

이미 이야기 했듯이 혁명이 앞으로 파리, 리옹, 혹은 어느 도시에 선가 일어나서 노동자들이 공장, 주택, 은행 등을 손에 넣게 되면, 그렇게 했다는 단순한 사실만으로도 지금의 생산은 완전히 혁명적으로 변화할 것이다. 국제 무역은 곧 정지하게 될 것이고, 그래서 외국산 빵 재료들의 수입도 중단될 것이다. 필수 품들과 식량의 유통이 마비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반란이 일어난 도시나 지역은 어쩔 수 없이 자기들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자체적으로 공급을 해내야 하고, 생산을 재조직해야 한다. 만약 그렇게 하는데 실패한다면, 그걸로 끝이다. 그렇게 하는데 성공한다면, 그 나라의 경제 생활은 혁명적으로 변화할 것이다.

수입 하던 식량의 양이 줄어들고, 소비는 증가하고, 수출을 위해 일하던 100 만 명의 파리 시민이 일자리를 잃을 것이다. 오늘 날 멀고 가까운 나라에서 수입하고 있는 수많은 물품들이 목적지에도착하지 못할 것이고, 사치 품 교역도 일시적으로 정지될 것이다. 그렇다면 혁명이 일어난 뒤 6 개월 동안 그 주민은 무엇을 먹어야 할까?

우리 생각으로는, 식량을 보관했던 창고들이 비게되면 대다수 사람들이 자기들이 먹을 음식을 땅에서 얻으려고 애쓸 것이다. 그들은 땅을 경작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게 될 것이다. 파리 근교나 그 지역 근방에서 농업 생산과 산업 생산을 결합할 필요성을 느낄 것이다. 그들은 그저 자랑거리에 불과한 작업들을 포기하고 가장 절박한 필요인 ‘빵’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도시의 수많은 시민이 도시 농부가 되어야 할 것이다. 지금의 농부들처럼 지치도록 일하는 방식은 아니다. 지금 농민들은 겨우 1 년 동안 먹고 살 식량을 간신히 얻을 수 있는 돈을 벌려고 힘들게 농사일을 하고 있다. 하지만 이제는 인간이 발명했고 발명하게 될 가장 훌륭한 기계를 대규모로 적용한 집약 농업의 원리가 마켓가든<sup>102</sup> 원리를 따르는 농업을 하게 될 것이다. 도시민들은 땅을 경작할 것이지만 짐나르는 짐승처럼 일하지는 않을 것이다. 파리의 보석상은 그렇게 일하기를 거부할 테니까 말이다. 그리고 미래가 아니라 지금 당장, 혁명적인 투쟁이 일어나고 있는 동안, 적에게 패배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속에서 이런 일을 할 것이다.

농업은 합리적인 방식으로 행해져야 할 것이다. 지금 시대의 경험을 적절히 활용하고, 유쾌한 일을 하는 즐거운 무리들로 스스로를 조직하는 남녀들에 의해 농사일이 행해져야 할 것이다. 마치 100 여년 전 프랑스 ‘연맹축제’<sup>103</sup>를 위해 파리의 샹드마르스 광장에서 일했던 사람들처럼 말이다. 과도하게 일하지는 않으면서, 과학적으로 조직되고, 자신이 쓸 농기구들을 발명하고 개량하면서, 자신이 공동체에 쓸모 있는 사람임을 자각한다면 일은 즐거운 것일 것이다.

물론 그들이 밀과 귀리만을 재배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들은 또한 예전에는 외국에서 주문했던 것들도 생산할 것이다. 그리고 반란이 일어난 지역의 주민들에게 ‘외국’이란 혁명 운동에 가담하지 않은 모든 지역을 뜻한다는 점을 잊지 말자.

1793년과 1871년에 일어난 혁명 기간 동안 파리시는 ‘외국’이 멀리 떨어진 나라 만이 아니라 바로 같은 나라 안의 아주 가까운 지역까지 의미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1793년과 1794년에 프랑스트루아시의 곡물 투기꾼들은 파리의 상퀼로트<sup>104</sup>들을 짊어 죽게 만들었다. 이것은 베르사유 궁전의 음모자들에 의해 프랑스로 들어온 독일 군대 만큼이나 추악하고 심지어는 사악한 짓이었다. 반란을 일으킨 도시는 어쩔 수 없이 이들 ‘외국인들’ 없이 해나가야 할 것이다. 그리고 왜 못 하겠는가? 프랑스는 나폴레옹 1세가 시행한 대륙 봉쇄 시기 동안에 사탕수수가 부족해지자 사탕 무로 설탕을 만드는 법을 고안했다. 파리 시민은 더 이상 외국에서 초석(질산 칼륨)을 수입할 수 없게 되자 자기들 지하실에서 캐냈다. 과학의 가장 기본이 되는 원리 조차 제대로 알지 못했던 우리 할아버지 세대보다 우리 가 과연 더 열등할까?

혁명은 주요 정치 체제의 단순한 변화 이상이다. 그것은 인간의 지성이 깨어나는 것을 의미한다. 혁명은 발명 정신이 10 배, 100 배로 증가하는 것을 의미하고, 새로운 과학의 여命을 의미한다. 즉, 라플라스<sup>105</sup>, 라마르

<sup>102</sup> 시장과 식당에 내놓을 목적으로 채소와 과일을 재배하는 방식, 일반 농장보다 상대적으로 작으며, 직거래가 많기 때문에 다양한 채소와 과일을 혼작한다.

<sup>103</sup> 1790년 파리 버스티유 감옥 탈환 일주년을 기념하기 위해서 7월 17일에 개최된 축제. 축제 일주일 전부터 약 20만 명의 사람들이 샹드마르스 언덕을 평평하게 하는 작업을 하면서 출겁게 축제를 준비했다고 한다.

<sup>104</sup> 원래는 노동자, 수공업자, 소상인, 소자작농, 농업 노동자를 의미함. 프랑스 대 혁명 당시에는 혁명을 이끈 민중 세력을 의미하는데, 부유한 시민과 귀족 계급이 입는 반바지 (퀼로트) 가 아닌 긴 바지를 입은 하층 계급을 일컫는다. 많은 이들이 자코뱅파 등 의 좌익과 격파에 참여했다.

<sup>105</sup> 프랑스의 수학자이자 천문학자 (Pierre de Laplace, 1749-1827). 수리 물리학의 창시자 중 하나로 평가 받는다. 저서로는 『천체 역학』 등이 있다.

크<sup>106</sup>, 라부아지에<sup>107</sup> 같은 과학자들의 새로운 과학의 출현을 의미한다. 혁명은 제도들을 바꾸는 혁명보다 훨씬 깊고, 더욱 깊어져 간간 정신의 혁명을 의미한다.

그런데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경제학자들이 여전히 있을 것이다. 일단 혁명이 완수되고나면, 모든 사람 이 자신의 일터로 돌아갈 것이라고 말이다. 혁명이 마치 가까운 숲으로 산책을 나갔다가 집으로 돌아가면서 거처 가는 그런 것인 양 말이다! 무엇보다 먼저 중산층의 재산에 손을 댄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작업장, 조선소, 공장들에서의 경제 생활 전체를 완전히 재조직할 필요성이 있음을 뜻할 것이다.

그리고 혁명은 분명히 이런 방향으로 움직일 것이다. 만약 파리 시가 사회 혁명 기간 동안 중산층의 지배를 지지하는 사람들에 의해 1~2년 정도 세상으로부터 고립된다면, 아직 공장 생활에 얹 압당하지 않은 수많은 지식인들은 인간 정신이 무엇을 성취해낼 수 있는지를 보여줄 것이다. 즉, 발명 정신을 자극하는 소규모 사업들의 도시인 파리에서 그들은 빛을 만들어내는 태양의 힘, 불순 물들을 쓸어내는 바람의 힘, 우리가 딛고 선 대지에 활동하고 있는 고요한 생명력을 제외하고는 어떤 도움도 구하지 않으면서 인간 정신이 무엇을 성취해내는지를 보여줄 것이다.

그때가 되면 우리는 지구상의 한 지점에서 얼마나 다양한 작업들이 서로 협력하고, 혁명에 의해 활기차게 활동 할 수 있는지를 알게 될 것이다. 이 직업들은 사람들에게 음식, 옷, 집을 제공해 줄 것이고, 수많은 지성적인 사람에게 온갖 사치스러운 취미까지 제공해 줄 것이다. 이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우리가 허구를 지어낼 필요는 없다. 우리가 확신하고 있는 것, 이미 실험해보았던 것, 그리고 실제적이라고 인정된 것만으로도 충분히 혁명을 이뤄낼 수 있다. 만약 이 시도가 혁명의 대담한 격려와 민중의 자발적인 추진력으로 활기차고 풍요로워진다면 말이다.

---

<sup>106</sup> 프랑스의 동물학자이자 진화론자 (Jean de Lamarck, 1744-1829). 생물이 환경에 적응하면서 필요한 기관은 발달하고, 불필요한 기관은 퇴화한다는 ‘용불용설’을 발표했다.

<sup>107</sup> 프랑스의 화학자 (Anton Lavoisier, 1743-1794)로 근대 화학의 아버지라고 불린다. 공기가 혼합물이라는 것을 증명했고, 연소의 본질을 밝히는 등 화학에 많은 기여를 했다.

## 17. 농업

I

정치경제학은 결정적으로 잘못된 원리로부터 모든 추론을 이끌어내고 있다는 비난을 종종 받는다. 잘못된 원리란, 인간으로 하여금 자신의 생산력을 증대시키게 만드는 유일한 동기는 가장 좁은 의미에서의 개인적이익이라는 것이다.

그 비난은 전적으로 옳다. 왜냐하면 위대한 산업적 발견과 진정한 산업적 진보가 이루어진 시기는 모두가 행복하리라는 희망에 사람들이 고무되고, 개인적으로 부유해지는 것은 별로 생각하지 않았던 시기와 정확히 일치하기 때문이다. 위대한 과학자들과 위대한 발명가들은 무엇보다도 인류에게 보다 큰 자유를 가져다 주려는 목적을 갖고 있었다. 만약 와트<sup>108</sup>, 스티븐슨<sup>109</sup>, 자카르<sup>110</sup> 같은 사람들이 자기들이 잠못 이루고 보낸 밤들이 노동자들에게 어떤 비참한 상황을 가져왔는지를 미리 알 수 있었다면, 그들은 틀림없이 자기들의 설계도를 불태워버렸거나 모형들을 부숴버렸을 것이다.

정치경제학에 널리 퍼진 또 다른 원리도 똑같이 잘못된 것이다. 이 원리는 어떤 분야에서 종종 과잉 생산이 되는 데도 불구하고 사회에는 결코 모든 사람의 결핍을 채워줄 만큼 생산이 충분하지 않다는 원리이다. 그리고 어느 누구도 임금을 받으려고 자기 노동력을 팔아야 할 필요가 없게 되는 날은 결코 오지 않으리라는 원리이다. 모든 경제학자는 일반적으로 이 원리를 암묵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이 암묵적인 정은 모든 이론과 경제학자가 가르치고 있는 이론 바모든 ‘법칙들’의 기초에서 발견할 수 있다.

그럼에도 개인들로 이루어진 문명화된 단체가 모두에게 필요한 욕구와 그것을 충족시킬 수 있는 수단들이 무엇인지를 스스로 묻게 되는 날이 올 것이다. 그러면 그들은 농업에서 외마찬 가지로 산업에서도, 이미 모두의 욕구를 충분히 충족시킬 수 있는 수단들을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진정한 욕구들을 충족시키기 위해 이 수단들을 어떻게 이용할지를 알고 있다는 조건에서 말이다.

산업과 관련해서 이것이 사실이란 점은 아무도 반박할 수 없을 것이다. 실제로 우리가 생산을 벌써 4 배 이상 증가시킬 수 있었을 것이고, 그럼에도 지금 쓰고 있는 것보다 노동력을 덜 들일 수 있었을 것이라는 점을 깨닫기 위해서는 이미 활용되고 있는 과정들을 연구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즉, 석탄과 광물을 채굴하는 과정, 강철을 생산하고 활용하는 과정, 대규모로 의류를 제조하는 과정들 말이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농업도 마찬가지 상황이라고 주장한다. 즉, 땅을 경작하는 사람들은 제조업자들과 마찬가지로 진작자기들의 생산을 4 배 뿐만 아니라 10 배까지도 증가시킬 수 있었다. 그들은 그럴 필요를 느끼자마자 실제로 그렇게 할 수 있다. 현재의 자본주의 적제도 대신에 사회주의 적작업체계가 세워지자마자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이다.

농업에 대해 이야기 할 때마다 사람들은 쟁기를 끄느라고 몸을 구부린 농부를 상상한다. 그 농부는 제대로 선별 도 안 된 옥수수 씨앗을 아무렇게나 땅에 뿌리고는 좋고 나쁜 날씨에 따라 어떤 수확이 있을지를 마음졸이며 기다린다. 또 사람들은 아침부터 밤까지 일하는 농부가 죽이 그 결과로 얻는 것은 거친 잠자리, 마른 빵, 질 낫은 음료뿐이라고 생각한다. 한마디로, 농부를 ‘미개인’으로 상상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런 비참한 처지에 빠진 사람들에게 사회가 제공해 줄 수 있는 최선의 구제책은 세금과 지대를 경감해 주는 것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회 개혁가들은 차도 다음과 같은 농민을 떠올려보는 일에는 관심이 없다. 즉, 허리를 똑바로 평고, 여가를 즐기며, 하루에 몇 시간만 일해서 자기 가족을 위한 충분한 식량을 생산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적어도 100 명의 사람들에게 공급해 줄 수 있는 식량을 생산하는 농민의 모습 말이다. 사회주의자들이 꿈꾸는 미래에 대한 가장 빛나는 꿈에서 조차 미국의 대규모 조방 농업<sup>111</sup> 이상으로 나아가지 못 한다. 이런 농업은 결국 농업 기술에서는 유아기에 불과한 데도 말이다.

하지만 의식 있는 농부는 오늘 날 더 폭넓은 아이디어들을 가지고 있다. 그가 구상하는 것은 그 규모가 훨씬 웅장하다. 한 가족이 먹을 만큼 충분한 채소들을 기르는데는 1 에이커보다 훨씬 작은 규모의 땅만이 필요하다. 25 마리의 소를 먹이는데도 이전에 한 마리를 키우던 땅이상의 공간이 필요하지 않다. 그가 하려는 일은 토양을 비옥하게 만들고, 계절과 날씨를 크게 개의치 않고, 어린 작물들 주변의 공기와 땅을 따스하게 해주는 것이다. 한마디로, 예전에 50 에이커에서 수확했던 것을 1 에이커의 땅에서 생산하면서도 과거에 비해 총 노동량을 크게 줄여서 과도한 노동이라는 고역을 없애려는 것이다. 그 농부는 각자가 즐겁고 기쁘게 제공할 수 있는 시간 이상을 농사일에 쓰지 않으면서도, 모든 사람에게 식량을 제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다. 이것이 현재 농업의 경향이다.

농화학의 창시자인 리비히 (Liebig)<sup>112</sup>를 따르는 과학자들은 종종 단순한 이론들에 지나치게 열중해서 잘못된 방침을 시행하곤 했다. 반면에 별로 많아 배우지 못한 농부들은 번영으로 가는 새로운 길을 열어젖혔다. 파리,

<sup>108</sup> 스코틀랜드의 엔지니어, 발명가 (James Watt, 1736-1819). 증기기관을 완성했다.

<sup>109</sup> 증기기관 차를 완성시켜 세계 최초로 기차를 달리게 한 사람. (Georg Stephenson, 1781-1848)

<sup>110</sup> 프랑스 기술자이자 발명가 (Jacquard, 1752-1834)로, 자카르 방직기를 발명해서 프랑스 견직물 공업에 혁신을 가져왔다.

<sup>111</sup> 자연의 힘에 많이 의지하고, 자본과 노동력을 적게 투입하는 대규모 농업. 집약 농업의 반대 개념.

<sup>112</sup> 독일의 화학자 (Justus von Liebig, 1803-1873)로 클로로포름과 클로랄을 발견했다.

트루아, 루앙의 마켓가드너들<sup>113</sup>, 영국과 스코틀랜드의 텃밭 정원사들, 플랑드르와 롬바르드지방의 농부들, 영국 해협에 있는 저지섬과 건지섬의 농부들, 시실리섬의 농부들은 우리의 정신이 쉽게 파악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광대한 지평선을 열어주고 있다. 최근까지 농부한 가족이 땅에서 생산하는 것으로 먹고 살기 위해서는 최소한 17 에이커에서 20 에이커의 땅이 필요했고, 우리는 그들의 삶이 어떤지를 알고 있다. 하지만 집약농업으로 땅을 경작하게 되면, 농가에 필요한 모든 것을 생산하기 위해서 최소한으로 필요한 면적이 얼마인지 조차 말할 수 없다. 심지어 사치품들까지 포함해서 농부가족에게 필요한 것이 계속 늘어날지도 모른다.

20년 전에도 이미 다음과 같이 주장할 수 있었을 것이다. 즉, 영국이 아무것도 수입하지 않아도 3 천만 명 정도는 국내에서 기를 것만으로 잘 살 수 있다고 말이다. 그러나 프랑스, 독일, 영국에서 최근에 이루어진 진보를 보면, 그리고 우리 앞에 열린 새로운 지평을 찬찬히 살펴보면,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다. 이미 많은 곳에서 행하는 방식으로 땅을 경작한다면, 척박한 토양에서 조차 5~6 천만 명의 주민이 영국에서 살 수 있을 정도로 수확할 수 있다고 말이다. 그리고 이 정도의 수확량은 땅에서 이끌어 낼 수 있는 것의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고 말이다.

어떤 경우이든지 (우리가 지금 보여주려는 경우처럼), 우리는 다음과 같은 가정을 완전히 입증된 것으로 여길 수 있다. 즉, 앞으로 파리와 파리 근교의 센과 셀에 투와즈 지역이나 키스트코뮌으로 스스로를 조직하게 된다면, 그들은 모두 가직 접일을 해서 자기들에게 필요한 모든 옥수수, 고기, 채소들을 생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지금은 사치스럽게 여기는 채소들과 과일들 역시 모두에게 충분할 만큼 생산할 수 있을 것이다. 설령 전 세계가 그 곳에 단 1 부셸의 밀, 한 마리의 소, 한 바구니의 과일 조차 보내지 않고, 오로지 그들이 알아서 살도록 내버려둔다 고 해도 말이다.

그에 더해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점도 확실히 말할 수 있다. 즉, 이렇게 자급하는데 드는 노동의 총량은 지금이 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먹이는데 들어가는 노동의 총량보다 훨씬 적은 것이란 점이다. 현재 이곳 사람들에게는 오베르뉴와 러시아에서 수확된 곡물, 조방농업으로 여기저기에서 조금씩 생산되는 채소들, 그리고 남부 지역에 서 자란 과일들이 필요하다.

그렇다고 우리가 모든 교환이 없어지길 바라는 게 아니란 점은 아주 분명하다. 또한 각 지역이 기후 때문에 약간은 인위적인 방식으로 만재 배되는 것들을 생산하려고 애쓸 필요가 없다는 사실도 아주 자명하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실에는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즉, 오늘 날이 해되는 것과 같은 교환이론은 이상하리 만큼 과장되어 있으며, 그런 교환은 대개 쓸모가 없거나 해가 되기까지 한다는 사실이다.

더 나아가 우리는 확실하게 주장한다. 사람들은 남부에서 포도를 재배하는 사람들이나 러시아와 헝가리에서 곡물을 재배하는 사람들의 막대한 노동에 대해서는 한번도 제대로 생각해 본 적이 없다고 말이다. 그들이 지금하고 있는 과도한 노동은 현재의 조방농업 방법 대신에 집약영농법을 받아들인다면 아주 많이 줄어들 것이다.

## II

우리의 주장들을 뒷받침해주는 무수한 사실들을 여기서 모두 인용하기는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더 많은 정보를 얻고 싶은 독자들은 내가 쓴 다른 책 『농장, 공장, 작업장』을 읽어보면 될 것이다.

어떤 농업이 가능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아무런 실제적인 개념을 갖지 못한 도시 주민의 경우, 우리는 그들에게 인근에 있는 시장용 채소들을 기르는 텃밭 (마켓가든)을 조사해보길 권한다. 도시인들은 마켓가드너들을 잘 관찰하고 질문을 던져 볼 필요가 있다. 그러면 그들 앞에 새로운 세계가 열릴 것이다. 그렇게 되면, 대도시 주민도 20 세기에 유럽의 농업이 어떤 모습이 될지를 알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그들은 땅으로부터 우리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얻어내는 비밀을 알게 되었을 경우, 사회 혁명이 어떤 힘으로 무장할 수 있는지도 이해하게 될 것이다.

우리의 주장들이 결코 과장이 아니라는 점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몇 개의 사실만으로도 충분할 것이다. 다만 몇 가지 일반적인 이야기만을 하려고 한다. 우리는 유럽의 농업이 얼마나 비참한 상황인지 알고 있다. 농부는 지주에게 수탈당하거나 아니면 국가에게 강탈당한다. 국가가 농부에게 세금을 적당히 부과할지라도, 고리대금업자가 약속어음을 이용해서 그를 예속할 것이고, 곧이어 농부는 실제로는 금융회사가 소유한 땅을 단지 경작만 하는 단순 소작인이 되어버린다. 땅 주인, 국가, 은행가는 이런 식으로 지대, 세금, 이자를 이용해서 농부를 수탈한다. 농부들이 수탈당하는 총량은 각 나라마다 다르지만, 생산물의 4 분의 1 이하는 결코 아니며, 생산물의 2 분의

<sup>113</sup> 시장에 내다 팔 목적으로 채소나 과일 등을 재배하는 사람들.

1 까지빼앗기는경우도허다하다. 아주최근에프랑스와이탈리아농부들은총생산량의 44 퍼센트를국가에세금으로지불했다.

게다가땅주인과국가가가져가는몫은계속해서오르기만한다. 농부가뛰어나게일을잘하고, 발명정신과창의력을발휘해서보다많은수확을하자마자땅주인, 국가, 은행가에게지불해야하는대금도그에비례해서증가할것이다. 에이커당수확량을두배로만들면지대와세금도두배가된다. 그리고국가는농산물가격이올라가면세금을더많이걷을궁리를할것이다. 계속그런식이다. 간단히말해, 어디서나농부는하루에 12 시간에서 16 시간까지일을한다. 그러면방금말한세약탈자들은농부가저축할수도있었을모든것을빼앗아간다. 그들은어디에서나농부가자신의경작방법을개선시키게해주었을것들을도둑질해간다. 농업이그토록천천히진보하고있는것은바로이런이유때문이다.

농부는우연히약간의진보를이룰수있을뿐이다. 어떤예외적인지역에서이들세흡혈귀들사이의싸움에뒤따르는대단히예외적인상황아래에서말이다. 그런데우리는모든농부들이제각기제조업자에게지불해야하는돈에대해서는아직언급조차하지않았다. 모든기계, 삽, 화학비료등은농부에게원가보다서너배더비싸게팔린다. 농산물의가장좋은몫을떼어가는중간상이도잇지말아야한다.

모든발명과진보의시대인 19 세기에도, 농업만은아주제한된지역에서이따금씩만진보해나가고있는것은바로이런이유때문이다. 다행스럽게도약탈자들이얼마동안방치해놓은작은오아시스들이언제나있어왔다. 그리고이런곳에서우리는집약농업이인류를위해무엇을생산해낼수있는지를배운다. 몇가지실례들을살펴보자.

미국의대초원지대 (이곳에서는에이커당고작 7 부셀에서 15 부셀밖에안되는빈약한봄밀만을수확하고있으며, 이것조차도주기적으로일어나는가뭄이망쳐놓곤한다) 에서는, 단 8 개월동안 500 명이일해서매년 5 만명이 1 년동안먹을식량을생산한다. 최근 3 년간이루어진모든진보에힘입어한사람의연간노동 (300 일) 으로생산한수확물이제분되어서밀가루형태로시카고에출하되는데, 매년 250 명이먹을수있는양이다. 이런결과는육체노동을아주크게절약함으로서얻어진것이다. 이광활한평원에서는경운, 수확, 타작등이거의군대식으로조직되어행해진다. 쓸데없이왔다갔다하는일도없고시간낭비도없다. 모든작업이군대의열병식처럼정확하게이루어진다.

이것은대규모로행해지는조방농업이다. 이농업은땅을기름지게할방도를찾지않고자연그대로의토양에서수확을얻는다. 땅이내어줄수있는모든것을산출하고나면, 농부들은어딘가다른미개간지를찾아떠나서다시그땅을고갈시켜버린다. 하지만이곳에서는‘집약’농법도역시행해지고있다. 이영농법은이미행해지고있으며, 기계덕분에앞으로는더욱더많이행해질것이다. 이농법의목적은제한된공간을잘경작하는것이다. 즉, 땅에거름이나비료를넣고, 땅을개량하고, 집중적으로작업해서가능한가장많은수확을얻으려는목적을갖고있다.

매년이런종류의영농법이널리퍼지고있다. 프랑스남부와미국서부의비옥한대초원지대는농부들이조방농업으로에이커당평균 11 부셀에서 15 부셀의수확으로만족하는데비해, 프랑스북부에서는집약농법을통해에이커당보통 39 부셀, 심지어는 55 부셀, 때로는 60 부셀까지수확하고있다. 따라서 4 분의 1 에이커보다작은땅에서한사람이연간소비하는식량을얻을수있다.

그리고농업이집약적인것이될수록밀 1 부셀을생산하는데드는노동력도줄어든다. 사전준비작업에서기계가인간을대신해서일하고, 배수로를만들거나돌을골라내는일처럼땅에필요한개량을하게되면, 미래에는수확량이두배로늘어날것이다. 이런일이일단한번행해지면늘어난수확량은계속유지될것이다. 때로는거름도주지않고풀만매주는것만으로도, 평범한토양에서해마다많은수확을얻기도한다. 영국동남부하드포드셔의로탐스테드에서는 40 년간줄곧그런방법으로농사를지어왔다.

하지만농업에대해과장된로맨스를쓰지는말고, 에이커당 44 부셀의수확에만족하기로하자. 이정도수확을얻는데는예외적으로좋은토양이필요한것이아니고, 단지합리적인경작이필요할뿐이다. 이말이무슨뜻인지살펴보자.

파리와그근교에있는센과센에투아즈지역에사는 360 만명의주민은연간약 2 천 200 만부셀의곡물, 주로밀을식량으로소비한다. 우리의이론에따르면, 이수확량을얻기위해서는그곳의 1,507,300 에이커의땅중에서 494,200 에이커를경작해야한다.

그들이삽을들고서그만한땅을전부갈지는않으리란것은분명하다. 그러면그일에너무많은시간이들터인데, 에이커당하루 5 시간씩일해서 96 일이나필요할것이다. 차라리필요한배수로를만들어서물을빼고, 땅을평평하게고르고, 돌을발라내는일등을하는식으로한번에토양을개량하는편이바람직할것이다. 비록경작할땅전체에이런사전작업을하는데, 하루 5 시간씩 500 만일, 에이커당평균 10 일이걸린다고해도말이다.

그런 다음에 그들은 증기경운기로 땅을 갈 것이고, 이 작업을 하는데 에이커당 하루와 5 분의 3 일이 걸린다. 또 이 단쟁기로 일하는 경우에는 또 다른 하루와 5 분의 3 일이 필요할 것이다. 씨앗들은 손에 집히는 대로 가 아니라 증기선별기로 분류될 것이고, 사방으로 흘러내리는 것이 아니라 줄을 맞춰 조심스럽게 뿌려질 것이다. 그리고 좋은 환경에서 작업이 행해진다면, 이 모든 일을 하는데 에이커당 하루 5 시간씩 10 일에 약간 못 미치는 시간이 걸릴 것이다. 하지만 3년이나 4년 동안 훌륭한 경작 방법으로 1 천만 일을 작업한다면, 나중에는 예전보다 반절 만일하고도 에이커당 44 부셸에서 55 부셸의 수확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하면, 360 만명의 주민에게 빵을 제공하는데 드는 노동은 하루 5 시간씩 1 천 500 만일을 쓰게 된다. 그리고 이 작업은 강철 같은 근육이 없는 사람이나 예전에 땅에서 일해본 적이 없어도 모두가 할 수 있는 방식으로 행해질 것이다. 작업을 주도하고 모두에게 분배하는 일은 농사를 잘하는 사람들에게 될 것이다. 노동 그 자체는, 제아무리 몸이 약한 도시의 남녀라도 기계를 다루지 못할 정도는 아닐 것이다. 그리고 몇 시간의 훈련을 거치면 자기 뜻의 농사일을 해낼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파리와 같은 대도시가 지금 처해 있는 무질서 상태에서는, 상류 계급의 일하지 않는 사람들은 제외하고도 실업 상태에 있는 노동자가 약 10 만명 정도는 항상 있다. 이것을 고려한다면 우리는 다음의 사실을 알 수 있다. 지금의 제도 아래서 낭비되고 있는 노동력만 가지고 합리적인 경작을 한다면, 파리와 근교 두 지역을 포함한 300~400 만명의 주민에게 필요한 빵을 제공하기에 충분할 것이다.

되풀이 해 말하지만, 이것은 터무니 없는 꿈이 아니다. 그리고 우리는 진정한 집약농업에 대해서는 아직 제대로 이야기 하지도 않았다. 우리는 (핼렛 Mr. Hallett 씨가 3년 간 실험해서 얻은) 특별한 밀종자를 예로 들면서 의지하지도 않았다. 이 특별한 밀은 밀알 하나를 심으면 5~6 천 알을 수확할 수 있고, 때로는 1만 알까지도 생산한다는 밀종자이다. 이만한 수확량이면 120 평방 야드의 면적에서 5인 가족에게 필요한 밀을 충분히 수확할 수 있다. 이와 달리, 우리는 단지 프랑스, 영국, 벨기에 등지에서 수많은 농부들이 이미 어떤 일들을 성취해내고 있는지를 이야기했을 뿐이다. 그리고 이미 대규모의 실험을 통해 얻은 경험과 지식으로 앞으로 어떤 일들을 해낼 수 있을지를 이야기했을 뿐이다.

그러나 혁명이 없이는, 내일도 모레도 이 일이 실행되는 것을 보지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이 일은 토지 소유자들과 자본가들한테 이익을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일이 자신들에게 유익하다는 사실을 알게 될 농민들한테는 그 일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지식도 없고, 돈도 없고, 시간도 없기 때문이다.

오늘날의 사회는 아직 단계에도 달하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파리 시민이 아니라 키즈적 코뮌을 선언하도록 하자. 그러면 그들은 필연적으로 이 단계에도 달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사치스러운 장난감 (빈, 바르샤바, 베를린에서도 그것들을 잘 만들고 있다) 들을 계속 만들어내다가 빵도 없이 남겨질 위험을 무릅쓸 만큼 어리석은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이다. 더욱이 농업 노동은 기계의 도움으로 곧 모든 직업 중에서 가장 매력적이고 즐거운 일이 될 것이다.

“우리에게는 충분한 보석들과 충분한 인형 옷들이 있다.”

그들은 말할 것이다.

“지금이야말로 노동자들이 농사일을 하며 힘을 회복하고, 활기를 되찾고, 자연이 주는 감명을 되찾고, 삶의 즐거움을 찾을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기이다. 이것들은 도시변두리에 있는 어두컴컴한 공장들에서는 잊어버리고 있던 것들이다.”

중세 시대에 스위스가 영주들과 왕들을 쫓아낼 수 있었던 것은 총이 아니라 알프스의 목초지 덕분이었다. 현대 농업은 반란이 일어난 도시가 부르주아들의 연합 세력으로부터 자유로워지도록 해줄 것이다.

### III

우리는 파리와 근교 두 개 지역에 사는 350 만명의 주민이 어떻게 그 지역 땅의 3분의 1 만을 경작해서 충분한 빵을 얻을 수 있는지를 알아보았다. 이제는 가축으로 넘어가 보자.

고기를 많이 먹는 영국인들은 1년에 성인 한 사람 당 평균 220 파운드 보다 약간 적은 양의 고기를 소비하고 있다. 그 고기를 모두 쇠고기라고 가정해 보면, 황소 3분의 1 마리에 조금 못 미치는 양이다. (어린이들을 포함한) 5인 가족에게는 1년에 황소 한 마리면 비교적 충분하다. 그러면 인구 350 만명의 연간 고기 소비량은 70 만 마리가 된다.

오늘날의 목장 시스템에서는 66 만마리의 소를 기르는데 적어도 500 만에이커가 필요하다. 소한마리당 9 에이커가 필요한 것이다. 그렇지만 샘물에 의해 물이 알맞게 공급되는 초원 지대 (최근에 프랑스 남서부에서 수천 에이커가 이런 초원이다.)에서는 125 만에이커면 충분하다. 하지만 집약농업을 적용해서 사료용으로 비트를 기른다면, 그 면적의 4 분의 1인 31 만에이커면 충분할 것이다. 그리고 아랍인들처럼 옥수수를 사료로 쓰고, 사일로 목초를 저장하는 방법 (목초가 푸른 상태일 때 압착하는 방법)을 쓰면, 21 만 7 천 500 에이커만 가지 고도 사료를 생산할 수 있다.

이탈리아 밀라노 교외 지역에서는 하수도 물을 이용해서 들판에 물을 대는데, 이런 식으로 2 만 2 천에이커의 들판에서 에이커 당 두 세 마리의 소를 먹일 수 있는 건초를 수확하고 있다. 조건이 좋은 들판에서는 10 에이커 당 177 톤의 건초가 수확되는데, 이것은 젖소 36 마리의 1 년 여물이 되는 양이다. 지금의 목장 시스템에서는 소한 마리당 거의 9 에이커가 필요한 반면, 새로운 시스템에서는 9 마리의 황소나 젖소를 기르는데 2.5 에이커면 충분할 것이다. 이것들은 현대 농업의 양극단을 보여준다.

영국 해협에 있는 건지 섬에서는 경작되고 있는 총 9,884 에이커의 땅 중 거의 절반 가량 (4,695 에이커)에 곡물을 심거나 덧밭채소들을 기르고 있다. 목초지로 남아 있는 것은 단 5,189 에이커 뿐이다. 이 목초지에서 1,480 마리의 말, 7,260 마리의 소, 900 마리의 양, 4,200 마리의 돼지들을 기르는데, 양과 돼지를 계산에 넣지 않더라도 2 에이커 당 3 마리 이상의 소와 말들을 기르는 셈이다. 이곳의 땅이 비옥한 것은 해초들과 화학비료를 넣어주었기 때문이라는 건 두 말 할 나위가 없다.

파리와 그 주변에 살고 있는 350 만명의 주민으로 되돌아가면 가축들을 기르는데 필요한 땅을 지금의 500 만 에이커에서 19 만 7 천에이커로 줄일 수 있다는 결론이나온다. 그렇다면 최소한의 면적을 택하지 말고 일반적인 집약농법을 이용했을 때 나오는 면적을 채택해보자. 소를 대신하는 좀 더 작은 가축들에게 필요한 땅을 넉넉하게 더해서 가축을 기르는데 39 만 5 천에이커를 쓸 수 있도록 하자. 만약 그러고 싶다면 식량을 재배하는데 필요한 땅을 제외한 나머지 땅에서 가축 용으로 49 만 4 천에이커를 쓸 수 있게 해도 된다.

이땅을 생산적인 상태로 만들기 위해서 노동하는 날을 넉넉하게 500 만 일로 잡아보자. 그러면 1년 동안 하루 5 시간씩 2 천 만일을 노동하고 그 중 절반은 영구적인 토양 개량 작업을 하는데 쓰더라도, 우리는 필요한 빵과 고기를 확실히 얻을 수 있다. 가금류, 돼지, 토키 등에서 얻는 여분의 고기를 계산에 포함시키지 않더라도 말이다. 또 품질 좋은 채소와 과일들을 먹을 수 있는 사람들은 영국인들보다 고기를 덜 먹게 된다는 점을 고려하지 않아도 그렇다. 영국인들은 야채가 비약하게 공급되기 때문에 육류 음식으로 양분을 보충하는 사람들이다. 그렇다면, 하루 5 시간씩 2 천 만일의 노동하는 날을 파리와 주변 두 지역에 사는 각각의 주민에게 나누면 얼마나 될까? 실제로 아주 조금이다.

350 만의 인구 중에는 노동 할 수 있는 성인 남녀가 적어도 120 만 명은 있기 마련이다. 그렇다면 모든 사람에게 빵과 고기를 제공하는데 필요한 노동 일은 한 사람의 1년에 하루 5 시간씩 17 일 만일 하면 된다. 원한다면, 우유를 얻기 위해 300 만 노동일이나 그 두 배의 노동일을 추가 할 수 있다. 그렇게 해도 빵, 고기, 우유라는 3 가지 주요 식품을 얻는데는 반나절 노동으로 25 일밖에 걸리지 않는다. 사실이 정도 일하는 것은 시골에서 하는 가볍고 즐거운 일에 불과하다. 이 세 가지 식품은 주택 문제와 함께 지금 사람들의 10 분의 9 가 매일 걱정하고 있는 문제이다.

그럼에도 우리 가지치지 않고 계속 되풀이하는 말이지만 이것들은 터무니 없는 망상이 아니다. 우리는 오직 대규모 실험으로 얻었고, 얻어지고 있는 것만을 이야기하고 있을 뿐이다. 만일 사유재산에 관련된 법률들과 일반적인 무지로 인한 방해만 없다면 농업은 이런 식으로 재 조직될 수 있는 것이다.

파리 시민이 자신들이 무엇을 먹고 있고, 이것들이 어떻게 생산되는지를 아는 것이 공공의 관심사와 관련된 문제임을 이해하게 되는 날, 그리고 이 문제를 가지는 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논쟁들보다 훨씬 중요하다는 사실을 모든 사람들이 이해하게 되는 날, 그 날이 오면 혁명은 현실에서 달성될 것이다. 파리시는 인근 두 개 지역을 손에 넣고 경작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형편 없고 불충분한 음식을 사기 위해서 인생의 3 분의 1을 노동해 왔던 파리의 노동자들은 이제 식량을 직접 생산할 것이다. (만일 그런 것이 여전히 있다면) 도시를 둘러싼 성벽 안에서 몇 시간의 건강하고 매력적인 노동을 하면서 말이다.

이제 과일과 채소로 넘어가 보자. 파리 외곽으로 나가서 시장에 내다 팔 채소들을 기르는 마켓 가드너들의 재배지를 방문해보자. 학자들이 있는 아카데미들에서 몇 마일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 그들은 (경제학자들이 무시하고 있는) 놀라운 일들을 성취해내고 있다.

가령, 시장 판매용 채소 재배에 관한 책의 저자인 풍스씨를 방문한다고 가정해보자. 그는 땅이 생산해주는 것들을 전혀 숨기지 않고 예전부터 계속 책으로 펴내고 있는 사람이다. 풍스씨와 특히 그의 일꾼들은 쉬지 않고 일하고 있다. 3 에이커가 채 안 되는 (2.7 에이커) 작은 땅을 8 명이 경작하고 있다. 그들은 하루에 12 시간을 일하고, 심지어는 15 시간 동안 일하기도 한다. 말하자면, 이상적이라고 여겨지는 시간보다 3 배나 많이 일하고 있는 것이다. 이상대로라면 적어도 24 명 정도가 일해야 한다.

이에대해서 풍스씨는 아마도 이렇게 대답할 것이다. 2.7 에이커의 토지 임대료로 1년에 내야하는 총 100파운드, 병영에서 사오는 비료 대금 100파운드 때문에, 노동자들을 착취할 수밖에 없다고 말이다. 그는 틀림 없이 “착취당하고 있기 때문에, 나 역시 착취하고 있다”라고 대답할 것이다. 재배 시설을 설치하는데도 1천 200파운드가 들었는데, 분명 그 돈의 절반이 상은 공장을 운영하는 게으른 산업 귀족들이 차지했을 것이다. 사실, 이런 재배 시설은 최대한으로 잡아도 3천 일의 노동일 만들면 설치할 수 있고, 아마도 그보다 더 적은 일수가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그의 수확물을 살펴보기로 하자. 당근 약 10톤, 양파 약 10톤, 무와 작은 채소들, 6천 톤의 양배추, 3천 개의 콜리플라워, 5천 바구니의 토마토, 최상품 과일 5천 다스, 샐러드 용 잎 채소 15만 4천 개를 수확하고 있다. 간단히 말해, 가로가 109 야드이고 세로가 120 야드인 2.7 에이커의 당에서 총 123 톤의 채소와 과일이나오는 것이다. 즉, 에이커당 44 톤 이상의 수확을 올리고 있다.

하지만 한 사람이 1년 동안 먹는 채소와 과일의 양은 660파운드를 넘지 않는다. 그리고 2.5 에이커의 시장 용 채소밭은 1년 동안 어른 350명의 식탁에 채소와 과일을 풍성하게 공급할 수 있다. 그러므로 2.7 에이커를 경작하기 위해서 1년 동안 고용된 24명은, 하루에 5시간 만일하고도 350명이 먹을 채소와 과일을 충분히 생산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숫자는 최대 500명까지 늘어날 수 있다. 바꾸어 말하면, 풍스씨처럼 경작하는 경우 (그의 수확량은 이미 추월되었지만), 350명의 어른들이 각자 1년에 100시간이 좀 넘는 시간 (103시간)을 일하게 되면, 500명이 필요로 하는 채소와 과일을 생산할 수 있다.

이런 생산이 예외적인 경우가 아님을 이야기하고 싶다. 파리 시 성벽 안에 있는 2천 220 에이커의 땅에서 마켓가드너 5천 명이 이런 식으로 생산을 하고 있다. 단지 오늘 날이 마켓가드너들은 에이커당 평균 32파운드의 지대를 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고달프게 일해야 하는 처지에 빠져 있을 뿐이다.

그렇지만 누구나 증명할 수 있는 이러한 사실들은, (남아 있는 51만 9천 에이커 중에서) 1만 7천 300 에이커의 땅에서 파리와 인근 두 지역의 350만 모든 주민에게 필요한 채소들을 충분히 공급할 수 있음을 입증하고 있지 않은가? 뿐만 아니라 이 지역의 주민이 먹을 과일 까지 넉넉하게 공급할 수 있다는 사실도 증명하고 있다.

이만한 양의 채소와 과일을 생산하는데 필요한 노동의 양을 살펴보자. 지금 파리에서 경작하는 마켓가드너의 평균 노동량을 기준으로 계산해 보면, 하루 5시간씩 5천 만 노동일 (성인 남성 한 사람 당 50일)이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영국 해협에 있는 저지섬과 건지섬에서 행하고 있는 방식을 따르다면, 노동 일수를 훨씬 줄일 수 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파리의 마켓가드너들은 제철 보다 이르게 나오는 값비싼 채소와 과일들을 생산하기 위해서 아주 힘들게 일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다.

이런 재배 시스템은 보통 먹는 채소와 과일을 기르는데 필요한 것보다 더 많은 노동이 든다. 또한 이들은 터무니 없는 임대료를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재배 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게다가 파리의 마켓가드너들은 자기들 밭에 막대한 경비를 쓸 돈이 없는데도 유리, 목재, 철, 석탄에 많은 돈을 지불해야 하고, 퇴비로부터 인위적으로 열을 얻어야 한다. 그러나 온실을 설치한다면 비용이 훨씬 적게 들 것이다.

#### IV

말하자면, 마켓가드너들은 놀라운 수확량을 얻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기계처럼 일하면서 삶의 온갖 거움들을 포기하고 있다. 그러나 몹시 힘겹게 일하는 이 사람들은 흙을 ‘만들어 낼 수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줌으로써 인류에게 크나큰 공헌을 했다. 그들은 퇴비에서 나오는 열을 가지고 어린 묘종들과 묘목들에게 필요한 열을 앞서 서제 공하는 옛날 식거름 더미 온상으로 흙을 만든다.<sup>114</sup> 그리고 그들은 이런 온상용 흙을 아주 많이 만들기 때문에 일부는 팔아야 할 정도이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 밭의 흙 높이가 매년 1인치씩 높아질 것이다.

그들이 이 일을 워낙 잘해내고 있어서 (바랄 Barral은 자기가 쓴 『농업 백과사전』 중 ‘마켓가드너’를 다루는 항목에서 이 사실을 알려주고 있다), 최근 계약에서는 자신이 경작하던 땅을 떠날 때는 자기가 만든 흙을 가져갈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을 정도이다. 가구나 유리 액자 등과 함께 짐마차에 실려가는 비옥한 양토, 바로 이것이 리카도 같은 학자들의 논문에 대한 실제적인 원예가들의 대답이다. 리카도는 지대나 소작료가 땅에서 얻는 자연적인 이익을 균일하게 분배하는 수단이라고 주장한 경제학자이다. 반면 우리의 원예가들의 신조는 이것이었다.

<sup>114</sup> 거름 더미로 퇴비를 만드는 것을 뜻한다. 미생물에 의해 유기물이 분해될 때 나오는 자체적인 열로 거름 더미가 잘 분해되면 검은색 ‘퇴비’가 되는데, 크로포트킨은 이것을 “흙을 만든다”라고 표현하고 있다.

“사람이 가치가 있는 만큼 토양도 가치가 있다.”

그럼에도 파리나루 양의 마켓 가드너들은 건지 섬이나 영국의 동료들과 똑같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 3 배나 더 많은 일을 하고 있다. 산업을 농업에 응용한 건지 섬 같은 곳들에서는 아주 최근에 온실을 이용해서 흙 뿐만이 아니라 기후까지 만들어내고 있다. 50년 전에 온실은 부자들의 사치품이었다. 온실은 심심풀이 오락용으로 미국적 인식 물들을 기르는 곳이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온실 활용이 일반화되고 있다. 최근 건지 섬과 저지 섬에서는 엄청난 산업이 성장하고 있는데, 그곳 수백에 이커는 벌써 유리로 덮여 있고, 작은 농장들마다 갖추고 있는 수많은 작은 온실들은 말할 것도 없다. 런던 근교인 워킹에서도 최근 규모가 큰 유리 온실들이 많이 세워지고 있고, 영국과 스코틀랜드의 다른 몇몇 곳들에서도 그러하다.

온실은 온갖 재료들로 지어진다. 화강암으로 벽을 세운 온실에서부터 널빤지와 유리 틀로 만든 간단한 오두막 같은 온실까지 다양하다. 유리로 덮인 온실을 짓는 비용은 비록 자본가들과 중간상인들에게 지불하는 각종 터무니 없는 돈을 포함해도, 평방 야드당 3 실링 6 펜스이하이다. 대부분의 온실들은 매년 적어도 3~4개월 동안은 난방을 해주어야 한다. 그러나 전혀 난방을 하지 않는 온실 일지라도 홀륭한 결과물을 내놓는다. 물론 그런 곳에서 포도나 열대식물들을 기르지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감자, 당근, 콩, 토마토 등은 잘 기를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인간은 기후로부터 스스로를 해방시켰다. 동시에 온상 덕분에 힘든 노동 역시 피하게 되었고, 비료를 사는 비용과 작업 비용을 줄이게 되었다. 에이커당 3명이 일하고, 각자가 일주일에 60시간이하로 일을 하게 되면, 예전에는 몇 에이커의 땅이 필요했던 수확량을 아주 작은 면적에서 얻을 수 있다. 경작 방법에서 최근에 이루어진 이 모든 성취의 결과로, 도시에 사는 성인의 절반 정도가 제철에 나오는 품질 좋은 과일과 채소를 경작하는 일에 대략 하루 반나절씩 60일간 만일하면, 모든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갖가지 과일과 채소들을 무제한으로 공급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주목해야 할보다 중요한 사실이 있다. 오늘날의 온실은 유리지붕 아래에 있는 단순한 가정용 텃밭이 되어가는 경향이 있다. 온실을 이러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나무판자와 유리로 만든 가장 단순한 온실, 난방을 하지 않는 오두막 같은 온실들도 아주 놀라운 수확을 가져다 주고 있다. 가령, 4월 말에는 첫 수확으로 에이커당 500부셸의 감자를 얻을 수 있다. 그 다음에는, 여름에 유리지붕 아래의 아주 높게 유지되는 온도에서 두 번째와 세 번째 수확을 하는 식이다.

나는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실례들 중에서 가장 놀라운 것들을 내 책 『농장, 공장, 작업장』에서 이야기했다. 여기서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말하는 것으로 충분할 것이다. 즉, 저지 섬에서는 고작 한 사람의 숙련된 정원사가 포함된 34명이 온실이 설치된 13 에이커에서 재배를 하는데, 그곳에서 그들은 이 특별한 재배법으로 천 톤이하의 석탄을 써서 143 톤의 과일과 일찍 출하되는 채소들을 생산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 방법은 지금 건지 섬과 저지 섬에서 대규모로 행해지고 있으며, 수많은 기선들이 오로지 온실에서 얻은 수확물을 수송할 목적으로 영국과 건지 섬 사이를 오가며 운항하고 있다.

오늘날 우리는 똑같은 500부셸의 감자를 얻기 위해 매년 4 에이커의 땅을 파서 일구고, 심고, 기르고, 잡초를 뽑는 등의 일을 해야 한다. 반면에 온실에서는, 아마도 처음에는 온실을 세우기 위해 평방 야드당 반나절의 노동을 해야 하긴 하겠지만, 나중에는 예전에 필요했던 1년 노동량 보다 절반, 어쩌면 4분의 3 까지 절약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 말한 것들은 사실이고, 누구나 직접 증명해 볼 수 있는 결과들이다. 그리고 이 사실들은 사람이 땅을 합리적으로 다룬다면, 그로부터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에 관한 암시가 되고 있다.

## V

위에서 우리가 말한 모든 것은, 실제 실험을 이미 통과한 것을 근거로 한 논의들이다. 논밭에서의 집약 농업, 물을 공급 받는 목초지, 온실, 마지막으로 유리 덮개가 있는 가정용 텃밭은 모두 실제로 시행되고 있는 현실이다. 게다가 요즘 경작 방법들이 널리 퍼져가고 있고 보편화되는 추세이다. 이 방법들을 쓰면 더 적은 노동을 들여서 확실하게 더 많은 수확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사실, 건지 섬의 가장 단순한 유리 온실들을 연구하고 나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실히 말할 수 있게 되었다. 즉, 4월에 유리 온실에서 감자를 기르는 데 드는 노동은 대체로 노지에서 같은 양의 감자를 기를 때 필요한 노동 보다 훨씬 적게 든다는 사실이다. 노지에서 감자를 기르려면 4배나 넓은 땅을 파고, 물을 주고, 김을 매는 등의 노동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우수한 농기구나 기계를 이용해도 노동을 절약할 수 있다. 그런 농기구를 사느라고 처음에는 비용을 들여야 할지라도 말이다.

유리온실에서 보통의 채소들을 기르는 일과 관련된 종합적인 자료는 여전히 부족한 상태이다. 이재배 방법은 최근에 시작되었고, 오로지 작은 지역들에서만 행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50 여년 동안 일찍 출하되는 포도를 재배해온 방법에 관련된 자료들은 이미 갖고 있으며, 이 자료들은 아주 결정적이다.

스코틀랜드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영국 북부의 탄광 부근에서는 석탄 가격이 톤당 3 실링 밖에 안 하는데, 이곳 사람들은 오래 전부터 온실을 이용해서 포도 재배를 해왔다. 30년 전에 이 포도는 1월에 익어서 파운드 당 20 실링에 팔렸고, 나폴레옹 3세의 식탁에 오를 때는 파운드 당 40 실링에 다시 팔렸다. 오늘날에는 같은 재배 가격이 포도를 파운드 당 겨우 2 실링 6 펜스에 팔고 있다. 그는 원예 학 잡지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다. 가격이 하락하는 이유는 엄청난 양의 포도가 1월에 런던과 파리에도 착하고 있기 때문이다.

값싼 석탄 가격과 합리적인 영농 법 덕분에, 지금은 북쪽에서 생산된 포도가 남쪽으로 이동하고 있다. 이것은 보통과 일들이 남쪽에서 생산되어 북쪽으로 이동하는 방향과 정반대이다. 5월에는 포도 재배에 비용이 거의 들지 않기 때문에 영국과 저지섬에서 온 포도들은 파운드 당 8 펜스에 팔린다. 그럼에도 30년 전에 팔리던 40 실링과 마찬가지로 이 가격도 오로지 생산이 문화되었을 때에만 유지된다.

3월에는 벨기에 산 포도가 6 펜스에서 8 펜스의 가격으로 팔린다. 반면 10월에는 런던 근교의 온실에서 인공적인 난방을 아주 약간만 해서 기른 막대한 양의 포도 가스위스와 라인강 지역의 포도원에서 팔리는 것과 같은 가격으로 팔린다. 아주 싼 가격으로 팔린다는 뜻이다. 그렇지만 아직도 포도 재배에는 실제 팔리는 가격에 3분의 2 이상의 비용이 든다. 그 이유는 과도하게 높은 토지 임대료 때문이다. 그리고 제조업자들과 중간 상인들이 떼어가는 만만치 않은 시설 비용과 난방 비용도 있다.

이런 점들을 이해한다면,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도 있다. 가을에 안개가 많이 깨는 런던과 그보다 위도가 아래 인 지역에서 달콤한 포도를 먹기까지는 “거의 돈이 들지 않는다”고 말이다. 가령, 런던 근교의 우리가 살던 시골집에 잇대어서 만든 온실은, 유리와 회 반죽으로 된 길이 9 피트 10 인치, 넓이 6 피트 50 인치 크기의 볼품 없는 오두막 같은 곳이었다. 이곳은 9년 동안 계속해서 10월에 약 50 파운드의 아주 향기로운 포도를 우리에게 제공해 주었고, 수확은 주로 6년 생함부르크 종 포도나무에서 나왔다.

이 오두막 같은 온실은 비가 새어 들어 올 정도로 형편 없는 곳이었다. 밤에는 기온이 항상 바깥 기온과 같았다. 난방을 하는 경우도 단연코 없었는데, 길거리에 다난방을 하는 것 만큼이나 아무 소용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기울인 관심은 매년 30분의 시간을 들여서 포도 가지를 전지해 주고, 손수 레한대 분의 거름을 날라다가 온실 밖의 붉은 점토에 심어 진 포도나무 밑동 위에 쏟아주는 것이 전부였다.

다른 한편으로, 만약 라인강과 스위스 래만 호수가 만나는 지역에서 포도 재배에 기울여야 하는 노동의 양을 측정할 수 있다면, 그러니까 언덕들의 경사면에 수많은 돌들을 쌓아서 만든 계단식 밭, 퇴비를 운반해 와서 역시 300~400 피트 높이에 있는 곳까지 나르는 일 등을 생각해 본다면, 우리는 이런 결론을 내리게 된다. 스위스나 라인강변에서 포도를 재배하는데 들어가는 전체 노동 비용은, 런던 근교의 유리 덮개 아래서 기르는 비용보다 상당히 많이 든다고 말이다.

이 결론이 역설적으로 보일지도 모른다. 왜냐하면 포도나무는 남부 유럽에서 자라고, 그곳의 포도 재배 농부들의 노동에는 거의 비용이 안 든다는 것이 일반적인 믿음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원사들과 원예가들은 우리의 주장을 반박하기는 커녕 더욱 분명하게 확증해주고 있다. 19세기에 「영국 원예 학 잡지」의 편집자였고, 실제로 가드너였던 어떤 사람은 “영국에서 가장 유리한 재배는 포도 재배이다”라고 쓰고 있다. 알다시피 가격이 이 사실을 설득력 있게 말해주고 있다.

이런 사실들을 코뮌주의적인 언어로 옮겨보면, 우리는 확실히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다. 어떤 남자나 여자가 1년 동안 의자 기여가 시간에서 20시간을 포도 재배라는 대체로 꽤나 즐거운 몇 가지 사소한 돌봄을 해준다면, 즉 유럽의 어떤 기후든지 상관없이 간단한 유리 덮개를 해서 두 세 그루의 포도나무를 보호해 준다면, 그 사람은 가족과 친구들이 먹을 만큼 많은 포도를 딸 수 있을 것이라고 말이다. 그리고 이 사실은 포도나무 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과일나무들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코뮌은 집 약농법을 대규모로 실시할 것이다. 코뮌의 주민은 각자 1년에 대략 10시간 이상을 일하지 않고 도토 촉종이든 외래종이든 온갖 가능 한 채소들과 갖가지 텀스러운 과일들을 얻을 것이다.

사실, 위에서 이야기한 것들을 직접 실험해서 실제로 증명하는 것보다 더 쉬운 일은 없다. 경운하기 좋은 비옥한 토양 (영국 근교 워딩에서 보았던 토양)으로 이루어진 땅 100 에이커가 수많은 마켓 가든으로 전환되었다고 가정해보자. 각각의 밭들은 새싹들과 어린 묘목들을 기르기 위한 온실들을 갖추고 있다. 그리고 또 다른 50 에이커의 땅에도 온실이 지어져 있으며, 전체 작업을 조직하는 일은 실제적이고 경험 많은 프랑스의 야채 재배가, 건지섬이나 워딩의 온실원 예가들이 맡고 있다고 가정해보자.

저지섬에서 이 150 에이커를 관리하는 일에는 에이커 당 평균 3명이 유리 온실에서 일해야 한다. 즉, 1년에 약 8천 600시간의 노동이 들어간다. 이걸 기초로 하면, 150 에이커에는 약 130만 시간이 필요하다. 50명의

유능한원예가들이하루 5 시간씩노동을제공하고, 나머지일은전문원예가가아닌사람들이하게된다. 이들도 곤삼을쓰는법과식물을다루는법을배우게될것이다. 그러나우리가앞에서살펴보았듯이, 이작업으로최소한 4~5 만명이먹을과일과채소들을생산해낼수있다. 꼭필요한채소와과일들뿐만이아니라특별한날에먹는약간호사스런것들도생산해낼수있다. 이사람들중에 1 만 3 천 500 명의어른이기꺼이텃밭에서일하려고한다고가정해보자. 그리고각자는 100 시간을 1 년에걸쳐서일할수있다. 이정도의노동시간은아름다운정원에서친구들과아이들과함께보내는유쾌한오락시간이될것이다. 그리고그정원은아마도전설속에나오는세미라미스<sup>115</sup> 여왕의정원보다더아름다울것이다.

이것이바로우리가작성해야할균형잡힌노동의대차대조표이다. 오늘날우리에게부족한과일을실컷먹을 수있도록하기위해서, 그리고채소들을풍성하게먹기위해서말이다. 오늘날주부들은신중하게이런과일과채소들을가족들에게나눠주고반페니까지꼼꼼히계산해야하지만, 결국그돈은자본가들과지주들을부유하게 해줄뿐이다. 다만인류가그것을‘할수있다 (CAN)’는점을자각하기만한다면, 그리고그자각이인류에게‘할것이다 (WILL)’는힘을부여해줄수만있다면얼마나좋을까! 더불어인류가정신적인비겁이야말로지금까지모든혁명을난파시켜온암초라는사실을알기만한다면얼마나좋을까!

## VI

우리는사회혁명이일어나기전에새로운지평이열리는것을쉽게감지할수있을것이다. 우리가혁명을이야기할때마다, 먹을것이부족한자기아이들을바라보던노동자들의얼굴은어두워지고, 이렇게묻는다.

“빵에대해서는어떻게생각하시오? 모든사람이먹고싶은만큼먹는데도빵이충분하겠소? 만일반동세력의무지한도구가될농민들이우리도시를굶주리게만든다면, 마치 1793 년프랑스에서블랙밴드<sup>116</sup>들이그랬던것처럼우리를굶주리게만든다면, 어떻게해야합니까?”

그들이맘대로무슨짓이든지하라고내버려두자. 대도시들은그들없이도살아나갈수있어야할것이다. 그리고오늘날작은작업장과공장들에서거의질식상태로노동하고있는수많은노동자들이자유를되찾게되는날에는무슨일을하게될까? 혁명후에도그들이계속공장에갇혀있을것인가? 다른것으로대체할방법도없는상태에서비축해놓은식량과곡식들이바닥을드러내고, 고기가부족해지고, 채소들도구경하기어려워지고있음을아는데, 그들이수출용사치품들이나계속만들고있을까?

분명히아닐것이다. 그들은도시를떠나논밭으로갈것이다! 우리가운데가장연약한사람도기계의도움을 받으면서온힘을다해일할것이다. 그리고그들은우리의제도와사상에혁명을가져왔듯이예전에노예상태였던경작방법에도혁명을가져올것이다. 수백에이커의땅이유리온실로뒤덮일것이고, 섬세한손을가진남자와여자들은어린식물들이잘자라도록돌볼것이다. 또다른수백에이커는증기경운기로땅을갈것이고, 거름을넣어땅을개량하거나, 바위를분쇄해서인위적으로만든흙을넣어서땅을비옥하게만들것이다.

이따금씩노동을하는행복한무리들은실험을하고일을하면서이땅을농작물들로뒤덮을것이다. 그들은농업을잘아는사람들의안내를부분적으로받겠지만, 무엇보다도긴잠에서깨어나서모든사람의행복이라는밝은횃불에환히빛나는민중의위대하고실천적인정신으로그런일들을할것이다.

그리고 2~3 개월이지나서일찍수확하는것들은가장절실하게필요한사람들에게주어질것이고, 그다음에는민중에게식량을제공할것이다. 그렇게나오랜세기동안기다려온민중은최소한의배고픔을달랠수있을것이고, 나중에는원하는만큼먹게될것이다. 그러는동안민중속에있는재능있는사람들, 반란을일으키고부족한것이무엇인지알고있는나라의재능있는사람들은새로운경작방법들을실험하게될것이다. 이방법들은우리가이미흘깃살펴본것들이며, 이때필요한것은오로지그것을보편화시킬수있는경험이라는세례뿐이다.

빛에대한실험이이루어질것이다. 이빛은시베리아동북부야쿠츠크시의위도보다낮은곳에서도 45 일만에보리가거의익게만드는알려지지않은재배요인이다. 집중시키거나인공적으로만든빛은식물의성장을촉진시키는일에서열과경쟁하게될것이다. 미래에무쇼<sup>117</sup> 같은사람은태양광선으로움직이는기계를발명해서활용할것이다. 그래서사람들은지하깊은곳에있는석탄에저장된태양열을더이상애써구할필요가없을것이

<sup>115</sup> 바빌론을처음세웠다고전해내려오는기원전 9 세기아시리아의여왕 (Semiramis). 미모와지혜와호색으로유명하다.

<sup>116</sup> 프랑스대혁명후식량등을매점매석했던투기자들집단.

<sup>117</sup> 프랑스의물리학자 (Mouchot, 1825-1911) 로태양열실험을했다.

다. 사람들은 미생물을 배양해서 흙을 촉촉하게 유지하는 실험을 할 것이다. 이것은 엊그제 막 생각해 낸 합리적인 아이디어로, 이 작은 생명체들을 토양 속에 살게 해서, 실뿌리에 필요한 양분을 공급하고, 토양의 구성 요소들을 분해하고 식물이 흡수하게 하려는 아이디어이다.

사람들은 실험을 할 것이다. 하지만 여기서 이야기를 멈추도록 하자. 그렇지 않으면 공상의 영역으로 들어갈지도 모르니까 말이다. 이미 사실로 인정된 현실 세계에 머무르도록 하자. 지금까지 말한 경작 방법들은 이미 활용되고 있고, 대규모로 적용되고 있는 중이며, 산업 경쟁에서 벌써 승리를 거두고 있다. 그러므로 이런 방법들을 이용해서 우리는 유쾌한 노동에 대한 보답으로 편안함과 취미 생활을 즐길 수 있을 것이다. 최근의 과학적 발견들이 우리에게 힐끗 보여 준 방법들 가운데 무엇이 실제로 쓰일 수 있을지는 가까운 미래에 알게 될 것이다. 지금은 새로 운 길을 열어두는 것으로 그치도록 하자. 이 길은 사람의 필요와 그것을 충족시키는 방법들에 대한 연구이다.

혁명에 걸여되어 있을지도 모르는 유일한 것은 대담한 진취 정신이다. 젊은 시절에 벌써 편협한 마음을 갖게 되고, 나이가 들어서는 예전 습관의 노예가 된 마음을 지닌 우리는 도무지 대담하게 생각할 줄을 모른다. 그래서 어떤 새로운 사상이 들려오면, 용감하게 자기 의견을 말하기 전에, 우리는 곰팡내나는 책들을 뒤지면서, 옛대 가들이 그 주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했는지를 알아내려고 한다. 만약 대담한 생각과 진취적인 사고가 혁명에 부족하지만 않는다면, 식량 문제에서 실패하게 되는 일은 없을 것이다.

프랑스 대혁명의 모든 위대한 날들 중에서 가장 아름답고 가장 위대한 하루는, 프랑스 전역에서 파리로 온 대표자들이 '연맹축제'를 준비하기 위해서, 샹드마르스 광장에 모여 삽으로 땅을 평평하게 고르던 날이었다. 그 날 프랑스는 하나였다. 새로운 정신으로 활기를 얻게 된 프랑스는 땅에서 함께 모여 작업하면서 미래에 대한 비전을 보았다.

그리고 해방된 사회가 자신이 하나임을 발견하고, 지금까지 그들을 분열시켜온 증오와 억압을 없애 버리게 되는 일도 다시금 땅에서 모두 함께 일하면서 일 것이다. 그때부터는, 사람의 에너지와 창조력을 백배로 증진시키는 무한한 힘인 연대감을 자각할 수 있게 된 새로운 사회는 젊음의 모든 활기로 미래를 쟁취하기 위해 전진해 나갈 것이다.

사회는 알지도 못하는 구매자들을 위해서 생산하는 것을 그만둘 것이고, 충족되어야 할 욕구들과 취미들을 사회한 가운데서 찾아낼 것이다. 이런 일들을 하는 사회는 모든 구성원들 각자에게 삶과 안락을 아낌 없고 공평하게 보장할 것이다. 마찬가지로 사회는 자유롭게 선택하고 자유롭게 성취할 수 있는 일을 함으로써 얻는 도덕적인 만족감,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삶을 침해하지 않으면서 살아가는 기쁨 역시 보장할 것이다.

연대감에서 태어난 새롭고 대담한 정신에 영감을 받은 모든 사람들은, 지식과 예술적 창조라는 고상한 기쁨들을 쟁취하기 위해서 함께 전진해 나갈 것이다. 이런 정신으로 고취된 사회는 내부의 불화나 외부의 적들을 두려워 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사회는 과거의 연합 세력에 대해 새로운 조화로움으로 맞설 것이다.

즉, 각자의 진취 정신과 민중의 재능에 대한 강성에서 생겨난 대담함으로 그들과 맞설 것이다. 저항 할 수 없는 이런 힘 앞에서는 '음모를 꾸미는 왕들'도 무력하게 될 것이다. 이 힘 앞에 무릎을 끓는 일 말고 그들에게 아무 것도 남은 게 없을 것이다. 그리고 그들 스스로도 인류라는 마차에 매달려서 사회 혁명으로 새롭게 열린 지평선을 향해 달려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아나키스트도서관 (Korean)

포트르알렉세예비치크로포트킨  
빵의쟁취

[kr.theanarchistlibrary.org](http://kr.theanarchistlibrary.org)